

2014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일 시 2014. 12. 5(금) 13:00~17:00

장 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중회의실

주 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발표대회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13: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개회사: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 및 조사개요: 박인호(부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14:00~15:00	<p>〈제 1세션〉 가구 내 식품 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분석 : 이계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식품류별 구매 빈도에 따른 가정 내 식생활 행태 분석 : 김성용(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1인 가구의 유형별 식품소비행태 분석 : 박재홍(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5:00~15:10	휴식
15:10~15:50	<p>〈제 2세션〉 외식 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 소비행태분석 : 김태희(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 외식 소비행태와 식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 정유경(세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15:50~16:30	<p>〈제 3세션〉 식품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소비자의 식품 정책 인식 : 진현정(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안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와 식품정책 요구의 차이 분석 : 유현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16:30~17:00	<p>〈토론 및 질의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목 차

•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 및 조사개요	1
박인호(부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제 1세션> 가구 내 식품 소비	
•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분석	15
이계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식품류별 구매 빈도에 따른 가정 내 식생활 행태 분석	53
김성용(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1인 가구의 유형별 식품소비행태 분석	75
박재홍(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제 2세션> 외식 소비	
• 외식 소비행태분석	119
김태희(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 외식 소비행태와 식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137
정유경(세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제 3세션> 식품 정책	
• 국내 소비자의 식품 정책 인식	169
진현정(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안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와 식품정책 요구의 차이 분석	193
유현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부록> 식품소비행태조사 조사표	217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 및 조사개요

박 인 호

(부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 및 조사개요

2014.12.5

박인호

부경대학교

목차

조사설계
표본설계
조사내역/결과
자료분석

조사설계방향

기본방향

- 반복조사를 통한 트렌드 추정의 가능성 제고

세부방향

- 특성별 가구 구성원 응답자의 안정적 확보
 - 청소년 가구원 응답자 확대
 - 고령자 가구원 응답자 축소
- 조사품질제고

3

표본설계

혼합표본 및 추정

- 모집단의 순변동은 물론 횡단면을 대표할 혼합표본 $s = s_a \cup s_b$ 사용
- 표본 s_a 는 기존 조사구 중 일부($\frac{2}{3}$) 및 표본가구 10개 추출
- 표본 s_b 는 청소년수 비례 조사구 확률추출 및 표본가구 10(+5) 추출
- 혼합추정: 혼합계수(λ)를 이용한 두 표본 추정량 선형결합

$$p_c = \lambda p_a + (1 - \lambda) p_b$$

4

표본설계

혼합표본 및 추정 (계속)

- 반복조사의 순변동 분산

$$V(p_1 - p_2) = v(p_1) + v(p_2) - 2 \text{cov}(p_1, p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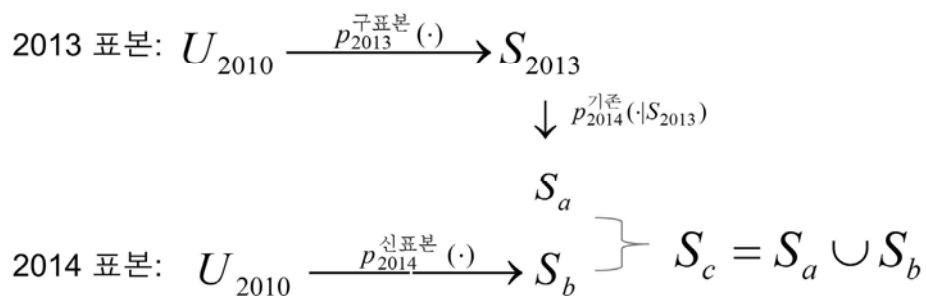
- 연속한 두 조사시점에 대해 일정개수의 동일개체를 반복 조사하여 순변동 추정의 정도수준을 낮출 수 있음
- 독립표본을 사용한다면

$$V(p_1 - p_2) = v(p_1) + v(p_2)$$

5

표본설계 (계속)

혼합표본 구성



6

표본설계 (계속)

모비율 추정량 상대표준오차의 예측식

- 혼합표본의 독립성과 설계효과모형식(*deff*)을 적용
- 모비율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cv*)에 대한 예측식 유도

$$cv(p_\gamma) = \frac{\sqrt{v(p_\gamma)}}{p_\gamma} \stackrel{p_\gamma=0.5}{=} \sqrt{\frac{deff(p_\gamma)}{m_\gamma}} \quad (\gamma = a, b)$$

$$deff(p_\lambda) = v(p_\lambda) / v_{srs}(p_{\lambda, srs}) = f(\text{층화, 집락, 가중치})$$

$$v(p_c) = \lambda^2 v(p_a) + (1 - \lambda)^2 v(p_b)$$

7

표본설계 (계속)

권역별 가구주 특성비율의 상대표준오차 예측

권역	(기존)표본 s_a			(신규)표본 s_b			혼합표본 $s_a \cup s_b$			
	가구	CV	설계 효과	가구	CV	설계 효과	혼합계수	가구	CV	설계 효과
수도권	473	6.8%	2.1753	473	7.2%	2.4291	0.5276	945	4.9%	2.2952
충청권	231	9.8%	2.2234	231	10.1%	2.3709	0.5161	462	7.0%	2.2948
전라권	270	9.5%	2.4388	270	9.8%	2.6172	0.5176	540	6.8%	2.5249
대경권	189	12.1%	2.7495	189	12.3%	2.8756	0.5112	378	8.6%	2.8111
경남권	275	9.3%	2.3670	275	9.7%	2.5659	0.5202	549	6.7%	2.4625
강원권	108	16.4%	2.9224	108	16.9%	3.0685	0.5122	216	11.8%	2.9937
전국	1,545	4.2%	2.6760	1,545	4.3%	2.8098	0.5122	3,090	3.0%	2.741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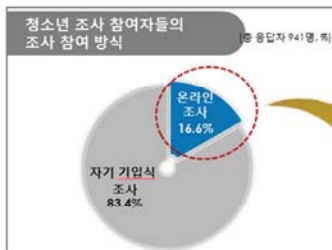
조사내역

조사수행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조사기간: 2014년 5월22일~7월30일
- 조사모드: 주구입자는 면접조사 (PAPI)
성인/청소년은 자기기입조사(유치조사)
- 가구구성원: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 동거하고 있는 13~74세의 직계 가족 및 모든 친/인척을 치침
- 청소년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온라인 조사**도 선택 가능하게 함
- 참여조사원: 총 223명/면접원 당 최대 3.5개 조사구 담당
- 평균 면접시간: 주구입자 45분, 성인 30분, 청소년 20분
 - 청소년 온라인조사: 23분 (중학교 27분, 고등학교 21분)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from the survey system. The left screenshot displays the 'Survey Method' (조사방법) section, detailing the use of PAPI for the main respondent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adults and adolescents. The right screenshot shows a 'Questionnaire Design' (조사문항 설계) table, which lists various survey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response options, organized by demographic and attitudinal factors.

조사내역 (계속)



		청소년 전체	조사 참여 방식	
			온라인 조사로 참여	설문지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참여
(Base)		(941)	(156)	(785)
성별	남성	<div></div> 51.1	57.1	49.9
	여성	<div></div> 48.9	42.9	50.1
연령	중학생	<div></div> 48.5	46.2	48.9
	고등학생	<div></div> 51.5	53.8	51.1
지역	수도권	<div></div> 36.2	37.2	36.1
	충청권	<div></div> 15.7	16.7	15.5
	호남권	<div></div> 13.8	12.8	14.0
	경북권	<div></div> 11.2	10.3	11.3
	경남권	<div></div> 16.4	16.7	16.3
	강원권	<div></div> 6.7	6.4	6.8

조사결과

조사개체별 응답률 및 청소년 응답자수 비교

조사개체	기존표본	신규표본	2014	2013
조사구	95.3% (375)	95.5% (285)	(660)	85.0% (515)
가구	51.1% (1,931)	62.1% (1,403)	(3,334)	52.7% (3,018)
1인 비중	20.0%	11.5%	16.4%	28.9%
성인	85.5% (3,597)	84.0% (2,714)	(6,311)	(5,194)
청소년 가구	88.5%	99.5%		75.5%
가구 내 - 청소년	91.2%	98.1%		
실제 청소년 수	439	502	941	342
예상 청소년 수	415	302	717	663
실제/예상 비(%)	105.8%	166.2%	131.2%	51.6%

11

조사결과 (계속)

가구주 연령 비교

가구주연령	2014년	2013년
30대 이하	17.1%	18.3%
40대	29.5%	18.4%
50대	24.5%	19.4%
60대 이상	28.8%	43.9%
전체	100.0%	100.0%

- 요약: 40-50대 주구입자가 증가하고 60대 이상이 감소함

12

조사결과 (계속)

권역별 응답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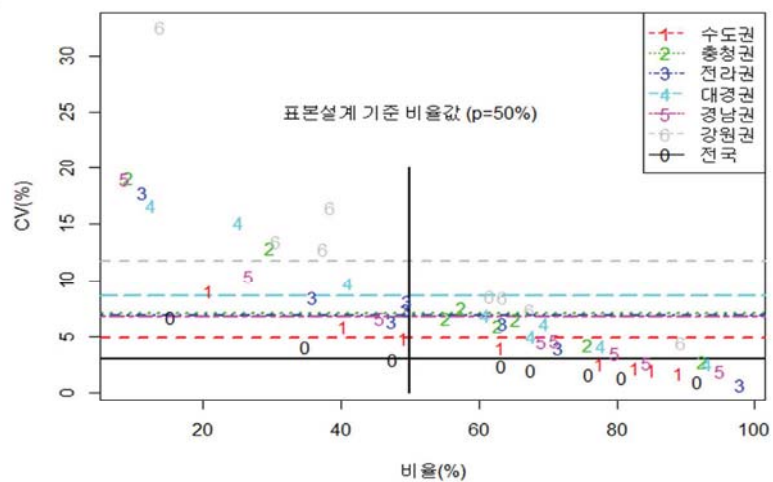
권역별	응답표본			예측표본			성과율		
	기존표본	신규표본	합계	기존표본	신규표본	합계	기존표본	신규표본	합계
수도권	614	495	1,109	473	473	945	30%	5%	17%
충청권	326	175	501	231	231	462	41%	-24%	8%
호남권	352	230	582	270	270	540	30%	-15%	8%
대경권	188	169	357	189	189	378	-1%	-11%	-6%
동남권	337	225	562	275	275	549	23%	-18%	2%
강원권	114	109	223	108	108	216	6%	1%	3%
전국	1,931	1,403	3,334	1,545	1,545	3,090	25%	-9%	8%

- 기존표본 조사는 용이하였으나, 신규표본 조사는 다소 어려움

13

조사결과 (계속)

정도수준 평가



- 조사결과는 표본설계의 목표정도를 만족함

14

자료분석

가중치 산출

- 조사개체와 표본종류별로 가중치 산출
- 표본가중합이 모총합의 불편추정량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산출
 - 표본설계에 따른 개체별 불균등 포함확률 구조 반영
 - (단위)무응답에 대한 보정
 - 보조정보를 이용한 표본추정량과 모집단 총합의 일치
- 마지막으로 혼합표본 사용에 따른 혼합표본 가중치 계산
 - 10~15개 주요변수에 대한 정도수준을 고려한 최적 혼합비 산출
 - 보조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w_{hik}^{CB} = \begin{cases} \lambda w_{ahik} & hik \in s_a \\ (1-\lambda)w_{bhik} & hik \in s_b \end{cases}$$

15

자료분석 (계속)

혼합계수 산출

$$\lambda = \frac{\sum_{q=1}^Q \left(\frac{v(p_{qb})}{v(p_{qa}) + v(p_{qb})} \right) \left(\frac{m_a}{deff_{aq}} + \frac{m_b}{deff_{bq}} \right)}{\sum_{q=1}^Q \left(\frac{m_a}{deff_{aq}} + \frac{m_b}{deff_{bq}} \right)}$$

관련문항	관련특성	특성기준
A1	식료품 구입 빈도	주 1회 이상
A4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 여부	구입
A9	친환경 식품 구입 여부	구입
A13	기능성 식품 섭취 여부	먹음
B1	쌀 구매 빈도	2~3개월 1회 이상
C1	채소류 조달 빈도	주 1회 이상
C5	과일류 조달 빈도	주 1회 이상
C10	임산물 조달 빈도 여부	조달
G1	동거 중인 가구원들과의 외식 여부	외식
G8	배달/테이크아웃에 의한 가정식사 여부	해당
A4	지난 일주일 간 식사 시간의 규칙성 여부	규칙적 식사
A6	현재 식생활 만족도	만족
B1	우리나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의견	안전함
BA2	체중 조절(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여부	관심
BA4	규칙적인 운동 여부	운동함

동일한
표본설계
채택시
 $\lambda = \frac{1}{2}$

16

자료분석 (계속)

$$y_{hi}^{(R)} = \frac{1}{\hat{M}} \left(y_{hi} - \frac{\hat{Y}}{\hat{M}} \right)$$

분산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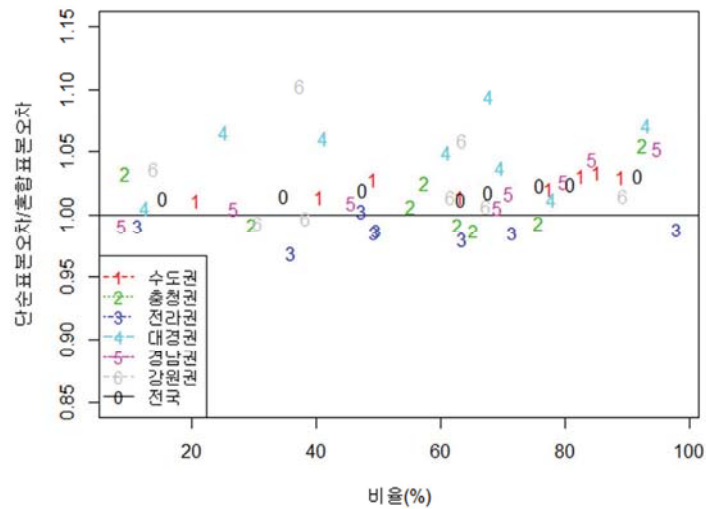
- 단순추정 $v_L(\hat{\bar{Y}}) = v(y_{hi}^{(R)}) = \sum_{h=1}^H \frac{1-f_h}{n_h(n_h-1)} \sum_{i=1}^{n_h} \left(y_{hi}^{(R)} - \frac{1}{n_h} \sum_{i=1}^{n_h} y_{hi}^{(R)} \right)^2$
- 혼합추정 $v_{\lambda L}(\hat{\bar{Y}}) = \lambda^2 v_L(\hat{\bar{Y}}_a) + (1-\lambda)^2 v_L(\hat{\bar{Y}}_b)$

변수	범주	비율	표준오차		
		$\hat{\bar{Y}}$ (%)	$\sqrt{v_{\lambda L}}$ (A)	$\sqrt{v_L}$ (B)	(B-A)/A (%)
Q36 식료품 구매빈도	매일	5.0	0.515	0.515	-0.14
	주 2-3회	38.8	1.282	1.283	0.06
	주 1회	39.0	1.308	1.328	1.54
	2주일에 1회	13.9	0.941	0.983	4.48
	1달에 1회	4.1	0.525	0.533	1.62
	그보다 드물게	1.2	0.263	0.273	3.49

17

자료분석 (계속)

분산추정 (계속)



18

자료분석 (계속)

트렌드 정의와 및 요소분해

- 두 연속시점 간 평균추정량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변동, 즉 트렌드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영역구성의 요소들로 구분하여 해석 가능

$$\begin{aligned}\Delta_{12} &= \bar{Y}_{\text{시점}(2)} - \bar{Y}_{\text{시점}(1)} \\ &= \sum_{h=1}^H W_{1h} \Delta_{\bar{Y},h} + \sum_{h=1}^H \Delta_{W,h} \bar{Y}_h + \sum_{h=1}^H \Delta_{W,h} \Delta_{\bar{Y},h}\end{aligned}$$

- $W_h, \Delta_{W,h}$ = 구성영역 h 의 비중과 시점 간 차이
- $\bar{Y}_h, \Delta_{\bar{Y},h}$ = 구성영역 h 내 평균과 시점 간 차이

19

자료분석 (계속)

트렌드 요소분해 (계속)

- 주구입자의 친환경식품 구매에 대한 권역별 순변동 분해

영역 (h)	W_{1h}	W_{2h}	\bar{Y}_{1h}	\bar{Y}_{2h}	Δ_{W_h}	$\Delta_{\bar{Y}_h}$	$W_{1h} \Delta_{\bar{Y}_h}$	$\Delta_{W_h} \bar{Y}_{1h}$	$\Delta_{W_h} \Delta_{\bar{Y}_h}$
수도권	0.590	0.553	46.6	40.4	-0.037	-6.217	-3.670	-1.725	0.230
충청권	0.068	0.093	23.7	29.7	0.025	5.999	0.411	0.584	0.147
호남권	0.112	0.120	36.1	36.7	0.008	-0.116	0.013	-0.293	0.001
대경권	0.065	0.077	22.9	25.0	0.012	2.150	0.140	0.264	0.025
동남권	0.128	0.121	30.4	26.7	-0.007	-3.782	0.485	-0.222	0.028
강원권	0.036	0.036	41.4	38.4	-0.000	-3.055	0.109	-0.001	0.000
전국	1.000	1.000	37.6	34.9		-2.784	-3.726	-0.805	0.429

20

제1세션

가구 내 식품 소비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분석

이 계 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가구 내 식품구입 및 소비행태 분석

이계임, 반현정, 허성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I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II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III 채소, 과일 구입과 소비 행태

IV 축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V 수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VI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VII 식생활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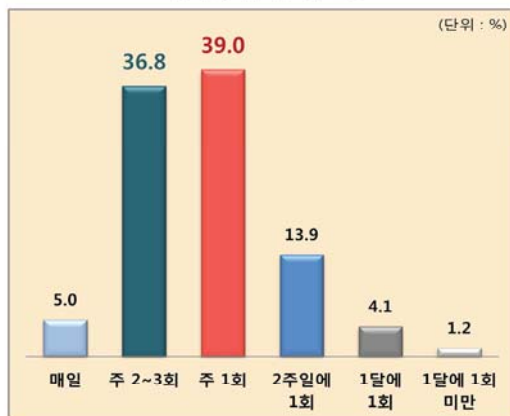
1-1. 식품 구입 및 지출 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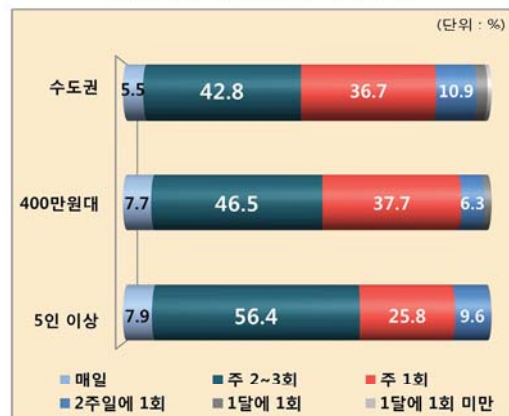
구매 빈도

- 가구의 식품 구입빈도는 **주 1회(39.0%)**가 가장 많고, **주 2~3회 이상**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가 **36.8%**
-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 2~3회** 구입비중이 42.8%로 높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식품을 **주 2~3회 이상** 자주 구입하는 가구 증가

[전체 구매 빈도]



[응답자 특성별 구매 빈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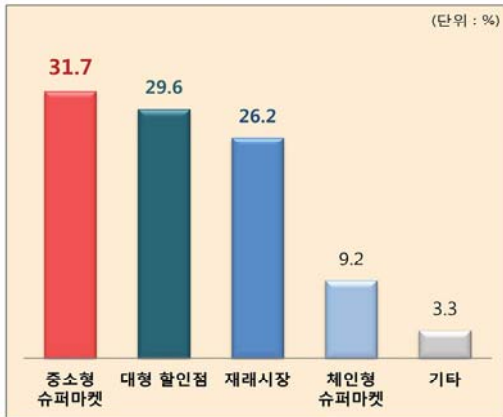
1-1. 식품 구입 및 지출 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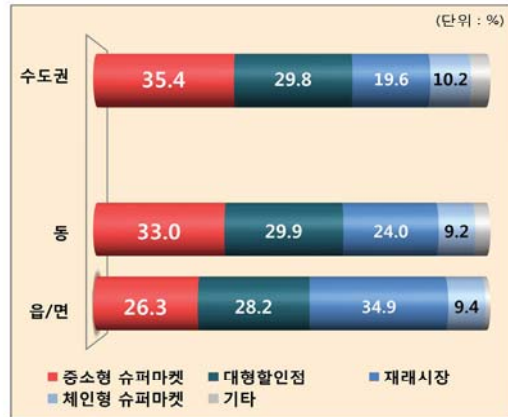
구매 장소

- 주부들이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재래시장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35.4%), 대형할인매장(29.8%)의 이용 비중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재래시장 이용 비중이 34.9%로 높음

[전체 구매 장소]



[지역별 구매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1-1. 식품 구입 및 지출 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구매 장소

-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낮거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대형할인점 이용 비중 높음

[응답자 특성별 구매 장소]

		(단위 : %)				
구분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재래시장	체인형 슈퍼마켓	기타
전체		31.7	29.6	26.2	9.2	3.3
가구주 연령별	39세 이하	34.7	35.5	12.8	10.8	6.3
	40~49세	33.1	33.8	21.3	9.4	2.4
	50~59세	28.8	30.2	28.0	10.4	2.5
	60~69세	30.0	21.5	39.5	6.4	2.6
	70세 이상	30.1	19.9	41.9	6.2	1.9
가구주 교육 정도별	중졸 이하	30.3	20.1	40.8	7.4	1.5
	고졸	32.3	29.5	26.8	8.3	3.1
	전문대졸 이상	31.7	36.1	16.4	11.0	4.6
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33.7	18.6	38.6	6.3	2.8
	100만원 대	31.8	24.5	30.5	9.7	3.4
	200만원 대	31.8	32.5	22.6	9.8	3.3
	300만원 대	31.4	35.2	21.6	9.3	2.5
	400만원 대	28.1	35.0	23.1	8.8	5.1
	500만원 대	31.8	35.3	18.4	11.7	2.9
	600만원 이상	30.3	36.8	17.3	11.4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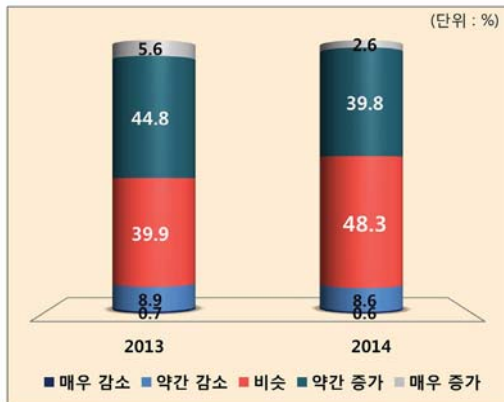
1-1. 식품 구입 및 지출 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지출액 변화와 전망

- **식품 소비 지출액**은 2013년에 비해 **비슷**(2013: 39.9%→2014: 48.3%)하다는 평가가 많고, **증가**(2013: 50.4%→2014: 42.4%)는 감소
- **1년전 식품 물가수준을 100**이라 할 때, **체감 장바구니 물가 수준**은 2013년 128.5 에서 2014년 114.4로 감소
- **내년도 전망**은 **올해와 비슷하거나**(57.7%), 약간 상승(32.1%),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9.4%p 증가

[전년 대비 식품 소비 지출액 증감]



[체감 장바구니 물가 수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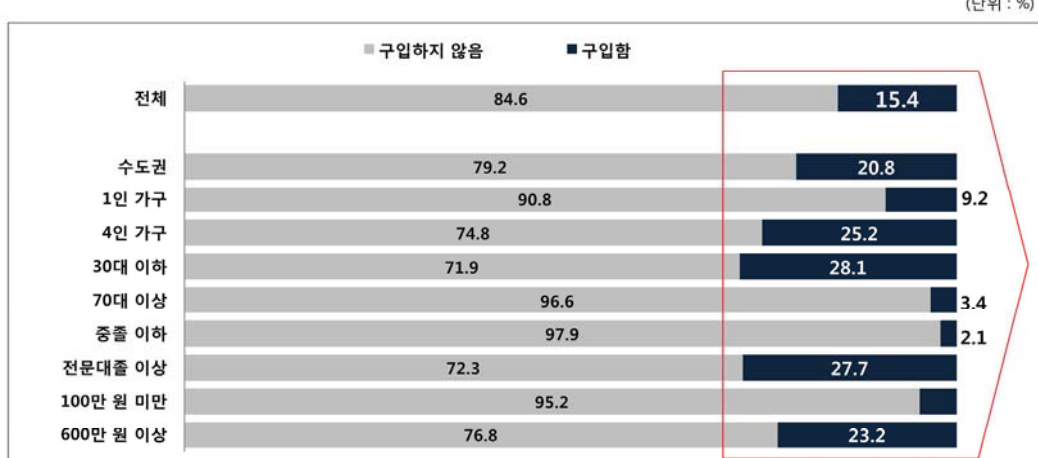
1-2. 인터넷 구입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구입 여부

- 식품 구입 시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는 2013년 15.8%와 비슷한 수준인 **15.4%**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식품 구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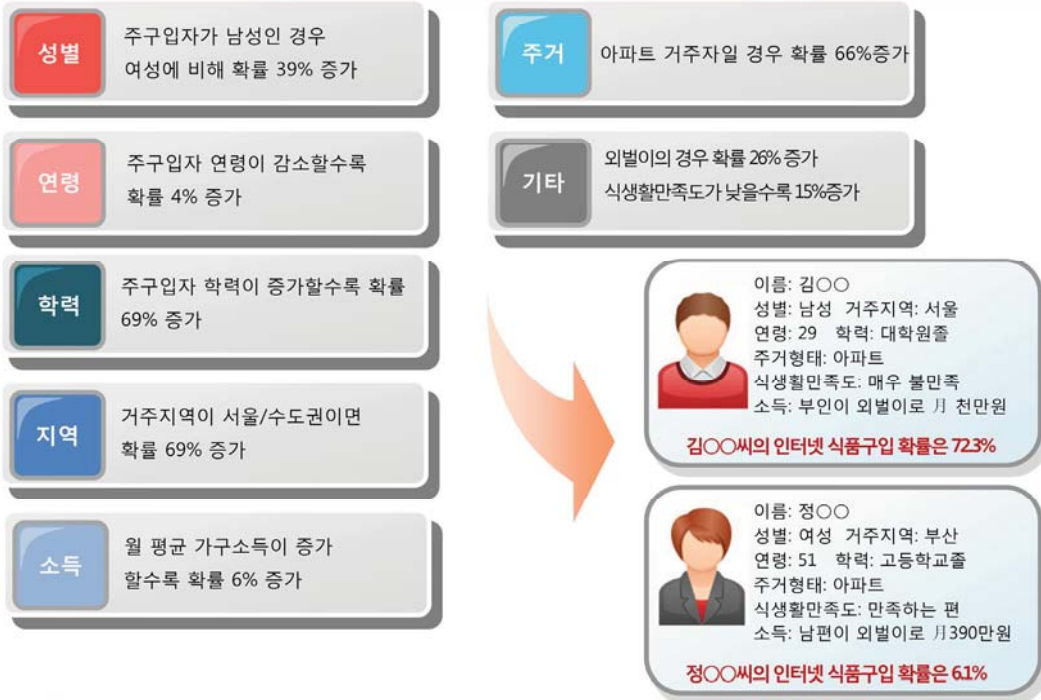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1-2. 인터넷 구입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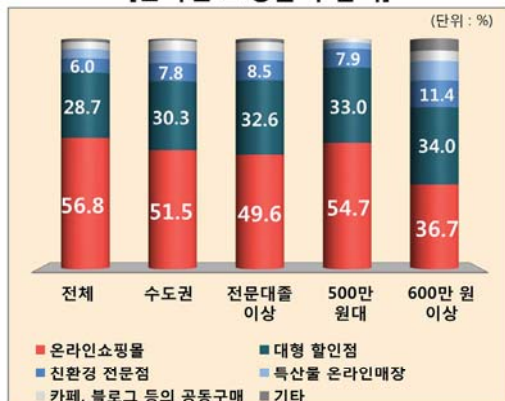
1-2. 인터넷 구입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구입처

-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중이 **56.8%**, **대형할인점의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28.7%**
- 대형할인점 인터넷 구입이 2013 대비 5%p 확대: 수도권, 가구주 전문대졸 이상, 고소득 가구도 비슷 양상
-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주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배달을 해 주어서' 등임

[온라인 쇼핑몰 구입처]



[구입 이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1-2. 인터넷 구입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만족도

- 인터넷 구입 식품과 친환경식품 구입 만족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인터넷 구입 식품 가격 및 품질만족도는 각각 72.2점, 70.6점으로 **친환경 식품 대비 높음**
- 친환경식품은 가격에 비해 품질 만족도 높게 평가

[인터넷 구입 만족도]



[친환경식품 구입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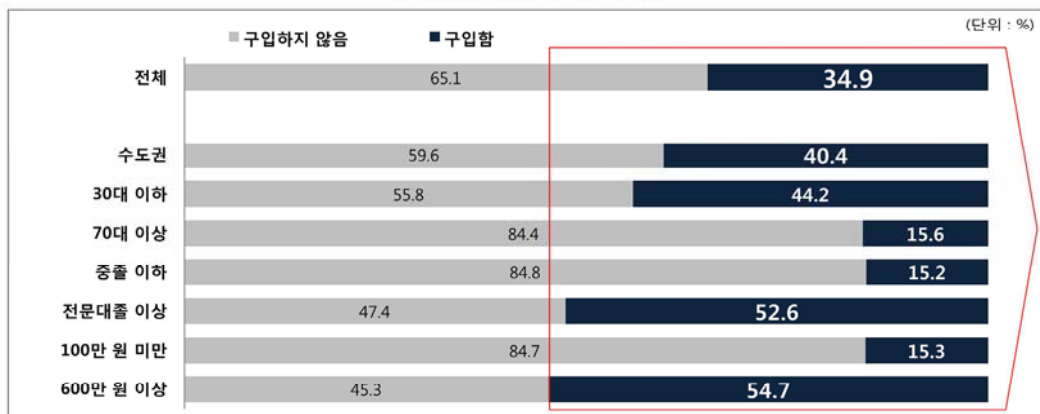
1-3. 친환경 식품 구입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구입 여부

- 식품 구입 시 평소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는 **34.9%**, 응답 가구의 **10% 정도는 주 1회 이상** 친환경 식품 구입
- 수도권 **40.4%**,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와 가구주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 **50% 이상**

[친환경 식품 구입 여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1-3. 친환경 식품 구입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구입처

- 친환경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이 가장 많으며,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친환경 식품 전문점, 체인형 슈퍼마켓 순임
- 고학력가구, 고소득가구에서는 친환경 식품 전문점 구입비중이 20% 이상

[친환경 식품 구입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1-4. 기능성 식품 구입행태

1. 전반적인 식품 구입 행태

소비 가구

- 기능성 식품을 소비하는 가구는 47.5%, 동지역(48.3%), 고소득가구(63~65%), 고학력(52.0%), 맞벌이(57.6%) 가구 높은 소비 비중
- 소비가구의 67.4%는 비타민 등 특정성분 식이보충제, 42.5%는 홍삼·인삼 소비, 2013년 대비 건강즙, 엑기스 소비 가구는 5.4%p 증가

[기능성 식품 소비 가구]



[구입 종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2.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조달주기와 조달방법

2.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 조사가구의 절반 정도(43.6%)가 2~3개월에 1회 쌀(현미포함)을 조달하나 1년에 2~3회 구입하는 가구가 2013년 20.6%에서 2014년 25.7%로 증가
- 조사 가구의 61.3%는 직접 구입, 일부(14.2%) 또는 전부(20.2%)를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조달

[곡물 조달주기]



[곡물 조달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2-2. 확인 정보

2.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 주부들이 쌀 구입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에 대한 조사결과(1,2,3위 가중평균) '**가격(25.6%)**', '**생산 지역(18.5%)**', '**원산지(16.6%)**', '**쌀의 품종(12.0%)**' 등으로 확인됨
-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은 쌀의 품종을 고려하는 비중이 14% 정도로 높은 반면, 40대 이하는 도정날짜 확인 비중 높음
- 가구 소득수준별로 월평균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도정(가공) 날짜, 친환경인증표시를 확인하는 비중이 증가

[주요 확인정보]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가격	생산 지역	원산지	쌀의 품종	친환경 인증 여부	도정 날짜	기타
가구주 연령별	30대 이하	27.7	18.3	15.6	11.2	3.7	14.2	9.3
	40대	23.6	18.2	15.9	9.8	5.9	12.3	14.2
	50대	23.4	19.8	15.1	13.7	4.7	10.7	12.4
	70대 이상	28.4	16.3	18.6	14.2	1.4	7.0	14.0
소득별	400만 원대	22.6	19.3	16.0	10.6	7.0	12.3	12.4
	500만 원대	20.2	19.3	15.6	14.3	5.2	12.8	12.5
	600만 원 이상	19.0	19.8	13.9	14.4	8.6	14.3	1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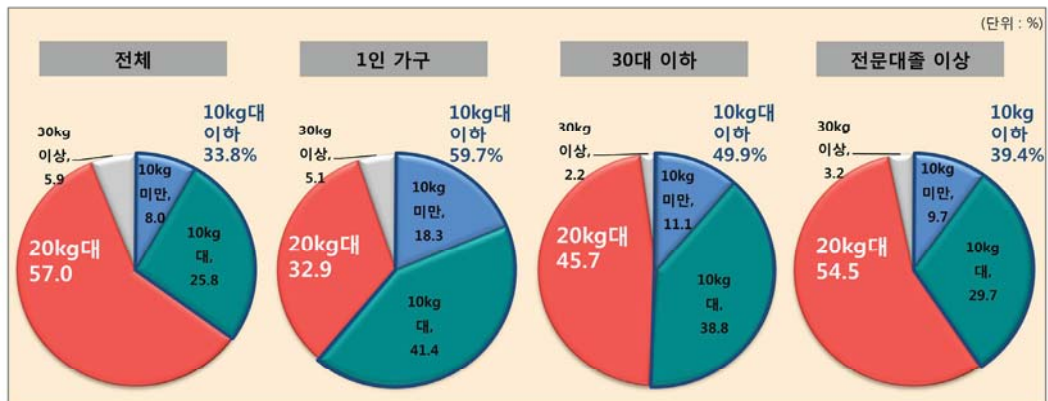
17

2-3. 구입단위와 가격대

2.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 쌀의 경우 20kg대 포장을 구입하는 가구의 비율이 57.0%로 절반 이상이나 전년 대비 4.1%p 감소
- 1인가구(59.7%),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49.9%), 가구주 대졸 이상인 가구(39.4%) 10kg대 이하 비중 높음
- 응답가구의 62.3%(20kg 기준)가 4~5만원대 쌀을 구입, 가구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40~50대 연령층에서 5만원대 이상 쌀을 구입

[주요 응답자 특성별 구입단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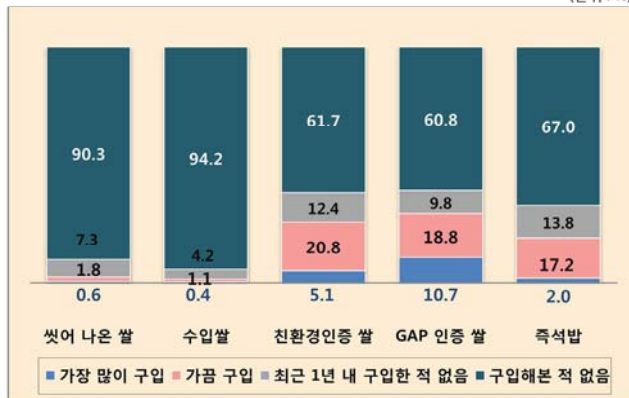
2-4. 특정 쌀 구입 행태

2.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 '씻어 나온 쌀', '수입쌀'을 가끔 또는 자주 구입하는 가구는 2% 내외에 불과
- '친환경인증 쌀'과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쌀'을 가끔 또는 자주 구입하는 가구는 26~30%
- '즉석밥'은 19.2%로 2013년 대비 3.3%p 증가
- 향후 수입쌀 소비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참여 가구의 79.1%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절대 먹지 않겠다는 가구 감소(7%p)한 반면 판단 유보 가구 5.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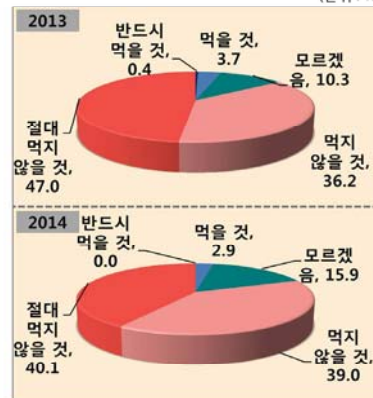
[종류별 구입경험]

(단위 : %)



[수입쌀 소비의향]

(단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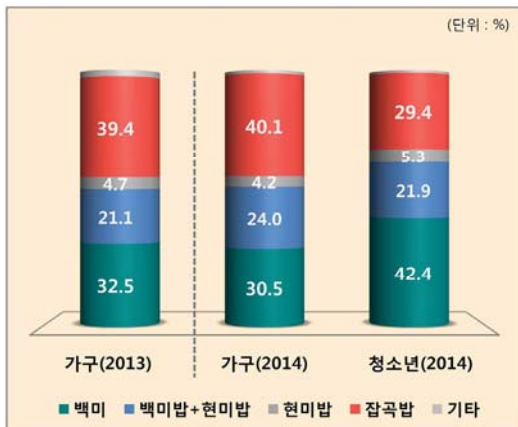
2-5. 밥의 형태와 잡곡 종류

2.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 '잡곡밥'을 먹는 가구가 40.1%로 가장 많으며, '백미밥+현미밥' 먹는 가구 24.0%로 2013년 대비 증가
- 청소년은 백미밥(42.4%)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잡곡밥(29.4%)과 백미밥+현미밥(21.9%)을 선호
- 가구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잡곡은 현미잡쌀(30.5%)이며, 혼합잡곡(16.2%), 서리태(15.4%), 흑미(10.2%) 순서

[밥의 형태]

(단위 : %)



[잡곡 종류]

(단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3. 채소, 과일 구입과 소비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채소

3. 채소, 과일 구입과 소비 행태

구입 주기

- 가구의 36.8%는 주 1회 채소류 조달, 34.2%는 주 2~3회 채소류 조달
- 채소류 구입주기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 학력수준 높을수록 증가
- 가구주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가장 자주 구입

[채소 구입 주기]



[소득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3-1. 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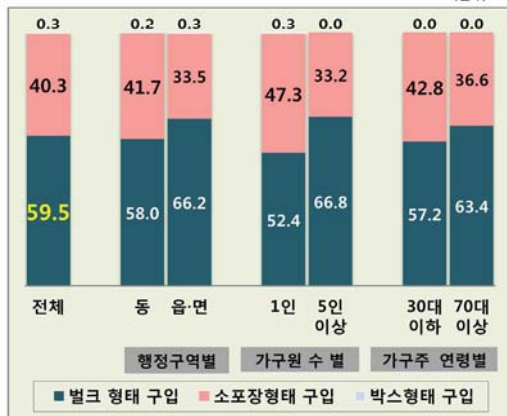
3. 채소,과일 구입과 소비 형태

구입 형태/확인 정보

- **벌크 형태 구입이 59.5%**로 많으나, '소포장 형태'로 구입하는 가구도 40.3%에 달함
- 동지역 거주 가구,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수준이 낮을수록 소포장 형태 구입 비중 증가
- 채소류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는 '신선도(29.9%)', '가격(25.2%)', '원산지(15.5%)' 순임

[채소 구입 형태]

(단위 : %)



[주요 확인정보]

(단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3-2. 과일

3. 채소,과일 구입과 소비 형태

구입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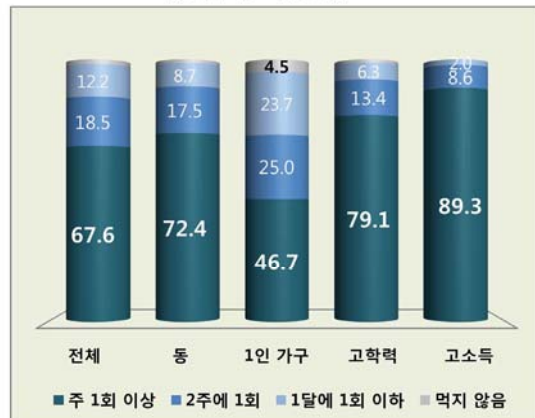
- 가구에서 과일 조달빈도는 **주 1회가 43.0%**로 가장 많고, 응답가구의 67.6%는 주 1회 이상 조달
- 집에서 과일을 전혀 먹지 않는 가구는 1.7%이며, 특히 1인 가구에서는 4.5%
- 행정 구역상 동 지역 거주 가구, 구성원 수 많은 가구, 가구주 40대 가구, 월 평균소득 높을수록 과일류 조달 빈도 높음

[과일 구입 주기]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3-2. 과일

3. 채소,과일 구입과 소비 행태

확인 정보

- 과일류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는 '신선도(27.8%)' 및 '가격(23.8%)', '당도(15.7%)' 순임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친환경인증 여부 및 원산지를 고려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생산지, 신선도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주요 확인정보]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신선도	가격	당도	원산지	생산 지역	친환경 인증 여부	품종	기타
100만원 미만	27.4	26.4	12.8	10.3	5.2	0.4	2.8	14.6
300만원대	27.8	23.0	17.7	11.0	5.6	2.6	1.9	10.4
500만원대	26.9	19.4	15.9	12.5	6.2	2.5	2.6	14.1
600만원 이상	29.1	17.5	19.0	14.2	6.0	3.9	1.2	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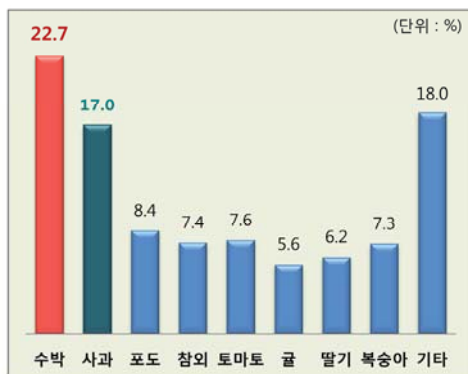
3-2. 과일

3. 채소,과일 구입과 소비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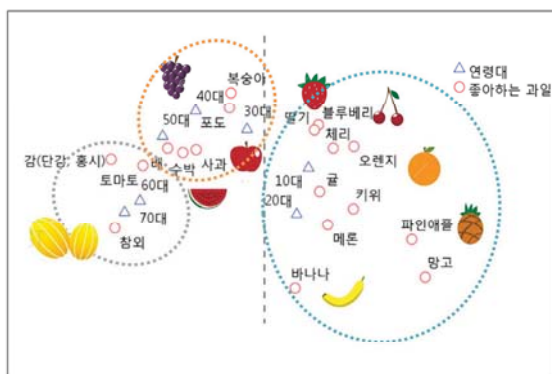
선호 과일

- 성인 가구원 선호 과일은 전년과 동일하게 '수박(22.7%)'과 '사과(17.0%)' 순임
- 20대 이하는 귤, 딸기 선호, 나이가 많을수록 참외, 토마토 선호가 증가
- 남성은 수박, 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여성은 포도, 딸기, 복숭아 선호도가 높음.
- 청소년은 포도, 귤, 딸기 선호도가 높음.

[선호 과일 - 성인 기준]



[연령대별 선호 과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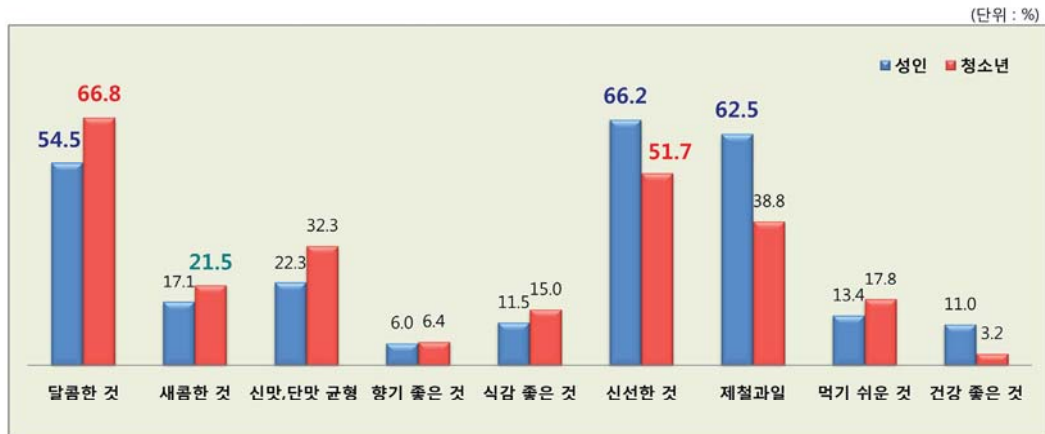
3-2. 과일

3. 채소, 과일 구입과 소비 형태

선호 과일 형태

- 성인 가구원 선호도 '신선한 과일(66.2%)', '제철과일(62.5%)', '달콤한 과일(54.5%)' 순으로 전년과 유사
- 청소년 '달콤한 과일(66.8%)', '신선한 과일(51.7%)' 전년과 유사, '새콤한 과일' 선호 10%p 정도 감소 특징

[선호 과일 형태(복수응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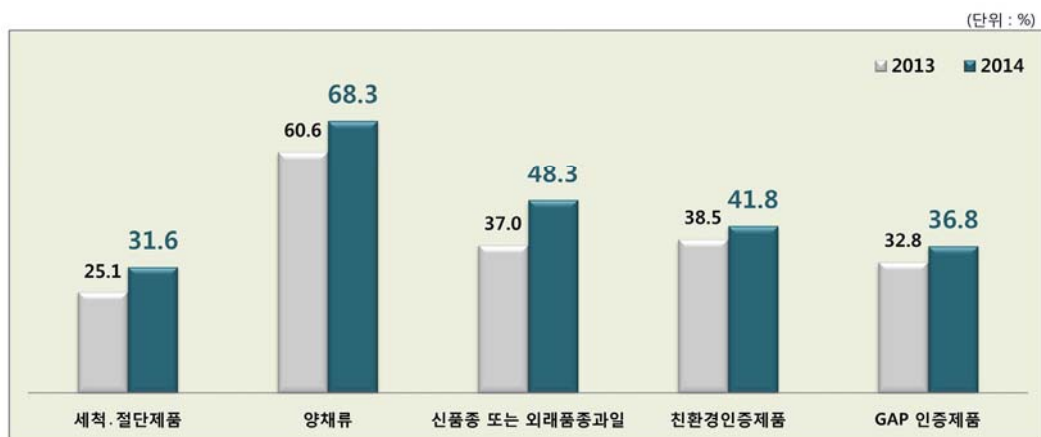
27

3-3. 특정 제품 구입행태

3. 채소, 과일 구입과 소비 형태

- 채소/과일 구입 시 '세척·절단제품'을 가끔 또는 자주 구입하는 가구가 2013년 25.1%에서 31.6%로 증가
- '양채류(양상추, 브로콜리, 파프리카)'는 68.3%, '신품종 또는 외래품종과일(블루베리, 체리, 천혜향 등)'은 48.3%
- '친환경인증제품' 41.8%, 'GAP 인증제품' 36.8%

[특정 제품 구입(가끔/자주) 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8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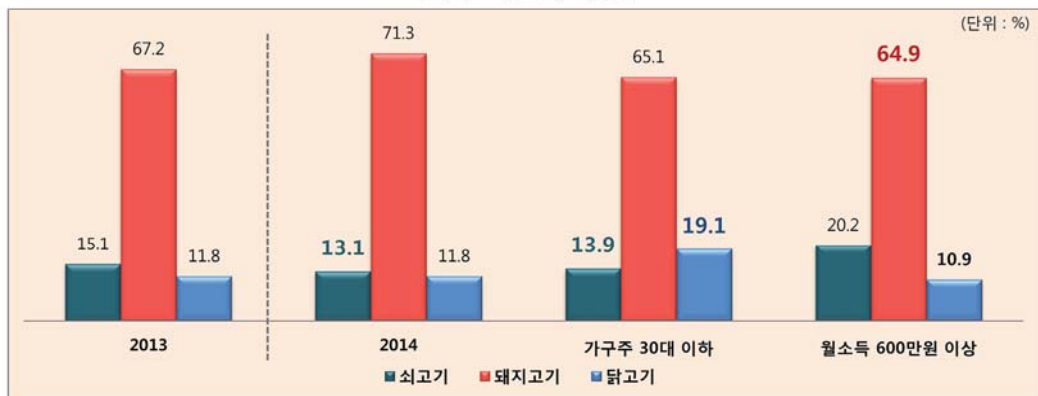
4-1. 육류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다소비 육류

- 가구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종류는 '돼지고기(71.3%)'이며, '쇠고기(13.1%)', '닭고기(11.8%)' 순임
- 돼지고기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구 2013년 67.2%에서 2014년 71.3%로 증가
-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구 20.2%
-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닭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구가 19.1%

[가구 다소비 육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4-1. 육류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선택 기준

- 우선 확인하는 정보(1, 2, 3순위 가중평균)는 '신선도(24.9%)', '가격(23.6%)', '원산지(18.8%)' 순임
- 가격을 신선도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구는 1인 가구(25.8%)와 가구주의 연령이 70대 이상인 가구(27.8%),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대 미만(28.4%)인 가구
- 등급, 원산지, 친환경인증 여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구는 40대, 대졸 이상, 가구 소득 600만원이상

[주요 확인정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신선도	가격	원산지	외관	등급	생산지역명	브랜드	친환경인증 여부	기타
1인 가구	25.7	25.8	17.4	10.9	7.0	4.3	3.9	0.5	4.4
40대	25.3	21.2	18.5	10.3	9.5	3.9	4.1	2.3	4.9
70대 이상	25.6	27.8	19.0	11.0	6.1	3.6	2.3	0.3	4.2
대졸 이상	23.3	21.3	18.9	10.0	10.7	4.1	4.1	2.4	5.3
100만원 미만	24.3	28.4	18.0	10.9	6.0	4.5	3.4	0.3	4.3
600만원대 이상	22.9	16.2	19.8	9.4	13.7	3.9	5.9	2.6	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4-1. 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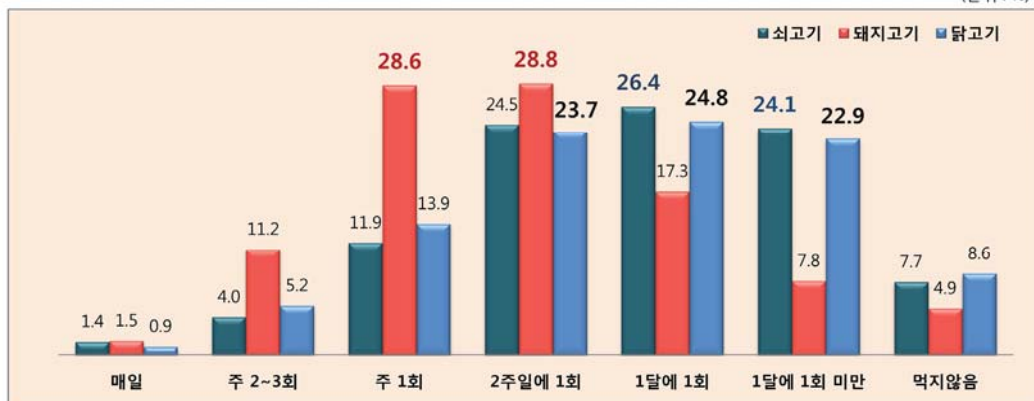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조달 주기

- 가구에서는 쇠고기를 '1달에 1회(26.4%)' 또는 '1달에 1회 미만(24.1%)' 구입
- 돼지고기 조달 주기는 '2주일에 1회(28.8%)' 또는 '1주일에 1회(28.6%)'가 절반 이상
- 닭고기는 '1달에 1회(24.8%)', '2주일에 1회(23.7%)', '1달에 1회 미만(22.9%)' 주로 조달

[육류별 조달 주기]

(단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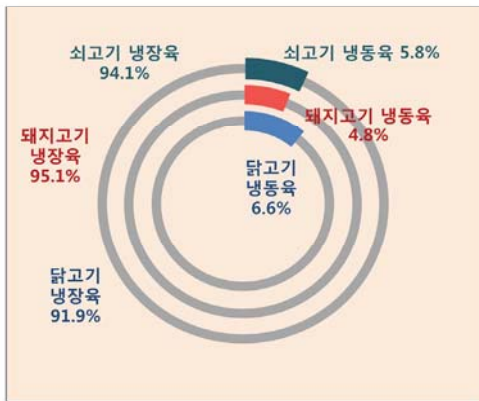
4-1. 육류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구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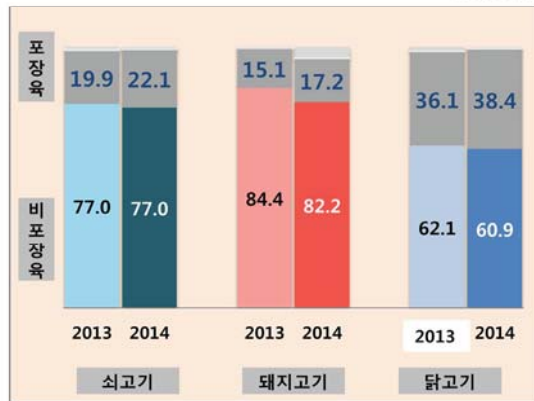
- 냉장육 형태로 구입하는 가구 비중은 쇠고기 94.1%, 돼지고기 95.1%, 닭고기 91.9%
- 포장육 구입 가구 비중은 쇠고기 22.1%, 돼지고기 17.2%, 닭고기 38.4%로 2013년 대비 증가
 - 가구의 연령이 감소할수록, 가구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포장육 형태 구입 비중 증가

[냉장육/냉동육 구입 비중]



[포장육/비포장육 구입비중]

(단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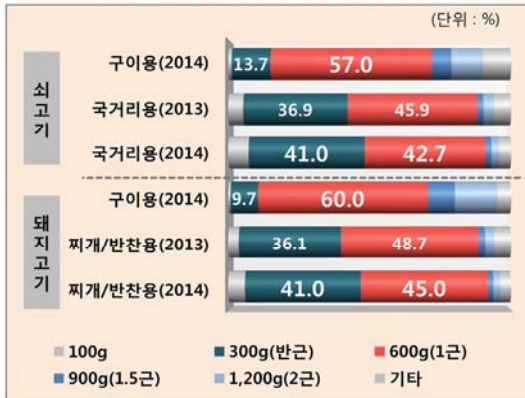
4-1. 육류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구입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구입용은 '600g(1근)' 단위 구입이 57.0%, 60.0%로 큰 비중
- 쇠고기 국거리용과 돼지고기 찌개/반찬용도 '600g(1근)'이 구입 비중이 크지만 2013년 대비 300g 이하 구입 비중 증가
- 닭고기는 '한 마리' 형태 구입이 70.4%→75.4%로 증가, 일부는 '다리(11.3%)', '가슴(7.2%)' 부위를 구매

[쇠고기와 돼지고기 구입 단위]



[닭고기 구입 부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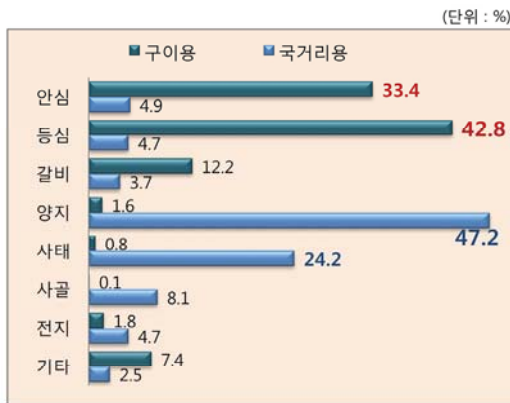
4-1. 육류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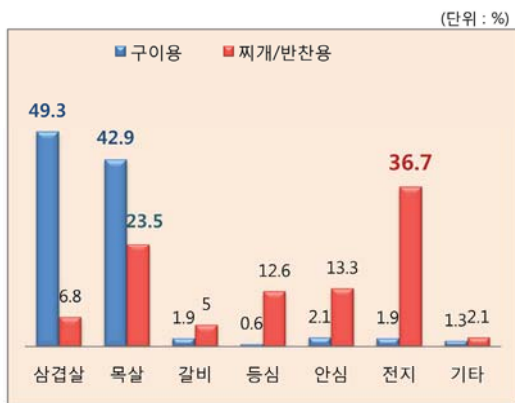
구입 부위

- 가구에서 주로 구입하는 쇠고기 부위는 구이용의 경우 '등심(42.8%)', '안심(33.4%)', '갈비(12.2%)' 순이었으며, 국거리용은 '양지(47.2%)', '사태(24.2%)', '사골(8.1%)' 순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 구이용은 '삼겹살(59.3%)'과 '목살(42.9%)' 순으로, 찌개/반찬용은 전지(36.7%), 목살(23.5%) 순으로 전지는 전년도 18.1%에서 크게 증가

[쇠고기 구입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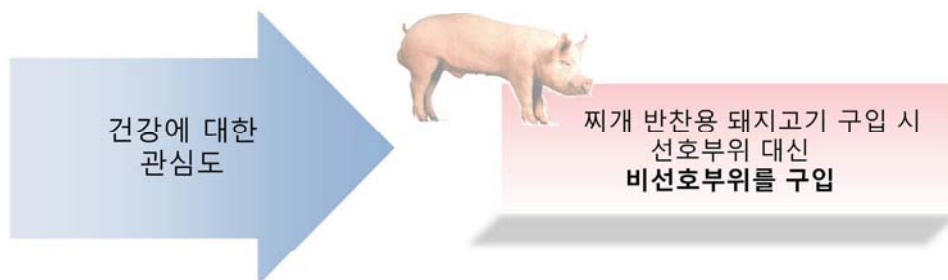
[돼지고기 구입 부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

4-1. 육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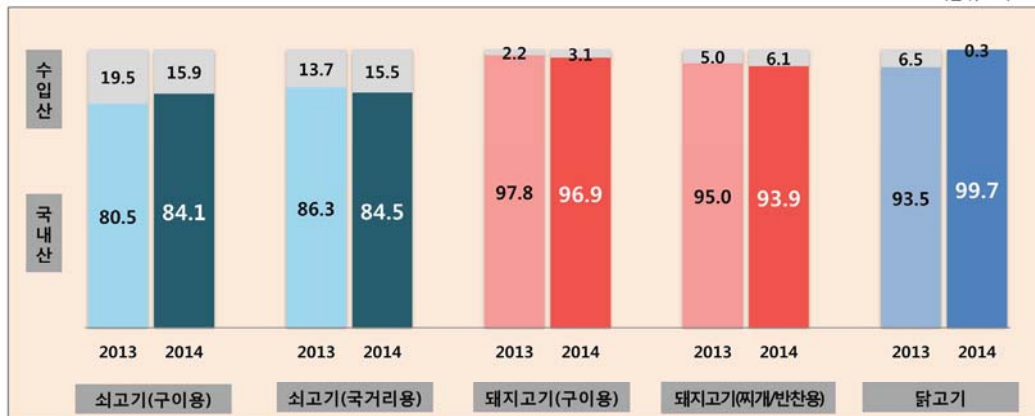
4-1. 육류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주구입 원산지

- 가구에서 주로 국내산 육류를 구입
- 구이용 쇠고기는 국내산 구입 비중이 3.6%p 증가, 닭고기는 6.2%p 증가

[가구 주요 소비 육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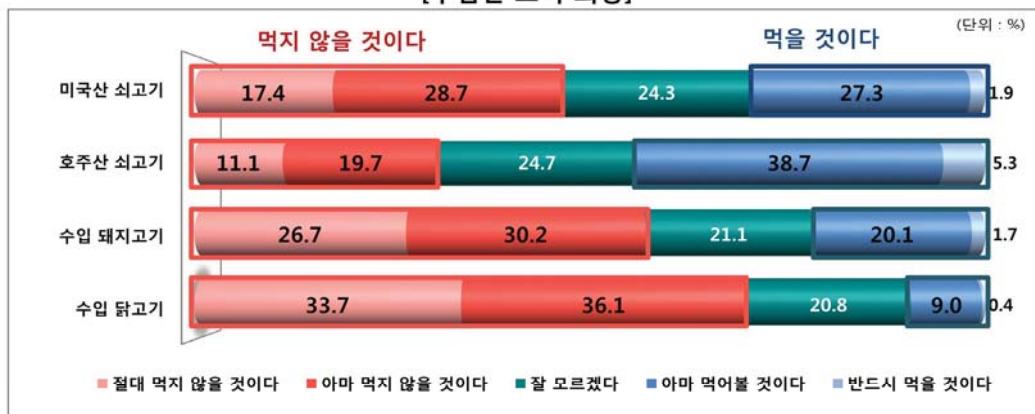
4-1. 육류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수입산 소비 의향

- 응답 가구의 절반(46.1%)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소비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먹겠다(29.2%)'는 의견도 2013년 대비 3.6%p 증가
- 수입산 돼지고기, 닭고기는 '먹지 않겠다'가 56.9%, 69.8%로 쇠고기에 비해 높음

[수입산 소비 의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8

4-2. 유제품 및 육가공품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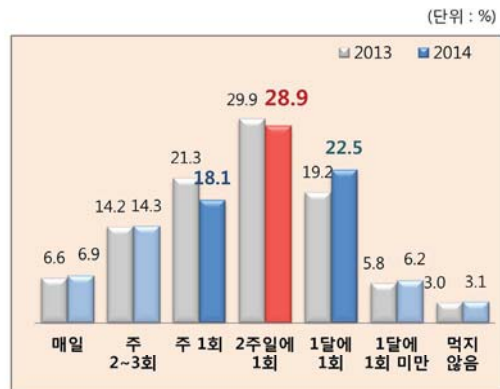
구입 주기

- 가구에서는 유제품 중 **우유를 주 1회** 구입하는 비중이 2013년 대비 **4.8%p 증가한 27.6%**로 가장 높음
- **계란은 2주에 1회(28.9%)** 구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3년에 비해 **주 1회 구입 비중이 감소하고 1달에 1회 구입 비중 증가**
- 먹지 않는 가구: 우유 10.8%, 요구르트 17.4%, 치즈 43.7%, 육가공제품 35.1%

[우유 구입 주기]



[계란 구입 주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9

4-2. 유제품 및 육가공품

4. 축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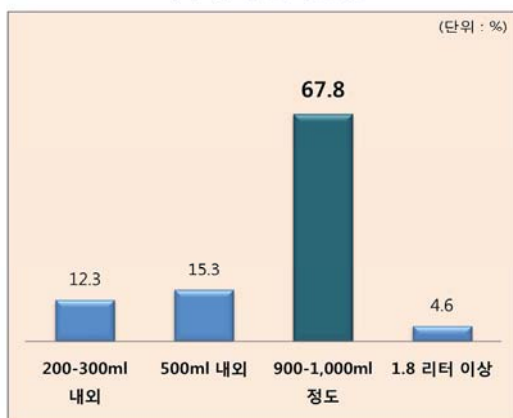
구입 단위

- 계란은 '30개(한 판)' 단위가 **67.7%**, 20개 이상 단위 구입 비중 증가
- 우유는 900ml이상~1l 이하가 **67.8%**

[계란 구입 단위]



[우유 구입 단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

5. 수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 구입 주기

5. 수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 생선류는 '2주일에 1회(25.7%)', '주 1회(24.0%)'
- 해조류(미역, 김 등)는 '1달에 1회 미만(28.4%)', '1달에 1회(22.6%)'
- 조개류, 연체류, 갑각류, 건어물은 '1달에 1회 미만'이 대부분, 소비하지 않는 가구도 상당수

[수산물 종류별 구입 주기]

(단위 : %)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1달에 1회 미만	먹지않음
생선류	1.8	11.4	24.0	25.7	19.4	11.9	5.9
해조류	2.7	7.8	13.8	20.7	22.6	28.4	4.0
조개류	0.7	2.7	7.9	14.2	20.7	41.4	12.3
연체류	0.6	2.3	7.6	17.5	27.5	37.0	7.6
갑각류	0.3	1.2	2.3	9.6	17.3	56.8	12.5
건어물	2.7	6.4	10.7	13.3	21.6	40.5	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

5-2. 구입 형태

5. 수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 대부분 구입처에서 손질 형태(67.2%) 구입, 2013년 대비 5.0%p 증가
- 읍/면지역 집에서 손질 2013년 대비 6.0%p 감소한 19.8%, 1인가구 조리 또는 반조리 구입 증가
- 가구주 연령 증가할수록 집에서 손질 비중 증가, 가구주 30대 이하는 포장구입 증가

[수산물 종류별 구입 형태]

(단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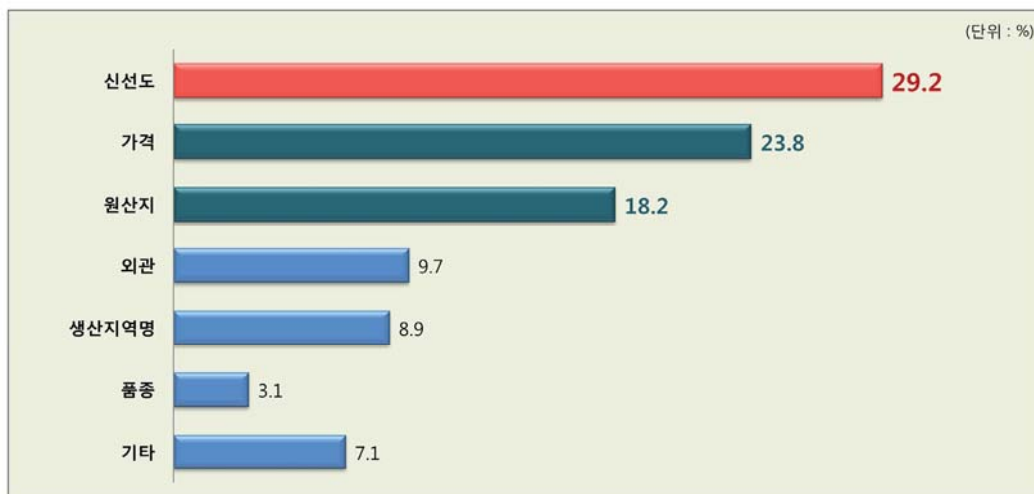
5-3. 확인 정보

5. 수산물 구입과 소비 형태

- 수산물 구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1, 2, 3순위 가중평균) 신선도(29.2%), 가격(23.8%), 원산지(18.2%)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

[주요 확인정보]

(단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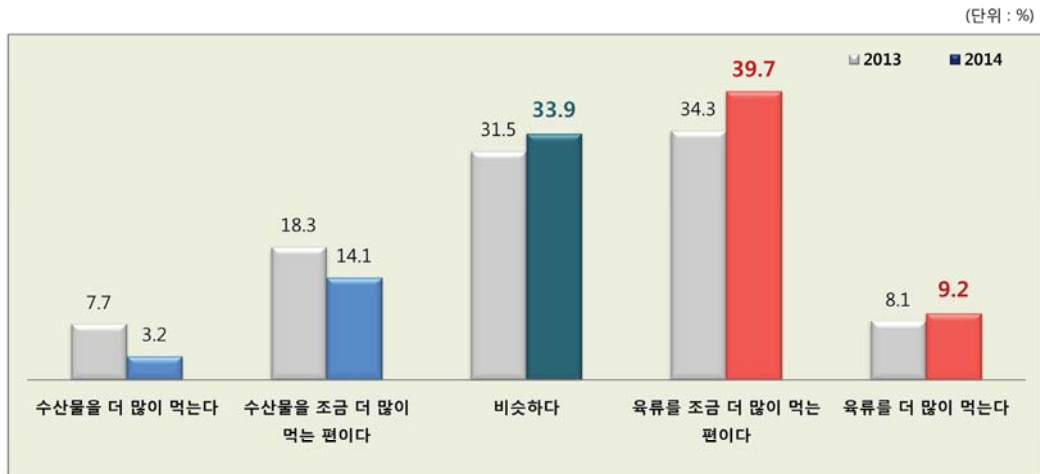
44

5-4. 수산물과 육류 소비 빈도

5. 수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 평소 가구 내에서 식사하는 경우 수산물보다 육류를 더 많이 먹는 가구 비중이 가장 많고, 2013년에 비해 6.5%p 증가

[수산물과 육류 소비 빈도 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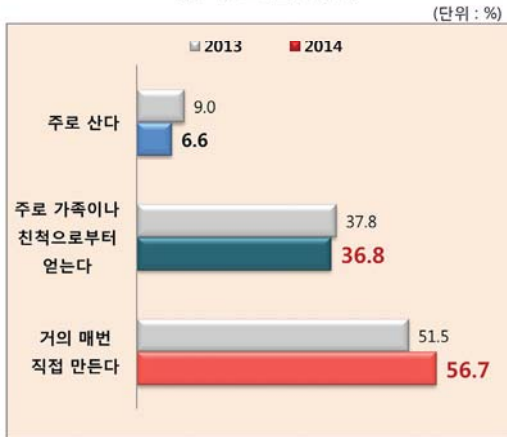
6-1. 김치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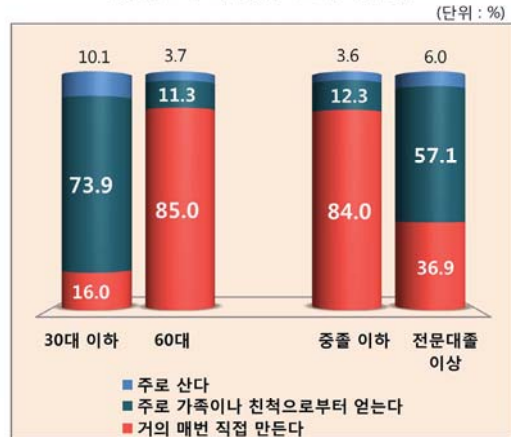
조달 방법

- 가구에서 김치를 '직접 만들어' 조달하는 비중이 51.5%에서 **56.7%로 증가**
- 30대 이하(73.9%), 가구주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57.1%)는 **가족/친지로부터 조달**
- 김치 구입 이유(복수 응답)는 '집에서 담기 번거워서(52.4%)', 담글 줄 몰라서(28.2%) 순

[전체 조달 방법]



[응답자 특성별 조달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7

6-1. 김치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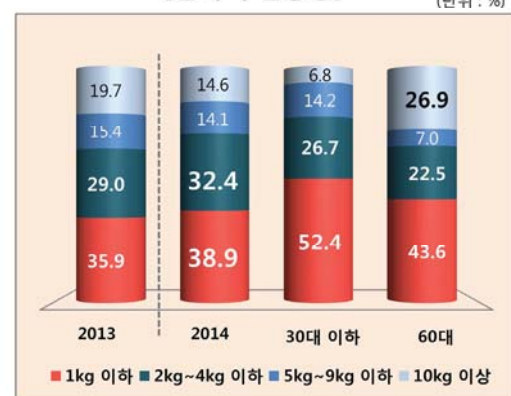
조달주기 및 구입용량

- 가구 내에서 김치는 주로 '1년에 2~3회(37.9%)' 또는 '2~3개월에 1회(37.4%)' 조달,
2013년 대비 1년에 2~3회 조달 가구 비중 증가
- 김치를 구입하는 가구는 '1kg 이하(38.9%)', '2~4kg 이하(32.4%)' 순으로 '4kg 이하' 구입 가구 증가,
가구 평균 3.6kg을 구입

[김치 조달주기]



[김치 구입용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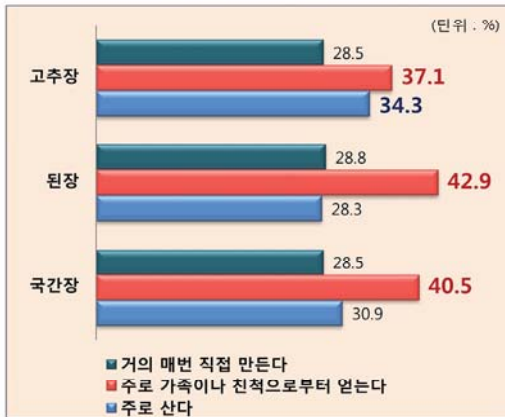
6-2. 장류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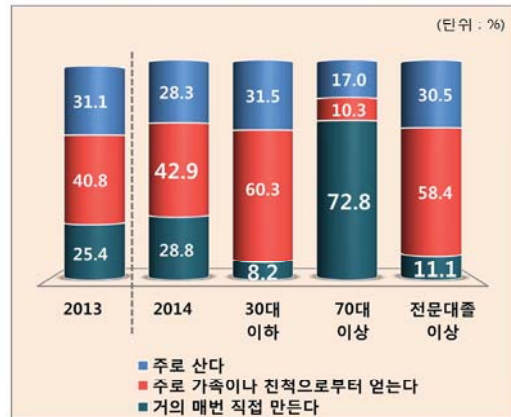
조달방법

- 된장(42.9%)과 국간장(40.5%)은 '가족/친지로부터 조달', 고추장은 '구입' 34.3%, '가족/친지조달' 37.1%
- 된장 직접 만들어 먹는 가구는 응답가구의 28% 정도, 2013년 대비 3~4%p 증가
-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에서 된장 직접 만드는 비중 8.2%, 가구주 전문대졸 이상 11.1%에 불과

[장류 조달방법]



[응답자 특성별(된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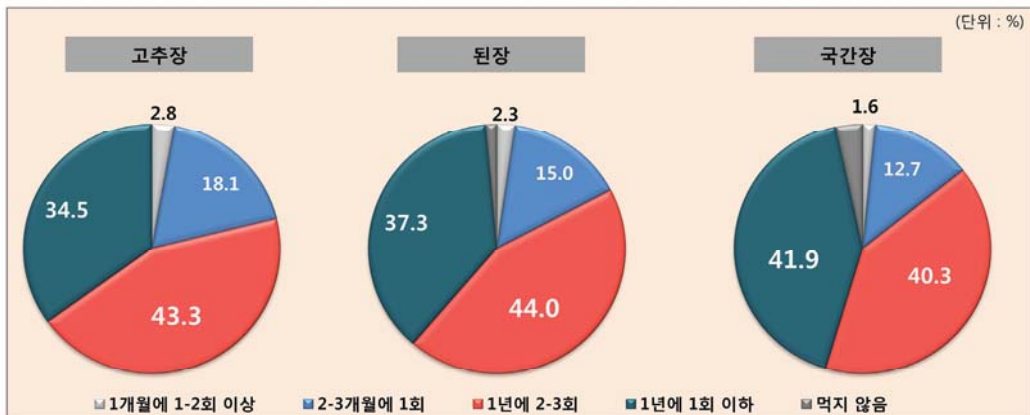
6-2. 장류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조달 주기

- 가구 내에서 고추장과 된장은 '1년에 2~3회' 정도 조달하는 비중이 43~44%로 가장 크고, 국간장은 '1년에 1회 이하'가 41.9%
- 2014년에는 자주 조달하는 가구 비중 감소, 1년에 2~3회 또는 1회 이하 조달 가구 증가
 - 수도권과 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류를 자주 조달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주 조달

[장류 조달 주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

6-2. 장류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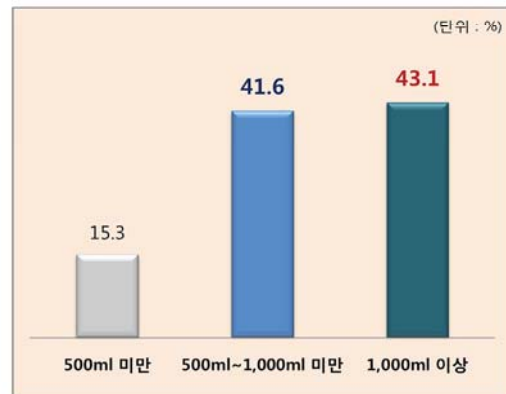
구입 단위

- 고추장과 된장을 구입하는 가구는 '1kg 대'와 '3kg 대'를 구입
 - 고추장, 된장 모두 1kg대 구입 비중이 줄고, 2kg 이상 구입 비중 확대
- 국간장을 구입하는 가구는 1,000ml 이상, 500~1,000ml 구입 가구가 많음

[고추장 및 된장 구입 단위]



[국간장 구입 용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

6-3. 기타 식품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음료류

- 가구 내에서 주로 마시는 음료는 '흰우유(65.5%)', '커피(65.2%)', '100% 과일 주스(38.7%)', '요구르트(38.5%)' 순임(복수응답)
 - 성인 가구원은 음료 중 커피를 가장 선호, 커피와 탄산음료 선호 2013년 대비 증가
 - 청소년 가구원은 탄산음료 가장 선호, 이온음료 선호도 5.3%p 감소

[선호 음료류]



[연령대별 선호 음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

6-3. 기타 식품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음주빈도

- 성인 가구원은 주 1~3회(30.8%) 정도 술을 마시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주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성인 비중이 2013년 대비 3.9%p 증가
- 주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남성은 56.0%, 여성은 16.1%, 연령이 낮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 빈도 증가

[음주 빈도 - 전체]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주 1회 이상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2~3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마시지 않음
전체	36.2	8.4	9.0	3.6	6.8	35.8
남성	56.0	9.3	9.0	2.8	3.9	18.9
여성	16.1	7.5	9.0	4.5	9.8	53.1
20대	37.2	15.4	10.5	4.9	6.4	25.6
70대	17.0	2.8	5.7	1.8	4.4	68.2
중졸 이하	22.6	5.3	6.2	2.3	6.2	57.5
대졸 이상	40.8	9.0	10.4	4.4	6.4	2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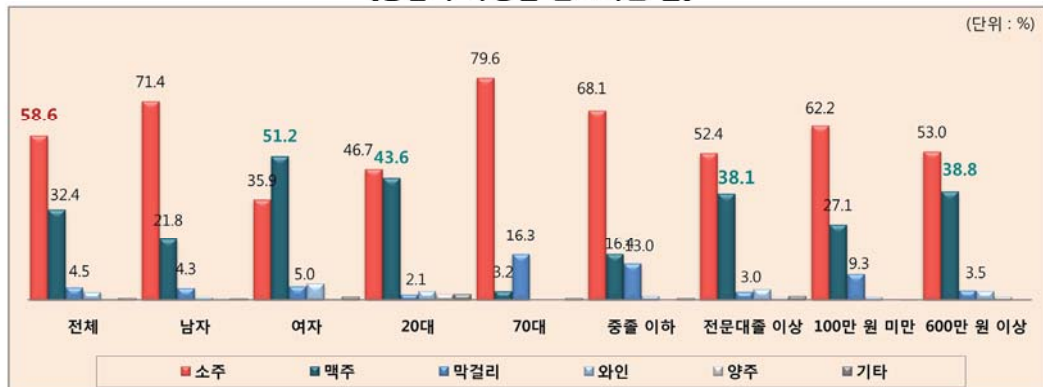
6-3. 기타 식품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선호하는 술

- 성인 가구원은 주류 중 소주(58.6%)를 가장 선호하며, 맥주(32.4%), 막걸리(4.5%), 와인(2.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수도권 지역이나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맥주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

[응답자 특성별 선호하는 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4

6-3. 기타 식품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유지류

- 가구 내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올리브유(48.8%)', '포도씨유(45.3%)', '콩기름(37.5%)'을 많이 사용
 - 2013년 대비 채종유(카놀라유) 사용 비중이 4.8%p 증가
 -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리브유, 포도씨유 사용 비중이, 읍면지역에서는 콩기름 사용 비중 높음
 -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올리브유, 포도씨유, 채종유를 사용하는 비중 증가

[사용 유지류(복수응답)]

(단위 :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복수응답

	올리브유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면실유	모름	기타
수도권	54.7	49.7	32.4	27.7	29.5	1.0	0.4	3.1
읍/면	44.7	36.7	45.7	18.9	25.8	5.7	3.7	3.9
40대	61.4	53.4	33.8	23.2	35.8	5.5	0.7	2.2
70대 이상	26.4	27.1	50.5	31.3	18.3	3.8	3.2	5.1
중졸 이하	30.6	28.9	51.5	29.0	19.7	3.5	3.4	4.1
전문대졸 이상	61.3	58.3	28.4	20.0	34.3	3.9	0.6	2.9
100만원 미만	26.9	25.7	50.8	25.5	17.7	3.6	4.8	3.3
600만원 대 이상	70.1	66.8	24.5	21.6	34.8	1.3	1.0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5

6-3. 기타 식품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설탕류

- 가구 내에서 음식 조리 시 설탕류는 '백설탕(49.7%)', '갈색 설탕(44.5%)'을 주로 사용하며, '물엿(35.4%)'과 '올리고당(33.2%)'도 사용함
 - 물엿과 인공감미료 사용 비중이 2013년 대비 감소 특징
 -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비중(43.0%)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백설탕(53.5%) 사용 비중이 높음
 -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 꿀 사용 비중이 20% 이상

[응답자 특성별 사용 설탕류(복수응답)]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백설탕	갈색설탕	흑설탕	꿀	물엿	올리고당	인공 감미료	사용하는 종류 모름	기타
전체	49.7	44.5	11.6	15.2	35.4	33.2	4.7	0.7	5.6
수도권	48.4	41.4	14.4	17.4	37.1	43.0	4.9	0.4	4.8
동	48.8	45.0	12.0	16.1	35.8	36.5	5.5	0.8	5.3
읍/면	53.5	42.3	9.7	11.7	34.0	20.2	1.5	0.3	6.6
소득 400만원대	47.5	46.2	14.0	26.6	37.3	48.7	4.0	0.3	5.0
소득 500만원대	36.6	50.1	9.8	23.1	33.6	48.7	5.7	0.3	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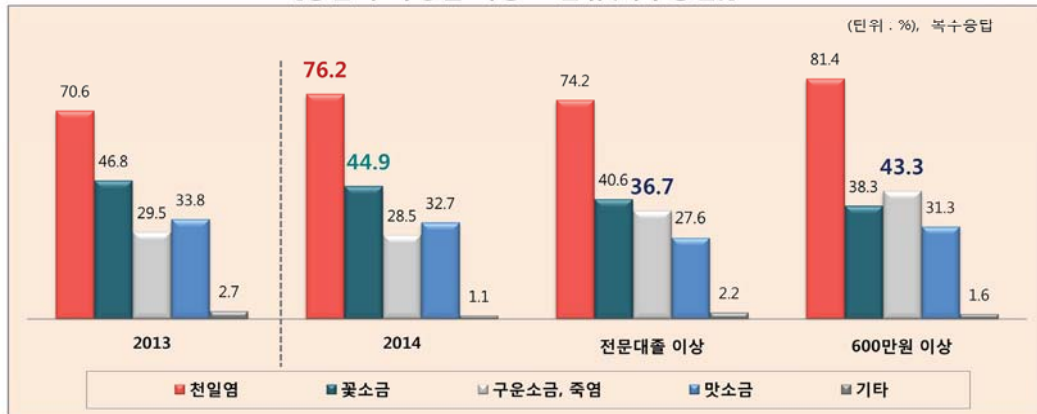
6-3. 기타 식품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소금류

- 가구 내에서 음식 조리 시 주로 사용하는 소금류는 '천일염(76.2%)'으로 2013년 대비 5.6%p 증가, 그 다음으로 '꽃소금(44.9%)'과 '맛소금(32.7%)', '구운소금/죽염(28.5%)' 순서
-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주 전문대졸 이상은 구운소금/죽염 비중 40% 전후

[응답자 특성별 사용 소금류(복수응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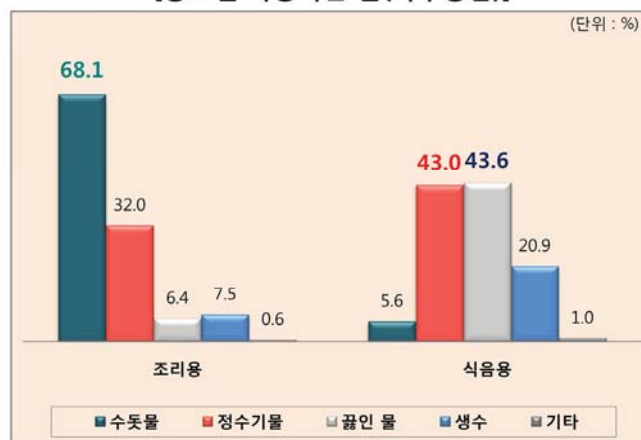
6-3. 기타 식품

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형태

물

- 가구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주로 '수돗물(68.1%)', '정수기 물(32.0%)'을 사용하고, 식음용으로는 '끓인 물(43.6%)', '정수기 물(43.0%)', '생수(20.9%)'를 주로 사용

[용도별 사용하는 물(복수응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

7. 식생활 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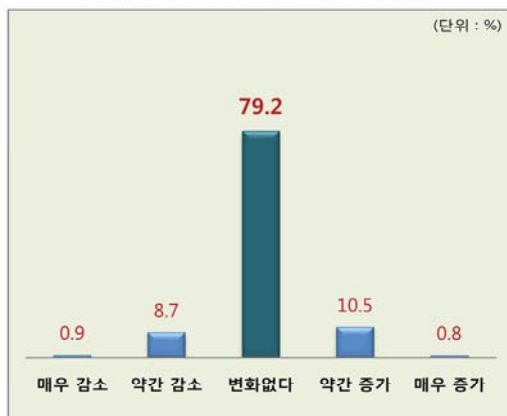
7-1. 식사 현황 및 전망

7. 식생활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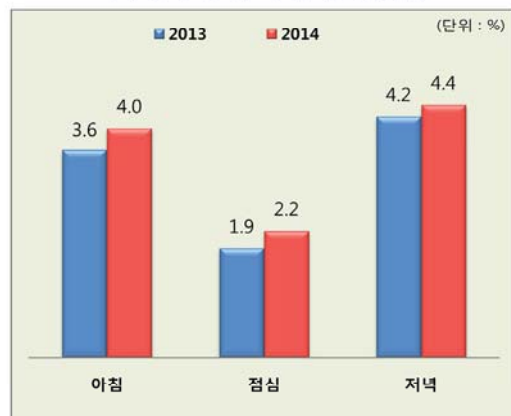
가구 내 식생활

- 1년 전에 비해 가구에서 올해 밥 먹는 횟수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79.2%)
- 일주일 기준으로 가족(1인 가구 제외)이 모여서 식사한 평균횟수는 2013년 대비 약간씩 증가, 끼니별로는 저녁 식사 때 가장 높음

[전년 대비 밥 먹는 횟수 증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0

7-1. 식사 현황 및 전망

7. 식생활 형태

개인 식생활

- 2013년 대비 성인은 집에서 아침식사한 횟수가 0.2회 감소, 점심은 외식 횟수가 0.3회 증가, 저녁은 배달/테이크아웃 횟수 0.3회 증가
- 2013년 대비 청소년은 집에서 아침식사한 횟수가 0.3회 감소, 거른 횟수 0.3회 증가, 점심과 저녁은 외식이 0.3회 증가
- 성인 및 청소년 가구원은 먹고 싶지 않아서(53.0%, 60.3%) 식사를 거르는 비중 높음

[성인의 일주일 식사 현황]

(단위: 회)

구분	집	외식	배달/테이크아웃	거른
아침	4.9(0.2 ↓)	0.3	0.0	1.8
점심	3.4	3.3(0.3 ↑)	0.1	0.3
저녁	5.3	1.0	0.5(0.3 ↑)	0.2

[청소년의 일주일 식사 현황]

(단위: 회)

구분	집	외식	배달/테이크아웃	거른
아침	5.2(0.3 ↓)	0.1	0.0	1.7(0.3 ↑)
점심	1.7	5.2(0.3 ↑)	0.1	0.1
저녁	5.0	1.7(0.3 ↑)	0.2	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1

7-1. 식사 현황 및 전망

7. 식생활 형태

개인 식생활

- 성인 가구원 대부분(74.3%)은 아침식사로 밥을 먹으며, 빵/샌드위치(3.7%), 전식/미숫가루(2.4%), 우유(1.5%), 씨리얼(1.3%) 등도 먹는 것으로 나타남
 - 밥을 먹는 가구는 2013년 대비 2.8%p 감소
 - 성인 가구원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86.1%)하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밥을 먹는 비중 증가
- 청소년 가구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76.5%)은 아침식사로 밥을 먹음

[아침식사 메뉴]

(단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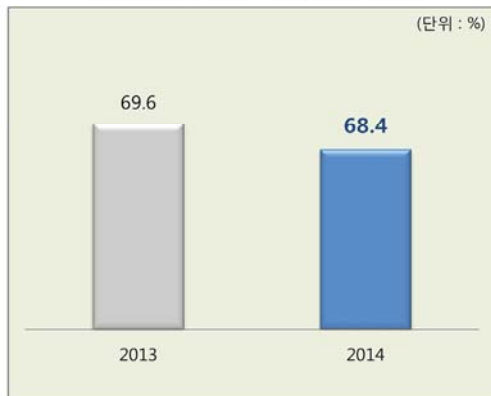
7-1. 식사 현황 및 전망

7. 식생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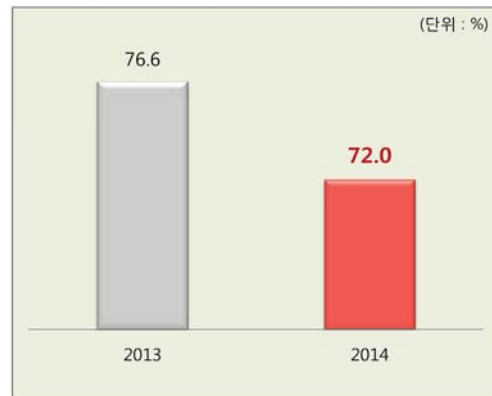
개인 식생활

- 성인 68.4%, 청소년 72.0%는 지난 일주일간 식사시간 규칙적이었다고 평가, 2013년 대비 규칙적 식사 비중은 성인/청소년 모두 감소
-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이유로 성인은 '먹고 싶지 않아서(57.3%)'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도 '먹고 싶지 않아서(54.9%)'가 가장 높았음

[규칙적 식사 - 성인 가구원]



[규칙적 식사 - 청소년 가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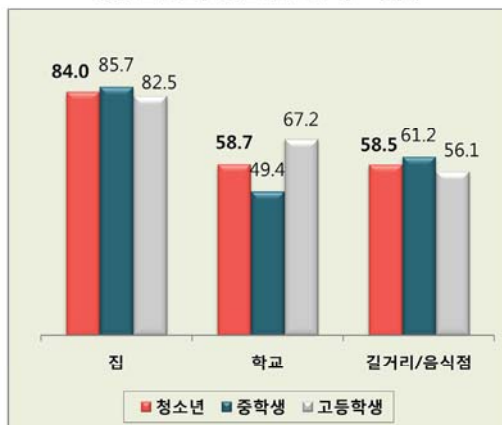
7-1. 식사 현황 및 전망

7. 식생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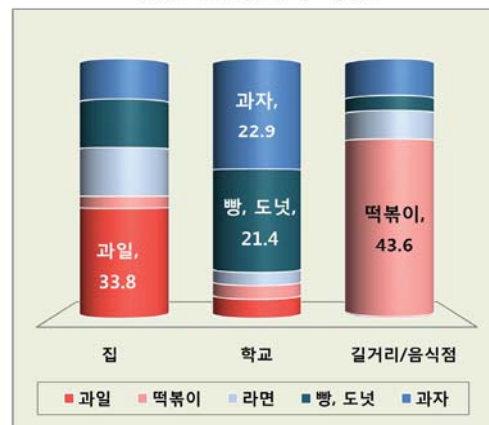
개인 식생활

- 청소년은 하루에 간식을 1회 이상 먹는 비율이 학교(58.7%)나 길거리/음식점(58.5%)보다 집(84.0%)에서 더 높으며, 간식 먹는 비중이 2013년 대비 증가
- 청소년은 간식으로 집에서는 과일을, 학교에서는 과자와 빵을, 길거리나 음식점에서는 떡볶이를 가장 많이 먹음

[청소년의 장소별 간식 여부]



[청소년의 간식 메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4

7-2. 식생활 만족도

7. 식생활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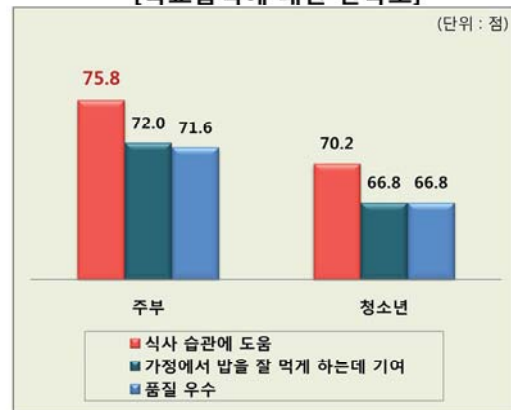
식생활 만족도(가구, 개인)

- 주부들이 평가하는 식생활 만족도는 69.2점, 개인식생활 만족도는 성인 70.0점, 청소년 71.0점
- 학교 급식에 대해 청소년 보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부 만족도가 약간 높으며, 2013년 대비 만족도 증가
- 학교급식에 대해 주부나 청소년 모두 식사 습관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품질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 낮음

[식생활 만족도]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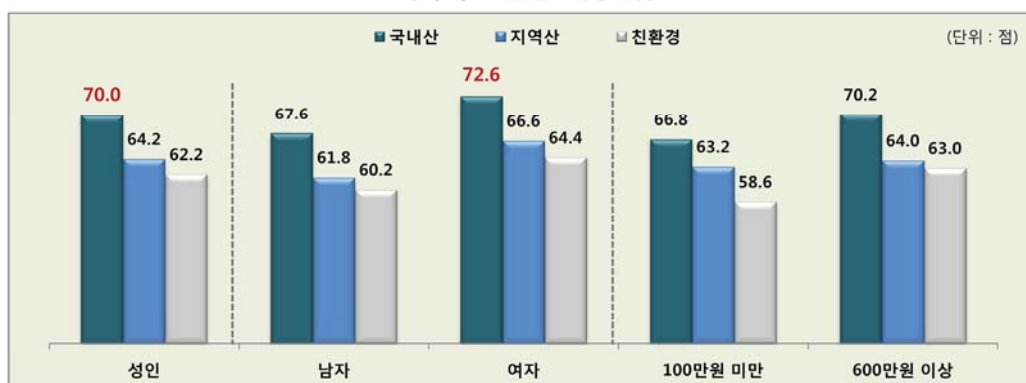
7-3. 국산 및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7. 식생활 행태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성인)

- 성인은 식재료가 국산인지 여부(70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며, 지역산(64점)·친환경(62점) 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비슷한 수준임
- 2013년 대비 국산과 친환경 관심도 약간 감소
- 남자 보다는 여자가, 가구 소득이 높은 계층이 국산/지역산/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등) 식재료 관심 높음

[식재료 관심도(성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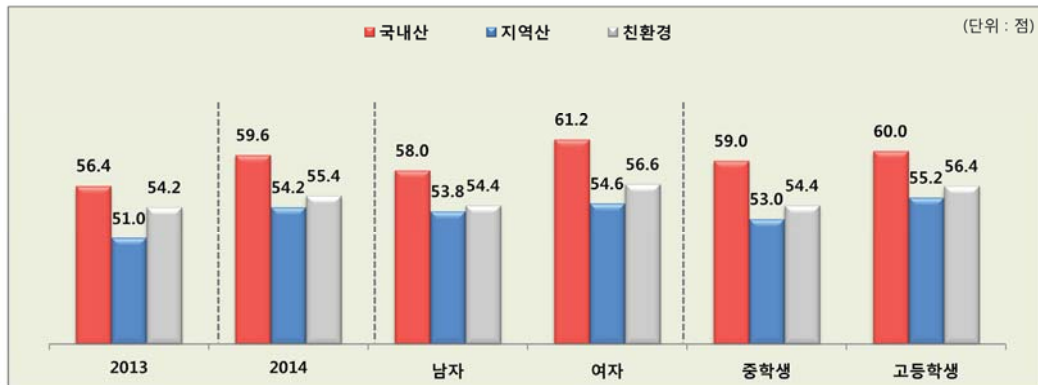
7-3. 국산 및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7. 식생활 행태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청소년)

- 청소년은 식재료가 국산/지역산/친환경 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50점대로 성인에 비해 낮음
- 2013년 대비 청소년 식재료의 국산/지역산/친환경 관심도 1.2~3.2 %p 증가
- 성인처럼 국산에 대한 관심도가 월등히 높지 않고, 국내산(60점)>친환경(55점)>지역산(54점)
- 청소년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관심이 높음

[식재료 관심도(청소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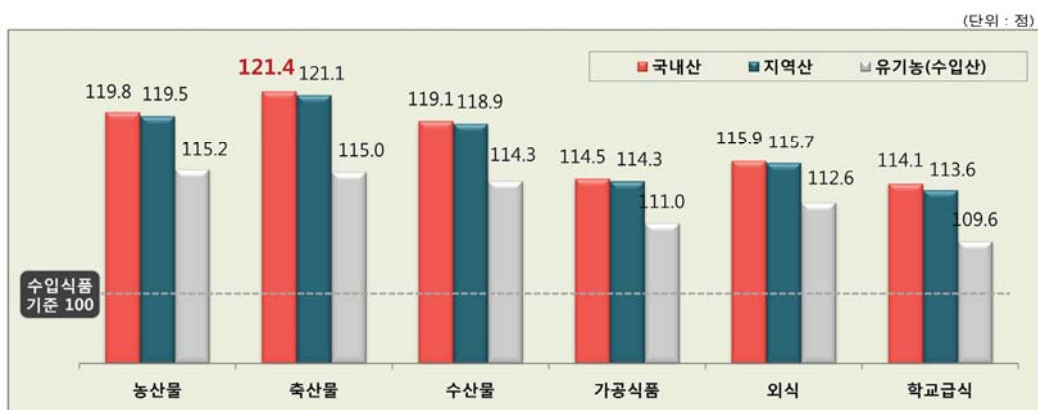
7-3. 국산 및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7. 식생활 행태

국산/지역산/유기농 농식품에 대한 지불 의향(성인)

- 성인가구원에서 수입식품 대비 국산 농식품 지불 의향 수준이 가장 높은 품목은 축산물(121.4)이며, 농산물(119.8), 수산물(119.1), 외식(115.9), 가공식품(114.5), 학교급식(114.1) 순서
- 성인 가구원은 수입식품 대비 지불의향 수준을 국내산>지역산>유기농(수입산)으로 평가

[국산, 지역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지불 의향(성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8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감사합니다



식품류별 구매 빈도에 따른 가정 내 식생활 행태 분석

김 성 용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식품류별 구매빈도에 따른 가정 내 식생활 행태 분석

김성용*

I. 머리말

-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 관련 질병인 만성질환자의 수와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서구화된 식단, 간편화, 외식화 추구 경향의 식생활 증가가 거론되고 있음
 - 비만 유병률¹⁾: (남자) 25.1%(1998)→ 36.3%(2012), (여자) 26.2%(1998) → 28.0%(2012)
 - 당뇨병 유병률²⁾: (남자) 9.5%(1998)→ 10.1%(2012), (여자) 7.9%(1998) → 8.0%(2012)
- 가구가 구매하는 식품류 전체를 대상으로 지출액의 패턴(유소이 외, 2004; 권오상, 2008; 김성용, 2008; 김민아 외 2011; KREI, 2007)이나 소비의 다양성 정도(유소이, 2005; 김성용, 2009)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식생활 관점에서 가구의 식품소비 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다만, 이용호 외(2014)는 식품소비를 권장 섭취 영양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식품소비와 권장섭취 영양소간의 불균형 관계를 연령별로 분석함
- 가구의 식품 소비패턴을 토대로 식생활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서구의 경우처럼 식생활지수(Diet Quality Index)의 측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한 지표가 없다면 유사한 소비패턴을 가진 가구의 식생활 행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서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군집분석 또는 인자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식품 소비구조와 식생활 패턴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결과(Newby et al, 2004)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가구의 식품류별 소비행태(구매빈도)에 따라 구분된 계층별로 가구의 식생활 행태 및 만족도, 건강 상태 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계층별 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sungyong@gnu.ac.kr)

1) 체질량지수 기준으로 25이상인 만 19세이상 성인의 비율(2012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 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비율, 만 30세 이상(2012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식품류별 구매빈도에 따른 식생활 행태 분석 결과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체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사회적 요인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마케팅 전략 등을 모색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임

Ⅱ. 분석 자료 및 방법

- KREI의 2014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원시자료 가운데 식품 주 구입자와 성인 및 청소년 가구원의 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함
- 이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식품류를,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가”라는 구매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가구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군집한 후에 이들 가구의 식품 소비 행태, 식생활 행태 및 만족도,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하고자 함
- 군집분석은 다음과 같은 식품류의 구매빈도를 대상으로 실시
 - 쌀, 채소류,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리식품, 배달식품, 외식
- 각 식품류별 구매빈도는 0~4점 또는 0~8점으로 척도화되어 있어 이를 표준화시켜 군집분석에 적용.
 - 쌀: 구매하지 않음(0), 1년 2회 미만(1), 1년 2~3회(2), 2~3개월 1회(3), 1개월 1~2회 이상(4)
 - 채소류, 과일류, 육류 및 생선류: 구매하지 않음(0), 한 달 1회 미만(1), 한 달 1회(2), 2주일 1회(3), 주 1회(4), 주 2~3회(5), 매일(6)
 - 조리식품, 배달식품, 외식: 하지 않음(0), 2~3달 1회 미만 (1), 2~3달 1회(2), 1달 1회(3), 2주일 1회(4), 주 1회(5), 주 2~3회(6), 주 4~5회(7), 매일(8)
- 군집분석 방법으로 K-평균 클러스터 기법을 적용하여 유클리드 거리(Euclidian distance) 기준으로 식품류별 구매빈도 측면에서 가구 간의 유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표본가구를 군집으로 구분함
- 군집별로 가구의 인구사회적인 특성 외에도 다음 항목에 대해 식생활 행태를 비교 분석
 - 주 구매자의 식품 구매행태: 월 식료품 구입액, 주 구입 장소, 식품 구입 시 고려 요인,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 가구의 식생활 행태 및 만족도: 결식횟수, 식사 규칙성 여부, 식생활만족도, 국내 산식재료,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 주 구매자의 식생활스타일: 편의추구 성향, 고급화 성향, 건강중시 성향, 가격중시 성향, 새로움/다양성추구 성향 등 식품구매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 가구의 건강상태, 비만도, 건강관리(음주빈도, 규칙적 운동 및 체중조절 여부)
 - 성인 가구의 식품 표시 및 정보 관련 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
 - 성인 가구의 정부의 식품안전성 관리에 대한 만족도, 식생활 교육 참여도
- 식생활 행태에 따라 군집별로 구분된 표본 가구에 대해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이나 식습관 및 라이프스타일 등 가운데 어떠한 요인들이 가구 유형 구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함

- 다항로짓 모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음

$$\log\left(\frac{P_i}{P_m}\right) = \beta_i X, \quad i = 1, 2, \dots, m-1$$

- P_i , P_m 은 특정 가구가 군집 i , 기준 군집 m 에 속할 확률을 각각 나타내며, X 는 설명 변수 벡터를, β 는 설명변수에 대응하는 계수값 벡터를 의미
- 다항로짓 모형은 기준 군집(m)을 제외한 ($m-1$)개의 군집에 대한 이항로짓 모형을 연립하여 동시에 추정하되, m 개 군집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각 계수값을 추정
- 특정 가구가 군집 j 와 기준 군집 m 에 속할 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됨

$$P_j = \frac{e^{\beta_j X}}{1 + \sum_{j=1}^{m-1} e^{\beta_j X}} \quad j = 1, 2, \dots, m-1$$

$$P_m = \frac{1}{1 + \sum_{j=1}^{m-1} e^{\beta_j X}}$$

- 각 설명변수의 값(X_i)이 변할 때 군집 i 와 기준 군집 m 에 속할 확률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계확률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frac{\partial P_j}{\partial X_i} = \beta_{ji} P_j - P_m P_j \sum_{j=1}^{m-1} \beta_{ji} e^{\beta_j X} \quad j = 1, 2, \dots, m-1$$

$$-\frac{\partial P_m}{\partial X_i} = -\sum_{j=1}^{m-1} \frac{\partial P_j}{\partial X_i}$$

-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① 설명변수 유형별로 각 군집에 속할 한계 확률값과 ② 1인 가구 여부, 연령,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각 군집별 비중의 변화를 계산함

Ⅲ. 분석결과

1. 군집의 구분과 특성

가. 군집의 구분

- 군집분석 결과, 표본가구 전체는 식품류별 구매빈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됨
- 가구 군집별로 식품류별 구매빈도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군집 1은 외식을 제외한 모든 식품의 구매빈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으나 외식의 빈도만 4.07로 월등히 높은 가구들이 이에 속하며, 구성비는 13.6%로 가장 낮음
 - 군집 2는 거의 모든 식품류에서 구매 빈도가 가장 낮은 계층으로 가정식 위주의 식생활이지만, 과일과 육류(특히 쇠고기, 돼지고기)의 구매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음. 이러한 군집에 속하는 가구의 구성비는 22.2%
 - 군집 3은 식자재를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가정 내 식사의 빈도가 조리식품이나 배달식품 구입 또는 외식 빈도보다 높은 가구들이 이에 속하며, 구성비는 14.9%임
 - 군집 4는 가정식 보다는 외식이나, 조리식품 및 배달식품의 구매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으로, 특히 생선의 구매빈도가 가장 낮음. 구성비는 22.3%임
 - 군집 5는 가정식뿐만 아니라 외식, 배달식품 및 조리식품 등 모든 식품류에서 구매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계층으로, 구성비는 29.0%로 가장 높음.

표 1. 식품류별 구매빈도에 따른 군집의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전체
구성비(%)		13.6	14.9	22.2	22.3	27.0	100.0
구매 빈도	쌀	2,602	2,535	2,849	2,604	2,964	2,711
	야채류	3,723	3,581	4,530	3,865	4,581	4,047
	과실류	3,326	<u>3,176</u>	4,330	3,700	4,343	3,768
	쇠고기	1,624	<u>1,571</u>	3,479	1,722	3,178	2,282
	돼지고기	2,416	<u>2,394</u>	4,030	2,605	4,082	3,094
	닭고기	1,435	1,616	3,331	1,863	3,372	2,323
	생선류	2,622	2,653	3,814	<u>2,194</u>	3,613	2,948
	조리식품	0,935	0,616	1,515	1,909	2,447	1,528
	배달식품	0,100	0,417	<u>0,228</u>	3,923	4,124	2,028
	외식	4,071	<u>0,242</u>	3,115	3,981	4,012	2,970

나. 군집별 인구사회적 특성

- 군집별로 가구소득, 식품 주 구매자 연령, 가구 구성, 거주지 등 인구사회적 특성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음

① 군집 1

- 4개 가구 중 1개 가구가 월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로 구성됨
- 식품 주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54.3세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임
- 평균 가구원 수는 1.87명이며, 18세 이하 청소년 가구원의 비율이 낮는데 특히 6세 이하의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낮음
- 1인 가구 비율이 41.7%로 높고, 식품 주 구매자가 남성인 비율도 24.1%로 매우 높음
-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농촌(25.8%)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음

② 군집 2

- 월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비중이 43.1%로 5개 군집 중 가장 높음
- 식품 주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60.1세로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음.
- 평균 가구원 수는 1.98명이며, 18세 이하 청소년 가구원의 비율이 낮는데 특히 7~12세의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낮음
- 1인 가구의 비율이 41.9%에 달하나, 식품 구매자의 대다수는 여성(84.9%)임
-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31.3%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음

③ 군집 3

- 월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6.5%에 달하며, 월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 비중도 14.4%로 다른 계층보다 높음
- 식품 주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51.3세임
- 평균 가구원 수는 2.9명이며, 청소년 가구원 중 13~18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1인 가구 비율은 10.8%로 낮은 편이며, 식품 주 구매자의 대다수는 여성(97.1%)임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시 포함)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2. 군집별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징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전체
남성 주구매자 비중(%)		24.1	15.1	2.9	26.2	9.6	16.7
주구매자 연령(세)		54.3	60.1	51.3	42.5	42.2	49.7
월 평균 가구소득별 구성비(%)	100만원 미만	<u>25.4</u>	43.1	7.7	8.1	2.4	17.6
	100~200만 원 미만	35.0	<u>26.9</u>	18.3	17.3	8.5	20.2
	200~400만 원 미만	24.6	22.7	33.1	47.8	46.6	35.9
	400~600만 원 미만	12.4	5.1	<u>26.5</u>	18.4	29.9	18.3
	600~800만 원 미만	1.2	1.7	10.4	5.3	<u>8.9</u>	5.4
	800만 원 이상	1.4	0.6	4.0	<u>3.1</u>	<u>3.8</u>	2.6
1인 가구 비중(%)		41.6	41.9	10.8	26.9	7.5	25.6
가구원 수(명)		1.87	1.97	2.90	2.60	3.31	2.56
청소년 가구원	6세 이하	3.9	5.1	15.0	21.0	36.8	17.6
	7~12세	4.8	2.9	19.4	13.5	33.4	15.4
여부(%)	13~18세	7.1	7.6	25.0	29.0	39.2	22.6
맞벌이 여부(%)		22.3	17.9	27.8	26.2	34.8	25.9
거주지역(%)	광역시	37.7	37.1	51.5	44.9	50.8	44.4
	중소도시	36.5	31.6	32.4	41.0	37.0	35.9
	농촌	25.8	31.3	16.1	14.1	12.2	19.8
수도권 (%)		28.7	41.0	63.3	40.8	62.5	47.6

④ 군집 4

- 가구의 절반 정도(47.8%)가 월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임
- 식품 주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42.5세로 낮은 편이며, 주 구매자 중 26.2%가 남자임.
-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이며, 청소년 가구원 중 13~18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형태임. 1인 가구 비중은 26.9%임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41%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음

⑤ 군집 5

- 월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9.9%,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비율도 12.7%에 달함
- 식품 주 구매자의 평균 42.2세로 가장 낮고, 주 구매자는 대다수가 여성(90.4%)임
- 평균 가구원 수는 3.31명으로 가장 많고, 가구의 33~39%가량이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구원이 있음
- 1인 가구 비중은 7.5%로 가장 낮은 반면, 맞벌이 부부 비율 34.8%로 가장 높음
- 수도권(62.5%)이나 광역시(50.8%)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다. 군집의 식품소비 특징

- 각 군집별로 식품류별 구매빈도에서 나타난 특징과 인구사회적 특성을 종합하여 군집별 식품 소비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군집	구분	식품 소비 특징
1	낮은 구매력+ 외식 의존	식품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낮고, 식품 주구매자가 남성이며 고령층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가정식보다는 주로 외식에 의존하는 계층
2	낮은 구매력+ 가정식 위주	낮은 소득으로 모든 식품류의 구매력이 낮으며 외식보다는 가정식 위주의 식생활이나 특히, 과실류와 육류 구매 빈도가 낮은 계층
3	높은 구매력+ 가정식 위주	식품 구매력이 비교적 높으며 외식보다는 가정식 위주의 식생활 계층
4	편의 추구형	식품 주 구매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가정식에 비해 조리 및 배달 식품의 구매와 외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의추구형 식생활
5	높은 구매력+ 다양성 추구	가정 내 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등 모든 식품류에 대해 높은 구매력을 가진 다양성을 추구하는 계층

3. 군집별 식생활 행태 분석

가. 식품 구매 행태 및 라이프스타일(주 구매자 대상)

- 군집별 식품비 지출액은 월 평균액 기준으로 군집 2, 군집 1의 순서로 가장 낮고, 군집 5, 군집 3의 순서로 가장 높음 <표 3>.
- 군집 1과 군집 2의 경우 10 가구 가운데 7 가구가 식품 구입에 월 40만 원 미만을 지출. 특히, 군집 2에 속하는 가구의 32%는 월 식품비 지출액이 20만 원 미만
- 군집 3과 군집 5의 경우 10 가구 가운데 3 가구 이상이 월 80만 원 이상 지출

- 편의 추구형 식생활을 가진 군집 4의 경우 10 가구 중 3 가구 정도가 월 40~60만 원 정도를 식품 구입에 지출
- 대다수 가구가 식품 구매 장소로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나, 군집 2만 재래시장 이용 비율이 41.5%로 가장 높고, 군집 3은 동네 슈퍼마켓 이용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다소 높았음
- 차별화·고품질 농산물 및 다양한 과일의 구매 빈도는 군집 3과 군집 5에서 높음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이나 양채류 등의 구매빈도는 군집 3(가정식 위주)과 군집 5(높은 구매력)에 속하는 가구에서 높음
 - 햇반, 씻어나온쌀, 세척/절단 농산물 등 편의농식품의 경우는 군집 5가 군집 3에 비해 구매빈도가 약간 높음
 - 구입 과일의 종류(다양성 정도)를 보면 군집 3과 군집 5의 경우 1주당 2.6개로 표본 가구 전체의 평균치보다 높았음
 - 1+등급 이상 쇠고기(구이용)의 구매비율은 군집 5가 46.%로 가장 높았음
- 식자재의 국내산, 로컬푸드 및 친환경 여부에 대한 성인 가족 구성원의 관심도는 군집 3(가정식 위주)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식품 주 구매자의 식생활 관련 성향을 보면 군집 3의 경우는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군집 4는 편리성 추구 성향이 높고, 군집 5의 경우는 맛 추구성향과 가격 중시, 새로움 추구 경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군집 5는 거의 모든 성향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특별한 식생활 성향보다는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가구들로 구성되고 판단됨
- 군집 2의 경우는 편리성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군집별 식품 구매 행태 및 라이프스타일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전체
		외식 의존	낮은 구매력	가정식 위주	편의 추구	고빈도/ 다양	
식품 구매빈도 ¹		3.9	3.8	4.5	4.2	4.7	4.2
월식품비 지출액별 구성비(%)	20만 원 미만	18.1	31.5	7.2	4.4	2.5	12.9
	20~40만 원 미만	48.0	41.9	18.5	27.1	13.0	29.0
	40~60만 원 미만	15.5	16.1	22.5	33.9	28.7	24.0
	60~80만 원 미만	10.1	5.8	18.7	19.0	20.3	14.8
	80~100만 원 미만	4.6	3.6	18.2	8.1	16.7	10.1
	100만 원 이상	3.7	1.1	15.0	7.6	18.9	9.3
식품 구매 장소 (%)	동네 슈퍼마켓	26.7	32.5	35.0	32.2	32.3	31.9
	기업형 슈퍼마켓	5.8	5.4	11.7	12.3	6.0	8.1
	대형유통매장	34.2	19.7	34.3	36.5	39.9	32.6
	재래시장	32.0	41.5	17.8	17.4	19.9	26.0
	기타	1.3	1.0	1.3	1.7	2.0	1.5
쌀 구매빈도 ²	햇반	1.4	1.2	1.6	1.6	1.8	1.5
	씻어나온 쌀	1.1	1.1	1.2	1.1	1.2	1.1
	친환경인증	1.4	1.4	2.0	1.7	2.0	1.7
	GAP인증	1.5	1.5	2.1	1.9	2.1	1.8
채소/과일 구매빈도 ²	친환경인증	1.9	1.7	2.4	2.1	2.5	2.1
	GAP인증	1.7	1.6	2.3	2.0	2.3	2.0
	양채류	2.4	2.2	2.9	2.7	3.0	2.6
	세척절단	1.7	1.5	2.0	2.0	2.2	1.9
1주일간 구입 과일의 종류(개)		2.1	1.9	2.6	2.3	2.6	2.3
1+등급이상 쇠고기 구매비율(%)		32.9	19.8	41.6	33.9	46.0	34.9
식자재 관심도(5점)	국내산	3.5	3.4	3.6	3.5	3.6	3.5
	로컬푸드	3.3	3.2	3.4	3.2	3.2	3.3
	친환경	3.2	3.0	3.3	3.1	3.2	3.1
식생활 성향별 점수	편리성 추구(12점)	3.3	2.6	3.2	4.5	4.4	3.6
	맛 추구(16점)	7.2	5.9	7.9	8.4	8.8	7.6
	건강 추구(16점)	8.4	8.0	9.2	8.0	8.9	8.4
	가격추구(12점)	5.8	5.5	6.4	6.2	6.7	6.1
	새로움 추구(12점)	5.2	4.7	5.8	6.0	6.4	5.6

¹ 구매빈도: 1(한 달 1회보다 드물게), 2(한달에 1회), 2주일에 1회, 4: 주 1회, 5: 주 2~3회, 6: 매일

² 구매빈도: 1(구매한 적 없음), 2(구입한 적이 있으나 최근 1년간 없음), 3(가끔 구입), 4(가장 많이 구입)

나. 식품 표시 및 안전성 등 정책관련 인지도 및 평가(성인가구원 대상)

-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의 활용도는 <표 4>에서 보듯이 군집 2(낮은 구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표시제도의 만족도 및 신뢰도는 군집별로 차이가 없었음
- 정부의 안전성관리나 소비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군집 2(낮은 구매)와 군집 3(가정식 위주)의 경우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군집 5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전통식품인증 등 표시·인증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군집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군집 3(가정식 위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정부 또는 민간이 실시하는 소비자교육 및 식품관련 홍보 행사 참여도는 군집 3(가정식 위주)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 군집별 식생활 관련 정책 인지도 및 평가

		군집별 점수 또는 비율					
		외식 의존	낮은 구매력	가정식 위주	편의 추구	고빈도/ 다양	전체
식품표시 (5점)	활용도	3.3	<u>2.7</u>	3.2	3.2	3.3	3.1
	만족도	3.3	3.3	3.3	3.3	3.2	3.3
	신뢰도	3.2	3.3	3.3	3.2	3.2	3.2
정책만족도 (100점)	안전성 관리	66.5	70.2	68.4	65.0	64.3	66.8
	소비자정책	64.5	67.7	65.0	62.5	61.5	64.2
표시 및 인증 식품 인지 여부 (3점)	전통식품인증제	1.5	1.4	1.7	1.5	1.6	1.5
	가공식품KS표시	1.9	1.8	2.1	2.1	2.1	2.0
	HACCP	1.5	1.4	1.8	1.6	1.8	1.6
	원산지	2.5	2.4	2.5	2.5	2.5	2.5
	유기농인증	2.1	1.9	2.3	2.2	2.2	2.1
	지리적표시	1.8	1.6	1.9	1.9	1.8	1.8
	생산이력	1.8	1.7	2.0	1.9	1.9	1.8
	GAP	1.6	1.5	1.8	1.6	1.7	1.6
식품관련행사 참여여부(%)	GMO	1.6	1.5	1.8	1.6	1.8	1.6
	소비자교육	0.8	0.9	3.6	1.3	1.8	1.6
	정부 홍보행사	0.3	0.3	2.1	0.6	1.3	0.9
	민간 홍보행사	0.6	0.6	2.7	0.7	0.9	1.0

다. 식생활 만족도 및 건강상태(성인 및 청소년 가구원 대상)

- 가구 구성원의 식생활 만족도는 <표 5>에서 보듯이 성인의 경우 가정식 위주형 가구(군집 3)가 가장 높고, 편의 추구형 가구(군집 4)가 가장 낮은 반면, 청소년의 경우는 군집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외식 의존형 가구(군집 1)가 상대적으로 낮음
- 1주일 간 식사의 규칙성 여부는 군집 2(낮은 구매)의 경우가 84%로 가장 높은 반면, 편의 추구형 가구 계층인 군집 4에서 59.4%로 가장 낮음
 - 성인 가구원의 1주일 간 평균 결식 횟수도 편의 추구형 가구가 가장 높았는데 특히, 아침결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식품 주 구매자의 건강 관심도는 군집 2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체질량지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가정식 위주인 군집 3(22.7)이 가장 낮은 반면, 편의 추구형 계층인 군집 4(24.4)와 식품 구매력이 높은 군집 5(24.7)에서 높게 나타남. 청소년의 체질량 지수는 군집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군집 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청소년 가구원 가운데 탄산음료를 가장 선호하는 비율은 편의 추구형 식생활 계층인 군집 4에서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침 식사 시 밥을 먹는 비율은 군집 3(가정식 위주)에서 86%로 가장 높았음
- 가구 구성원 가운데 성인들의 건강 관련 행위를 보면, 음주 빈도는 군집 4(편의추구)와 군집 5(높은 구매)에서 월 1회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 여부는 군집 4에서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체중조절 여부는 군집 5와 군집 3(가정식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 군집별 식생활 상태 평가

		군집별 점수 또는 비율					
		외식 의존	낮은 구매	가정식 위주	편의 추구	고빈도/다양	전체
식생활 만족도(5점)	성인	3.54	<u>3.44</u>	3.64	<u>3.42</u>	3.46	3.49
	청소년	<u>3.50</u>	3.61	3.62	3.62	3.60	3.60
주간 식사의 규칙성(성인, %)		79.0	83.9	79.4	<u>59.4</u>	62.4	71.8
1주일간 결식 횟수(성인)	아침	1.05	0.76	1.30	2.37	2.18	1.59
	점심	0.19	0.26	0.24	0.33	0.27	0.27
	저녁	0.22	0.19	0.20	0.19	0.17	0.19
건강 관심도(주구매자, 5점)		3.23	<u>2.85</u>	3.33	3.31	3.47	3.23
체질량지수	성인	22.8	23.6	<u>22.7</u>	24.4	24.7	23.8
	청소년	20.9	21.0	20.6	20.9	20.5	20.7
탄산음료 가장 선호 여부 (청소년의 경우, %)		30.0	43.5	40.4	50.8	36.5	41.4
아침식사 시 밥 섭취 여부 (청소년, %)		69.7	77.0	86.0	73.3	75.7	76.6
건강 행위 (성인)	음주 빈도 ¹	2.5	1.6	2.4	3.0	3.2	2.5
	규칙적 운동 여부(%)	38.5	31.4	39.9	29.2	35.9	34.3
	체중조절 여부(%)	32.4	19.6	41.2	36.7	44.8	34.6

¹ 음주빈도: 0(마시지 않음), 1(2-3달에 1회 미만), 2(2-3달에 1회), 3(1달 1회), 4(2주일에 1회), 5(주 1회) 6(주 2-3회), 7(주 4-5회), 8(매일)

- 종합하면 보면, 가정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계층인 군집 3에서 식생활 만족도, 식사의 규칙성, 체질량지수, 청소년의 탄산음료 선호 여부, 밥 위주의 아침 식사 여부, 음주빈도, 규칙적인 운동 여부 등과 관련하여 건강한 식생활 점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4. 군집별 비중의 영향 요인과 변화 분석

가. 군집별 비중에 대한 각 영향 요인별 효과

-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로부터 각 군집별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표 6>과 같음

① 연령 효과

- 식품 주 구매자의 연령이 늘어날 때 군집 2(낮은 구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편의추구 계층인 군집 4와 식품 구매 빈도가 높고 다양성 추구 계층인 군집 5의 비중은 20~30대에 높다가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냄
- 가정식 위주의 식생활을 추구하는 계층인 군집 3의 비중은 식품 주 구매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지만 50대 전후로 감소로 전환하는 패턴을 보임
- 외식 의존형 군집 1의 비중은 30대 이후 50대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의 연령대부터 다소 감소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임

② 가구 구성의 효과

- 1인 가구의 경우 외식 의존형 군집 1이나 식품 구매력 낮은 계층인 군집 2에 속할 확률이 높는데, 식품 주 구매자가 남자일 때가 여자인 경우보다 그 확률이 더 높음
-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주 구매자가 남자인 가구는 편의추구계층인 군집 4에 속할 확률은 주 구매자가 여성인 가구에 비해 15.7%p 높음
- 청소년 가구원의 유무 여부에 따른 군집별 구성비를 보면 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일 수록 다양한 식품에 대해 높은 구매빈도를 가지는 군집 5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6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군집 5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군집 1에 속할 확률은 낮고,

- 7~14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군집 5와 군집 3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군집 2에 속할 확률은 낮음
- 13~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군집 4와 군집 5에 속할 확률이 높음

③ 거주지 효과

- 외식 의존 계층인 군집 1에 속할 확률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반면, 낮은 구매력 계층인 군집 2에 속할 확률은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도시 거주 가구에 비해 높고,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높음
- 가정식 위주의 군집 3에 속할 확률은 중소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편의추구 계층인 군집 4에 속할 확률은 중소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농촌거주 가구에 비해 높고,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낮음.
- 높은 구매빈도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군집 5에 속할 확률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비수도권 거주 가구에 비해 7.6%p 더 높으나, 도시·농촌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표 6. 군집별 비중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설명변수		외식 의존	낮은 구매력	가정식 위주	편의 추구	고빈도 /다양
식품 주 구매자 연령	20대 이하	<u>0.061</u>	-0.127	-0.226	0.175	0.117
	30대	-0.028	0.004	-0.093	0.102	0.016
	50대	0.130	0.099	0.012	-0.125	-0.116
	60대	0.093	0.172	0.076	-0.238	-0.103
	70대 이상	0.113	0.207	0.044	-0.149	-0.216
가구 형태	1인 가구+남성 주 구매자	0.145	0.112	-0.196	0.099	-0.160
	1인 가구+여성 주 구매자	0.065	0.099	-0.034	-0.015	-0.115
	2인 이상 가구+남성 주 구매자	-0.030	-0.117	0.004	0.157	-0.013
청소년 가구원 여부	6세 이하	-0.064	0.000	0.005	-0.005	0.064
	7~12세	-0.013	-0.069	0.034	-0.029	0.077
	13~18세	-0.065	-0.019	-0.023	0.060	0.047
식품 주 구매자 학력	중졸이하	0.042	0.129	-0.031	-0.011	-0.129
	대졸이상	0.052	0.031	0.055	-0.106	-0.032
거주지	광역시	0.012	-0.035	-0.016	0.054	-0.015
	중소도시	0.030	-0.059	-0.060	0.105	-0.015
	수도권	-0.098	0.058	0.107	-0.142	0.076

설명변수		외식 의존	낮은 구매력	가정식 위주	편의 추구	고빈도 /다양
가구소득		-0.024	-0.042	0.015	0.027	0.023
맞벌이여부		0.053	0.017	-0.020	-0.045	-0.005
식품구매빈도		-0.044	-0.060	0.032	-0.025	0.096
식생활 추구 경향	편리성	0.000	-0.013	-0.014	0.019	0.008
	맛	-0.001	-0.030	0.001	0.017	0.014
	건강	0.009	0.013	0.008	-0.027	-0.004
	가격	0.003	-0.004	0.003	0.000	-0.002
	신제품	-0.014	-0.003	-0.001	0.003	0.016
식자재 관심도	국내산	-0.001	-0.032	-0.056	0.084	0.004
	로컬푸드	-0.013	0.000	0.044	-0.039	0.008
	친환경	0.043	-0.014	0.014	-0.017	-0.026

1. 굵은 표시는 유의수준 1%에서, 굵은 이탤릭체 표시는 5%에서, 굵게 밑줄한 표시는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2. 기준변수는 2인 이상 가구이며 식품 주 구매자가 여성, 40대 연령층, 고졸 학력자, 농촌 거주자임.

④ 소득 및 기타 요인별 효과

- 가구소득이 증가할 때 군집 1과 군집 2에 속할 확률은 줄어드는 반면, 군집 3, 4, 5에 속할 확률은 늘어남
 - 소득 향상에 따른 군집 비중의 증가 정도는 군집 4(편의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식생활 추구 경향에 따른 군집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편리성, 맛 중시 성향이 높은 가구일수록 군집 4와 군집 5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군집 3과 군집 2에 속할 확률이 낮았음. 건강 중시 성향이 높은 가구일수록 군집 4(편의추구)에 속할 확률이 낮음
- 식재료가 로컬푸드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구일수록 건강식 위주 계층인 군집 3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군집 4에 속할 가능성은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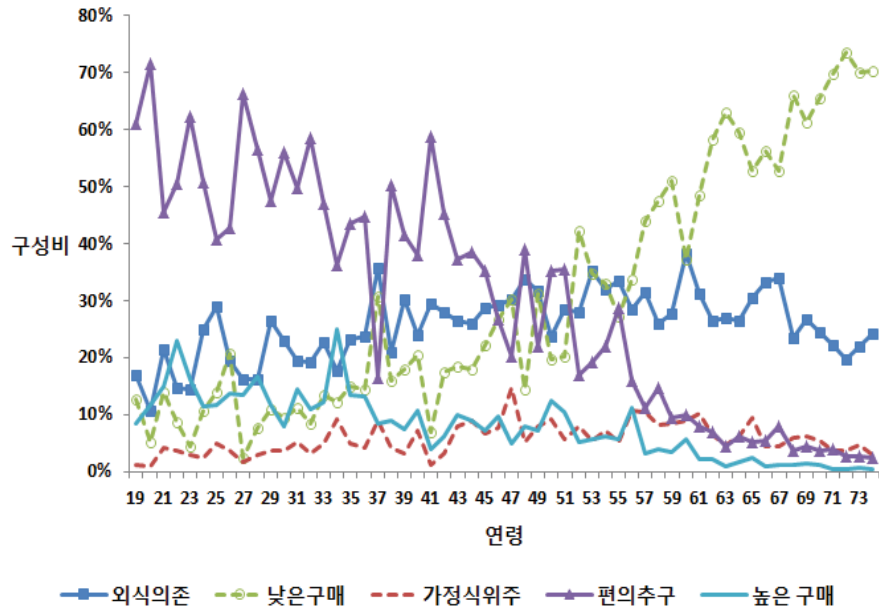
나. 군집별 구성비의 변화 전망

- 주 구매자의 연령에 따라 군집별 구성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1인 가구 여부와 가구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 1>과 <그림 2>임
-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변화에 따른 군집별 구성비의 변화는 <그림 1>의 (가)와 같음
 - 20대에서는 편의추구 계층 비율(5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외식 의존 계층(19.3%), 높은 구매 계층(14.4%) 순서이나, 60대에서는 낮은 구매 계층(55.0%), 외식의존 계층(29.7%) 등의 순서로 바뀜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연령 증가 시 군집별 구성비의 변화는 <그림 1>의 (나)와 같음
 - 20대에서는 편의추구 계층 비율(45.1%)과 높은 구매 계층 비율(39.8%)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60대에서는 낮은 구매 계층(43.1%), 외식의존 계층(21.9%), 가정식 위주 계층(17.1%)의 순서로 바뀜
- 표본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3등분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군집별 구성비의 변화를 도식한 것이 <그림 2>임
 - 소득수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령 증가 시 군집 5(높은 구매)의 비중은 감소하며,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가정식 위주 계층(군집 3)의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남
 - 외식 의존 계층과 낮은 구매 계층의 비율은 연령 증가 시 소폭 늘어나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 정도가 크게 나타남
 - 편의추구 경향은 연령 증가 시 감소하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감소 폭은 작았음

그림 1. 가구 유형별 연령에 따른 군집별 구성비의 변화

(가) 1인 가구



(나) 2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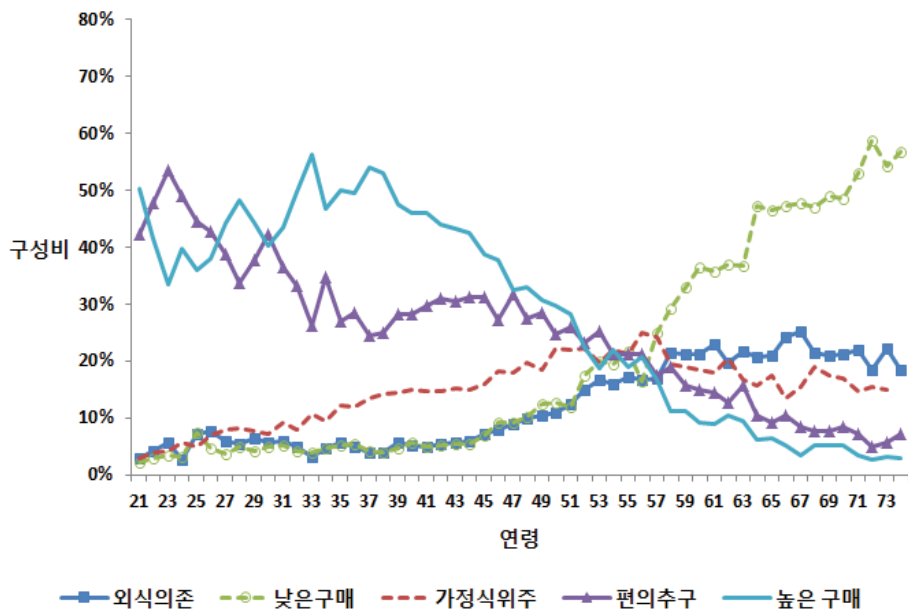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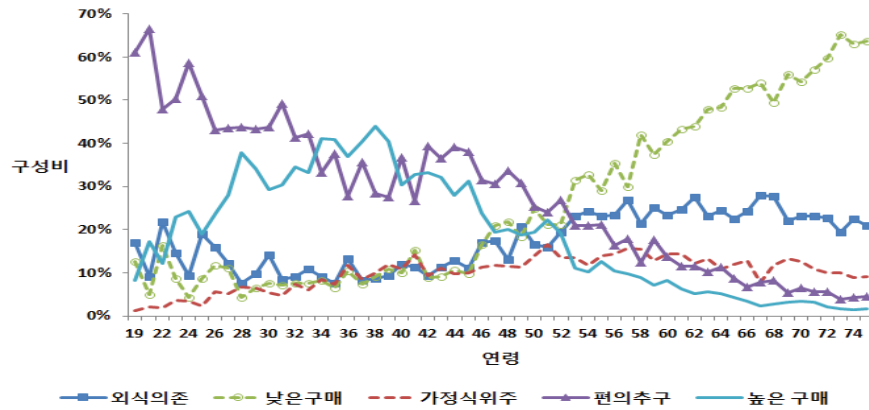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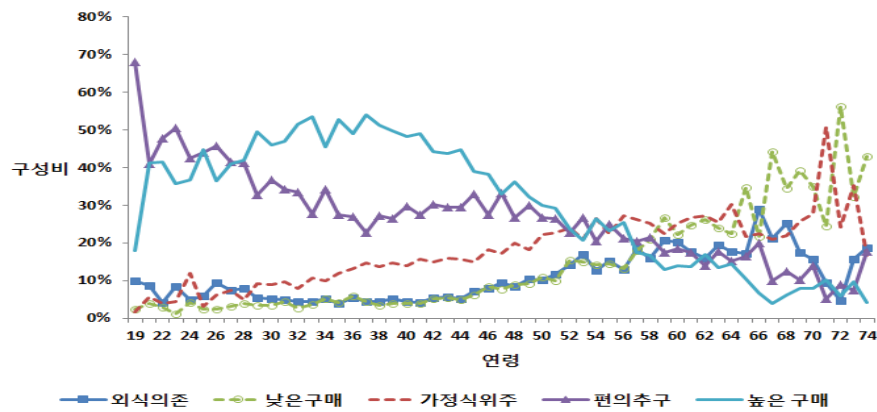


그림 2. 가구 유형별 연령에 따른 군집별 구성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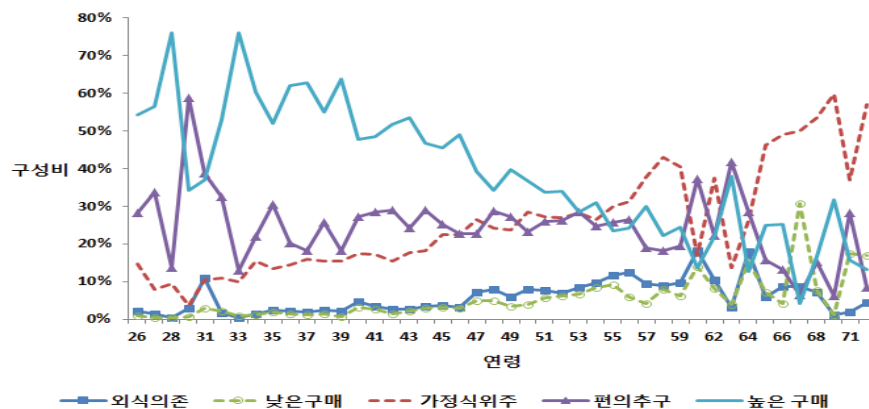
(가) 저소득 계층(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나) 중간 소득 계층(월 가구소득 300~600만 원 미만)



(다) 고소득 계층(월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Ⅳ. 요약 및 결론

- 식품류별 지출액이나 탄력성 등 소비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식품류별 구매 빈도가 유사한 가구를 군집하여 계층별로 식생활 행태 및 만족도, 건강 실천 행위 등을 분석함
-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기 보다는 조리식품, 배달식품, 외식의 구매빈도가 높은 가구일수록 가정식 위주의 식생활 계층에 비해 식생활 만족도, 가구의 결식횟수뿐만 아니라 비만도, 건강 실천 행위 등의 측면에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1인 가구(특히 남자 가구주)이거나, 고령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식품 구매력이 낮거나 외식 의존형 식생활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식생활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
- 20~30대 계층일수록 외식 의존형이나 편의 추구형 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들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가정식 위주의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연령 코호트 효과가 존재한다면 외식 의존형이나 편의 추구형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음.
 - 식품 소비행태조사 자료가 다년간 축적이 된다면 이 부분의 규명이 가능
- 식생활 행태별 가구 구성비는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이나 소득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진전,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하락 시 가정식 위주 식생활 계층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외식 의존형 계층이나 식품 구매력이 낮은 계층의 구성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이들 계층이 식품 가운데 특히 육류, 과일 및 수산물의 섭취 부족으로 인한 필요영양소의 적정량 공급 어려움, 식생활 만족도 저하, 비만유병률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이 연구에서는 구매빈도의 분석이 대분류된 식품류에 국한하여, 분석대상 품목이 가공식품 등 세제품목까지 포괄하지 못한 점과 구매량이나 구매액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음.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참고문헌

- 권오상, 2008. “가계별 식료품 지출행위 준모수적 분석.” 『농촌경제』 30(6): 1-18.
- 김민아·김관수·안동환, 2011. “식품소비패턴의 결정요인 분석.” 『식품유통연구』 28(3): 37-55.
- 김성용·이계임·한혜성, 2008. “지니계수분해법에 의한 식품류별 지출탄력성의 변화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4): 809-828.
- 김성용, 2008. “식품소비지출 변화의 요인 분해 분석,” 『농업경제연구』 49(4): 65-82.
- 유소이·박재홍, 2004. “성인등가척도를 이용한 도시가계의 소비행동 연구-식료품비와 외식비 사례.” 『농업경영정책연구』 31(3): 427-443.
- 유소이, 2005. “도시가계의 식품소비 다양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8(2): 29-42.
- 이용호·임재영, 2014. “고령화에 따른 식품 소비지출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1(1): 112-133.
- Johnson, R and D. Wichern, 1998.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4th ed., New York, Prentice Hall.
- Newby, P.K. and K.L. Tucker, 2004. “Empirically Derived Eating Patterns Using Factor or Cluster Analysis: A Review.” *Nutrition Reviews* 63(5): 177-203.

1인 가구의 유형별 식품소비행태 분석

박 재 홍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인가구 유형별 식품소비행태분석

박재홍 (영남대학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80년대 총 가구의 4.8%이던 1인가구가 2000년대 들어서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1인가구가 414만 2천 가구로(23.9%) 증가하였음.(통계청, 2011)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는 2035년 1인가구는 762만 8천 가구로 34.3%로 증가 전망
-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으로도 1인 가구화 추세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1인가구의 비중은 지속적 증가할 전망이다.
- 1인 가구의 증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임.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식품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이나 소량소포장 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편의점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음.
- 이에 1인 가구의 식품 소비 패턴을 인구통계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1인 가구 유형별로 식품소비의 차이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기업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자료 및 방법

-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음. 설문은 가구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실시되었고, 크게 가구내 식품 주 구매자, 가구내 성인, 가구내 청소년 등의 설문이 각각 이루어졌음.
-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구내 식품 주 구매자 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표본 1인 가구의 수는 465가구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인구총조사와 같은 표본추출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층 및 조사구역 등을 기반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 빈도, 모수 등을 추정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1인 가구의 일반 현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여자가구주의 비중이 57.5%로 남자보다 많았음.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0대-30대, 그리고 30대-40대의 순으로 많았음.
 -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으로 순으로 1인가구가 많이 나타났음.
 - 직업은 농림업 및 노무직의 비중이 24.0%, 관리사무직 17.6%, 주부 16.1%, 서비스판매직 14.2%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군인 등이 포함된 기타가 28.1%로 가장 많았음.

표 1. 1인가구의 일반현황

단위 : %

구 분		비 중	구 분		비 중
성별	여자	57.5	직업	관리사무직	17.6
	남자	42.5		서비스판매직	14.2
연령	20-39세	31.9		농림업 및 노무직	24.0
	40-59세	28.8		주부	16.1
	60세 이상	39.3		기타	28.1
지역	수도권	40.2	학력	중졸이하	34.9
	충청권	14.1		고졸	36.7
	호남권	12.8		대졸이상	26.3
	경북권	8.3		기타	2.3
	경남권	21.3			
	강원권	3.3			

- 연구방법으로는 1인 가구의 식품소비행태를 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식품품목별 구매빈도와 조달처 그리고 구매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및 학력 등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독립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식품소비행동이 식생활의 만족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인 가구의 식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식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음.

3. 1인가구의 식품소비행태 분석결과

- 가정 내에서 음식조리(표 1) 경향은 전체의 82.4%가 직접 조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밖에 조리 또는 반조리식품 사용과 전혀 음식조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4.7%와 2.9%로 나타났다.
- 가정 내에서 음식조리 방법 별 평균과 비교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조리나 반조리 식품의 이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22.2%, 9.2%). 연령에 있어서는 40-50대와 60세 이상에서 직접 조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조리나 반조리식품의 이용은 20-30대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는 호남권과 강원권에서 직접 조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를 제외하고 농림업 및 노무직과 기타 직업군에서 직접 조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직접 조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조리식품과 반조리식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가정내 음식조리

단위 : %

구 분		직접 만들어 먹는다	대부분 조리식품&반조리식품	만들어 먹지 않는다
성별	여자	90.2	9.2	0.6
	남자	71.9	22.2	5.9
연령	20-39세	61.5	32.4	6.1
	40-59세	84.9	12.7	2.4
	60세 이상	97.5	1.9	0.6
지역	수도권	76.5	18.0	5.5
	충청권	78.4	20.6	1.0
	호남권	96.8	3.3	0.0
	경북권	82.0	13.4	4.7
	경남권	86.4	13.0	0.6
	강원권	90.5	9.5	0.0
직업	관리사무직	66.0	30.6	3.4
	서비스판매직	76.6	14.5	8.9
	농림업 및 노무직	83.7	15.7	0.6
	주부	98.9	1.1	0.0
	기타	85.0	12.0	3.1
학력	중졸이하	97.3	2.7	0.0
	고졸	75.0	18.6	6.4
	대졸이상	71.4	26.6	2.0
	기타	100.0	0.0	0.0
전 체		82.4	14.7	2.9

3.1. 전반적인 식품구입과 소비 행태

3.1.1. 식료품 구입 빈도

- 식료품 구입빈도(표 3)는 전체적으로 주 1회(46.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주일에 1회(23.4%), 주 2-3회(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매일 구입의 경우 40-50대, 60세 이상, 충청권과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 중졸 이하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주 2-3회 구입의 경우는 여성, 40-50대, 충청권과 경남권, 관리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음. 주 1회의 경우는 남성, 20-30대, 40-50대,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및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주일에 1회 구입의 경우는 남성, 60세 이상, 호남권과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기타 직업군대졸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식료품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성별	여자	2.8	20.0	43.3	22.8	8.2	2.9
	남자	2.8	15.2	49.8	24.3	4.8	3.3
연령	20-39세	1.5	15.8	49.8	23.8	8.1	1.0
	40-59세	3.6	24.4	49.3	17.4	1.1	4.1
	60세 이상	3.2	15.0	40.6	27.6	9.7	3.9
지역	수도권	2.7	15.7	48.2	21.3	8.0	4.1
	충청권	6.1	21.7	45.6	17.3	7.2	2.1
	호남권	0.0	12.1	40.8	33.6	9.0	4.5
	경북권	1.4	14.2	48.8	25.6	4.8	5.2
	경남권	3.4	26.6	46.7	20.6	2.7	0.0
	강원권	0.0	6.0	31.1	49.0	11.0	2.9
직업	관리사무직	1.9	8.8	58.5	20.0	8.2	2.6
	서비스판매직	0.7	19.2	50.3	16.7	6.8	6.3
	농림업 및 노무직	3.1	19.5	42.7	24.4	8.7	1.6
	주부	3.2	19.8	42.4	25.0	5.7	3.9
	기타	3.8	20.7	41.1	27.2	4.6	2.6
학력	중졸이하	3.6	19.6	37.9	27.8	7.2	3.9
	고졸	2.8	16.9	44.8	26.7	4.9	3.9
	대졸이상	2.0	18.5	59.5	12.8	7.2	0.0
	기타	0.0	3.0	36.4	26.7	22.2	11.7
전 체		2.8	18.0	46.1	23.4	6.7	3.1

3.1.2. 식료품 주 구입처

- 식료품 주 구입처(표 4)는 전체적으로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식품구입처 별로는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경우 남성, 수도권, 충청권과 경북권,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중소형 슈퍼마켓은 남성, 20-30대, 호남권, 관리사무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남성, 20-30대, 40-50대, 충청권과 강원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재래시장은 여성, 40-50대, 60세 이상,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및 기타직업군,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4. 식료품 주 구입처

단위 : %

구 분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대기업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재래시장	백화점 식품코너	통신판매	기타
성별	여자	32.1	4.0	23.7	39.1	0.0	0.2	0.8
	남자	45.9	12.8	25.6	14.7	1.0	0.0	0.0
연령	20-39세	46.1	16.3	32.3	4.1	1.3	0.0	0.0
	40-59세	36.0	4.3	29.5	29.7	0.0	0.5	0.0
	60세 이상	32.8	3.3	14.6	48.0	0.0	0.0	1.2
지역	수도권	45.6	8.1	23.1	22.2	1.0	0.0	0.0
	충청권	41.0	4.7	39.2	14.4	0.0	0.0	0.8
	호남권	34.4	13.6	19.8	31.2	0.0	0.0	0.9
	경북권	42.3	4.7	14.6	35.5	0.0	0.0	3.0
	경남권	22.2	7.3	23.5	46.4	0.0	0.6	0.0
	강원권	37.7	4.6	28.9	28.8	0.0	0.0	0.0
직업	관리사무직	30.8	23.6	35.6	10.0	0.0	0.0	0.0
	서비스판매직	27.3	4.2	39.2	26.3	2.9	0.0	0.0
	농림업 및 노무직	42.8	8.2	19.8	29.3	0.0	0.0	0.0
	주부	31.6	3.0	14.3	49.6	0.0	0.8	0.7
	기타	47.5	1.8	20.2	29.2	0.0	0.0	1.3
학력	중졸이하	31.8	3.8	13.8	48.9	0.0	0.4	1.4
	고졸	43.7	5.3	27.7	23.3	0.0	0.0	0.0
	대졸이상	39.3	16.3	34.8	8.0	1.6	0.0	0.0
	기타	26.5	7.4	20.0	46.1	0.0	0.0	0.0
전 체		38.0	7.7	24.5	28.7	0.4	0.1	0.5

3.1.3. 식료품 주 구입처 이용 이유

- 식료품 주 구입처 이용 이유(표 5)는 전체적으로 근거리 또는 교통편리(50.6%)와 저렴한 가격(23.7%)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식료품 주 구입처 이용이유로 높게 나타난 요인들 중 근거리 또는 교통편리가 주 구입처 이용 이유인 경우 남성, 20-30대, 40-50대, 수도권,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주부,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저렴한 가격이 이유인 경우는 60세 이상, 호남권과 경북권 및 강원권,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기타 직업군,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좋은 품질의 경우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지역, 농림업과 노무직 및 기타 직업군, 고졸을 제외한 모든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식료품 주 구입처 이용 이유

단위 : %

구 분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근거리 또는 교통편리	직접 배달	타 상품 동시 구매	다양한 상품	친절함 서비스	기타
성별	여자	8.8	23.7	48.1	2.0	9.2	7.8	0.3	0.0
	남자	7.6	23.6	54.1	0.6	5.6	7.4	0.0	1.1
연령	20-39세	7.4	15.5	53.5	0.0	11.1	11.1	0	1.5
	40-59세	7.1	20.9	54.9	2.4	7.1	7.5	0	0.0
	60세 이상	10.0	32.3	45.1	1.8	5.3	4.9	0.42	0.2
지역	수도권	3.9	22.2	54.2	2.4	11.0	6.3	0.0	0.0
	충청권	3.5	22.1	45.3	0.0	11.0	14.2	0.0	4.0
	호남권	15.0	35.2	39.6	0.0	2.1	8.1	0.0	0.0
	경북권	12.1	27.2	48.6	0.0	0.0	12.2	0.0	0.0
	경남권	14.2	16.5	55.7	1.9	6.9	4.8	0.0	0.0
	강원권	9.7	40.6	44.9	0.0	0.0	0.0	4.9	0.0
직업	관리사무직	8.1	12.0	59.2	0.0	8.9	11.7	0.0	0.0
	서비스판매직	1.4	27.4	49.2	3.1	12.6	6.3	0.0	0.0
	농림업 및 노무직	9.8	27.4	48.0	2.3	4.2	6.3	0.0	0.0
	주부	7.9	21.9	55.8	2.5	6.2	4.2	1.0	0.5
	기타	10.9	26.9	45.1	0.0	8.2	8.9	0.0	0.0
학력	중졸이하	10.3	30.7	47.2	2.6	2.9	5.7	0.5	0.2
	고졸	4.6	20.8	54.0	1.3	11.5	6.5	0.0	1.3
	대졸이상	10.3	18.1	50.9	0.0	8.3	12.5	0.0	0.0
	기타	13.5	27.9	44.7	0.0	13.9	0.0	0.0	0.0
전 체		8.3	23.7	50.6	1.4	7.7	0.2	0.1	0.5

3.1.4.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빈도

- 인터넷을 이용한 식료품 구입빈도(표 6)는 전체적으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0.8%로 나타났다.
-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 20-30대, 수도권, 관리사무직, 대졸 이상의 학력군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1달에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 20-30대, 수도권, 관리사무직, 고졸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인터넷을 이용한 식료품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구입하지 않음
성별	여자	0.9	2.0	5.8	91.4
	남자	0.0	4.3	5.6	90.1
연령	20-39세	0.0	7.7	15.0	77.3
	40-59세	1.7	1.8	2.3	94.2
	60세 이상	0.0	0.0	0.6	99.4
지역	수도권	0.0	4.3	10.6	85.1
	충청권	2.2	1.5	1.5	94.8
	호남권	0.0	0.4	6.3	93.2
	경북권	0.0	0.0	0.0	100.0
	경남권	0.9	3.9	1.5	93.8
	강원권	0.0	4.0	3.0	93.0
직업	관리사무직	0.0	1.2	24.4	74.4
	서비스판매직	0.0	2.6	3.7	93.7
	농림업 및 노무직	1.3	1.9	0.0	96.9
	주부	1.2	0.0	0.8	98.0
	기타	0.0	6.9	2.6	90.5
학력	중졸이하	0.0	0.0	0.7	99.3
	고졸	0.5	2.3	4.1	93.1
	대졸이상	1.2	8.2	15.0	75.6
	기타	0.0	0.0	0.0	100.0
전 체		0.5	3.0	5.7	90.8

3.1.5.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 이유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구입한 이유(표 7)는 저렴한 가격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61.1%), 다음으로 소량자주 구입(11.2%), 배달(8.2%), 좋은 품질(6.9%) 순으로 나타났다.

- 식료품 구입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저렴한 가격은 남성, 20-30대, 수도권과 경남권, 강원권, 기타 직업군,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소량 자주 구입하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남성, 60세 이상, 호남권과 경남권, 서비스판매직과 주부,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 밖에 배달은 여성, 20-30대, 수도권과 충청권, 관리사무직과 고졸에서, 좋은 품질은 남성, 40-50대, 수도권, 서비스판매직과 기타 직업군,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7. 인터넷을 이용한 식료품 구입 이유

단위 : %

구 분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소량 자주 구입	배달	다양한 상품	기타
성별	여자	6.4	56.6	9.6	15.1	0.0	12.3
	남자	7.6	66.3	13.2	0.0	5.5	7.5
연령	20-39세	4.4	68.9	9.1	10.3	0.0	7.3
	40-59세	18.9	35.7	7.9	0.0	13.7	23.8
	60세 이상	0.0	0.0	100.0	0.0	0.0	0.0
지역	수도권	10.6	63.7	8.1	8.9	0.0	8.6
	충청권	0.0	42.0	0.0	29.0	0.0	29.0
	호남권	0.0	46.6	26.9	0.0	26.5	0.0
	경북권	0.0	0.0	0.0	0.0	0.0	0.0
	경남권	0.0	62.2	23.3	0.0	0.0	14.6
	강원권	0.0	100.0	0.0	0.0	0.0	0.0
직업	관리사무직	0.0	58.3	10.8	16.6	5.1	9.2
	서비스판매직	35.3	45.1	19.6	0.0	0.0	0.0
	농림업 및 노무직	0.0	58.4	0.0	0.0	0.0	41.6
	주부	0.0	0.0	40.7	0.0	0.0	59.3
	기타	12.0	79.3	8.8	0.0	0.0	0.0
학력	중졸이하	0.0	0.0	100.0	0.0	0.0	0.0
	고졸	25.1	28.2	17.9	21.2	0.0	7.7
	대졸이상	0.0	76.3	5.4	3.3	3.6	11.4
	기타	-	-	-	-	-	-
전 체		6.9	61.1	11.2	8.2	0.0	2.5

3.1.6. 친환경 농산물 구입빈도

- 친환경 농산물 구입빈도(표 8)는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4%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달에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하는 비율이 13.4%로 나타났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비구입의 경우 여성, 60세 이상, 경북권과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전 직업군, 중졸 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있어서는 1달에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20-30세,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대졸 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8. 친환경 농산물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구입하지 않음
성별	여자	0.0	0.4	3.4	1.9	4.3	13.3	76.8
	남자	0.8	1.1	3.5	1.8	8.3	13.5	71.1
연령	20-39세	1.0	1.1	2.5	1.8	6.9	19.9	66.8
	40-59세	0.0	1.2	7.0	1.5	7.2	11.5	71.6
	60세 이상	0.0	0.0	1.6	2.2	4.3	9.4	82.6
지역	수도권	0.8	0.0	3.7	2.5	5.6	14.4	72.9
	충청권	0.0	2.5	3.7	0.9	6.5	20.8	65.7
	호남권	0.0	0.0	4.5	1.0	6.3	18.4	69.8
	경북권	0.0	0.0	0.0	0.0	1.8	8.0	90.2
	경남권	0.0	1.6	3.7	2.5	5.9	6.7	79.6
	강원권	0.0	0.0	1.5	2.6	17.5	5.9	72.6
직업	관리사무직	0.0	1.2	5.5	0.6	10.1	22.7	60.0
	서비스판매직	0.0	0.0	6.3	3.7	2.9	19.2	67.9
	농림업 및 노무직	0.0	2.0	2.2	1.5	0.7	12.9	80.8
	주부	0.0	0.0	0.8	1.2	10.2	8.2	79.6
	기타	1.1	0.0	3.2	2.5	7.1	7.9	78.2
학력	중졸이하	0.0	0.0	1.4	0.4	3.7	7.8	86.7
	고졸	0.9	1.3	4.5	3.4	5.0	11.5	73.5
	대졸이상	0.0	0.8	4.8	1.9	10.9	23.9	57.7
	기타	0.0	0.0	0.0	0.0	0.0	7.3	92.7
전 체		0.3	0.7	3.4	1.9	6.0	13.4	74.4

3.1.7. 기능성 식품 섭취

- 기능성 식품 섭취(표 9)는 전체적으로 먹지 않는다는 응답과 먹는다는 응답이 각각 66.1%와 33.9%로 나타났음.
- 기능성 식품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40-50대, 60세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 및 호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주부,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9. 기능성 식품 섭취

단위 : %

구 분		먹는다	먹지 않는다
성별	여자	42.8	57.2
	남자	21.8	78.2
연령	20-39세	28.3	71.7
	40-59세	35.9	64.1
	60세 이상	36.9	63.1
지역	수도권	35.4	64.6
	충청권	42.7	57.3
	호남권	39.4	60.6
	경북권	13.8	86.3
	경남권	31.3	68.7
	강원권	25.2	74.8
직업	관리사무직	35.3	64.7
	서비스판매직	39.8	60.3
	농림업 및 노무직	27.5	72.6
	주부	50.2	49.8
	기타	26.2	73.8
학력	중졸이하	35.4	64.7
	고졸	35.6	64.4
	대졸이상	30.5	69.5
	기타	24.6	75.4
전 체		33.9	66.1

3.1.8. 1년 전 대비 식품소비지출액 변화

- 1년 전과 비교하여 식품소비지출액의 변화(표 10)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거나(63.2%) 약간 증가(25.7%) 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 20-30대, 60세 이상, 호남권과 경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 관리사무직과 주부,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40-50대, 호남권과 경남권,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0. 식품소비지출액 변화

단위 : %

구 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성별	여자	1.0	9.6	66.3	22.7	0.3
	남자	0.8	10.7	59.0	29.6	0.0
연령	20-39세	1.9	10.4	66.1	21.2	0.4
	40-59세	0.0	7.1	57.1	35.8	0.0
	60세 이상	0.6	12.1	65.3	21.8	0.2
지역	수도권	0.8	14.2	68.1	16.9	0.0
	충청권	3.9	6.1	71.9	18.2	0.0
	호남권	0.0	5.0	58.4	35.7	0.9
	경북권	0.0	9.1	71.6	19.3	0.0
	경남권	0.0	7.0	45.7	47.0	0.4
	강원권	0.0	19.2	76.6	4.1	0.0
직업	관리사무직	0.0	10.9	71.4	17.8	0.0
	서비스판매직	0.0	8.5	60.8	30.8	0.0
	농림업 및 노무직	1.2	7.0	59.0	32.8	0.0
	주부	1.5	5.0	69.4	24.0	0.0
	기타	1.1	16.0	59.3	22.8	0.7
학력	중졸이하	0.0	8.7	64.3	26.8	0.2
	고졸	1.6	11.2	62.8	24.5	0.0
	대졸이상	1.1	10.9	60.5	27.0	0.4
	기타	0.0	4.3	84.9	10.8	0.0
전 체		0.9	10.1	63.2	25.7	0.2

3.2. 쌀 구입과 소비 행태

3.2.1. 쌀 구입빈도

- 쌀 구입빈도(표 11)는 전체적으로 2-3개월에 1회 또는 1년에 2-3회 구입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36.9%, 32.7%), 집에서 쌀을 먹지 않거나 햇반류의 가공식품만을 먹는다는 비율도 각각 2.5%와 4.1로 나타났다.
- 그 중 2-3개월에 1회 쌀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40-50대, 60세 이상, 경북권과 경남권, 강원권, 주부와 기타 직업군, 중졸 이하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년에 2-3회 구입의 경우는 여성, 20-30대와 40-50대, 수도권과 호남권,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낮은 비율이지만 햇반류의 가공식품만을 먹는다는 응답한 경우 여성, 40-50대, 60세 이상, 호남권과 경남권, 주부와 기타 직업군,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을 제외한 전 집단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 쌀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1개월에 1~2회 이상	2~3개월에 1회	1년에 2~3회	그보다 드물게	집에서는 쌀을 먹지 않음	집에서는 햇반류의 가공식품만 먹음
성별	여자	13.0	38.1	34.0	12.2	2.7	0.0
	남자	12.2	35.4	31.0	9.5	2.2	9.7
연령	20-39세	10.8	27.3	36.2	7.0	6.9	11.8
	40-59세	14.9	45.5	33.5	5.3	0.3	0.4
	60세 이상	12.6	38.5	29.4	18.5	0.5	0.6
지역	수도권	8.3	30.6	35.6	16.5	4.3	4.8
	충청권	11.8	45.1	30.9	5.2	1.6	5.4
	호남권	11.6	32.7	38.6	17.0	0.0	0.0
	경북권	21.8	40.2	12.1	10.1	6.5	9.3
	경남권	18.6	42.4	34.0	2.9	0.0	2.2
	강원권	13.4	53.1	26.7	1.4	0.0	5.5
직업	관리사무직	11.1	24.4	48.7	7.5	0.7	7.5
	서비스판매직	22.6	34.6	26.7	11.7	0.0	4.4
	농림업 및 노무직	9.4	32.5	38.4	14.2	0.4	5.1
	주부	11.7	43.6	24.2	20.5	0.0	0.0
	기타	12.1	46.0	25.8	4.7	8.0	3.4
학력	중졸이하	10.2	39.8	33.4	16.6	0.0	0.0
	고졸	12.8	35.9	31.5	7.6	4.5	7.8
	대졸이상	15.1	34.6	32.8	9.4	3.2	4.9
	기타	21.0	37.0	42.0	0.0	0.0	0.0
전 체		12.7	36.94	32.74	11.03	2.48	4.11

3.2.2. 쌀 주요 조달처

- 쌀 구입시 주요 조달처(표 11)는 전체적으로 전부 직접 구입 또는 전부 친지 조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각각 62.7%, 20.1%).
- 전부 직접 구입의 경우 여성, 40-50대, 60세 이상, 수도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전지역, 서비스판매직과 주부, 대졸 이상을 제외한 전 학력군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부 친지 조달인 경우는 남성, 20-30대, 충청권과 호남권,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고졸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1. 쌀 주요 조달처

단위 : %

구 분		전부 직접 구입	일부 구입, 친지 조달	전부 친지 조달	기타
성별	여자	69.3	9.9	17.1	3.7
	남자	52.9	17.9	24.2	4.1
연령	20-39세	52.0	19.0	27.7	1.2
	40-59세	68.9	9.2	18.9	3.1
	60세 이상	65.4	12.0	15.6	7.0
지역	수도권	56.2	20.1	19.1	4.6
	충청권	69.6	3.9	22.5	4.1
	호남권	57.3	14.8	20.9	7.0
	경북권	77.1	11.1	5.0	6.9
	경남권	68.0	4.6	26.1	1.3
	강원권	64.4	24.6	9.2	1.9
직업	관리사무직	54.2	18.1	27.7	0.0
	서비스판매직	68.5	16.3	13.0	2.2
	농림업 및 노무직	56.1	8.2	23.1	11.9
	주부	75.6	7.2	13.3	0.7
	기타	62.8	16.4	20.2	0.7
학력	중졸이하	64.6	10.9	17.6	0.0
	고졸	68.7	10.2	19.5	6.9
	대졸이상	50.6	20.2	25.0	1.7
	기타	77.8	12.7	9.6	4.3
전 체		62.7	13.1	20.0	4.2

3.2.2. 쌀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

- 쌀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표 12)으로는 전체적으로 품질과 가격(각각 31.1%, 25.3%)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맛과 신선도, 맛, 안전성, 구입편리성 및 영양(건강)순으로 나타났음(각각 16.4%, 10.0%, 7.3%, 5.9%, 3.5%).
- 쌀 구입시 고려 기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품질은 여성, 20-30대, 40-50대, 충청권과 호남권, 경남권과 강원권, 주부와 기타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 대졸 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은 남성, 20-30대, 60세 이상, 수도권, 경북권과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 고졸과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2. 쌀 구입시 고려 기준

단위 : %

구 분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 (건강)	신선도	구입의 편리성	기타
성별	여자	17.1	19.0	6.9	33.0	4.0	13.6	5.5	0.5
	남자	38.9	12.1	7.8	28.0	2.6	4.0	6.7	0.0
연령	20-39세	27.4	12.8	10.3	32.9	3.3	7.1	6.2	0.0
	40-59세	22.4	16.4	7.5	34.1	4.1	6.9	7.7	1.0
	60세 이상	26.1	18.6	5.3	27.8	3.1	14.0	4.5	0.0
지역	수도권	37.9	13.6	8.1	28.2	2.5	6.9	1.3	1.5
	충청권	10.1	15.5	3.1	31.7	4.9	12.2	22.6	0.0
	호남권	21.3	10.6	15.4	37.4	6.6	8.7	0.0	0.0
	경북권	28.3	17.8	0.0	25.7	0.0	3.5	24.8	0.0
	경남권	11.6	26.6	6.8	33.5	2.4	18.3	0.8	0.0
	강원권	32.3	7.9	5.8	36.3	11.1	6.6	0.0	0.0
직업	관리사무직	18.6	17.5	3.7	39.8	7.6	7.6	5.3	0.0
	서비스판매직	20.3	18.9	7.0	36.2	3.3	5.9	8.4	0.0
	농림업 및 노무직	27.9	8.5	11.3	36.5	2.1	10.3	3.5	0.0
	주부	21.0	19.6	6.6	28.6	4.3	12.7	5.7	1.6
	기타	33.1	18.0	7.0	20.7	1.6	11.8	6.8	1.0
학력	중졸이하	24.2	18.8	6.4	30.2	2.6	13.4	4.4	0.0
	고졸	28.8	10.1	10.1	30.1	3.0	7.8	8.6	1.6
	대졸이상	18.4	21.6	5.2	35.2	5.9	8.6	5.0	0.0
	기타	53.5	20.5	0.0	21.6	0.0	4.4	0.0	0.0
전 체		25.3	16.4	7.3	31.1	3.5	10.0	5.9	0.6

3.2. 채소 구입과 소비 행태

3.2.1. 채소 구입빈도

- 채소 구입빈도(표 13)는 주로 주 1회 또는 2주일에 1회 구입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38.7%, 22.9%), 다음으로 주 2-3회는 16.2%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 1회의 경우 여성, 40-50대, 충청권, 경북권과 경남권, 관리사무직, 서비스판매직과 주부,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2주일에 2회의 경우는 남성, 20-30대, 충청권과 호남권 및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 기타 직업군, 고졸과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3. 채소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집에서는 채소를 먹지 않음
성별	여자	4.7	21.4	39.8	17.8	7.1	6.3	2.9
	남자	2.0	9.0	37.2	29.8	6.8	7.7	7.4
연령	20-39세	1.7	7.1	37.7	29.2	6.2	5.0	13.1
	40-59세	3.8	21.8	45.1	21.0	2.3	4.9	1.1
	60세 이상	4.9	19.4	34.8	19.3	11.0	9.9	0.8
지역	수도권	7.6	21.3	33.3	19.3	7.3	5.0	6.2
	충청권	0.0	12.6	40.3	28.1	2.6	13.3	3.2
	호남권	2.2	7.8	34.4	26.3	18.7	8.9	1.8
	경북권	0.0	10.3	39.8	21.9	6.0	4.5	17.7
	경남권	1.0	16.5	50.1	22.6	3.6	6.2	0.0
	강원권	0.0	13.8	37.2	37.0	0.0	6.5	5.5
직업	관리사무직	4.0	11.7	50.5	20.8	0.0	3.7	9.3
	서비스판매직	2.2	20.9	47.2	13.5	9.5	4.9	1.7
	농림업 및 노무직	4.1	13.7	29.5	25.2	10.6	16.0	1.0
	주부	3.7	24.0	40.2	23.0	4.7	4.4	0.0
	기타	3.4	14.1	34.0	27.1	8.2	3.5	9.7
학력	중졸이하	4.8	20.1	36.8	17.8	9.1	11.2	0.2
	고졸	2.8	16.8	31.3	30.3	6.6	4.6	7.6
	대졸이상	3.3	11.0	52.0	19.0	3.3	3.8	7.5
	기타	0.0	4.3	32.1	28.0	22.2	13.5	0.0
전 체		3.5	16.2	38.7	22.9	7.0	6.9	4.8

3.2.2. 채소 주요 조달처

- 채소 구입시 주요 조달처(표 14)는 전부 직접구입이 69.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부 구입, 친지 조달이 22.1%, 전부 친지조달이 4.7%로 나타났음.
- 채소 조달처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전부 직접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20-30대, 40-50대, 수도권과 경남권, 강원권, 서비스판매직과 주부, 기타 직업군, 대졸 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일부 구입과 친지조달의 경우는 여성, 60세 이상, 호남권과 경북권, 관리사무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대졸 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력군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4. 채소 주요 조달처

단위 : %

구 분		전부 직접 구입	일부 구입, 친지 조달	전부 친지 조달	기타
성별	여자	69.0	24.6	4.1	2.3
	남자	70.8	18.7	5.5	5.0
연령	20-39세	71.0	17.1	9.7	2.2
	40-59세	74.2	21.0	2.3	2.5
	60세 이상	65.7	26.6	2.9	4.9
지역	수도권	76.7	16.0	3.6	3.7
	충청권	69.8	18.1	7.8	4.4
	호남권	49.6	44.8	2.2	3.5
	경북권	59.3	33.6	2.9	4.3
	경남권	71.3	19.3	6.9	2.5
	강원권	79.9	17.0	3.1	0.0
직업	관리사무직	63.8	23.6	12.6	0.0
	서비스판매직	78.8	19.1	0.0	2.1
	농림업 및 노무직	57.0	29.5	3.3	10.3
	주부	78.8	15.7	2.3	3.2
	기타	74.9	20.0	5.1	0.0
학력	중졸이하	50.2	38.1	11.7	0.0
	고졸	68.5	25.0	3.3	3.3
	대졸이상	76.1	17.0	4.5	2.3
	기타	64.6	23.7	6.3	5.4
전 체		69.8	22.1	4.7	3.4

3.2.2. 채소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

- 채소 구입시 고려기준(표 15)은 신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6.6%), 다음으로 가격(20.2%), 품질(13.4%), 맛(11.1%), 안전성(6.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높게 나타난 신선도는 여성, 40-50대, 수도권, 경남권, 주부, 고졸과 대졸이상에서(각각 53.9%, 53.3%, 53.9%, 50.9%, 56.0%, 51.2%, 50.0%), 다음으로 가격은 남성, 20-30대, 60세 이상, 수도권, 경북권과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기타 직업군, 기타를 제외한 전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품질은 남성, 20-30대, 충청권과 호남권, 경남권과 강원권,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와 기타 직업군에서, 맛은 20-30대, 40-50대, 충청권과 경북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기타 학력군에서 높게 나타났음. 그 밖에 안전성은 남성, 20-30대, 충청권과 호남권, 경남권, 관리사무직, 주부,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5. 채소 구입시 고려 기준

단위 : %

구 분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 (건강)	신선도	구입의 편리성	기타
성별	여자	13.4	11.2	5.8	11.8	0.7	53.9	2.1	1.2
	남자	30.2	11.1	6.6	15.7	0.6	35.7	0.0	0.2
연령	20-39세	22.3	13.3	7.3	16.3	0.9	38.3	0.0	1.6
	40-59세	12.8	14.6	5.9	12.1	0.5	53.3	0.0	0.8
	60세 이상	24.3	7.0	5.5	12.3	0.6	47.1	3.1	0.2
지역	수도권	28.9	6.4	2.8	6.3	0.0	53.9	0.0	1.7
	충청권	6.5	22.2	10.8	20.8	1.8	38.0	0.0	0.0
	호남권	14.1	11.7	10.8	19.5	2.0	39.1	2.5	0.5
	경북권	40.9	17.1	0.0	1.7	0.0	27.6	12.7	0.0
	경남권	7.4	12.0	8.8	20.2	0.7	50.9	0.0	0.0
	강원권	34.8	2.8	2.3	22.6	0.0	37.5	0.0	0.0
직업	관리사무직	18.5	18.8	7.9	12.3	1.5	41.1	0.0	0.0
	서비스판매직	10.6	15.7	3.8	18.8	0.0	51.1	0.0	0.0
	농림업 및 노무직	22.2	7.6	6.1	15.1	0.3	47.4	1.4	0.0
	주부	13.1	4.4	7.5	12.1	1.0	56.0	4.4	1.4
	기타	29.3	11.4	5.5	10.2	0.6	40.5	0.6	1.9
학력	중졸이하	24.3	3.2	6.9	48.8	0.0	16.8	0.0	0.0
	고졸	23.0	6.4	5.9	11.4	0.7	51.2	1.3	0.2
	대졸이상	21.1	11.4	4.7	9.6	0.4	50.0	2.1	0.7
	기타	14.1	18.8	8.4	18.6	1.0	37.2	0.0	1.8
전 체		20.2	11.1	6.1	13.4	0.7	46.6	1.3	0.8

3.3. 과일 구입과 소비 행태

3.3.1. 과일 구입빈도

- 과일 구입빈도(표 16)는 주로 주 1회 또는 2주일에 1회 구입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35.5%, 25.0%), 다음으로 1달에 1회가 11.6%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 1회는 여성, 40-50대, 수도권, 경남권, 관리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대졸이상에서, 2주일에 1회는 남성, 20-30대, 40-50대, 경북권과 경남권,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기타 직업군,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6. 과일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집에서는 과일을 먹지 않음
성별	여자	1.6	15.3	36.8	23.6	9.6	11.5	1.6
	남자	0.0	3.5	33.8	26.9	14.4	13.0	8.4
연령	20-39세	1.7	5.9	34.3	33.7	10.2	7.4	6.9
	40-59세	0.0	13.4	45.5	25.8	5.6	6.5	3.3
	60세 이상	1.0	11.6	29.2	17.4	17.2	20.2	3.4
지역	수도권	2.4	14.3	37.7	23.8	6.6	10.4	4.9
	충청권	0.0	8.8	35.6	23.9	12.5	13.5	5.7
	호남권	0.0	6.9	22.6	20.9	24.4	23.6	1.8
	경북권	0.0	5.0	21.6	30.3	26.1	9.2	7.8
	경남권	0.0	8.9	46.8	28.1	4.4	9.2	2.8
	강원권	0.0	2.9	22.2	27.2	30.7	10.1	7.0
직업	관리사무직	3.0	8.2	46.0	21.4	10.3	6.3	4.9
	서비스판매직	0.0	10.9	53.1	16.5	6.1	2.1	11.3
	농림업 및 노무직	0.0	8.5	29.5	27.0	13.2	19.5	2.2
	주부	2.5	14.2	32.6	24.2	11.2	14.5	0.9
	기타	0.0	10.5	26.9	30.2	14.2	13.2	4.9
학력	중졸이하	1.2	11.2	29.1	20.8	15.9	18.7	3.0
	고졸	1.5	9.8	33.5	33.2	9.7	6.2	6.1
	대졸이상	0.0	9.6	47.3	20.2	9.1	9.6	4.2
	기타	0.0	10.8	29.9	12.4	6.1	36.4	4.3
전 체		0.9	10.3	35.5	25.0	11.6	12.1	4.5

3.3.2. 과일 주요 조달처

- 과일 구입시 주요 조달처(표 17)는 전부 직접구입이 77.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부 구입, 친지 조달이 18.3%, 전부 친지조달이 3.0%로 나타났음.
- 과일 구입시 전부 직접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20-30대, 40-50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권, 서비스판매직과 주부, 기타 직업군, 고졸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부 직접 구입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구입과 친지 조달의 경우는 남성, 60세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 강원권, 관리사무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고졸을 제외한 전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7. 과일 주요 조달처

단위 : %

구 분		전부 직접 구입	일부 구입, 친지 조달	전부 친지 조달	기타
성별	여자	79.3	17.0	3.4	0.4
	남자	73.6	20.2	2.4	3.8
연령	20-39세	79.3	18.6	1.1	1.1
	40-59세	83.4	15.9	0.7	0.0
	60세 이상	70.4	19.9	6.1	3.7
지역	수도권	80.8	14.7	0.0	4.5
	충청권	79.5	19.4	1.0	0.0
	호남권	57.3	32.4	10.4	0.0
	경북권	86.5	9.1	4.4	0.0
	경남권	77.3	18.2	4.5	0.0
	강원권	72.1	23.8	4.1	0.0
직업	관리사무직	77.2	22.8	0.0	0.0
	서비스판매직	86.4	13.6	0.0	0.0
	농림업 및 노무직	66.9	24.5	3.5	5.1
	주부	80.7	16.2	1.9	1.3
	기타	79.0	13.5	6.4	0.0
학력	중졸이하	71.5	19.9	7.5	0.0
	고졸	84.5	13.9	0.7	0.9
	대졸이상	75.8	20.0	0.2	0.0
	기타	57.3	42.7	0.0	0.0
전 체		77.0	18.3	3.0	1.8

3.3.2. 과일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

- 과일 구입시 고려기준(표 18)은 맛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7.6%), 다음으로 신선도(29.2%), 가격(17.2%), 품질(8.6%), 안전성(6.2%), 영양(1.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맛에 있어서는 20-30대, 60세 이상, 충남권, 호남권, 경북권, 관리사무직과 주부 및 기타 직업군,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신선도는 여성, 40-50대, 수도권, 경남권, 주부와 기타를 제외한 전 직업군, 대졸이상과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가격은 남성, 20-30대, 60세 이상, 수도권, 경북권, 강원권, 관리사무직, 중졸이하,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8. 과일 구입시 고려 기준

단위 : %

구 분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	신선도
성별	여자	13.9	37.4	7.5	8.2	1.4	31.8
	남자	22.1	37.9	4.1	9.1	1.5	25.3
연령	20-39세	20.8	40.8	3.7	5.8	2.2	26.7
	40-59세	11.7	30.3	9.5	10.0	1.2	37.3
	60세 이상	18.5	40.7	5.6	9.6	0.9	24.7
지역	수도권	25.1	34.7	1.5	3.5	2.3	33.0
	충청권	5.5	48.5	11.1	4.7	1.6	28.5
	호남권	6.8	42.7	8.8	14.9	1.0	25.8
	경북권	32.3	47.2	0.0	9.1	0.0	11.4
	경남권	9.7	29.3	13.1	16.1	0.6	31.3
	강원권	23.0	36.2	0.0	12.2	0.0	28.6
직업	관리사무직	18.7	39.5	2.0	4.8	4.5	30.5
	서비스판매직	8.3	35.5	7.1	6.5	0.0	42.7
	농림업 및 노무직	15.6	33.6	10.6	8.7	0.5	31.1
	주부	13.6	39.7	8.0	10.2	2.6	26.0
	기타	24.3	39.5	3.5	11.0	0.0	21.8
학력	중졸이하	20.4	42.2	3.2	23.7	0.0	10.6
	고졸	16.5	41.3	6.1	7.8	1.0	27.3
	대졸이상	18.6	34.7	8.0	6.2	1.0	31.4
	기타	15.7	36.3	3.9	11.4	2.7	30.1
전 체		17.2	37.6	6.2	8.6	1.4	29.2

3.4. 육류 및 우유 구입과 소비 행태

3.4.1. 쇠고기 구입빈도

○ 쇠고기 구입빈도(표 19)는 1달에 1회와 그 보다 드물게 구입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27.3%, 29.9%), 다음으로 2주일에 1회와 먹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16.1%와 20.1%로 나타났음.

○ 한 달에 1회는 여성, 20-30대, 60세 이상, 수도권, 관리사무직과 기타를 제외한 적 직업군, 중졸이하에서, 2주일에 1회는 남성, 20-30대, 40-50대, 충청권과 경남권, 기타를 제외한 전 직업군,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1달에 1회 보다 드물게 구입하는 경우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을 제외한 전지역,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

매식을 제외한 전 직업군, 중졸 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먹지않음으로 응답 한 경우는 남성, 20-30대, 수도권과 경북권, 강원권, 관리사무직과 기타 직업군, 중졸이하를 제외한 전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9. 쇠고기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성별	여자	0.3	2.9	3.6	14.9	30.1	31.1	17.1
	남자	0.8	0.6	5.0	17.8	23.4	28.3	24.1
연령	20-39세	0.5	2.3	1.3	17.2	28.2	19.8	30.7
	40-59세	0.6	1.6	11.1	23.8	25.0	25.6	12.5
	60세 이상	0.5	1.8	1.4	9.6	28.3	41.4	17.1
지역	수도권	0.0	1.4	5.2	14.0	38.2	17.7	23.5
	충청권	1.1	0.8	0.7	26.7	26.9	31.6	12.4
	호남권	1.5	2.6	2.4	8.6	18.1	50.1	16.8
	경북권	0.0	0.0	2.3	10.1	15.8	37.4	34.3
	경남권	0.0	4.3	7.0	21.9	18.6	34.1	14.2
	강원권	4.8	0.0	0.0	4.0	17.7	47.7	25.9
직업	관리사무직	0.0	2.9	6.9	20.0	19.6	27.3	23.4
	서비스판매직	1.1	2.9	5.8	21.6	32.2	22.0	14.3
	농림업 및 노무직	0.6	1.0	0.0	17.7	29.0	33.7	18.0
	주부	0.0	0.3	4.0	17.1	38.2	32.6	7.9
	기타	0.7	2.5	5.4	9.0	21.9	30.8	29.7
학력	중졸이하	0.0	0.8	2.0	9.9	31.2	43.5	12.7
	고졸	1.0	2.0	3.8	21.4	24.8	22.6	24.5
	대졸이상	0.6	3.4	8.0	17.4	26.9	20.6	23.1
	기타	0.0	0.0	0.0	11.5	11.8	47.8	28.9
전 체		0.5	1.9	4.2	16.1	27.3	29.9	20.1

3.4.2. 돼지고기 구입빈도

- 돼지고기 구입빈도(표 20)는 2주일에 1회와 1달에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1회와 전혀 먹지 않음, 1달에 1회 보다 드물게 먹는다고 응답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각각 28.4%, 23.7%, 16.4%, 12.5%).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주일에 1회 경우는 남성, 20-30대, 40-50대, 충청권, 경남권, 강원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한 달에 1회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기타 직업군, 중졸이하에서 평균보

다 높게 나타났음. 주 1회의 경우 40-50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서비스판매직, 주부,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20-30대, 수도권, 경북권, 관리사무직, 고졸 및 대졸이상,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0. 돼지고기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성별	여자	1.0	3.6	15.6	26.8	25.4	15.8	11.7
	남자	1.7	4.4	17.5	30.5	21.5	7.9	16.5
연령	20-39세	1.8	8.2	9.7	29.4	18.9	8.2	23.8
	40-59세	2.6	3.1	23.2	35.3	21.0	6.2	8.6
	60세 이상	0.0	1.2	16.9	22.4	29.6	20.5	9.3
지역	수도권	2.0	4.3	18.0	22.6	25.0	10.8	17.2
	충청권	1.1	2.0	17.9	39.6	24.0	6.5	9.0
	호남권	1.9	3.4	17.2	17.3	21.4	28.4	10.5
	경북권	0.0	2.7	12.7	23.6	20.2	15.5	25.4
	경남권	0.5	5.4	15.6	39.6	21.4	8.8	8.7
	강원권	0.0	4.8	2.1	34.0	39.5	12.7	7.0
직업	관리사무직	2.8	7.0	13.2	34.2	15.9	8.4	18.5
	서비스판매직	3.0	9.0	22.4	37.3	10.1	8.4	9.8
	농림업 및 노무직	1.6	0.5	16.6	27.7	28.8	15.6	9.2
	주부	0.0	1.6	20.0	28.0	34.2	12.3	4.0
	기타	0.0	4.0	13.2	21.0	25.1	14.5	22.2
학력	중졸이하	1.2	1.4	13.3	23.3	34.9	20.7	5.2
	고졸	1.6	2.4	19.6	30.0	20.6	8.2	17.6
	대졸이상	1.2	10.0	17.0	33.9	13.0	5.8	19.1
	기타	0.0	0.0	5.4	15.8	26.3	31.7	20.9
전 체		1.3	4.0	16.4	28.4	23.7	12.5	13.7

3.4.3. 닭고기 구입빈도

○ 닭고기 구입빈도(표 21)는 1달에 1회와 그 보다 드물게 구입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22.8%, 34.3%), 다음으로 2주일에 1회와 먹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16.0%와 19.4%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달에 1회 보다 드물게 구입하는 경우 여성, 40-50대, 60세 이상, 수도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전 지역, 서비스판매직과 주부, 중졸이하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한 달에 1회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중졸이하와 고졸과 기타학력군에서, 2주일에 1회인 경우는 남성, 20-30대, 수도권, 강원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20-30대, 충청권, 경북권, 강원권, 관리사무직, 중졸이하를 제외한 전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 닭고기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성별	여자	0.0	1.2	6.3	14.8	24.8	37.2	15.7
	남자	0.9	1.5	5.3	17.5	20.1	30.3	24.4
연령	20-39세	0.0	3.5	2.3	22.0	16.4	25.7	30.2
	40-59세	1.3	0.0	9.5	16.6	23.8	34.8	14.0
	60세 이상	0.0	0.6	6.0	10.6	27.3	40.9	14.6
지역	수도권	0.0	0.8	9.0	24.4	25.5	25.0	15.3
	충청권	1.9	0.5	6.7	12.8	20.3	36.7	21.3
	호남권	0.0	1.2	5.0	15.8	18.2	40.8	19.0
	경북권	0.0	2.7	0.0	0.0	18.3	39.9	39.1
	경남권	0.5	2.6	3.0	8.0	22.5	45.7	17.5
	강원권	0.0	0.0	0.0	18.6	31.5	24.0	25.9
직업	관리사무직	0.6	3.1	6.6	20.3	13.3	34.1	22.0
	서비스판매직	1.8	0.0	0.4	29.7	19.9	37.8	10.3
	농림업 및 노무직	0.0	0.0	3.6	15.3	29.1	32.5	19.6
	주부	0.0	0.4	11.3	10.3	28.4	37.3	12.3
	기타	0.0	2.5	7.0	10.1	21.7	32.4	26.3
학력	중졸이하	0.8	0.4	5.3	9.4	27.7	44.9	11.6
	고졸	0.3	0.9	5.4	15.2	24.9	29.7	23.6
	대졸이상	0.0	3.0	7.6	26.7	13.2	27.0	22.6
	기타	0.0	3.0	2.3	4.3	26.4	29.2	34.8
전 체		0.4	1.3	5.9	16.0	22.8	34.3	19.4

3.4.4. 우유 구입빈도

○ 우유 구입빈도(표 22)는 주 1회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8%와 21.4%로 나타났으며, 2주일에 1회는 16.4%, 주 2-3회는 12.0/5로 나타났음. 그 밖에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낮게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인 주 1회는 여성, 20-30대, 40-50대, 수도권,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서

비스판매직,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매일은 여성, 40-50대, 수도권, 경북권, 강원권, 주부,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60세 이상,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 우유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성별	여자	8.2	12.2	27.6	15.8	8.6	7.2	20.3
	남자	6.3	11.8	23.4	17.2	8.4	10.0	22.9
연령	20-39세	7.0	17.4	31.8	19.5	5.6	4.9	13.8
	40-59세	9.3	12.4	32.0	16.6	4.8	5.0	19.9
	60세 이상	6.4	7.4	16.5	13.7	13.6	13.7	28.7
지역	수도권	8.5	11.2	28.9	18.2	9.2	10.2	13.8
	충청권	6.8	10.1	24.2	22.9	8.8	6.1	21.2
	호남권	5.1	7.7	16.7	6.3	10.9	11.3	42.1
	경북권	13.2	30.8	13.8	1.6	5.3	10.6	24.7
	경남권	6.1	11.9	32.5	20.4	3.0	1.4	24.8
	강원권	0.0	1.5	18.7	17.9	32.9	24.1	4.9
직업	관리사무직	6.5	17.3	37.3	19.4	1.5	4.6	13.4
	서비스판매직	8.0	15.2	32.2	9.7	4.8	5.8	24.3
	농림업 및 노무직	1.8	6.2	22.4	25.1	11.5	10.4	22.7
	주부	12.7	9.8	20.8	12.9	11.0	11.8	21.0
	기타	9.5	13.5	21.2	12.5	10.8	8.4	24.2
학력	중졸이하	3.6	8.0	17.8	13.5	14.4	11.6	31.0
	고졸	10.5	13.1	30.7	19.9	5.0	7.3	13.6
	대졸이상	8.5	16.1	31.3	15.7	5.5	5.0	17.9
	기타	3.5	11.1	6.7	12.7	9.0	15.8	41.1
전 체		7.4	12.0	25.8	16.4	8.5	8.4	21.4

3.4.5. 축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

○ 축산물 구입시 고려기준(표 23)은 신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2.1%), 다음으로 맛(20.4%), 가격(18.0%), 품질(14.2%), 안전성(12.0%), 영양(1.7%), 구입의 편리성(0.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신선도는 남성, 40-50대, 충청권과 호남권, 서비스판매직과 농

림업 및 노무직, 대졸이상에서, 맛은 여성, 40-50대, 충청권, 경북권과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주부, 대졸이상과 기타 직업군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가격은 남성, 20-30대, 60세 이상, 수도권, 경북권, 강원권, 기타 직업군, 고졸과 기타 학력군에서, 품질은 여성, 40-50대, 60세 이상, 호남권, 경남권과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 밖에 안전성은 여성, 20-30대, 수도권, 서비스판매직과 기타 직업군, 고졸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23. 축산물 구입시 고려 기준

단위 : %

구 분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	신선도	구입의 편리성	기타
성별	여자	13.6	21.5	13.0	17.3	1.7	30.6	0.5	1.9
	남자	24.1	19.0	10.6	10.0	1.6	34.1	0.0	0.7
연령	20-39세	23.3	18.1	15.1	11.2	1.3	30.7	0.0	0.4
	40-59세	10.7	24.2	12.5	15.8	1.3	34.1	0.0	1.4
	60세 이상	19.1	19.5	9.1	15.4	2.2	31.8	0.8	1.8
지역	수도권	24.0	12.7	16.2	10.6	0.8	32.7	0.7	2.3
	충청권	15.1	24.3	10.6	9.9	1.5	37.7	0.0	0.9
	호남권	10.1	12.3	10.7	22.8	4.0	38.8	0.0	1.2
	경북권	31.3	33.6	2.2	4.7	0.0	26.5	0.0	0.0
	경남권	6.8	32.5	11.4	21.0	2.1	26.2	0.0	0.0
	강원권	27.3	17.7	0.0	22.1	5.5	27.4	0.0	0.0
직업	관리사무직	18.2	23.8	7.3	14.5	2.6	31.9	0.0	1.7
	서비스판매직	17.0	21.2	17.0	10.2	0.8	33.9	0.0	0.0
	농림업 및 노무직	16.9	16.3	11.4	18.3	2.9	34.2	0.0	0.0
	주부	14.2	29.6	4.0	15.4	1.3	30.0	1.8	3.7
	기타	21.6	16.1	17.6	11.7	0.7	30.7	0.0	1.6
학력	중졸이하	18.9	19.7	7.5	16.2	2.7	32.1	0.8	2.1
	고졸	20.8	19.9	17.2	11.2	1.4	28.6	0.0	0.9
	대졸이상	12.7	21.9	11.6	13.0	0.8	38.9	0.0	1.1
	기타	23.0	21.3	3.1	44.5	0.0	8.1	0.0	0.0
전 체		18.0	20.4	12.0	14.2	1.7	32.1	0.3	1.4

3.4.6.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

-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표 24)는 돼지고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6.9%), 다음으로 닭고기(14.2%), 쇠고기(12.7%), 오리고기(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많이 먹는 돼지고기는 남성, 40-50대, 60세 이상, 충청권, 경남권, 서비스판매직,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다음으로 닭고기는 남성, 20-30대, 수도권, 경북권, 강원권, 관리사무직,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 밖에 쇠고기는 여성, 20-30대, 60세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주부,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24. 가장 많이 먹는 육류

단위 :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기타
성별	여자	14.5	65.9	11.2	5.1	3.3
	남자	10.2	68.3	18.4	1.7	1.5
연령	20-39세	13.4	55.3	28.1	1.5	1.7
	40-59세	9.3	76.5	9.8	3.6	0.8
	60세 이상	14.6	69.4	6.2	5.4	4.5
지역	수도권	13.3	62.9	19.4	2.7	1.6
	충청권	15.5	72.2	4.7	6.5	1.0
	호남권	21.1	65.4	7.5	3.5	2.7
	경북권	12.4	52.1	27.1	2.8	5.7
	경남권	4.8	80.8	6.8	3.6	4.1
	강원권	12.4	47.6	33.4	5.2	1.5
직업	관리사무직	11.9	55.2	31.8	0.0	1.1
	서비스판매직	2.6	82.5	10.3	4.5	0.0
	농림업 및 노무직	7.9	80.5	4.3	3.4	3.9
	주부	17.4	65.0	6.5	8.6	2.6
	기타	19.7	55.9	18.2	2.8	3.5
학력	중졸이하	12.0	76.7	3.2	5.9	2.2
	고졸	14.5	61.8	16.9	3.7	3.1
	대졸이상	11.5	60.6	26.3	0.3	1.3
	기타	9.2	73.0	0.0	6.1	11.7
전 체		12.7	66.9	14.2	3.6	2.5

3.5. 수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3.5.1. 생선류 구입빈도

- 생선류 구입빈도(표 25)는 2주 1회와 1달 1회가 각각 23.5%와 23.4%로 높게 나타났으며, 먹지 않음과 1달 1회 보다 드물게 구입, 주 1회가 각각 16.0%, 15.8%, 12.1%로 나타났음.

- 2주일 1회인 경우는 여성, 60세 이상,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서비스판매직, 주부, 중졸 이하에서, 1달 1회는 40-50대, 호남권, 강원권, 관리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업 및 노무직과 기타 직업군, 중졸이하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남성, 20-30대,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관리사무직,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평균 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5. 생선류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성별	여자	1.9	8.0	14.8	28.3	23.6	15.0	8.4
	남자	1.5	6.8	8.4	17.1	23.1	16.8	26.3
연령	20-39세	2.2	0.6	4.0	18.0	22.2	18.4	34.7
	40-59세	3.6	12.7	16.0	19.8	28.9	11.8	7.3
	60세 이상	0.0	9.2	15.8	30.8	20.4	16.6	7.4
지역	수도권	1.8	5.8	15.6	21.2	23.9	12.1	19.6
	충청권	0.0	10.6	8.4	15.9	21.7	22.4	21.1
	호남권	2.3	2.4	14.8	16.5	35.4	20.0	8.7
	경북권	0.0	7.6	3.8	29.6	21.3	16.1	21.6
	경남권	3.5	12.8	11.2	31.2	15.8	16.3	9.2
	강원권	0.0	0.0	0.0	45.8	32.7	11.6	9.9
직업	관리사무직	5.4	5.0	13.0	14.4	25.8	16.3	20.2
	서비스판매직	2.6	12.0	8.9	28.8	26.8	6.3	14.5
	농림업 및 노무직	0.3	10.0	16.9	23.3	26.9	11.8	10.8
	주부	2.4	9.2	12.4	33.0	21.6	17.2	4.3
	기타	0.0	3.6	8.7	21.3	18.2	22.7	25.5
학력	중졸이하	1.3	7.4	14.0	27.4	27.3	18.5	4.1
	고졸	1.0	11.6	9.6	21.9	19.1	13.0	23.9
	대졸이상	3.6	2.3	11.4	20.4	24.7	15.9	21.7
	기타	0.0	2.3	29.2	26.3	18.1	16.4	7.8
전 체		1.8	7.5	12.1	23.5	23.4	15.8	16.0

3.5.2. 수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

- 수산물 구입시 고려기준(표 26)은 신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7%), 다음으로 맛(19.1%), 가격(14.7%), 품질(12.3%), 안전성(9.4%), 구입의 편리성(1.5%), 영양(0.9%)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신선도에 있어서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 호남권, 강원권, 관리사무직과 주부, 중졸이하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맛은 여성, 20-30대, 수도권을 제외한 전지역, 서비스판매직과 기타 직업군, 고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가격은 남성, 20-30대, 수도권, 경북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고졸에서 높게 나타났음.

표 26. 수산물 구입시 고려 기준

단위 : %

구 분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	신선도	구입의 편리성	기타
성별	여자	8.1	18.5	9.1	14.3	0.1	47.2	1.3	1.5
	남자	24.5	20.0	9.8	9.3	2.0	31.0	1.9	1.4
연령	20-39세	17.8	22.7	11.0	9.3	1.7	33.8	2.0	1.8
	40-59세	11.1	19.2	10.3	16.6	0.7	37.1	3.3	1.8
	60세 이상	15.1	16.6	7.7	11.3	0.5	47.9	0.0	1.0
지역	수도권	20.7	11.5	11.4	9.1	1.2	41.9	2.9	1.3
	충청권	6.2	31.2	12.7	9.7	0.6	39.0	0.7	0.0
	호남권	4.0	20.2	11.0	15.9	0.9	43.3	0.0	4.7
	경북권	36.1	21.8	0.0	3.2	0.0	36.4	0.0	2.5
	경남권	9.0	22.5	8.0	22.2	0.9	36.5	0.5	0.4
	강원권	9.7	23.0	0.0	1.8	0.0	60.0	5.5	0.0
직업	관리사무직	9.7	17.7	7.5	6.1	3.2	49.7	4.0	2.2
	서비스판매직	2.0	23.5	15.1	13.0	0.0	38.4	5.5	2.7
	농림업 및 노무직	17.0	18.8	8.0	17.7	1.4	36.4	0.4	0.3
	주부	15.6	21.1	8.7	11.1	0.0	41.8	0.0	1.8
	기타	21.7	16.6	9.4	11.7	0.0	39.6	0.0	1.1
학력	중졸이하	14.8	15.6	7.4	13.1	0.4	47.3	0.0	1.6
	고졸	15.8	23.3	8.7	12.0	0.8	34.2	4.5	0.5
	대졸이상	13.0	17.8	13.8	11.2	1.8	39.9	0.0	2.5
	기타	14.3	28.6	3.0	16.3	0.0	37.8	0.0	0.0
전 체		14.7	19.1	9.4	12.3	0.9	40.7	1.5	1.4

3.6.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3.6.1. 가공식품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

- 가공식품 구입시 고려기준(표 27)은 신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4.4%), 다음으로 맛(17.7%), 가격(14.2%), 품질(7.3%), 안전성(6.1%), 구입의 편리성(2.4%), 영양(0.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5로 높게 나타났음.

- 신선도에 있어서는 여성, 60세 이상, 경남권과 강원권, 농림업과 노무직,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맛은 남성, 20-30대,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관리사무직,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가격은 남성, 20-30대, 수도권, 경북권, 관리사무직,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40-50대, 60세 이상, 수도권, 호남권, 경북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27. 가공식품 구입시 고려 기준

단위 : %

구 분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	신선도	구입의 편리성	기타	구입 않음
성별	여자	10.92	16.05	7.87	8.71	1.29	26.76	2.13	2.48	23.8
	남자	18.73	19.8	3.78	5.39	0	21.11	2.82	13.62	14.76
연령	20-39세	26.6	22.5	3.6	7.1	0.7	23.8	2.5	12.2	0.9
	40-59세	6.8	15.5	6.7	6.1	0.5	24.3	3.4	9.1	27.6
	60세 이상	9.6	15.3	7.8	8.4	1.0	24.8	1.6	1.7	29.8
지역	수도권	20.2	14.4	5.1	3.3	0.0	22.8	1.8	4.5	27.9
	충청권	4.0	28.7	8.7	6.3	1.5	23.0	2.7	17.5	7.7
	호남권	14.0	9.8	9.3	6.0	0.9	23.5	4.0	6.6	26.1
	경북권	24.6	27.7	0.0	3.0	1.4	8.5	0.0	3.8	31.0
	경남권	6.5	19.6	7.4	18.7	1.4	32.5	3.1	5.7	5.1
	강원권	10.5	2.7	2.7	2.9	0.0	40.5	4.8	16.9	19.0
직업	관리사무직	26.9	22.9	4.1	2.1	1.2	21.2	0.6	15.5	5.6
	서비스판매직	12.2	16.1	6.1	7.9	0.5	24.1	9.6	6.3	17.2
	농림업 및 노무직	4.8	15.2	6.7	16.4	0.0	26.9	3.6	4.7	21.7
	주부	6.9	17.4	11.9	7.5	1.2	24.3	0.5	0.6	29.6
	기타	19.6	17.3	3.6	2.3	1.0	24.3	0.0	8.5	23.4
학력	중졸이하	9.9	13.4	9.8	7.7	1.0	24.4	1.9	3.7	28.3
	고졸	14.1	14.6	3.7	9.1	0.4	27.2	3.0	9.2	18.7
	대졸이상	20.6	29.0	4.5	3.4	1.1	21.4	2.5	9.7	7.9
	기타	11.5	0.0	8.8	15.7	0.0	13.7	0.0	0.0	50.3
전 체		14.2	17.7	6.1	7.3	0.7	24.4	2.4	7.2	20.0

3.6.2. 조리식품 구입빈도

- 조리식품 구입빈도(표 28)는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달에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한다는 비율이 23.8%, 1달 1회가 13.7%, 2주 1회가 13.5%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 호남권,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중졸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달 1회 보다 드물게 구입하는 경우는 여성, 40-50대, 60세 이상,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주부, 중졸이하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2주 1회인 경우는 남성, 20-30대, 40-50대, 수도권, 경남권, 관리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업 및 노무직,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1달에 1회인 경우는 남성, 20-30대, 40-50대, 충청권, 경남권, 관리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고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8. 조리식품 구입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성별	여자	0.0	2.6	6.2	6.5	11.4	25.3	48.0
	남자	0.0	4.3	7.6	23.0	16.8	21.8	26.6
연령	20-39세	0.0	9.1	15.6	24.7	22.4	18.1	10.1
	40-59세	0.0	0.4	4.1	15.4	15.9	25.6	38.6
	60세 이상	0.0	0.8	1.7	3.0	5.0	27.1	62.5
지역	수도권	0.0	4.2	8.9	18.4	11.2	15.6	41.8
	충청권	0.0	2.1	5.7	12.6	21.0	36.6	22.0
	호남권	0.0	1.9	9.0	3.3	7.2	21.2	57.5
	경북권	0.0	4.7	9.4	4.1	14.0	28.7	39.0
	경남권	0.0	3.2	2.4	16.2	18.1	28.1	32.1
	강원권	0.0	0.0	0.0	3.8	9.9	39.6	46.8
직업	관리사무직	0.0	2.2	13.4	26.6	20.5	21.5	15.8
	서비스판매직	0.0	4.2	3.5	17.6	20.0	16.7	37.9
	농림업 및 노무직	0.0	2.8	2.8	15.6	13.5	23.1	42.3
	주부	0.0	1.9	0.0	3.0	11.2	33.1	50.8
	기타	0.0	4.9	11.7	7.4	7.9	24.0	44.2
학력	중졸이하	0.0	0.9	0.4	3.6	8.0	28.0	59.2
	고졸	0.0	4.1	8.4	16.1	19.5	21.7	30.3
	대졸이상	0.0	5.9	13.8	24.2	13.9	22.0	20.3
	기타	0.0	0.0	0.0	0.0	6.1	13.5	80.4
전 체		0.0	3.3	6.8	13.5	13.7	23.8	38.9

3.6.3. 조리식품 구입 이유

- 조리식품 구입 이유(표 29)는 편리해서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리할 줄 몰라서 15.0%, 맛이 좋아서 14.4%, 만드는 것 보다 저렴해서 5.2%, 시간이 없어서 3.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편리성은 남성, 20-30대, 60세 이상, 충청권, 경북권, 강원권, 관리사무직,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와 대졸 이상과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조리할 줄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 남성, 20-30대, 40-50대, 수도권, 경남권, 강원권,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업과 노무직,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맛이 좋아서를 구입 이유로 선택한 경우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지역,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주부,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9. 조리식품 구입 이유

단위 : %

구 분		조리할 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맛이 좋아서	편리해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해서	기타
성별	여자	14.1	4.0	17.8	55.8	6.2	2.1
	남자	15.9	2.2	11.1	65.8	4.2	0.8
연령	20-39세	17.2	4.4	12.9	63.8	1.7	0.0
	40-59세	18.4	1.1	14.1	52.9	10.8	2.7
	60세 이상	6.8	2.8	17.7	64.9	5.2	2.6
지역	수도권	16.1	4.9	11.8	60.6	4.2	2.4
	충청권	2.6	0.8	9.7	82.0	4.4	0.6
	호남권	5.1	9.6	19.2	60.5	1.3	4.3
	경북권	2.6	0.0	24.6	72.8	0.0	0.0
	경남권	30.3	0.8	16.6	41.0	11.3	0.0
	강원권	20.4	0.0	15.4	64.2	0.0	0.0
직업	관리사무직	5.1	4.1	17.5	63.6	8.2	1.6
	서비스판매직	21.4	5.2	15.8	54.8	2.8	0.0
	농림업 및 노무직	16.9	0.4	12.3	63.3	7.1	0.0
	주부	8.5	1.5	23.3	52.8	9.1	4.8
	기타	22.7	4.0	8.1	63.7	0.0	1.6
학력	중졸이하	4.2	1.2	17.2	66.7	6.9	3.9
	고졸	26.2	3.8	9.4	53.2	7.4	0.0
	대졸이상	9.2	3.6	18.7	66.0	1.4	1.2
	기타	0.0	0.0	10.3	74.3	0.0	15.4
전 체		15.0	3.1	14.4	60.9	5.2	1.4

3.7. 외식 행태

3.7.1. 외식 여부

- 외식 여부(표 30)에 있어서는 60.0%가 외식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로 나타났다.

- 외식을 하는 경우 남성, 20-30대, 40-50대, 충청권, 경남권, 서비스판매직,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남성, 20-30대,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30. 외식 여부

단위 : %

구 분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외식을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한다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하지 않는다
성별	여자	52.4	47.7	28.4	71.6
	남자	71.8	28.2	46.4	53.6
연령	20-39세	79.0	21.1	65.9	34.1
	40-59세	73.7	26.3	35.7	64.3
	60세 이상	36.2	63.9	12.0	88.0
지역	수도권	55.8	44.2	37.5	62.5
	충청권	82.5	17.6	50.0	50.0
	호남권	54.6	45.5	17.8	82.2
	경북권	38.6	61.4	22.8	77.2
	경남권	69.2	30.8	41.6	58.4
	강원권	50.6	49.4	27.2	72.8
직업	관리사무직	77.8	22.2	58.1	41.9
	서비스판매직	76.5	23.5	49.1	50.9
	농림업 및 노무직	57.9	42.1	27.9	72.1
	주부	32.7	67.3	13.7	86.3
	기타	60.2	39.8	35.4	64.6
학력	중졸이하	36.7	63.3	10.3	89.7
	고졸	72.1	27.9	46.7	53.4
	대졸이상	79.9	20.2	57.6	42.4
	기타	21.0	79.1	11.9	88.1
전 체		60.6	39.4	36.1	64.0

3.7.2. 외식 빈도

- 외식 빈도(표 31)는 주 2-3회가 29.3%, 2주 1회가 24.0%, 주 1회가 17.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 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나타났음.

- 주 2-3회의 경우 남성, 20-30대,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관리사무직, 대졸이상에서, 주

1회는 남성, 40-50대,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농림업 및 노무직,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2주 1회의 경우는 여성, 40-50대, 충청권, 경북권, 강원권, 서비스판매직과 주부,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낮은 비율이지만 매일 외식하는 경우 남성, 20-30대, 강원권, 기타 직업군, 고졸에서 평균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31. 외식 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4~5회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2~3달 에 1회	그보다 드물게
성별	여자	0.5	2.2	23.8	15.5	28.0	13.8	8.2	8.0
	남자	4.5	11.2	34.7	19.9	20.1	4.9	1.7	3.1
연령	20-39세	3.6	6.9	46.1	15.8	19.0	5.4	1.1	2.1
	40-59세	1.8	11.1	21.5	26.5	25.2	9.4	2.9	1.6
	60세 이상	1.7	0.0	11.0	8.0	31.1	16.1	14.8	17.4
지역	수도권	2.9	5.1	31.6	17.5	21.2	8.4	3.3	9.9
	충청권	2.6	9.0	33.0	19.4	29.8	4.5	1.1	0.6
	호남권	0.0	6.5	24.0	10.8	13.9	15.3	18.4	11.1
	경북권	0.0	5.6	36.9	24.6	33.0	0.0	0.0	0.0
	경남권	2.6	8.6	25.5	20.5	24.3	12.3	4.2	1.9
	강원권	10.9	0.0	12.5	0.0	43.9	20.8	12.0	0.0
직업	관리사무직	2.4	8.7	37.2	17.7	16.2	10.9	3.0	3.9
	서비스판매직	2.2	5.1	29.5	15.5	26.7	11.5	6.3	3.2
	농림업 및 노무직	2.8	10.7	22.5	24.6	18.7	5.5	4.6	10.6
	주부	0.0	4.0	6.9	11.9	38.6	14.1	14.7	9.8
	기타	3.4	3.7	35.2	15.4	28.5	8.2	2.8	2.8
학력	중졸이하	2.1	2.6	15.3	7.4	30.3	15.6	14.8	12.0
	고졸	4.2	8.3	26.5	22.6	25.5	6.3	2.4	4.2
	대졸이상	0.7	7.4	41.9	18.4	18.9	7.8	1.6	3.3
	기타	0.0	0.0	0.0	0.0	0.0	72.8	27.2	0.0
전 체		2.5	6.7	29.3	17.7	24.0	9.3	4.9	5.5

3.7.3.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식사 빈도

○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식사 빈도(표 32)는 2주 1회가 35.3%, 1달 1회가 21.5%, 주 1회가 19.4%, 주 2-3회가 13.6%높게 나타났음.

○ 2주 1회의 경우 남성, 20-30대, 호남권, 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대졸 이상에서, 1달

1회는 남성, 40-50대, 60세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지역,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주 1회는 남성, 20-30대,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서비스판매직, 농림업 및 노무직, 고졸에서, 주 2-3회는 여성, 20-30대, 수도, 충청권, 경북권, 관리사무직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32.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식사 빈도

단위 : %

구 분		매일	주 4~5회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2~3달 에 1회	그보다 드물게
성별	여자	0.0	0.0	16.0	17.5	30.3	18.8	6.1	11.4
	남자	0.0	0.0	11.6	21.0	39.4	23.8	2.9	1.4
연령	20-39세	0.0	0.0	22.0	23.4	38.6	10.5	1.4	4.0
	40-59세	0.0	0.0	2.1	16.0	33.8	34.7	9.2	4.2
	60세 이상	0.0	0.0	0.9	9.2	23.5	41.7	6.6	18.1
지역	수도권	0.0	0.0	16.9	16.7	44.1	10.7	6.2	5.5
	충청권	0.0	0.0	17.6	25.0	32.5	17.5	3.6	3.8
	호남권	0.0	0.0	4.2	22.4	50.7	22.7	0.0	0.0
	경북권	0.0	0.0	40.9	9.7	0.0	44.3	0.0	5.2
	경남권	0.0	0.0	1.3	23.0	27.2	34.3	3.6	10.6
	강원권	0.0	0.0	13.9	0.0	24.5	56.1	5.4	0.0
직업	관리사무직	0.0	0.0	23.0	15.9	48.5	4.2	3.5	5.0
	서비스판매직	0.0	0.0	1.4	24.1	44.7	21.7	5.4	2.8
	농림업 및 노무직	0.0	0.0	2.8	32.6	18.0	32.0	12.5	2.1
	주부	0.0	0.0	0.0	0.0	29.5	18.4	0.0	52.1
	기타	0.0	0.0	22.6	15.3	27.9	32.8	0.0	1.4
학력	중졸이하	0.0	0.0	1.2	11.3	25.4	22.6	7.3	32.2
	고졸	0.0	0.0	11.5	24.5	30.7	25.7	5.6	2.0
	대졸이상	0.0	0.0	19.1	16.0	43.3	15.9	2.3	3.4
	기타	0.0	0.0	0.0	0.0	0.0	51.5	0.0	48.5
전 체		0.0	0.0	13.6	19.4	35.3	21.5	4.3	5.9

3.8. 식생활만족도

○ 식생활 만족도(표 33)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각각 0.9%와 32.6%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0.4%로 나타났음. 반면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1.1%와 4.9%로 나타났음.

○ 식생활에 만족한 경우는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전지역,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중졸 이하와 기타 학력군에서 평균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의 경우는 남성, 40-50대, 경북권과 강원권, 고졸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33. 식생활 만족도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여자	0.0	2.8	59.4	36.3	1.5
	남자	2.7	7.7	61.8	27.6	0.2
연령	20-39세	2.1	3.6	67.0	26.0	1.3
	40-59세	0.0	8.1	57.4	32.9	1.6
	60세 이상	1.2	3.6	57.3	37.8	0.2
지역	수도권	2.4	3.5	66.1	27.1	0.9
	충청권	0.0	0.0	51.5	45.9	2.6
	호남권	0.0	3.9	53.0	43.1	0.0
	경북권	1.8	18.7	62.9	16.7	0.0
	경남권	0.0	2.8	63.0	33.3	1.0
	강원권	0.0	25.2	35.9	39.0	0.0
직업	관리사무직	0.0	4.9	64.2	30.8	0.0
	서비스판매직	4.7	1.4	58.4	32.2	3.3
	농림업 및 노무직	0.0	2.5	55.0	40.6	2.0
	주부	0.0	1.0	50.9	48.1	0.0
	기타	1.6	10.9	69.3	18.2	0.0
학력	중졸이하	0.0	4.0	56.5	39.1	0.5
	고졸	3.1	8.8	60.7	26.1	1.3
	대졸이상	0.0	0.8	65.8	32.3	1.1
	기타	0.0	3.0	55.8	41.2	0.0
전 체		1.1	4.9	60.4	32.6	0.9

3.9.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결과

-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분석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는 가구의 식생활만족에 대하여 만족여부를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5점척도로 측정하였음.
- 서수적인 성격을 띠는 제한적 종속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를 가진 순위로짓모형은 식 (1)과 같이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로 정의됨(Green 1990).

$$y^* = x'\beta + \varepsilon. \quad (1)$$

- y^* 는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못하고 식(2)와 같이 실제 관측되는 값 y 는 0, 1, 2, ..., K의 값을 가지게 됨.

$$\begin{aligned}
 y &= 0 \text{ if } y^* \leq 0 \\
 &= 1 \text{ if } 0 < y^* \leq \mu_1 \\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vdots \\
 &= K \text{ if } \mu_K \leq y^*
 \end{aligned} \quad (2)$$

- L 을 누적로짓확률밀도함수라고 하면, 각 대안의 선택확률은 다음 식(3)과 같이 도출됨.

$$\begin{aligned}
 \Pr(y = 0) &= L(-x'\beta) \\
 \Pr(y = 1) &= L(\mu_1 - x'\beta) - L(-x'\beta) \\
 \Pr(y = 2) &= L(\mu_2 - x'\beta) - L(\mu_1 - x'\beta) \\
 &\vdots \\
 \Pr(y = K) &= 1 - L(\mu_{K-1} - x'\beta).
 \end{aligned} \quad (3)$$

- 1인가구의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34>에 제시되었음. 추정모형의 Likelihood Ratio 검정을 이용한 결과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추정되었음.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χ^2 값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모형이 설명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이 되었음을 나타냄.
- 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먼저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남성, 소득, 건강에 대한 관심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고,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부(-)의 효과를 소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정(+)의 효과를 나타냈음.
- 1인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현재 식생활에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 거주지역은 충청권과 경남권에 거주하는 1인가구주가 강원권에 비해서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가구주의 직업이 농림업 및 노무직이거나 주부인 경우 학생이나 군인과 같은 기타직업들보다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순위로짓 분석결과

변 수		계수	t-값
인구통계적 특성	남성	-0.596*	-2.309
	20-30대	0.388	0.919
	40-50대	-0.286	-0.893
	대졸이상	0.425	1.219
	소득	0.315*	2.594
	질병유무	-0.026	-0.096
	건강에 대한 관심	0.769*	5.079
거주지역	수도권	0.064	0.102
	충청권	1.389*	2.09
	호남권	0.646	0.984
	경북권	-0.578	-0.816
	경남권	1.273*	1.961
직업	관리사무직	0.176	0.454
	서비스판매직	0.402	1.031
	농림업 및 노무직	1.076*	3.206
	주부	1.253*	3.493
도시화	광역시	-1.338*	-3.363
	중소도시	-1.136*	-3.257
식생활 관련 특성	가정내 식사정도	0.905*	3.203
	외식횟수	0.004	0.077
	배달 및 테이크아웃 횟수	-0.125**	-1.821
	인터넷 식품구입 횟수	-0.073	-0.267
	조리식품 구입횟수	-0.077	-0.83
	기능성식품 섭취 유무	0.111	0.485
상수		0.997*	0.147
로그우도함수값		-348.789	
χ^2		167.517	

주 : * $p < 0.05$, ** $p < 0.1$

- 특별시에 비하여 광역시나 중소도시가 유의수준 5%에서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비하여 도시화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 식생활과 관련한 변수로는 가정내에서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정도가 유의수준 5%에서 정(+)의 효과를 보여 가정내 식사를 하는 정도가 클수록 식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음식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편리성이 높은 외식이나 배달 등 보다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가정식이 보다 큰 식생활 만족도를 주는 것으로 판단됨.

4. 요약 및 결론

-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전 세계 1인가구 수는 2억 4,200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3%를 차지
 - 한국의 1인가구 증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1990년 102만 가구에서 2011년 436만 가구로 4.3배 확대
- 1인가구의 증대는 소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1인가구의 소비트렌드는 소형, 효율, 안전, 나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대변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12).
-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인가구의 식품소비행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을 하였음.
- 특히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 별로 유형화하여 식품소비행태를 품목별 구입빈도와 구입시 고려사항, 조달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가정내 직접 조리 경향은 여성, 고령, 호남권과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음.
 - 식료품 구입빈도는 전체적으로 주 1회,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인터넷을 이용한 식료품 구입은 전체적으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30대, 수도권, 관리사무직,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4%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북권, 경남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중졸이하 집단에서 높았음.
 - 쌀은 2-3개월에 1회 또는 1년에 2-3회 구입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에서 쌀을 먹지 않거나 햇반류의 가공식품만을 먹는다는 비율도 각각 2.5%와 4.1로 나타났음
 - 채소와 과일을 1주일에 1회 구입이 가장 높았고, 쌀과 함께 직접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음.
 - 육류는 돼지고기 구입빈도가 쇠고기와 닭고기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리고기의 순
 - 생선류 구입빈도는 2주 1회가 가장 많았고, 남성, 20-30대, 고졸이상 등에서 먹지 않는다는 비중이 높았음.

- 조리식품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 호남권, 강원권, 농림업 및 노무직과 주부, 중졸이하 등에서 높았음.
 - 외식을 한다고 60.0%가 응답하였으며,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로 나타났음. 특히 남성, 20-30대, 고졸과 대졸이상 등에서 높았음.
 - 식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비중이 93.9%로 높았으나, 불만족의 경우는 남성, 40-50대, 경북권과 강원권, 고졸에서 높게 나타났음.
-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한 결과, 남성일수록,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음식을 구입빈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충청권과 경남권에 거주할수록, 농림업 및 노무직이거나 주부일수록, 가정내에서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들은 1인가구 유형별로 식품소비에 차이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므로 기업에서는 1인가구를 타겟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
- 1인가구의 증대에 따라 간편화된 구매행태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터넷구매나 조리식품구매 등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또한 식생활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식생활교육의 세분화 등 향후 국민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의 수립이 필요함.
- 보다 많은 기업과 정부의 정책적인 함의를 얻기 위해서 향후 보다 다양한 유형별 1인가구 식품소비행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요구됨.
- 예를 들어 1인 가구 비중은 3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이 높은 가운데, 50대 중년 남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식품행태조사에서도 결혼상태에 대한 항목을 도입하여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영노트 159호.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 총조사」.

Green WH, 1990, *Econometric Analysi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제2세션

외식 소비





외식 소비행태분석

김 태 희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2014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2014 외식소비행태분석

2014.12.05.

발표자: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김태희

목차

- I. 조사개요
-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 1. 가구외식행태
 - 2. 성인외식행태
 - 3. 청소년외식행태
- III. 결과요약
- IV. 시사점

I. 조사개요

1. 조사설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소비자의 가구내 식품주구입자 및 성인, 청소년의 외식소비 및 배달·테이크아웃 소비 실태와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임.

	식품 주구입자	성인	청소년
모집단	18,457,611	18,457,611	3,763,899
표본크기	3,334	6,311	941
표본추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구 및 가구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 층화추출에 의한 표본을 추출함		
조사방법	대면 면접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I. 조사개요

2. 설문내용

주요 설문내용은 가구의 식품주구입자, 성인, 청소년 모두 동일하고, 일반외식 소비행태와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가구	성인	청소년
외식 행태	외식여부 외식비용 외식이유 외식횟수/외식을 자주하지 않는 이유 이용식당/이용이유 외식선택기준 외식유형별 전년대비 외식비 지출 및 외식빈도 변화		
배달· 테이크 아웃 행태	배달·테이크아웃 여부 배달·테이크아웃 비용 배달·테이크아웃 횟수/자주하지 않는 이유 배달·테이크아웃 메뉴 배달·테이크아웃 선택기준 전년대비 배달·테이크아웃 지출 및 이용빈도 변화		

[조사결과] 가구외식행태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1) 응답자 특성

단위: %

		전체	가정 조리	HMR	가정 조리X			전체	가정 조리	HMR	가정 조리X
권역	수도권	47.7	46.3	62.6	76.1	가구주 성별	남자	72.1	71.8	75.4	81.6
	충청권	10.9	11.0	10.7	4.5		여자	27.9	28.2	24.6	18.4
	호남권	11.7	12.4	3.2	0.7	가구 구성원 수	1인 가구	26.2	23.5	52.3	89.4
	대경권	10.7	10.8	8.7	12.1		2인 가구	26.2	27.3	15.1	0.0
	동남권	15.8	16.3	10.4	4.0		3인 가구	21.4	22.1	15.5	0.7
	강원권	3.2	3.2	4.4	2.7		4인 가구	20.4	20.9	15.8	2.7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5.8	4.9	15.1	27.3	월 평균 가구 소득	5인 이상 가구	5.8	6.2	1.3	7.2
	30대	18.5	16.4	41.5	36.2		100만원대 미만	17.8	18.2	11.8	26.8
	40대	23.5	23.2	27.1	17.8		100만원대	20.3	19.7	26.1	39.4
	50대	23.9	25.1	17.6	11.2		200만원대	18.6	18.3	21.0	28.7
	60대	14.4	15.3	3.9	0.4		300만원대	17.2	17.5	14.5	4.5
	70대 이상	13.6	15.1	1	0.0		400만원대	10.3	10.5	9.2	0.0
가구주 교육 정도	중졸 이하	23.2	24.8	6.1	0.0	주거 형태	500만원대	7.7	7.7	8.6	0.0
	고졸	36.8	36.7	34.6	72.9		600만원대 이상	7.9	7.9	8.7	0.7
	전문대졸 이상	38.5	36.9	58.9	27.2		아파트	45.0	46.3	31.4	22.0
가구주 직업	관리자/전문가 외	29.7	28.2	49.6	19.5		연립/다가구 주택	21.8	20.4	36.0	47.3
	서비스/판매종사자	17.6	17.5	15.3	42.1	맞벌이 여부	단독주택	30.4	30.8	26.8	17.9
	장치기계조작외	27.5	28.4	19.0	4.5		기타	2.7	2.4	5.4	12.9
	주부	9.4	10.1	2.6	0.0		맞벌이	25.7	33.8	54.7	6.5
	기타	15.3	15.3	6.4	34.0		맞벌이 안함	48.2	66.2	45.3	93.5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2) 그룹별 응답자 특성

대부분 가정조리를 하는 그룹 (가정조리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매우 유사 가구주는 남자가 72%, 40-50대가 48.3%, 학력은 중졸 이하가 24.8% (고졸 36.7% 전 문대졸 이상 36.9%), 직업은 [관리자/전문가+장치기계조작외]를 합해 56 % 차지 월평균 가구 소득과 가구구성원수는 골고루 분포 되어 있으나 고소득자 비율이 가장 높음 수도권(46.3%), 아파트(46.3%) 거주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주택(30.8%) 맞벌이하는 가구가 33.8%
HMR을 주로 이용하는그룹 (HM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주는 남자가 75.4%, 30-40대가 68.6%, 학력은 58.9%가 전문대졸 이상으로 고학력, 직업은 [관리자/전문가]가 49.6%로 절반을 차지 월평균 가구 소득은 1~2백만원대가 47%, 1인 가구 비율이 52.3% 차지 수도권 거주 비율 높고(62.6%), 연립/다가구 주택(36%)과 아파트(31.4%)에 주로 거주 맞벌이 비율이 54.7%로 가장 높음
가정에서 조리를 안하는그룹 (가정조리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주는 남자가 81.6%, 20-30대가 63.5%로 비교적 젊은 세대, 학력은 고졸(72.9%)이 가장 많고, 직업은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이 42.1%로 가장 높음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백만원대가 39.4%로 가장 많고, 백만원 미만도 26.8%로 가장 높아 저소득자 비율이 높음 1인 가구 비율은 89.4%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가 93.5% 수도권 거주 비율 가장 높고(76.1%), 연립/다가구 주택(47.3%)에 주로 거주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3) 그룹별 외식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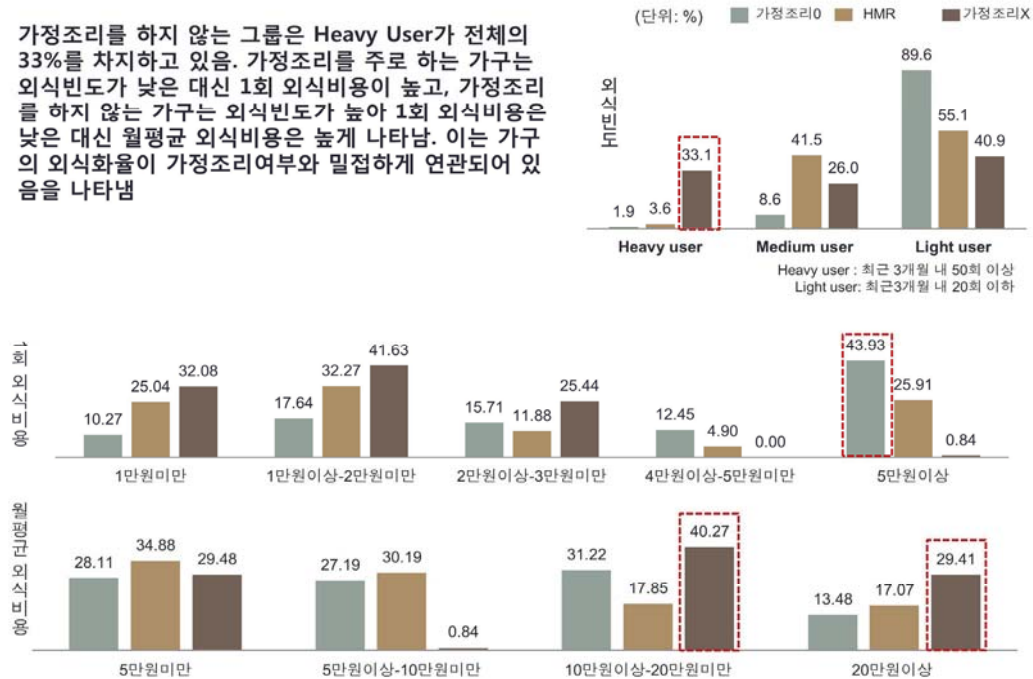
대부분의 가정이 모두 외식을 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95.9%가 가정에서 조리를 하지 않음. 가족들과 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이며, 외식을 하긴 하되 자주하지 않는 가구는 값비싼 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낌.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3) 그룹별 외식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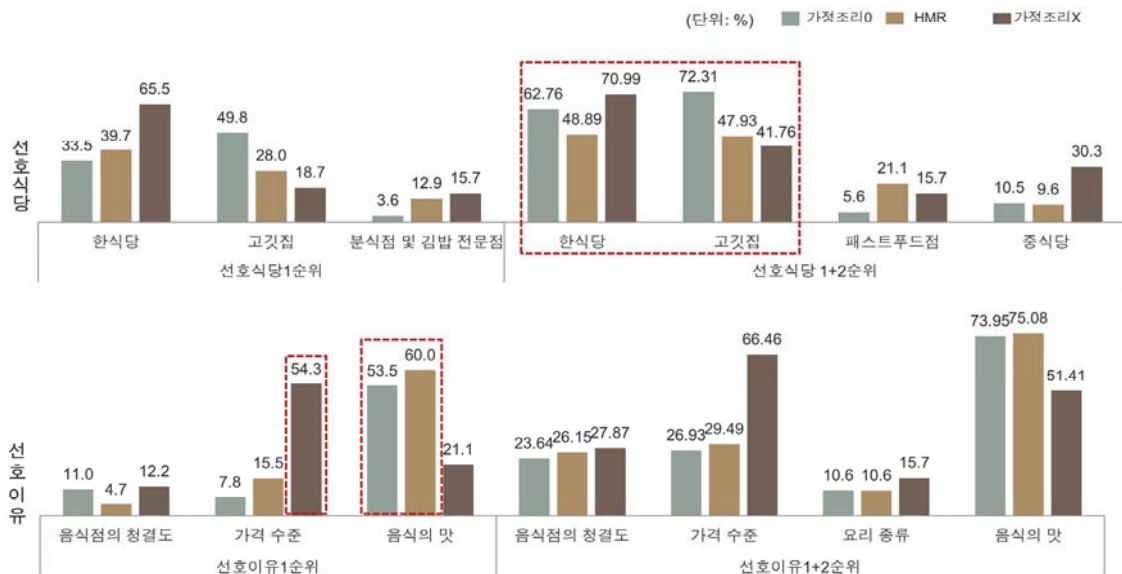
가정조리를 하지 않는 그룹은 Heavy User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가정조리를 주로 하는 가구는 외식빈도가 낮은 대신 1회 외식비용이 높고, 가정조리를 하지 않는 가구는 외식빈도가 높아 1회 외식비용은 낮은 대신 월평균 외식비용은 높게 나타남. 이는 가구의 외식화율이 가정조리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냄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3) 그룹별 외식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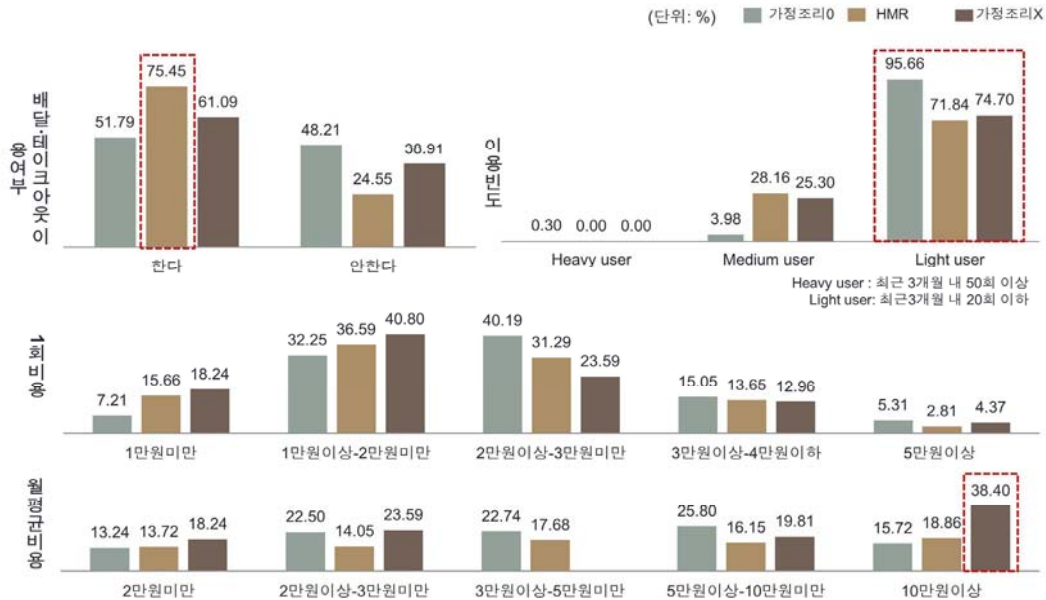
가족외식(1인가구 포함)시 가장 선호하는 식당은 '한식당'과 '고기집'으로 이 두 컨셉은 '한국형 Family Restaurant'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음. 외식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가정조리를 하지 않는 그룹은 '가격 수준'을, 나머지 그룹들은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4) 그룹별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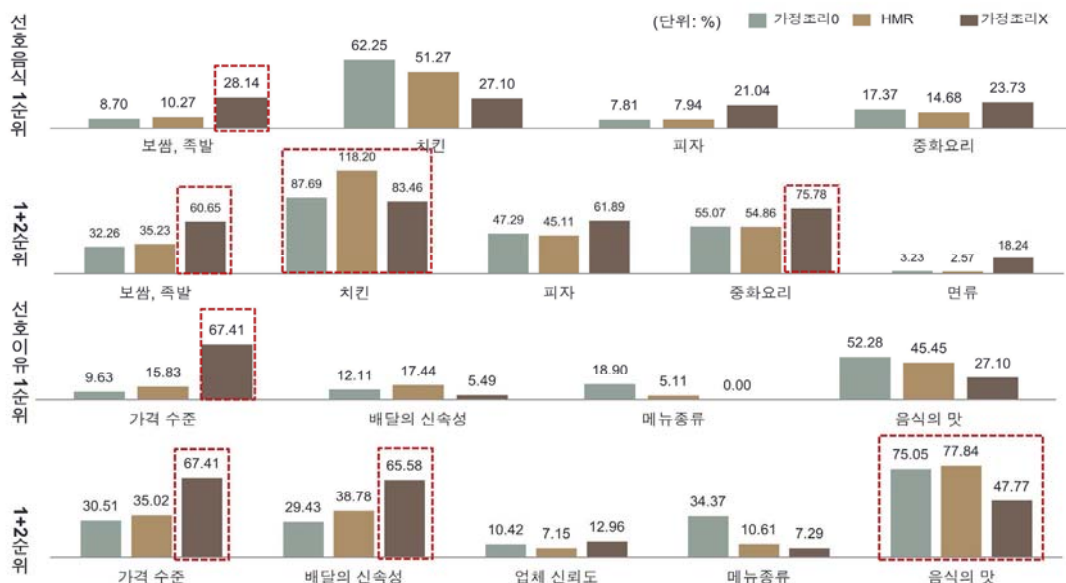
가구의 배달·테이크아웃 이용은 외식에 비해 빈도가 대체로 낮으며, 맛별이 비율이 가장 높고 HMR을 주로 이용하는 그룹이 배달·테이크아웃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모든 그룹에서 1회 외식 비용으로 1만원에서 3만원 미만을 지출하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회 비용도 높은 편임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4) 그룹별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배달·테이크아웃 메뉴로 '치킨'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화요리'와 '피자'임. 1인 가구 및 저소득 남자 구성비가 높은 그룹(가정조리X)의 경우 '보쌈/족발' 및 저렴한 '중화요리'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게는 배달·테이크아웃 메뉴의 '가격경쟁력'이 중요하게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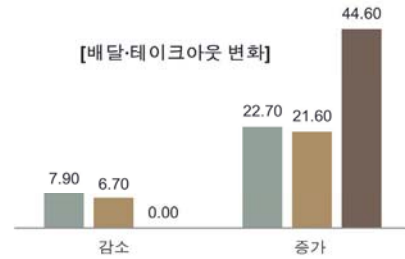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1. 가구 외식 행태 (5) 전년대비 올해 지출이나 이용빈도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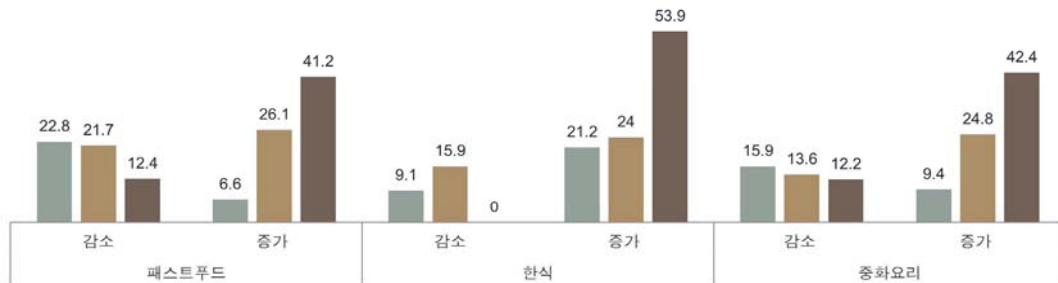
전년대비 이용빈도와 지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외식유형은 대체로 가격이 저렴한 패스트푸드, 한식, 중화요리였음. 배달·테이크아웃의 경우도 소득수준이 낮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그룹(가정조리X)에서 높게 증가했다고 응답함. 이는 전년대비 올해 가구의 소비경기가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배달·테이크아웃 변화]



[외식유형별 변화]

(단위: %)



[조사결과] 성인외식행태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2. 성인 외식 행태 (1) 응답자 특성

외식빈도에 따라 Heavy user, Medium User, Light user 등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함. 외식을 많이 하는 Heavy user는 남성(68.9%), 3~40대(54%) 비중이 높고, 1~3백만원대 소득자가 전체 69.4%로 가장 많음. Medium user는 20대 이하 남성 비중이 높고, 2백만원대 미만 소득자가 58.1%를 차지하며, 주부/미취업 비율이 22%. Light user는 고연령대 및 여성 비율이 높고, 주부/미취업 비율이 28.8%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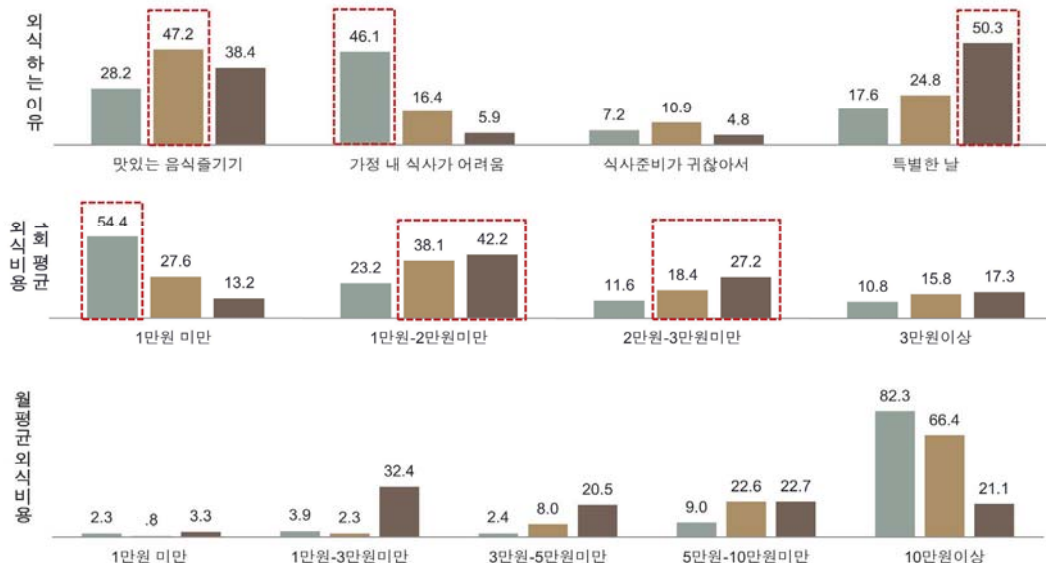
		전체	Heavy User	Medium User	Light User
성별	남자	50.5	68.9	60.5	46
	여자	49.5	31.1	39.5	54
연령	20대 이하	17.7	23.4	30.7	16.2
	30대	22.3	25.4	27	21.1
	40대	22.4	28.6	19.9	22.7
	50대	20.9	18.4	15.9	23
	60대	12.1	3.9	5	13.1
	70대 이상	4.5	0.9	1.6	4.9
월 평균	100만원 미만	9.4	5.2	10.8	11.7
	100만원대	15.8	28.4	20.3	25.1
	200만원대	19.5	26	27	17.4
	300만원대	20.5	15	10.3	10.4
	400만원대	13.3	8.9	4.1	3.2
	500만원 이상	21.4	6.3	5.3	3.4
	주부/미취업	0.2	10.1	22	28.8
권역	수도권	50.5	69.1	60.8	42.4
	충청권	10.2	8.3	10.3	11.1
	호남권	10.7	3.6	8.4	13
	대경권	10	7.4	6.9	11.5
	동남권	15.6	8.6	12.2	19.1
	강원권	2.9	3	1.5	2.9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2. 성인 외식 행태 (2) 그룹별 외식행태

Heavy user의 외식이유는 '가정 내 식사 어려움'과 '맛있는 음식 즐기기'인 반면, Light user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함. Heavy user들의 1회 평균 외식비용은 1만원 미만이 5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Medium & Light user는 1만원~3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음.

(단위: %) Heavy User Medium User Light U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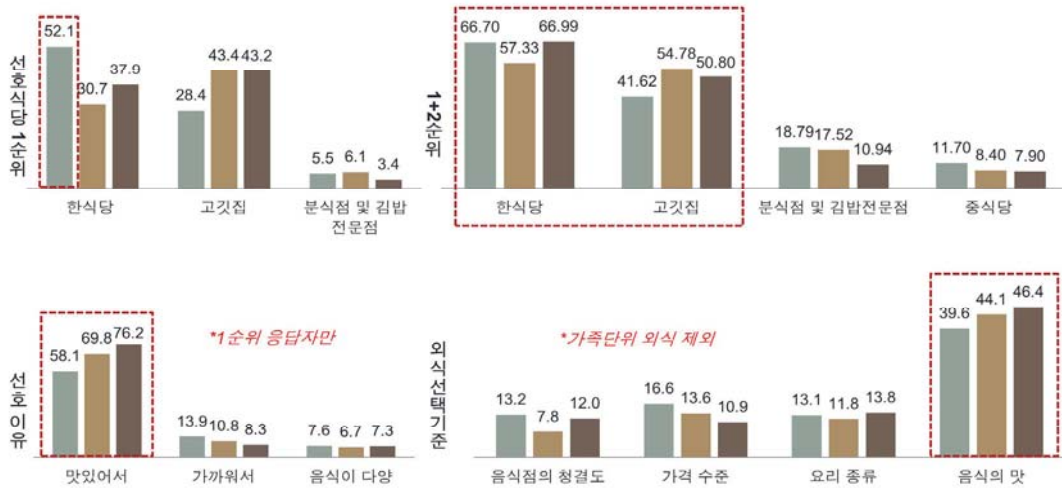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2. 성인 외식 행태 (2) 그룹별 외식 행태

성인들이 선호하는 외식 유형은 가구 외식행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식당'과 '고깃집'이었으며, Heavy user는 다른 그룹에 비해 저렴한 한식당을 더 선호하고 있음. 식당 선호이유나 외식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 모두 '음식의 맛'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식품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중식당 또는 캐주얼한 식당들이 국내 외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단위: %) Heavy User Medium User Light U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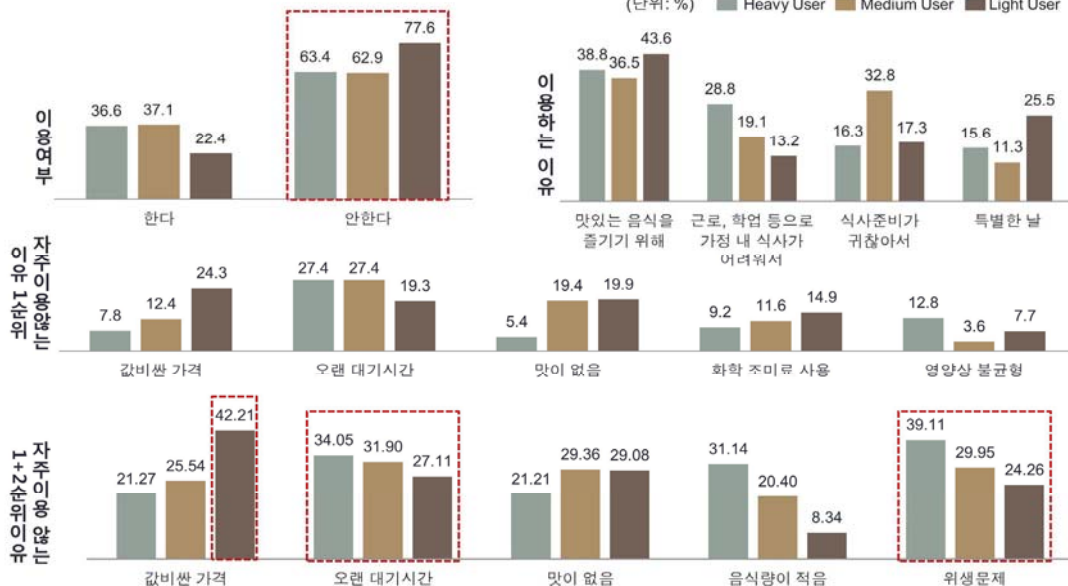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2. 성인 외식 행태 (3) 그룹별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집이 아닌 장소에서의 배달·테이크아웃으로 식사하는지 여부는 응답자의 2/3 이상이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식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거의 또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1+2순위)로는 Light user의 경우 값비싼 가격이 가장 많았고, 모든 그룹에서 위생문제와 오랜 대기시간 때문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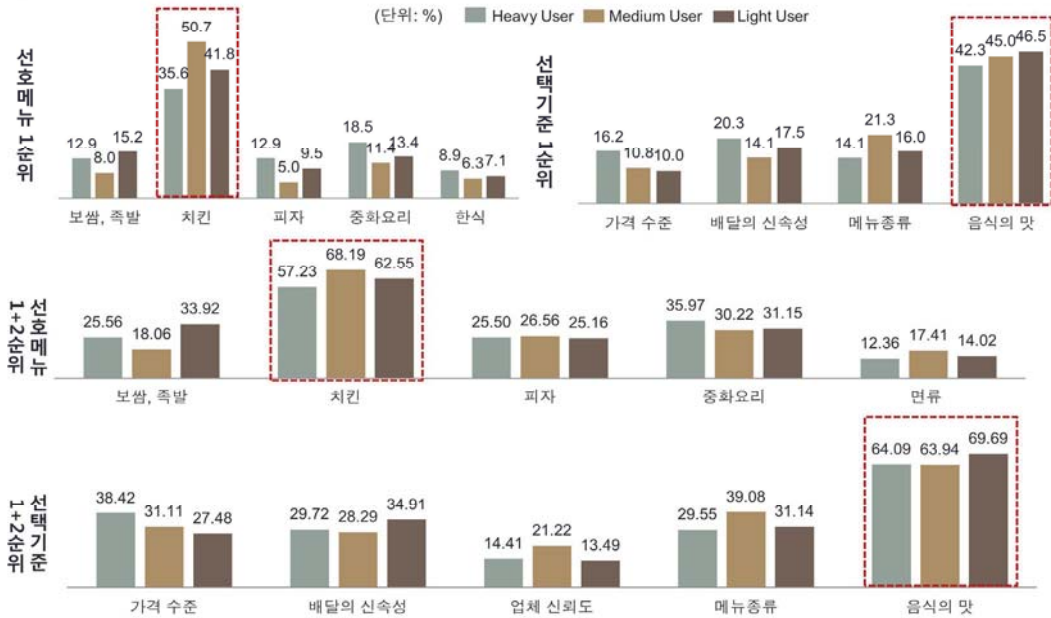
(단위: %) Heavy User Medium User Light User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2. 성인 외식 행태 (3) 그룹별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모든 그룹에서 배달·테이크아웃 선호메뉴 1순위는 '치킨'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음식의 맛'이었음. 배달이나 셀프서비스의 패스트푸드는 음식품질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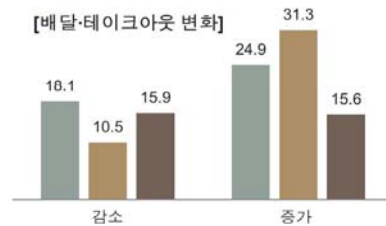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2. 성인 외식 행태 (4) 전년대비 올해 지출이나 이용빈도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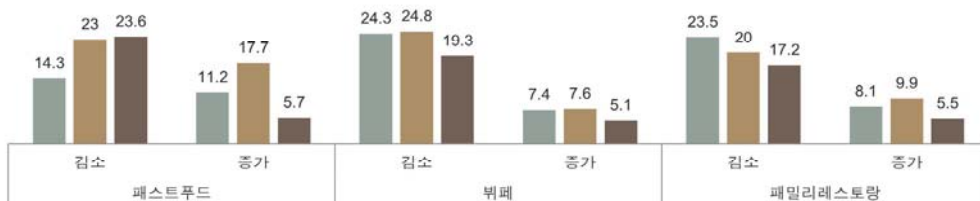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 그러나 Heavy user 그룹은 객단가가 높은 뷔페나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이 줄었고, Medium & Light user 그룹의 경우는 모든 외식유형에서 올해 이용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Medium user의 패스트푸드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배달·테이크아웃은 Heavy & Medium user 그룹에서 전년대비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저렴한 외식유형의 이용 증가는 소비자들의 경제사정의 악화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됨.

[배달·테이크아웃 변화]



(단위: %)

[외식유형별 변화]



[조사결과] 청소년외식행태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3. 청소년 외식 행태 (1) 응답자 특성

청소년은 아침결식여부와 외식빈도에 따라 그룹을 분류하고 차이를 분석했음. 아침을 2회 이상 거른 학생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빈도로 분류할 경우 Heavy User는 남학생과 중학생, Medium User는 여학생과 중학생, Light User는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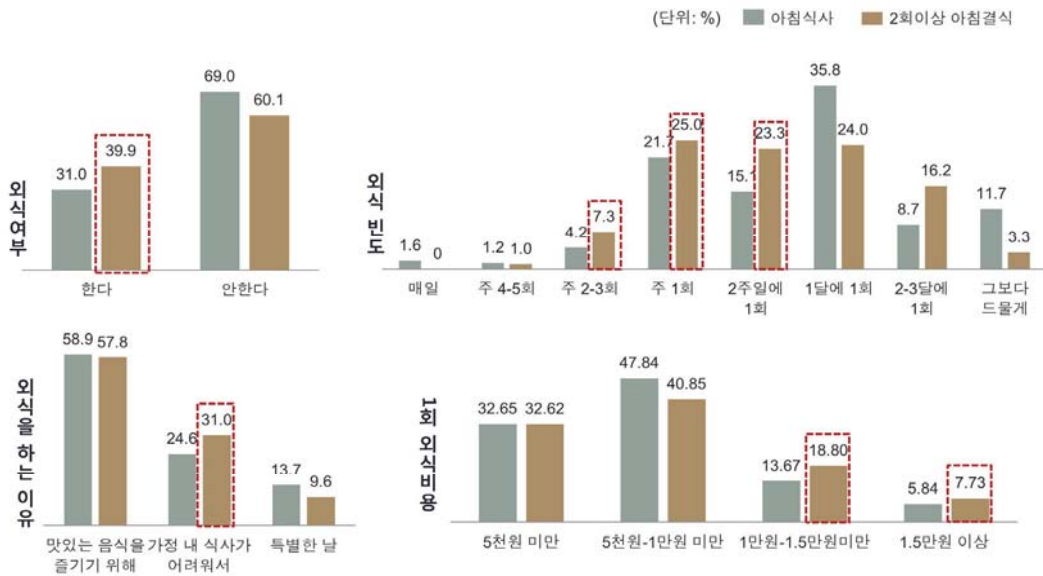
단위: %

		전체	아침 식사	아침 2회 이상 결식	Heavy User	Medium User	Lighter User
성별	남자	52.4	54.00	48.30	58.10	41.60	47.80
	여자	47.6	46.00	51.70	46.90	58.40	52.20
연령	중학생	48.0	48.70	46.50	58.30	55.80	40.20
	고등학생	52.0	51.40	53.50	41.70	44.20	59.20
권역	수도권	48.3	46.00	53.80	56.30	64.40	43.30
	충청권	10.6	12.20	6.90	34.70	4.90	8.80
	호남권	12.3	12.50	11.90	1.80	17.30	13.00
	대경권	10.2	10.30	9.90	2.00	3.90	12.20
	동남권	15.6	15.60	15.60	3.50	9.10	20.00
	강원권	3.0	3.50	1.80	1.60	0.40	2.70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3. 청소년 외식 행태 (2) 아침식사 여부에 따른 외식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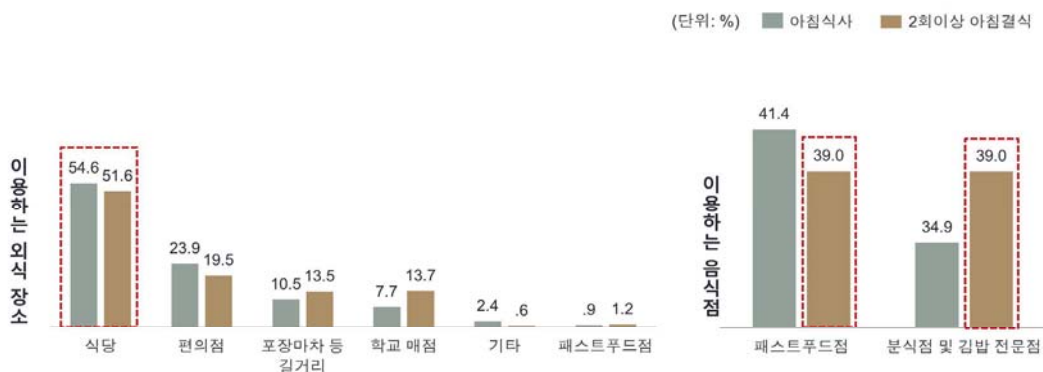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일수록 외식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1회 외식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이지만,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의 경우 '가정내 식사가 어려워' 외식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1회 외식비용도 더 높음.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3. 청소년 외식 행태 (2) 아침식사 여부에 따른 외식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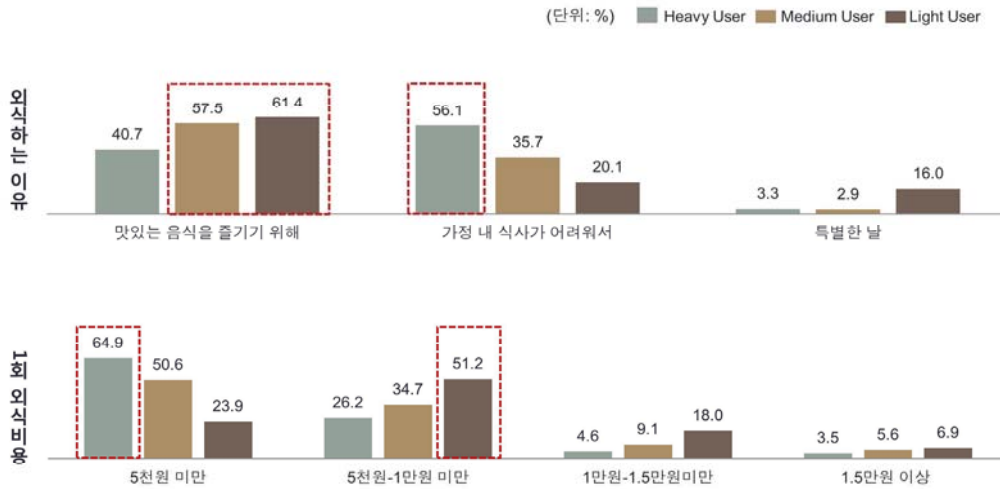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식장소는 음식점과 편의점이며,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의 길거리 음식 및 학교 매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주로 가는 음식점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아침 결식을 자주하는 학생들은 패스트푸드점과 함께 분식점 이용 비율이 높음.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3. 청소년 외식 행태 (3) 외식빈도에 따른 외식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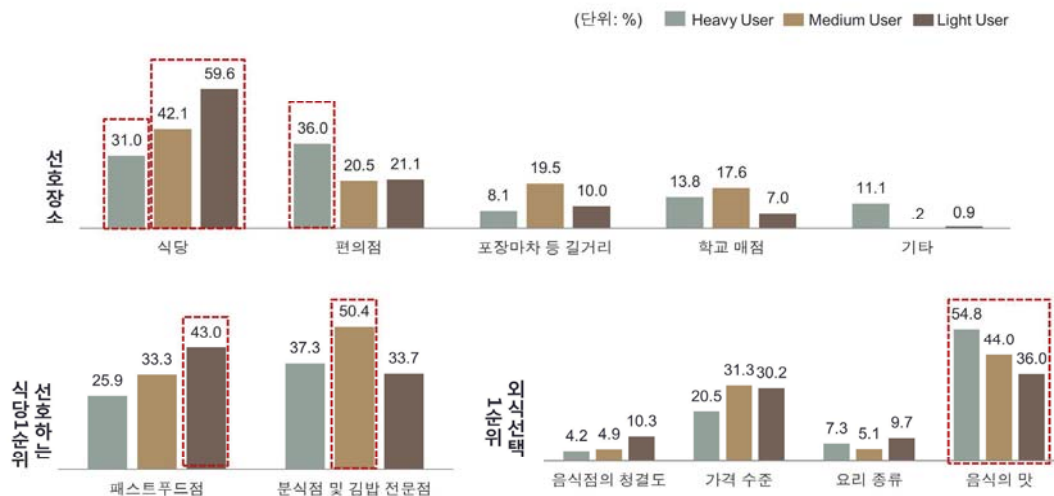
외식을 자주하는 Heavy User의 주 외식이유는 '가정 내 식사가 어려워져'인 반면, Medium & Light User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외식한다고 응답함. 청소년도 역시 Heavy User 그룹의 1회 외식 비용으로 5천원 미만이 가장 많은 반면, Light User는 5천원-1만원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II. 외식소비행태 조사결과

3. 청소년 외식 행태 (2) 외식빈도에 따른 그룹별 외식행태

외식을 자주하는 Heavy User의 주 외식장소는 편의점과 식당인 반면, Medium & Light User의 선호 장소는 식당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모든 그룹에서 '음식의 맛'과 '가격수준'이라 응답함. 선호하는 식당의 유형은 Heavy User는 저렴한 분식점을, Light User는 패스트푸드점임.



Ⅲ. 결과요약 및 시사점

1. 가구 외식소비행태

- 가정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간의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를 분석함. 먹는 음식을 대부분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그룹1(가정조리O), HMR을 이용하는 그룹2,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 그룹3(가정조리X)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외식소비 행태에도 차이가 있었음.
- (외식여부) 가구의 75% 이상이 대부분 외식을 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가정조리를 하지 않는 비율은 96%, HMR을 이용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남.
국내 외식시장은 향후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가족외식이유) 그룹1의 외식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며, 그룹 2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외식하는 비율이 32%나 차지했음. 그룹3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경우 대부분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응답
외식이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셀프서비스 식사준비를 대신 할 경쟁자로 외식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 (외식빈도) 조리하지 않는 그룹3의 33%는 최근 3개월 동안 외식을 50회 이상한 Heavy User
1인 가구의 증가 및 현대인의 바쁜 생활로 Heavy User 그룹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신호식당) 모든 그룹에서 선호하는 식당은 한식당과 고깃집
한국형 패밀리레스토랑은 '한식당'과 '고깃집'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있음

Ⅲ. 결과요약 및 시사점

1. 가구 외식소비행태

- (배달·테이크아웃 이용여부) 외식에 비해 이용하는 가구수가 대체로 낮으며,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고 HMR 이용이 높은 그룹2가 배달·테이크아웃을 가장 많이 이용
국내 배달·테이크아웃 시장 규모도 향후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배달·테이크아웃 선호메뉴) 치킨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중화요리와 피자임. 그룹 2의 경우 보쌈/족발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한 그룹3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배달·테이크아웃을 이용하고 있음.
지금까지 배달·테이크아웃 시장은 어린이 고객 대상의 간식개념의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HMR시장 증가로 성인이나 가구의 식사대용 메뉴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전년대비 이용빈도 및 지출액 증감여부) 대체로 가격이 저렴한 외식유형이나 배달·테이크아웃의 이용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외식시장은 경기와 같은 경제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업이나, 지속가능한 외식사업을 위해서는 외부 요인보다는 차별화된 고객감동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Ⅲ. 결과요약 및 시사점

2. 성인 외식소비행태

- 성인외식소비행태는 외식빈도에 따라 Heavy User, Medium User, Light User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룹에 따라 외식소비행태에 차이가 있었음.
- (외식이유) Heavy User의 주 외식이유는 '가정 내 식사가 어렵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인 반면, Medium User의 경우는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함.
외식을 많이 하는 Heavy User는 가정식사 Solution으로 외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외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그룹으로 외식시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고객임.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소득 수준의 증가 등으로 인해 Heavy User 그룹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선호식당) Heavy User의 한식당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이는 한식당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임. 1순위 2순위를 모두 합치면 모든 그룹이 '한식당'과 '고기집'을 선호
성인의 경우에도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뷔페식당보다는 대중 한식당과 고기 구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국내 외식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들 한식당들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Ⅲ. 결과요약 및 시사점

2. 성인 외식소비행태

- (배달·테이크아웃 이용여부 및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배달·테이크아웃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보다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며, 이용고객들 중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Heavy User는 위생문제와 오랜 대기시간을, Light User는 값비싼 가격과 맛이 없음이라고 응답함
배달·테이크아웃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시장으로서 Heavy User의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생산과 배달과정에서의 식품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대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배달·테이크아웃 선호메뉴 및 선택기준) 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달·테이크아웃 메뉴는 '치킨'이었으며, 다음으로 중화요리, 피자, 보쌈/족발로 나타남. 특히 Medium User의 치킨 메뉴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그룹에 비해 젊은 남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 전문 앱(APP)의 활성화로 젊은 세대들 가운데 배달·테이크아웃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나 성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배달·테이크아웃 메뉴 개발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
- (전년대비 이용빈도 및 지출액 증감여부) Heavy User들의 뷔페나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은 줄었고, Medium & Light User 그룹의 경우 모든 외식유형에서 이용빈도가 올해 줄었다고 응답. 반면 배달·테이크아웃은 Heavy & Medium 그룹에서 전년대비 증가했음. Heavy User 그룹이 경기나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판단됨.
배달·테이크아웃 시장은 일반 음식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어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음식점들도 배달·테이크아웃 서비스 도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 가능함.

Ⅲ. 결과요약 및 시사점

3. 청소년 외식소비행태

- 청소년외식소비행태는 아침결식여부와 외식빈도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룹에 따라 외식소비행태에 차이가 있었음.
- (주당 2회 이상 아침 결식하는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보다 외식하는 비율이나 빈도가 높았으며, 외식을 하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다음으로 '가정 내 식사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주로 음식점(패스트푸드와 분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외식을 하고 있으며, 길거리 음식 및 매점 이용빈도도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맞벌이 부모와 Single Mom & Dad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외식환경에 노출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외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메뉴 또는 음식 선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바른 식생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외식빈도가 높은 Heavy User 그룹) Heavy User 그룹이 외식하는 이유는 '가정 내 식사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56.1%)이 가장 높았으며, 1회 외식비용은 5천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64.9%)을 차지함. 다른 두 그룹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함.

Heavy User 청소년 그룹의 외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에서 식사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지역 학교 및 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위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식을 할 경우 올바른 선택권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임.

감사합니다!



외식 소비행태와 식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정 유 경

(세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외식소비행태의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정유경 교수(세종대학교)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외식소비자층을 이해하기 위한 소비자 통계의 정보는 매우 부실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의 얻어지는 통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김기영 외, 2011). 정보를 획득하는 어려움에 힘입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 실제의 적용은 아울러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특별히 외식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고려한 통계자료의 이용은 거의 쉽지 않은 환경에서 외식소비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외식소비행태와 관련된 연구를 시도함.
- 본 연구는 외식소비자 성인과 청소년의 외식소비행태와 배달/테이크아웃 서비스의 이용행태 및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식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고,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는 간식소비정도 및 학교 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식생활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보의 제공 및 나아가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성인과 청소년 집단의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 및 식재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 및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식생활만족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여부에 따라 집단을 4집단의 소비자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외식소비행태 및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2. 기존 문헌 연구

- 외식산업의 환경변화 : 외식산업의 외식산업 분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많은 요인에 의한 외부환경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임. 국내외적인 식재료 수급상황, 경영 및 기술의 발전,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가속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새로운 외식서비스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음(한국외식연감, 2013).
- 외식소비행태 :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소비자들

이 외식하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도 함께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소비자들의 외식소비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외식동기, 외식비 지출정도, 외식 횟수 이용음식, 이용시간대 등의 구체적인 행태를 이용하여 대학생 집단에 대하여 연구하거나(이종호 · 정형영, 2006), 직장여성(김근종 · 전명숙, 2011), 또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창형 · 오석태, 2014)가 있음.

- 외식과 관련된 소비자 집단의 식생활만족도의 이해 :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인 소비자 집단 보다는 다소 소외되거나(이은정 · 배영금, 2012), 지역적으로 대조되는 그룹을 비교하는(김유리 외, 2012) 연구가 주로 보여짐.
- 본 연구에서는 외식소비행태를 위하여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여부,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특히 국산농산물, 친환경식재료, 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정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국내 성인과 청소년 집단의 식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함.
- 특별히 각 대상의 모수추정을 바탕으로 최대한 실제 국내의 성인과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음.

3. 분석 자료와 방법

□ 분석자료

-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4년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주)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가구설문 조사 결과 자료임. 설문문은 가구 구성원(성인), 가구 구성원(청소년), 및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 구입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자료를 이용함.
- 조사자료 중 성인과 청소년의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과 관련된 소비행태, 식재료에 대한 인식 즉, 국산농산물, 친환경식재료, 식품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정도를 이용함. 청소년의 경우 간식소비 정도 및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도 함께 고려하여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방법

- KREI의 식품소비조사행태는 계층과 조사구역을 기반으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가중치(weight)를 반영하여 빈도, 평균, B값 등의 분석에 이용되는 통계치를 추정함.
- 또한,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 소비 행태에 대한 구매 빈도나 추이 등의 특성을 나타내

는 변수 중 5점 리커트 척도로 이용 가능한 연속형 변수와 1=예, 2=아니요 형태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들을 구분하여 이 변수들의 특성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분석을 고려함.

- 자료의 분석을 위해 기술분석, 교차분석,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의 여부, 성별, 식사규칙성, 체중조절경험여부, 청소년의 간식섭취정도 등에 대한 영향력 측정을 위하여 국산식재료 관심도, 친환경식재료 관심도, 우리나라 식품안전성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사용함.

4. 조사표본에 대한 특성

4.1. 성인 ·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분포

□ 성인의 성별분포

- 조사표본의 성인에 대한 성별 분포를 알아보면, 성인 전체 6311명 중 55.8%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10%정도 많았지만, 소비자 계층과 조사구역을 기반으로 부여된 가중치 적용 이후에는 남성이 50.5%로 여성보다 약간 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은 성별에 따른 성인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표 4-1〉 조사표본 성인의 성별에 따른 분포

	표본 빈도	표본 퍼센트	가중 빈도	가중 퍼센트
남자	2,789	44.2%	19,209,055	50.5%
여자	3,522	55.8%	18,812,233	49.5%
합계	6,311	100.0%	38,021,288	100.0%

□ 청소년의 성별분포

-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의 성별 분포에서는 941명의 청소년 전체 수 중에서 51.1%가 남학생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에도 52.4%로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표 4-2〉 조사표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분포

성별	표본 빈도	표본 퍼센트	가중 빈도	가중 퍼센트
남자	481	51.1%	1,970,734	52.4%
여자	460	48.9%	1,793,165	47.6%
합계	941	100.0%	3,763,899	100.0%

4.2. 성인과 청소년의 외식소비인식과 식생활만족도

☐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 비교

- 성인과 청소년 그룹에 대한 식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음식 식재료 국산 농산물 여부 및 음식 식재료 친환경 식품여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그룹별 식생활 만족도는 <표 4-3>과 같음.
- 성인그룹의 식생활 만족도의 경우, 남성 및 여성 모두 현재 식생활에 만족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54.79%보다 여성이 57.35%로 식생활 만족도가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소년그룹의 경우에도 식생활 만족도는 남성 및 여성 모두 현재 식생활에 만족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59.67%로 여성 50.87%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 성인과 청소년 식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성별	만족도 정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인 ¹⁾	남자	0.50%	4.02%	37.61%	54.79%	3.08%
	여자	0.28%	4.34%	35.63%	57.35%	2.39%
청소년 ²⁾	남자	0.42%	2.49%	31.60%	59.67%	5.82%
	여자	0.22%	4.78%	39.13%	50.87%	5.00%

1) 성인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6,311(남성: 2,789, 여성: 3,522)임

2) 청소년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941(남성: 481, 여성: 460)임

☐ 성인과 청소년의 국산농산물 관심 비교

- 그룹별 음식의 식재료가 국산 농산물인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도는 <표 4-4>와 같음.
- 성인그룹의 음식 식재료가 국산 농산물인지의 여부에서는 남성 및 여성 모두 국산 농산물인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43.06%보다 여성이 53.61%로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4〉 성인과 청소년의 국산 농산물 식재료 관심정도

[단위: %]

구분	성별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는 편	보통임	관심있는편	매우 관심있음
성인 ¹⁾	남자	1.47%	10.00%	39.84%	43.06%	5.59%
	여자	0.40%	5.03%	31.86%	53.61%	9.11%
청소년 ²⁾	남자	4.99%	22.04%	45.32%	24.95%	2.70%
	여자	3.04%	21.74%	45.65%	25.43%	4.13%

1) 성인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6,311(남성: 2,789, 여성: 3,522)임

2) 청소년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941(남성: 481, 여성: 460)임

- 청소년그룹의 경우에는 음식 식재료의 국산 농산물 여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관심 있는 편이라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음식 식재료의 국산 농산물 여부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성인과 청소년의 친환경식재료 관심도 비교

- 그룹별 음식의 식재료가 친환경식품(유기농, 무농약 등)의 여부에 대한 관심도는 다음의 〈표 4-5〉와 같음.

〈표 4-5〉 성인과 청소년의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

구분	성별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는 편	보통임	관심있는편	매우 관심있음
성인 ¹⁾	남자	3.98%	19.72%	47.87%	26.39%	2.04%
	여자	2.02%	14.11%	44.75%	35.49%	3.63%
청소년 ²⁾	남자	8.11%	28.90%	43.24%	18.92%	0.83%
	여자	4.78%	29.35%	45.00%	20.22%	0.65%

1) 성인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6,311(남성: 2,789, 여성: 3,522)임

2) 청소년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941(남성: 481, 여성: 460)임

- 성인그룹의 음식 식재료의 친환경식품 여부에서는 국산 농산물에 비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식재료의 친환경식품 여부에서도 남성 26.39%보다 여성이 35.49%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소년그룹의 경우에는 음식 식재료의 국산 농산물 여부와 동일하게 친환경식품 여부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관심 없는 편이라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즉, 식재료의 친환경식품 여부에서도 청소년은 성인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성인과 청소년의 식품안전성 인식 정도 비교

- 조사표본의 성인과 청소년의 우리나라 식품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표 4-6>과 같음.

<표 4-6> 성인과 청소년의 우리나라 식품의 안정성 인식정도

[단위: %]

구분	성별	인식정도					
		모름	전혀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음	보통임	안전한 편	매우 안전
성인 ¹⁾	남자	0.5%	1.2%	14.2%	47.3%	36.4%	0.5%
	여자	0.5%	1.5%	14.7%	45.3%	37.5%	0.5%
청소년 ²⁾	남자	2.5%	1.0%	9.6%	45.5%	41.2%	0.2%
	여자	3.7%	0.7%	10.2%	49.6%	35.2%	0.7%

1) 성인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6,311(남성: 2,789, 여성: 3,522)임

2) 청소년그룹의 전체 조사대상은 941(남성: 481, 여성: 460)임

- 전반적으로 성인그룹과 청소년그룹의 소비자들 70%이상은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보통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 그룹의 35%이상은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성인들의 15%정도는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10%정도도 역시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4.3. 성인과 청소년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

☐ 외식여부에 따른 분포

- 성인과 청소년 그룹의 성별에 따른 외식여부를 비교한 결과는 <표 4-7>에 제시됨.
- 성인그룹의 경우 개인적 외식(친구/동료/지인들과 함께 또는 혼자)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성인 남성은 89.82%가 성인 여성은 81.69%가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이 여성보다 외식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소년그룹의 경우 개인적 외식(친구/동료/지인들과 함께 또는 혼자)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청소년 남성은 73.39%가 청소년 여성은 79.35%가 외식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나며 청소년그룹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식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7〉 성인과 청소년의 외식 여부 분포

[단위: %]

구분	성별	외식을 한다		외식을 전혀 하지 않는다		총합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성인	남자	2,505	89.82%	284	10.18%	2,789
	여자	2,877	81.69%	645	18.31%	3,522
청소년	남자	353	73.39%	128	26.61%	481
	여자	365	79.35%	95	20.65%	460

□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 성인이 청소년의 개인적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외식행태(친구/동료/지인들과 함께 또는 혼자)는 다음의 〈표 4-8〉과 같음.
- 성인그룹의 경우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성인 남성은 76.59%가 성인 여성은 73.39%가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보다 여성이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청소년그룹의 경우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청소년 남성은 79.85%가 청소년 여성은 70.00%가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8〉 성인과 청소년의 배달/테이크아웃 여부 분포

[단위: %]

구분	성별	배달/테이크아웃을 한다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다		총합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성인	남자	653	23.41%	2,136	76.59%	2,789
	여자	726	20.61%	2,796	79.39%	3,522
청소년	남자	145	30.15%	336	69.85%	481
	여자	138	30.00%	322	70.00%	460

4.4.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 학교급식의 영향 및 품질

- 청소년그룹의 학교급식의 영향 및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급식이 식사습관에 도움이 되는지, 가정에서 밥을 잘 먹게 하는데 기여하는지 및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청소년그룹의 성별에 따른 학교급식이 식사습관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정도는 다음의 <표 4-9>와 같음.
- 청소년그룹의 60%이상이 학교급식이 식사습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남자가 63.78%로 청소년 여자 61.89%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9> 학교급식이 식사습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성별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 임	매우 그렇다
청소년 ¹⁾	남자	2.43%	4.59%	29.19%	53.24%	10.54%
	여자	2.44%	6.40%	29.27%	56.71%	5.18%

1)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청소년을 기준(남자: 370, 여자: 328)으로 산출한 값임

- 청소년그룹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급식이 가정에서 밥을 잘 먹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여기는 정도를 <표 4-10>에 나타냄.
- 청소년그룹의 약 50%가 청소년이 학교급식이 가정에서 밥을 잘 먹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남자가 51.62%로 청소년 여자 46.65%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0> 학교급식이 가정에서의 식사에 도움이 되는지의 정도

[단위: %]

구분	성별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 임	매우 그렇다
청소년 ¹⁾	남자	2.43%	9.19%	36.76%	42.70%	8.92%
	여자	3.66%	9.45%	40.24%	42.07%	4.57%

1)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청소년을 기준(남자: 370, 여자: 328)으로 산출한 값임

- 청소년그룹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품질 우수성의 정도를 성별에 따라 <표 4-11> 제시함.

<표 4-11> 학교급식 품질 우수성 정도

[단위: %]

구분	성별	품질우수성 정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 임	매우 그렇다
청소년1)	남자	2.16%	8.65%	41.62%	40.54%	7.03%
	여자	3.35%	9.45%	45.73%	34.76%	6.71%

1)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청소년을 기준(남자: 370, 여자: 328)으로 산출한 값임

- 청소년그룹의 대다수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남자가 47.57%로 청소년 여자 41.46%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청소년그룹의 경우 학교급식이 식사습관 및 가정에서 밥을 잘 먹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5. 조사표본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

5.1.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

☐ 성인의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

- 조사표본의 성인을 대상으로 외식여부, 배달여부, 성별, 식사의 규칙성, 체중조절경험, 국산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관심정도,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정도 및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들이 식생활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함.
- 이때 국산농산물, 친환경식재료, 식품안전성 등에 대한 인식은 메트릭척도로 공변량 변수로 통제하고 공분산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1>에 제시됨.

〈표 5-1〉 성인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외식여부(예/아니오)	.144	.022	6.473	.000***
배달/테이크아웃여부(예/아니오)	-.051	.018	-2.807	.005***
성별(남/녀)	.046	.016	2.909	.004***
식사의 규칙성(예/아니오)	.417	.017	25.017	.000***
체중조절경험(예/아니오)	-.031	.016	-1.893	.058*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272	.011	24.021	.000***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17	.011	-1.647	.100*
우리나라 식품안전성 인식	.102	.010	10.462	.000***

* p<.10, ** p<.05, *** p<.01

- 성인들의 경우, 독립변수로 이용된 모든 변수들이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외식을 하는 집단이 하지 않는 집단보다 식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는 집단보다는 하지 않는 집단이 식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이 식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체중조절의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런 경험이 없는 집단 보다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식생활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산농산물이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

□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

- 조사표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식여부, 배달여부, 성별, 식사의 규칙성, 체중조절경험, 국산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관심정도,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정도 및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들이 식생활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2〉에 제시됨.

〈표 5-2〉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외식여부(예/아니오)	.060	.050	1.208	.227
배달여부(예/아니오)	.028	.045	.626	.531
성별(남/녀)	.029	.043	.673	.501
식사의 규칙성(예/아니오)	.289	.046	6.249	.000***
체중조절경험(예/아니오)	-.020	.046	-.428	.669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083	.033	-2.526	.012**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64	.022	2.929	.003***
우리나라 식품안전성 인식	.141	.035	4.073	.000***
간식먹는 정도	-.014	.020	-.694	.488
학교급식의 품질인식	.154	.024	6.302	.000***

* p<.10, ** p<.05, *** p<.01

-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집단과는 달리 사용된 독립변수 중 일부의 변수만이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외식여부, 배달여부, 성별, 체중조절경험, 간식 먹는 정도 등의 변수는 식생활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은 불규칙적으로 하는 집단보다 0.289 정도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식재료의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5.2. 청소년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의 소비행태에 따른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

- 청소년집단에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소년 집단을 외식여부와 배달여부에 따라 집단을 4집단으로 구분하여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함.

□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식생활만족도 평균 비교

- 먼저 외식, 배달, 성별, 식사의 규칙성, 체중조절경험 등의 범주형 변수에 따라 청소년들의 분포를 제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식생활만족도의 평균을 <표 5-3>에 나타냄.
- 청소년 집단은 전체적으로 3.55 ± 0.646 정도의 식생활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외식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냈고, 여자이거나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히 식사가 불규칙적인 집단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표 5-3>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식생활만족도 평균 비교

항목	세부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외식	한다	720	76.51%	3.55	0.657
	전혀안한다	221	23.49%	3.53	0.609
배달	한다	316	33.58%	3.51	0.706
	안한다	625	66.42%	3.57	0.613
성별	남	493	52.39%	3.57	0.654
	여	448	47.61%	3.52	0.636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678	72.05%	3.64	0.617
	불규칙적	263	27.95%	3.32	0.661
체중조절경험	있음	318	33.79%	3.49	0.697
	없음	623	66.21%	3.58	0.617
청소년전체(N=941) 식생활만족도				3.55	0.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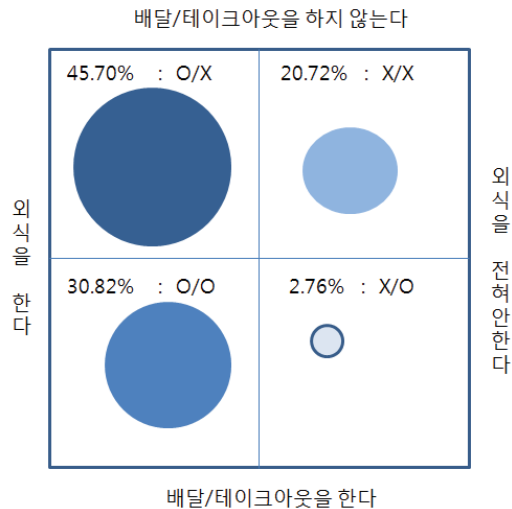
□ 청소년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 청소년 집단을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여부 변수를 이용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즉,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는 집단(O/O), 외식은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은 하지 않는 집단(O/X), 외식은 안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는 집단(X/O),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지 않는 집단(X/X)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비교분석함.
- 청소년 집단을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빈도와 퍼센트를 <표 5-4>에 나타냈으며, 그 분포를 좀 더 가시적으로 도식화 하기위해 <그림 5-1>에 나타냄.

〈표 5-4〉 청소년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빈도, %)

외식과 배달여부	배달/테이크아웃한다		배달/테이크아웃안한다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외식한다	290	30.82%	430	45.70%	720	76.51%
외식안한다	26	2.76%	195	20.72%	221	23.49%
전체	316	33.58%	625	66.42%	941	100.00%

<단위 % : 외식여부 / 배달여부>



〈그림 5-1〉 청소년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 청소년들의 경우 외식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O/X)집단이 45.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을 안하고 배달/테이크아웃 하는 (X/O)집단이 2.76%로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청소년들의 식생활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앞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범주형 독립변수 즉, 성별, 식사의 규칙성, 체중조절경험 등의 변수에 따라 청소년 집단의 분포를 알아보고 〈표 5-5〉에 제시하였으며, 각 집단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를 비교함.
- (O/X)집단 즉 외식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식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X/O), (X/X), 즉 외식을 하지 않는 두 집단이 3.54로 두 번째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는 (O/O)집단의 경우가 식생활만족도는 3.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5〉 청소년의 외식과 배달 여부에 따른 집단별 분포 및 식생활만족도 비교

항목	세부구분	외식O / 배달O	외식O / 배달X	외식X / 배달O	외식X / 배달X
성별	남	147	187	21	124
	여	138	236	8	62
	전체	285	423	29	186
	퍼센트	(30.88%) ^a	(45.83%)	(3.14%)	(20.15%)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166	331	17	150
	불규칙적	119	92	12	36
체중조절경험	있음	127	137	8	40
	없음	158	286	21	146
식생활만족도 평균		3.52±0.708	3.58±0.619	3.54±0.687	3.54±0.599

^a : 제시된 퍼센트는 결측치로 인해 〈표 5-4〉와의 퍼센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청소년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에 따른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여부에 따라 나뉜 4집단의 식생활만족도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6〉~〈표 5-9〉에 각각 제시함.

(1) 외식O / 배달O 집단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4집단 중에 가장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낸 집단으로 이 집단에 대한 결과는 〈표 5-6〉에 나타남.
- (O/O)집단은 식사의 규칙성 즉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식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와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 학교급식의 품질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 외식O / 배달O 집단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남/녀)	-.051	.088	-.578	.564
식사의 규칙성(예/아니오)	.313	.082	3.823	.000***
체중조절경험(예/아니오)	-.135	.091	-1.476	.141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050	.058	-.874	.383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123	.041	3.003	.003***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036	.059	.610	.542
간식먹는 정도	-.043	.044	-.976	.330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	.151	.051	2.986	.003***

* p<.10, ** p<.05, *** p<.01

(2) 외식O / 배달X 그룹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중에 외식만을 하고 있고 배달/테이크아웃은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4개의 집단 중에 가장 높은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낸 집단이며 이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7〉에 나타남.

〈표 5-7〉 외식O / 배달X 집단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남/녀)	.093	.058	1.587	.113
식사의 규칙성(예/아니오)	.321	.070	4.588	.000***
체중조절경험(예/아니오)	.054	.062	.862	.389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133	.048	-2.803	.005***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66	.032	2.091	.037**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243	.052	4.700	.000***
간식먹는 정도	.007	.025	.276	.783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	.105	.033	3.192	.002***

* p<.10, ** p<.05, *** p<.01

- 외식만을 하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O/X)집단은 식사의 규칙성 즉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식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 식품의안전성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국산식재료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외식만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은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 식품이 안전한지, 학교급식의 품질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외식을 많이 하면서 국산농산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관심이 오히려 식생활만족도에는 부(-)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외식X / 배달O 그룹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중에 외식은 하지 않고 배달/테이크아웃만 하고 있다는 집단은 4개의 집단 중에 중간 정도의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내며, 이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8>에 제시함.

<표 5-8> 외식X / 배달O 집단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남/녀)	.684	.448	1.526	.143
식사의 규칙성(예/아니오)	.049	.296	.167	.869
체중조절경험(예/아니오)	.274	.326	.842	.410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375	.394	-.953	.352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55	.174	.318	.754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442	.390	1.133	.271
간식먹는 정도	-.123	.142	-.863	.398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	.186	.214	.867	.396

* p<.10, ** p<.05, *** p<.01

- (X/O)집단의 청소년들의 식생활에는 지금까지 이용했던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 결과적으로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성별, 규칙적인 식사, 식재료 등에 대한 인식 및 학교급식의 품질 등도 이들의 식생활만족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X/O)집단의 경우 그 빈도가 가장 낮게 분포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낮은 분포로 인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외식X / 배달X 그룹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중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4개의 집단 중에 (X/O)집단과 같이 중간 정도의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9>에 제시함.

<표 5-9> 외식X / 배달X 집단 청소년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남/녀)	-.046	.097	-.471	.638
식사의 규칙성(예/아니오)	.120	.110	1.092	.276
체중조절경험(예/아니오)	-.072	.110	-.651	.516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012	.082	-.141	.888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37	.051	-.732	.465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129	.085	1.513	.132
간식먹는 정도	.007	.051	.138	.891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	.198	.056	3.535	.001***

* p<.10, ** p<.05, *** p<.01

- 외식이나 배달 테이크아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유일하게 학교급식의 품질에 대한 인식에 의해 식생활만족도가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외식이나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 집단은 가정에서의 식사와 학교급식만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다른 변수들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지만, 학교급식의 품질이 이들의 식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5.3. 성인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의 소비행태에 따른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

- 성인집단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이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외식여부와 배달여부에 따라 성인집단을 4집단으로 구분하여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함.

□ 성인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 사용된 범주형 독립변수 즉 외식여부, 배달여부, 성별, 식사의 규칙성, 체중조절경험여부 등의 변수에 따라 성인들을 각각 구분하여 그 빈도와 퍼센트 및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집단의 평균값을 <표 5-8>에 제시함.
- 성인집단은 전체적으로 3.50 ± 0.66 정도의 식생활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외식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냈고, 여자이거나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식사가 불규칙적인 집단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기술적인 결과는 청소년집단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5-8> 성인의 특성에 따른 식생활만족도 평균 비교

항목	세부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외식	한다	5410	85.72%	3.51	0.65
	전혀안한다	901	14.28%	3.46	0.72
배달	한다	1552	24.59%	3.40	0.71
	안한다	4795	75.98%	3.53	0.64
성별	남	3188	50.51%	3.49	0.67
	여	3123	49.49%	3.51	0.67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4315	68.37%	3.65	0.59
	불규칙적	1996	31.63%	3.18	0.69
체중조절 경험	있음	2356	37.33%	3.46	0.70
	없음	3955	62.67%	3.52	0.64
성인전체 식생활만족도평균				3.50	0.66

□ 성인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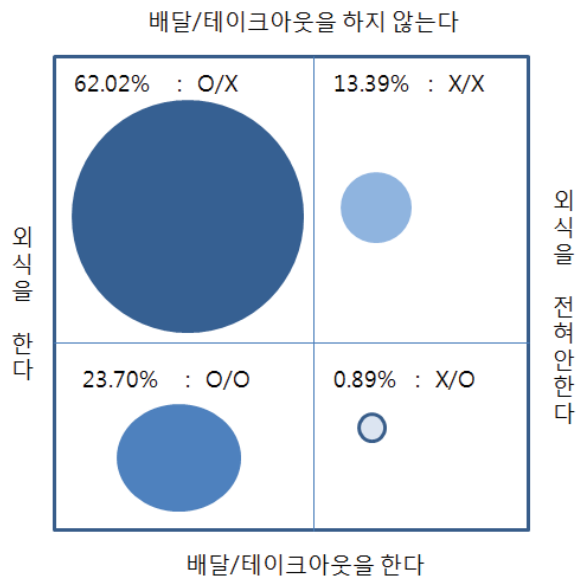
- 성인 집단을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는 집단(O/O), 외식은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은 하지 않는 집단(O/X), 외식은 안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는 집단(X/O),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지 않는 집단(X/X)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비교분석함.

- 성인 집단을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빈도와 퍼센트를 비교한 것을 <표 5-9>에 제시하였으며, 그 분포를 <그림 5-2>에 도식화하였음.
- 성인들의 경우 외식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O/X)집단이 62.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는 집단은 23.70%, 외식도 안하고 배달/테이크아웃도 안하는 집단이 세 번째로 13.39%를 차지하였고, 외식은 안하지만 배달/테이크아웃은 하는 (X/O)집단이 0.89%로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집단으로 구분된 순서나 그 비율의 정도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청소년 집단과 같은 결과를 보임

<표 5-9> 성인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빈도, %)

외식과 배달여부	배달/테이크아웃한다		배달/테이크아웃안한다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외식한다	1496	23.70%	3914	62.02%	5410	85.72%
외식안한다	56	0.89%	845	13.39%	901	14.28%
전체	1552	24.59%	4759	75.41%	6311	100.00%

<단위 % : 외식여부 / 배달여부>



<그림 5-2> 성인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에 따른 분포

-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성인들의 식생활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성별, 식사규칙성, 체중조절경험의 변수를 이용하여 성인들의 집단의 분포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표 5-10>에 제시하여 각 집단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를 비교함.
- (O/X)집단 즉 외식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식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X/X), 즉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3.48로 두 번째의 식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식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과 두 번째 집단 모두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타남.
- (O/O)집단의 경우는 외식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면서 식생활만족도는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음. 또한 외식을 하지 않고 오직 배달/테이크아웃만 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3.22로 가장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표 5-10> 성인의 외식과 배달 여부에 따른 집단별 분포 및 식생활만족도 비교

항목	세부구분	외식O / 배달O	외식O / 배달X	외식X / 배달O	외식X / 배달X
성별	남	787	1989	31	287
	여	669	1736	23	519
	합계	1456	3725	54	806
	퍼센트	(24.10%) ^a	(61.66%)	(0.89%)	(13.34%)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761	2613	28	679
	불규칙적	695	1112	26	127
체중조절경험	있음	710	1327	20	187
	없음	746	2398	34	619
식생활만족도 평균		3.40±0.70	3.55±0.629	3.22±0.896	3.48±0.703

^a : 제시된 퍼센트는 결측치로 인해 <표 5-4>와의 퍼센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성인의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에 따른 식생활만족도 영향요인

- 외식여부와 배달/테이크아웃 여부에 따라 나뉜 4집단의 식생활만족도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11>~<표 5-14>에 각각 제시함.

(1) 외식O / 배달O 그룹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두 집단 다음으로 세 번째의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낸 집단이며, 이들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분석 결과는 <표 5-11>에 나타남.
- (O/O)집단은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는 집단으로 남자의 경우 식생활만족도

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의 규칙성 즉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식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런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와 우리나라 식품의안전성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식생활만족도와 부(-)의 영향관계로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더 낮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결과도 역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고 있는 성인의 경우 **남자이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식품의 안전성인식** 등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냄.

〈표 5-11〉 외식O / 배달O 집단 성인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	.108	.034	3.169	.002***
식사의 규칙성	.484	.033	14.821	.000***
체중조절경험	-.038	.034	-1.121	.262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241	.023	10.602	.000***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39	.021	-1.884	.060*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128	.020	6.438	.000***

* p<.10, ** p<.05, *** p<.01

(2) 외식O / 배달X 그룹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중에 외식만을 하고 있고 배달/테이크아웃은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4개의 집단 중에 가장 높은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낸 집단이며 이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12〉에 나타남.
- 외식만을 하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O/X)집단은 성별, 식사의 규칙성,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및 우리나라식품의 안전성 등의 4가지 변수가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2〉 외식O / 배달X 집단 성인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	.040	.019	2.076	.038**
식사의 규칙성	.381	.020	18.808	.000***
체중조절경험	-.018	.020	-.905	.365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265	.014	18.693	.000***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07	.013	-.528	.598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109	.012	9.181	.000***

* p<.10, ** p<.05, *** p<.01

- 이들 (O/X)집단은 앞서 기술한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고 있는 (O/O)집단과 유사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으니 식재료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에서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배달을 하던 하지 않던 외식을 하고 있는 집단들에서는 성별, 식사의 규칙성,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식품의 안전성정도 등의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들 중에 배달을 하는 집단의 경우는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어,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통해 음식을 먹는 경우 식재료의 친환경여부에 좀 더 걱정스러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됨.

(3) 외식X / 배달O 그룹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중에 외식은 하지 않고 배달/테이크아웃만 하고 있다는 집단은 4개의 집단 중에 가장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나타내며, 이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13〉에 제시함.

〈표 5-13〉 외식X / 배달O 집단 성인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	-.127	.218	-.584	.562
식사의 규칙성	1.187	.195	6.089	.000***
체중조절경험	-.529	.227	-2.330	.024**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347	.169	-2.058	.045**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438	.187	2.347	.023**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295	.170	-1.736	.089*

* p<.10, ** p<.05, *** p<.01

- 외식을 하지 않는 (X/O)집단의 성인들의 식생활만족도에는 성별 변수만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체중조절경험 여부에 따라서 즉,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집단은 체중조절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식생활만족도가 0.529정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식사의 규칙성여부도 식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 식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정도와 우리나라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는 식생활만족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다른 집단과는 다소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난 결과임.
- 결과적으로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을 하고 있는 성인집단의 경우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 즉, 식사의 규칙성, 체중조절경험, 국산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식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4) 외식X / 배달X 그룹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중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4개의 집단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식생활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14>에 제시함.

<표 5-14> 외식X / 배달X 집단 성인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독립변수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	-.047	.047	-.991	.322
식사의 규칙성	.368	.062	5.982	.000***
체중조절경험	-.070	.054	-1.297	.195
식재료 국산농산물관심도	.394	.033	11.999	.000***
식재료 친환경식품관심도	-.027	.033	-.828	.408
우리나라식품안전성 인식	.042	.029	1.432	.153

* p<.10, ** p<.05, *** p<.01

- 외식이나 배달 테이크아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인집단의 경우는 식사의 규칙성,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만이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외식이나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성인 집단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집단과 함께 체중조절경험여부나 친환경식재료 등에 따라서는 식생활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가정에서의 식사를 주로 하고 있는 집단으로, 식사의 규칙성과 국내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식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고 있는 성인의 경우 **남자이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식품의 안전성인식** 등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는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냄.

6.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 외식소비자 성인과 청소년의 외식소비행태와 배달/테이크아웃 서비스의 이용행태 및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식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인과 청소년 집단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비교적 높은 식생활만족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산농산품이나 친환경식재료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그 관심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각 집단에서 10%이상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었음.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 및 식재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소비행태에서 성인의 경우 외식을 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80% 이상의 성인들이 외식을 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외식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도 70%이상이 외식을 한다고 하였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외식하는 비중이 높았음. 성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도 남자가 여자보다 배달/테이크아웃을 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여부에 따라 성인과 청소년의 소비자집단을 각각 4집단으로 구분하여 외식소비행태 및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청소년의 경우, 외식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식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외식을 하지 않는 두 집단이 3.54로 두 번째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하는 집단이 식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성인의 경우, 외식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집단이 식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3.48로 두 번째의 식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세 번째로는 외식도 하고 배달/테이크아웃을 하는 집단이었고, 외식을 하지 않고 오직 배달/테이크아웃만 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3.22로 가장 낮은 식생활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여부에 따라 나뉜 성인과 청소년의 소비자집단의 특징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외식/배달	청소년집단	성인집단
O/O	외식함 배달함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 학교급식의 품질에 따라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식사 규칙성, 식품의 안전성 인식에 따라 식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냄.
O/X	외식함 배달안함	식사의 규칙성, 친환경식품 관심도, 식품의 안전성, 학교급식의 품질 등이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국산농산물의 관심도는 식생활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식사 규칙성,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식품의 안전성 정도 등이 식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음.
X/O	외식안함 배달함	아무런 요인들이 식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 즉, 식사 규칙성, 체중조절경험, 국산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X/X	외식안함 배달안함	가정에서의 식사와 학교급식만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다른 변수보다는 학교급식의 품질에 의해 식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집단임.	성별, 규칙적인 식사, 식품의 안전성 등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는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냄.

-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학문적인 시사점과 산업 및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제까지 학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많은 편의표본 추출 방식의 설문지 방법을 이용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와 달리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표본추출방식과 표본가중치를 이용했다는 것임.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지는 일반화의 한계를 다소 극복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더욱 많이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외식소비행태와 특별히 배달 및 테이크아웃에 대한 소비자들이 소비행태를 고려하여 식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지만,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자료의 수집으로 앞으로는 더욱 다각

적인 측면에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외식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예측하고 추정하는데 더욱 실질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사료됨.

-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외식여부, 배달 및 테이크아웃여부를 비롯하여 일부 식재료와 관련된 국산농산품에 대한 관심도,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등 주로 식재료와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여 외식과 배달 등에 의해 가정이외에서 조리된 식사를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식생활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음.
- 성인과 청소년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일부집단에서는 식생활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반면, 일부에서는 식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곳에서 외식을 주로하거나 어떤 음식을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을 하는지에 따라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 즉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나 친환경식재료 사용에 대한 홍보 등을 더욱 많이 제공한다면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됨.
- 특별히 청소년들 중에 외식이나 배달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에서만 식사를 먹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학교급식의 품질에 의해 식생활만족도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식이나 배달/테이크아웃 등의 소비행태와 상관없이 청소년 소비자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더욱 품질 면에서 우수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함.
- 향후 지속적인 조사도구의 향상과 조사방법의 보완으로 더욱 완성도 있는 자료의 확보를 기대하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결과들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업 및 정책적인 제안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며, 소비자의 행태를 연구하기 위한 좀 더 보완적인 설문 항목에 대해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소비자들의 소비와 지출에 대한 자료를 위해 특별히 외식소비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가정에서의 식사보다 가정외에서의 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함.

[참 고 문 헌]

- 김기영·정유경·김태희·원혜영(2011). 외식산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물식품부 용역과제
- 김근중·전명숙(201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직장여성의 외식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7(4), 13~24.
- 김유리·서선희·권오란·조미숙(2012). 도시와 농촌노인의 식행동, 식품섭취 및 식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5(3), 252~263.
- 이은정·배영금(2012). 연령에 따른 새터민의 식생활만족도의 차이에 관한연구-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7(6), 636~645.
- 이종호·정현영(2006). 대학생들의 외식 소비 행태 및 쿠폰과 제휴 카드에 대한 태도 조사. 한국조리학회지, 12(3), 186~200.
- 이창현·오석태(2011).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외식 소비 행태 변화 -2001,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24(3), 301~314.
- 한국외식정보(2013). 2013 한국외식연감.

제3세션

식품 정책





국내 소비자의 식품 정책 인식

진 현 정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의 식품정책 인식

2014. 12. 05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진현정

목차

- 1 식품관련 소비자 정책
- 2 식품 안전성
- 3 식품 표시 사항
- 4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 5 종합 및 시사점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식품 정책에 대한 수요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별 중요도

- 성인/청소년 모두 '식품안전 보장'을 각 63.3%, 60.7%로 가장 중시
- 성인은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시
- 30-40대가 10-20대에 비해 '식품안전보장' 중시,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 및 홍보' 중시

[식품관련 소비자 정책 별 중요도 인식]

(단위: %)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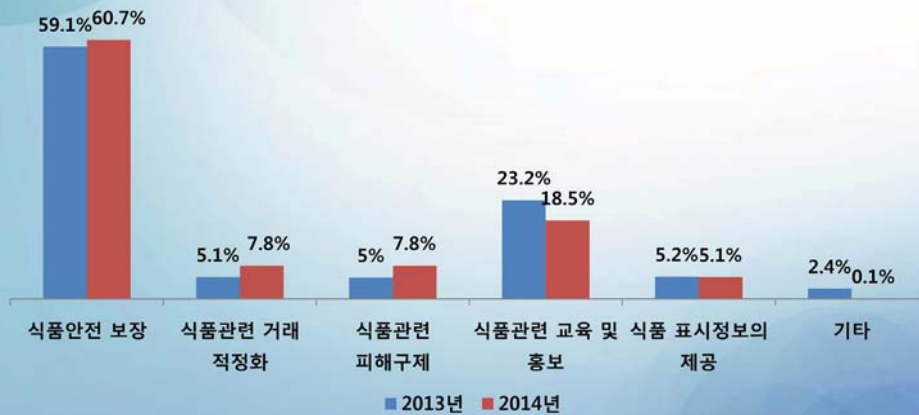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전년 대비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별 중요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식품안전 보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6% 증가하고,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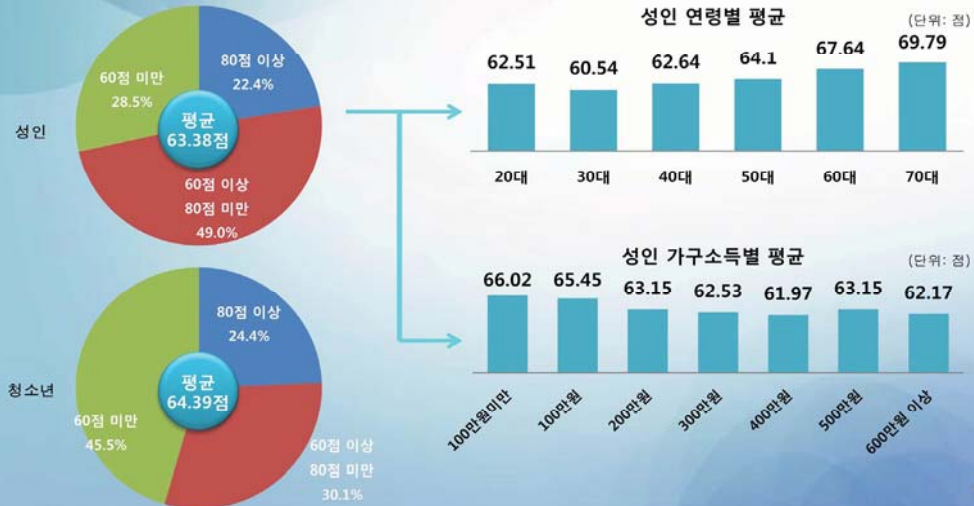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만족도

- 성인/청소년 각각 63.38점, 64.39점으로 청소년이 다소 만족도 높음
- 성인 중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낮은 그룹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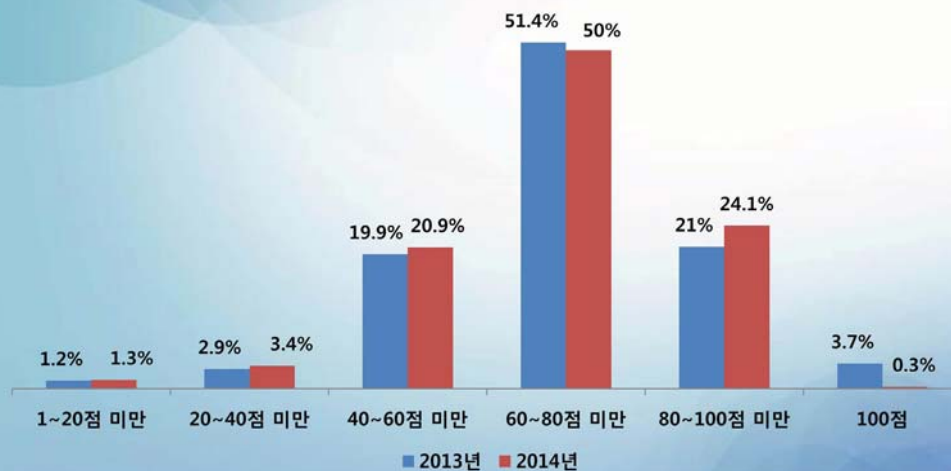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전년 대비 성인의 정부 추진 식품관련 소비자 정책 만족도

2014년 정부가 추진한 식품관련 소비자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 1~20점과 20~40점은 각각 0.1%, 0.5% 증가하고, 80~100점의 비중이 21%에서 24.1%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다고 판단.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식품정책에 대한 수요

정부차원에서 중점 두어야 할 식품관련 소비자 정책

- '부당 사업자 처벌 및 단속'(성인 61.7%, 청소년 53.7%)을 가장 많이 꼽음
- 다음으로 성인/청소년 모두 '교육 및 홍보'(각각 15.9%, 21.8%),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각각 9.4%, 8.5%)을 꼽음
-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 연령대 높을수록,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응답자의 '부당사업자 처벌단속' 요구 비중 높음

[정부차원 식품관련 중점 추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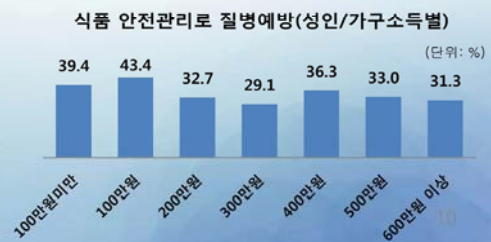
1.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식품정책에 대한 수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식품 정책

- '식품 안전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비중이成人과 청소년 각 30.7%, 33.5%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식품사고 신속대처,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공급체계 구축 등을 꼽음
- 10대와 70대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함

[국민건강 추구를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



2. 식품 안전성

-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평가
- 식품 별 안전성 평가
- 식사장소 별 식품의 안전성
- 위해 요인 별 식품의 안전성
- 식품 안전관리 주체의 중요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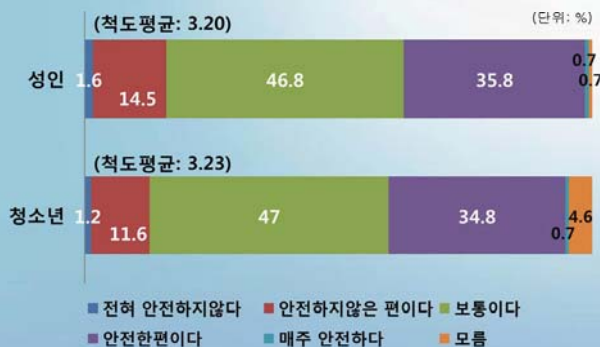
2. 식품 안전성

●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평가

우리나라 식품 안전성 인식

- 우리나라 식품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은 10명 3~4명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성인 16.0%, 청소년 11.8%)보다 높지만 평가 유보 50% 내외
- 성인 중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 수록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
- 단, 소득은 100만원 또는 100만원 미만에서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고, 300만원 대에서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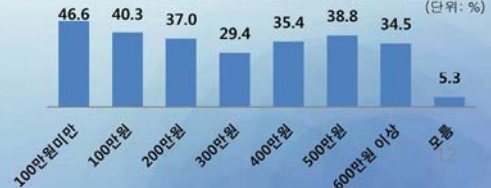
[우리나라 식품안전성 인식]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성인/연령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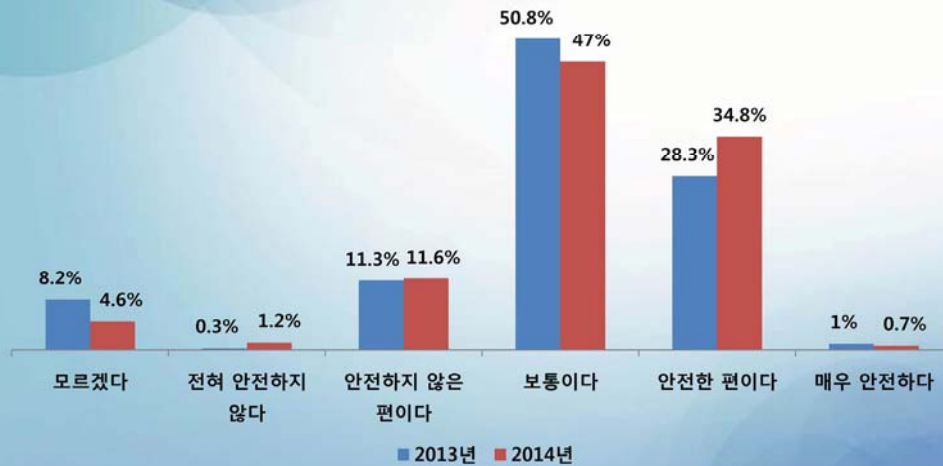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성인/가구소득별) (단위: %)



2. 식품 안전성

전년 대비 성인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식품 안전성에 대해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4.5% 증가, 안전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0.3%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도가 감소함. 실제로 100점 만점에서 식품 안전도의 체감 정도는 2013년 66.51점에서 2014년 65.20점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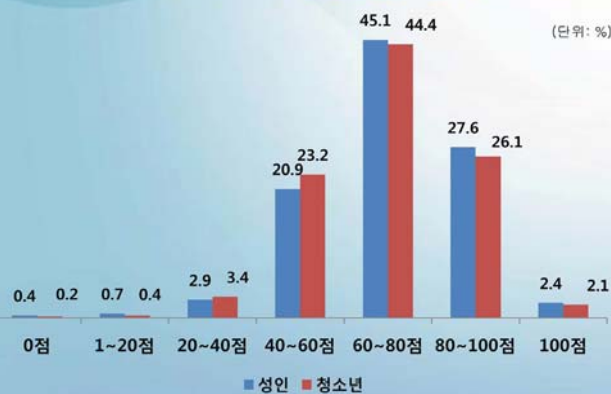


2. 식품 안전성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평가

- 100점 기준 성인은 평균 65.91점, 청소년은 65.20점, 절반 가까이는 60-80점에 분포, 80-100점도 25% 내외
- 성인 중 연령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인식 증가
- 연령별로는 30대의 식품 안전성 체감도(63.6점)가 20대(65.3점), 30대(65.0점)의 안전성 체감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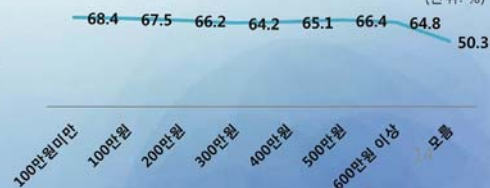
[우리나라 식품안전성 평가]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성인/연령별) (단위: %)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성인/가구소득별) (단위: %)



2. 식품 안전성

식품 안전성 평가와 외식횟수와의 관계

- 종속변수: 식품안전성평가
- 독립변수: 연령, 외식횟수(일반식당, 단체급식, 배달및포장), 월평균소득

	복합표본선형모형			
	베타	표준오차	Wald 카이제곱	유의확률
(절편)	60.503	1.0217	3507.011	.000
연령	.134	.0160	69.534	.000
외식-일반식당	-.136	.0665	4.200	.040
외식-단체급식	-.078	.0620	1.584	.208
배달및포장	-.866	.2594	11.154	.001
월평균소득	-.037	.0497	.562	.454
관측치			6311	
AIC			52913.868	

-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올라감
- 외식에 있어서는 일반식당과 배달및포장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식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단체급식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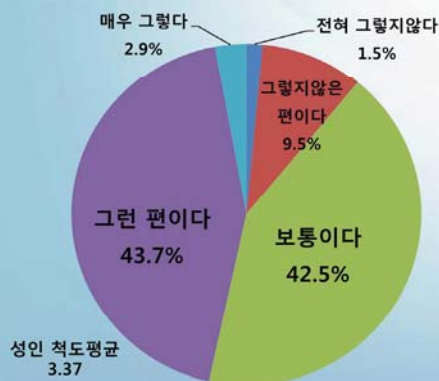
15

2. 식품 안전성

안전한 식품에 추가비용 지불 의향

- 성인의 46.6%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지불 의향을 5점 평가척도로 평균할 경우 3.37로 계속, 대체로 지불의향이 있는 편이라고 해석
- 단, 11.0%는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 43.7%는 의사표명을 유보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 있다는 경향이 뚜렷함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성인/가구소득별)



16

2. 식품 안전성

추가비용 지불 의향과 안전성에 대한 판단과의 관계

- 종속변수: 지불의향 (전혀그렇지않다~매우그렇다 5점 척도)
- 독립변수: 성별 (남성1, 여성2), 연령, 안전성평가, 월평균소득

		순서로짓회귀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유의확률
한계치	[Q271 = 1]	-4.475	.171	687.771	.000
	[Q271 = 2]	-2.285	.140	268.148	.000
	[Q271 = 3]	-.114	.136	.702	.402
	[Q271 = 4]	3.232	.151	456.459	.000
설명변수	연령	-.012	.002	45.614	.000
	안전성에대한판단	.088	.031	7.997	.005
	월평균소득	.017	.006	8.568	.003
	성별	-.107	.048	4.939	.026

-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식품 안전도에 대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여정보다는 남성 지불의향이 높아짐.
-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지불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옴. 즉,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추가비용의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님.

17

2. 식품 안전성

● 식품 별 안전성 평가

국내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인식

- 성인, 청소년 동일하게 곡류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가공식품이 낮게 평가
- 곡류와 과일류에 대한 평가가 성인, 청소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음(각 성인 3.82점, 3.81점, 청소년은 모두 3.83점)
- 안전성 인식 높은 순: 곡류>과일류>채소류>육류>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
-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각 성인 3.39점, 청소년 3.40점)

[국내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척도평균]

구분	성인(5점 척도)	청소년(5점 척도)
곡류	3.82	3.83
채소류	3.78	3.81
과일류	3.81	3.83
육류	3.69	3.70
수산물	3.54	3.58
가공식품	3.39	3.40
임산물	3.74	3.74

18

2. 식품 안전성

수입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인식

- 국내산보다 수입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균이 전체적으로 1점 정도 낮게 평가
- 높은 순서: 육류(뉴질랜드)>과일>임산물>곡류>채소류>육류(유럽산) (성인 기준)
- 낮은 순서: 수산물(일본산)<수산물(중국산)<수산물(유럽산)<육류(남미산)<육류(미국산) (성인기준)
- 육류보다는 수산물, 그 중에서도 일본산과 중국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
 -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음

[수입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척도평균]

구분	성인(5점 척도)	청소년(5점 척도)
곡류	2.65	2.73
채소류	2.55	2.65
과일류	2.74	2.84
육류(미국산)	2.43	2.52
육류(뉴질랜드산)	2.78	2.80
육류(유럽산)	2.53	2.59
육류(남미산)	2.38	2.46
수산물(일본산)	1.72	1.88
수산물(중국산)	1.86	1.97
수산물(유럽산)	2.36	2.42
가공식품	2.46	2.45
임산물	2.67	2.72

19

2. 식품 안전성

전년 대비 성인의 품목별 안전성 인식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안전성 평가가 상승하였으며, 가공식품을 제외한 전 품목이 3.5점을 넘어 안전한 편으로 조사됨. 특히, 국내산 가공식품과 임산물에 대한 평가는 전년보다 각각 0.14점, 0.23점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함.

구분	2013년	2014년
곡류	3.83	3.83
채소류	3.82	3.81
과일류	3.83	3.83
육류	3.57	3.70
수산물	3.51	3.58
가공식품	3.26	3.40
임산물	3.51	3.74

수입산 식품 중 미국산 육류, 호주/뉴질랜드산 육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본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감소.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2013년 2.26점에서 2014년 1.88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구분	2013년	2014년
곡류	2.73	2.73
채소류	2.72	2.65
과일류	2.89	2.84
육류(미국산)	2.51	2.52
육류(호주/뉴질랜드산)	2.78	2.80
육류(유럽산)	2.64	2.59
육류(남미산)	2.55	2.46
수산물(일본산)	2.26	1.88
수산물(중국산)	2.11	1.97
수산물(유럽산)	2.61	2.42
가공식품	2.56	2.45
임산물	2.73	2.72

20

2. 식품 안전성

● 식사장소 별 식품의 안전성

식사 장소별 식품 안전성 평가 순위

- 가정>직장·학교>음식점>즉석요리 코너>배달과 테이크아웃 순
- 앞의 분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판단됨.
-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은 성인과 청소년 대부분이 '안전하다(87.1%, 87.4%)'고 인식
-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급식'에서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배달과 테이크아웃 음식'의 안전도 인식이 가장 낮은 가운데, 청소년보다 성인이 더 불신

[식사 장소별 식품의 안전성 (각 항목별 안전+매우 안전)]



2. 식품 안전성

● 위해 요인 별 식품의 안전성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 수준 인식 · '중금속/환경 호르몬'(1.85점)이 가장 위험

- 성인: 중금속·환경호르몬>방사선 조사식품>식중독균>과일/채소 잔류농약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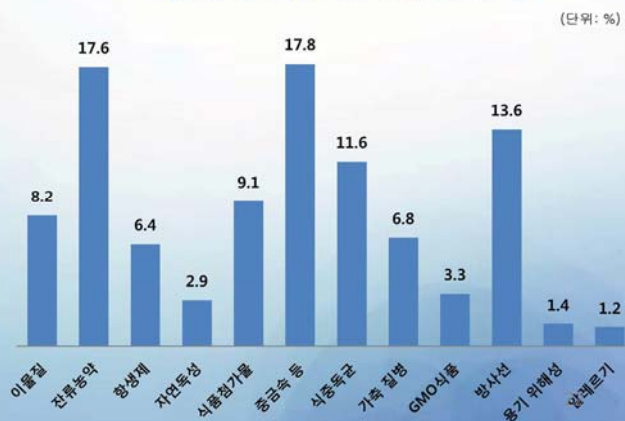
우려되는 위해물질 인식 · '중금속/환경 호르몬'(17.8%), '잔류농약'(17.6%)이 높음

- 중금속/환경 호르몬>채소과일 잔류농약>방사선 조사식품 순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성 인식]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성인, 5점)	
이물질(머리카락, 벌레 등)	2.23
채소, 과일의 잔류농약분해	1.99
축산, 활어의 항생제 문제	2.02
자연독성(버섯, 복어 등)	2.31
식품첨가물	2.04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1.85
식중독균	1.99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2.03
GMO식품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식품)	2.10
방사선 조사식품	1.92
식품용기 및 포장의 위해성	2.18
알레르기 유발물질	2.20

[가장 우려되는 식품 위해 물질 인식]



2. 식품 안전성

● 식품 안전관리 주체의 중요도

식품 안전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

- 식품 안전관리 주체로 '생산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중요도 인식(성인): 생산자>유통 및 판매업체>중앙정부>소비자>학교>지방자치단체
- 중요도 인식(청소년): 생산자>중앙정부>유통 및 판매업체>학교>소비자 자신
- 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유통 및 판매업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

[국내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척도평균]

(단위: 5점 만점)



3. 식품 표시사항

- 식품표시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인식
-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

3. 식품 표시사항

● 식품표시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인식

식품 구입 시 포장지 표시 확인

- 식품 포장지 표시를 확인한다는 응답: 성인(47.4%), 청소년(23.7%)
-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식품표시 확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 중 30-40대,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 포장지 표시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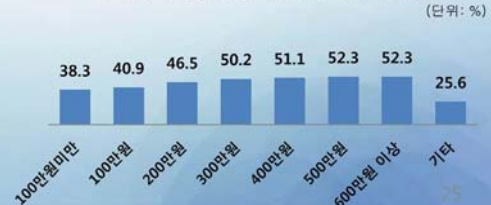
[식품 구입시 포장지 표시 내용 확인 여부]



식품 표시사항 관심도(성인/연령별)



식품 표시사항 관심도(성인/가구소득별)



3. 식품 표시사항

청과물과 육류 구입시 고려사항

- 청과물과 육류 구입시 '가격' 및 '원산지표시'를 가장 많이 살핌
- 청과물 구매 시: 가격>원산지표시>생산연도>생산지역>중량>당도>품종>브랜드 순
- 육류 구매 시: 가격>원산지표시>생산연도>중량>등급>생산지역>브랜드>품종 순
- HACCP, 지자체 등 기타 인증, GAP, GMO 식품, 생산자 이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

[성인 가구원이 청과물, 육류 구매 시 고려하는 것(복수응답 허용)]

청과물		육류	
가격	84.5	가격	79.3
원산지표시	66.4	원산지표시	73.0
생산연도(일자)(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49.0	생산연도(일자)(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44.8
생산지역(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표시)	39.6	중량	42.6
중량	33.2	등급	41.0
당도표시	16.2	생산지역(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표시)	27.3
품종	13.9	브랜드(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 표시)	13.7
브랜드(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 표시)	13.1	품종	10.6
GAP 표시	6.3	HACCP 표시	7.4
등급	6.3	생산자이름	4.5
생산자이름	6.1	GAP 표시	4.3
HACCP 표시	6.0	이력번호	3.5
GMO식품 표시	6.0	GMO식품 표시	3.4
지자체 등 기타인증 표시	4.0	지자체 등 기타인증 표시	2.8
이력번호	1.1	당도표시	0.8

3. 식품 표시사항

가공식품 구입시 고려사항

- 가공식품 구매할 때 유통기한, 가격 우선 고려
- 성인, 청소년 모두 유통기한>가격>원산지표시>내용량>브랜드>보관방법>첨가물>등급 순
- 반면, 원재료명(19.3%), 제조회사명(17.4%), 영양 표시(13.9%), KS표시(13.3%), HACCP(10.4%) 등은 상대적으로 고려도 낮음

[성인 가구원이 가공식품 구입시 고려하는 것(복수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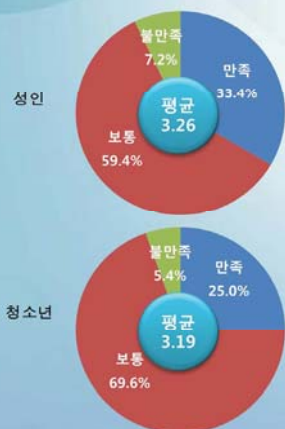
3. 식품 표시사항

●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

식품표시 현황 만족도

- 식품표시 현황에 대한 만족도: 성인(3.26점) 청소년(3.19점), 성인이 높음
- 보통이라고 평가를 유보한 집단의 응답 비중(성인 59.4%, 청소년 69.6%)이 가장 높음
- 여성(3.29점)이 남성(3.23)보다, 학력 중졸이하(3.34),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음

[전반적인 식품의 표시 현황에 대한 만족도]



성인 성별/학력별 평균 (단위: 점)



성인 연령별 평균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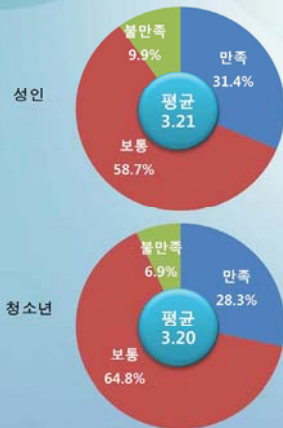


3. 식품 표시사항

식품표시 신뢰도

- 식품 표시 현황에 대한 신뢰도: 성인(3.21점), 청소년(3.20점) 보통 수준
- 보통이라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한 비중(58.7%, 64.8%)이 가장 높음
- 여성(3.25)이 남성(3.17)에 비해 신뢰도가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음
- 20대와 60-70대의 성인들이 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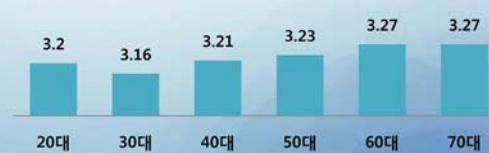
[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도]



성인 성별/학력별 평균 (단위: 점)



성인 연령별 평균 (단위: 점)



3. 식품 표시사항

식품표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 '표시절차나 검사과정 신뢰 못함'(성인 55.3%, 청소년 53.0%) 응답 비중 가장 높았음
- 성인은 그 다음으로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상품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20대(64.9%)와 월평균 가구소득 300-400만원 대(각각 68.9%, 60.9%)가 표시절차나 검사 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은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 어려움'(37.9%)을 성인에 비해 비교적 많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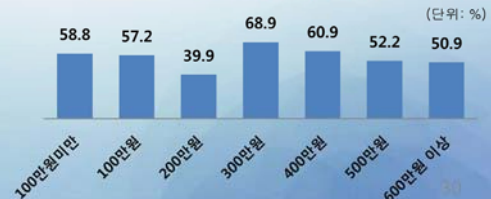
[식품 표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표시절차나 검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연령별)



표시절차나 검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가구소득별)



3. 식품 표시사항

전년 비해 식품표시 확인 정도

- 성인은 24.5%가 전년에 비해 식품표시 확인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응답
- 청소년은 17.0%만이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안 한다고 응답한 17.8%와 비슷한 수준
- 성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전년에 비해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중이 커짐
- 여자(3.18점)가 남자(3.06점)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3.28점) 경우 식품표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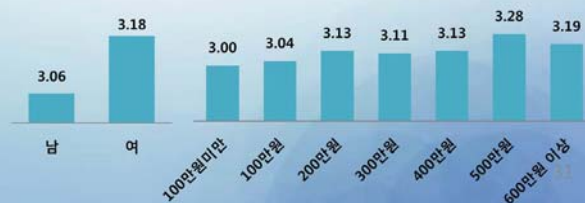
[전년 대비 식료품 표시 내용을 더 보게 되는 정도]



성인 학력별/연령별 평균 (단위: 점)



성인 성별/가구소득별 평균 (단위: 점)



3. 식품 표시사항

전년 대비 성인의 식품 표시 활용도

2013년 전혀 안 본다는 비중이 1.4%에서 2014년 3.9%로 증가하였으며 거의 안 보는 편인 경우가 전년 대비 2013년 10.6%에서 2014년 13.1%로 증가, 보는 편인 경우가 2013년 19.7%에서 2014년 17.2%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성인의 식품표시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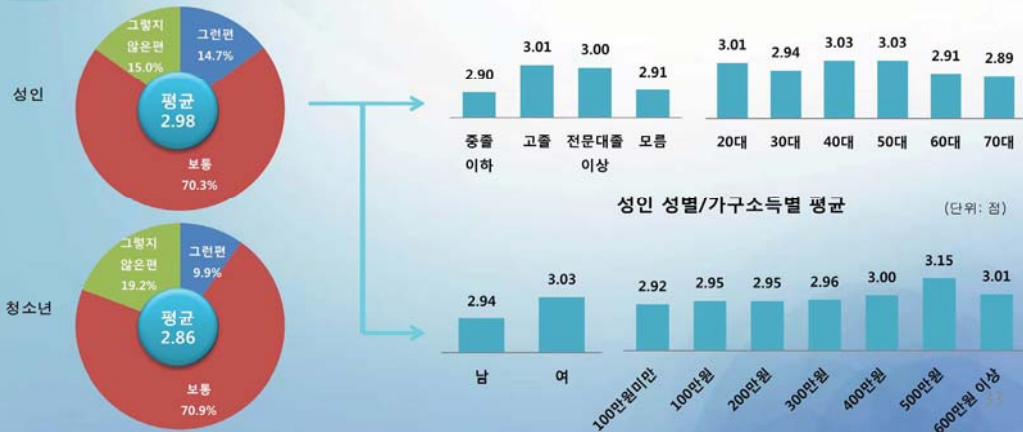


3. 식품 표시사항

전년과 비교한 식품표시 내용 신뢰도

- 성인과 청소년 대부분(각각 70.3%, 70.8%) 식품표시 내용 신뢰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성인(2.98점)과 청소년(2.86점) 모두 식품표시 내용에 대해 신뢰가 적은 편으로 판단
-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식품표시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여자(3.0점)가 남자(2.94점)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청소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식품표시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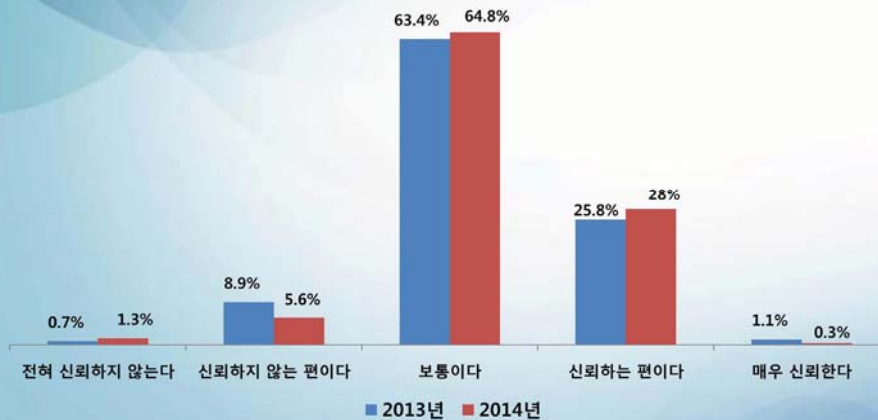
[전년과 비교한 식품표시 내용 신뢰도]



3. 식품 표시사항

전년 대비 성인의 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 편인 경우가 2013년 8.9%에서 2014년 5.6%로 감소, 신뢰하는 편인 경우가 2013년 25.8%에서 2014년 28%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성인의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3. 식품 표시사항

식품표시제도 인지도

- 원산지표시제도(88.7%)와 유기농인증제도(78.5%)가 인지도 가장 높음
- 반면, 전통식품인증제, 유해요소중점관리(HACC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GAP), 유전자 변형 농산물표시(GMO)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식품표시 제도에 대한 인지도(성인)]

(단위: %)

식품표시제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모른다
전통식품인증제	10.0	33.5	56.5
가공식품 KS표시	32.2	37.5	30.4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HACCP)	16.1	34.4	49.5
원산지표시	58.6	30.1	11.2
유기농인증	37.8	40.7	21.5
지리적표시	21.6	38.7	39.7
생산이력제도	21.8	42.0	36.2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	14.0	38.4	47.6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GMO)	14.6	38.9	46.5

35

3. 식품 표시사항

인증 마크별 구매 비중

- 원산지표시>가공식품 KS표시>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 순으로 구매 비중 높음
- 반면,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GMO, 41.0%), 전통식품인증제(48.3%),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 53.0%)은 구매 비중 상대적으로 낮음

[식품표시 인증 마크별 구매 빈도(성인)]

(단위: %)

인증마크	구입한적 없음	전에 구입 현재 구입안함	가끔 구입	자주 구입	모름
전통식품인증제	33.8	16.4	<u>43.0</u>	<u>6.3</u>	0.4
가공식품 KS표시	16.6	12.9	49.3	21.1	0.1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HACCP)	24.6	12.4	48.7	14.0	0.3
원산지표시	12.1	7.4	44.7	35.7	0.1
유기농인증	25.6	18.5	43.3	12.3	0.3
지리적표시	26.4	15.5	47.9	10.0	0.1
생산이력제도	29.1	15.7	45.6	9.4	0.2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	29.3	16.8	<u>44.5</u>	<u>9.1</u>	0.3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GMO)	37.5	19.0	<u>38.8</u>	<u>4.5</u>	0.3

36

4.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 식품관련 정보 입수 행태
- 식품관련 홍보와 정책 수요

37

4.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 식품관련 정보 입수 행태

식생활 관련 정보 입수 경로

- 성인은 식생활 관련 정보를 주로 방송(42.6%)에서 가장 많이 얻고, 다음으로는 주위사람(23.4%)을 통해 얻는다고 응답
- 청소년은 방송(31.0%)과 주위 사람(30.6%)을 통해 관련 정보를 비슷하게 얻는다는 수치가 나옴
- 다음으로 성인/ 청소년 동일하게 판매자(15.1%, 11.3%), 포장지 문구(9.3%, 8.8%) 등이 있었으며, 청소년은 학교(10.2%)를 통해 식품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성인과 차이를 보임

[식생활 관련 정보 입수 경로]

(단위: %)



38

4.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 식품관련 홍보와 정책 수요

- 식품관련 소비자 교육 및 홍보행사의 참여 저조(참여율 2% 미만)
- 성인 중 소비자 교육 1.8%, 소비자단체 행사 1.0%, 정부주최 홍보행사 0.9%가 경험
- 연령별로는 40~50대, 소득이 높은 경우 교육이나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음

[소비자 대상 식품관련 행사 참석 유무]

(단위: %)

식품관련 소비자교육		정부주최 식품관련 홍보행사		소비자단체의 식품관련 행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8	98.2	0.9	99.1	1.0	99.0

성인 연령별 식품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율

(단위: %)



성인 가구소득별 식품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율

(단위: %)



■ 식품관련 소비자교육 ■ 정부주최 식품관련 행사 ■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행사

4.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 식품관련 홍보와 정책 수요

-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행사 참여 경험자 대부분(62.1%) 식생활에 도움된다 평가
- 그 다음으로는 보통(22.9%), 도움이 되지 않는다(14.9%)고 평가
-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관련 교육 및 행사가 도움된다는 인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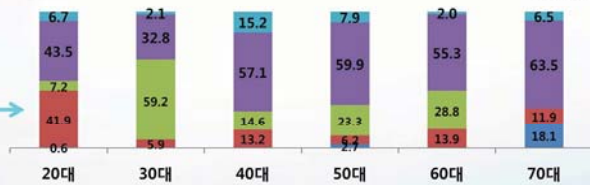
[식품관련 행사 참여경험이 식생활에 도움 준 정도]

(단위: %)



성인 연령별 식품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만족도

(단위: %)



성인 가구소득별 식품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만족도

(단위: %)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은편이다 ■ 보통이다 ■ 약간그렇다 ■ 매우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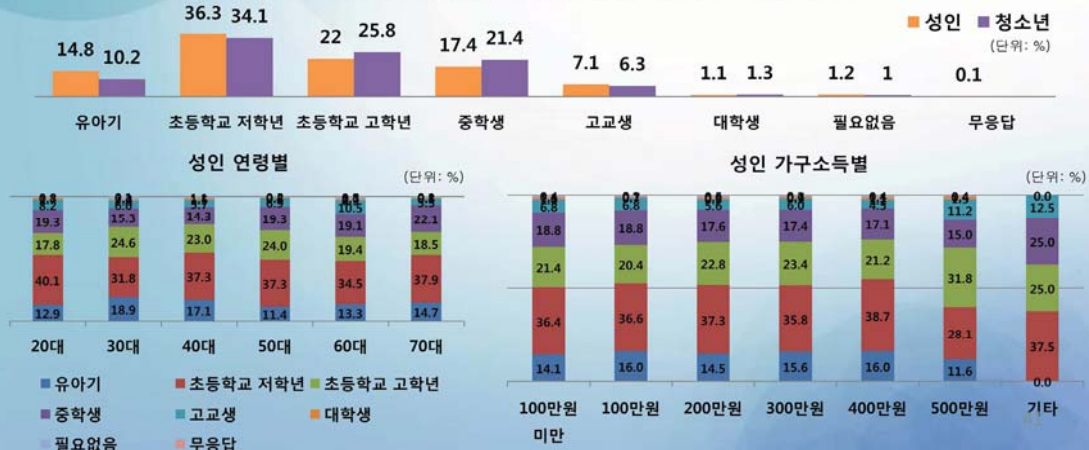
4.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 식품관련 홍보와 정책 수요

음식에 관한 기초지식 교육 시기

- 성인 기준, 초등학교 저학년(36.3%), 초등학교 고학년(22.0%), 중학생(17.4%), 유아기(14.8%) 순
- 연령별, 소득별 수치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 > 고학년 > 중학생 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임

[음식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바랐직한 시기]



5. 종합 및 시사점

분야	요지 및 시사점
식품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 보장,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 가장 중시 - 정책만족도 성인/청소년 각각 63.4점, 64.4점 - 정부차원 중점추진 식품정책: 부당사업자 처벌, 교육 및 홍보 ⇒ 식품안전 보장 및 교육·홍보 정책이 강화될 필요, 부당사업자 처벌 강화
식품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안전체감도가 작은 폭으로 감소 -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 평가: 모든 품목에 대해 안전성 평가가 상승. -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평가: 채소류, 과일류, 미국산 육류, 호주/뉴질랜드산 육류, 유럽산 육류, 유럽산 수산물, 가공식품,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전년 대비 증가 / 곡류, 일본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감소. ⇒ 국산 가공식품 안전성 신뢰도 제고,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 정책 필요
식품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포장지 확인은 성인 3.13, 청소년 2.48, 식품표시 만족도 성인은 3.26, 청소년 3.19 (5점 만점) - 식품표시 인지: 원산지>유기농>KS표시 / 반면, 전통식품인증제, GAP, GMO 표시 낮음 - 식품표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표시절차나 검사와정 신뢰 못함이 가장 높은 비중 ⇒ 식품표시 확인 청소년 인식 제고, 전통식품 표시제 홍보 강화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관련 정보입수: 성인은 방송>주위사람>판매자포장지>인터넷, 청소년은 방송과 주위사람이 비슷한 수준이며, 다음으로 판매자 및 학교로 나타남 - 음식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습득 바랐직한 시기: 초등학교저학년 >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순 ⇒ 식품 정보제공 성인과 청소년 채널 차별화, 초등학교 대상 음식 기초교육 강화

• 감사합니다.

43



안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와 식품정책 요구의 차이 분석

유 현 정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안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와 식품정책 요구의 차이분석

유현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총 34개 품목의 위해사고 중에 식료품 및 기호품은 전체 위해 비율 중 최고 23.2%~11.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34개 품목 중에서 위해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식품안전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는 큰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온다. 단적으로 광우병 사태는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멜라민 분유 파동은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거부하여 통상마찰까지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식품안전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위험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행동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송유진·유현정, 2008), 일부 소비자의 불안감이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면 소비자들은 위험을 통제하려하기보다는 외면하려 하는 등(윤은주·서선희, 2012) 다양한 안전성향을 보이게 된다.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 및 식품소비를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표시 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유형을 이해하고 각각의 소비자집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그에 걸맞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을 주요 변수로 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 유형별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안전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화의 개념적 토대

공중의 관계(public relation)는 특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Gruning and Repper, 1992). 따라서 국가나 단체 등 어떠한 조직은 각각의 유형화된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소통방식과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Berkowis & Turnnire, 1994; Garnett, 1992; Gruning & Repper, 1992). 이러한 집단의 유형화 즉 공중의 구분은 어떤 조직이 전략적으로 어떠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 문제와 공중과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Hong. H, H. Park., Y. Lee., and Park. J, 2012). 따라서 일반 대중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집단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위험인식과 정보추구사이의 관계를 밝힌 RPA framework(Witte, 1992, 1994)에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효능감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Witte는 지각된 위험을 수준이 좋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자기효능감 또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민감반응태도집단과 회피태도집단/불안집단, 대비태도집단, 무관심 태도 집단으로 총 4가지로 소비자를 유형화 하였다.

〈표 1〉 RPA framework의 소비자유형화

구분		efficacy beliefs	
		high	low
Perceived risk	high	responsive attitude group (민감반응 태도 집단)	avoidance attitude group (회피태도 집단) / 불안집단(anxious group)
	low	proactive attitude group (대비 태도 집단)	indifferent attitude group (무관심 태도 집단)

※ 출처: Rima&Real(2003)의 논문 정리

본 연구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Witte(1992)의 RPA framework에서 적용한 소비자 유형화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2. 식품소비자의 위험지각 및 안전추구행동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식품안전사고와 국제화 또는 대규모화 되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Sandman(1987)은 위험을 위해(hazard)에 심리요인(outrage)이 더해진 개념으로 으로 보았다. 즉 위험은 객관적인 객체인 위해에 소비자의 주관적 심리요인이 더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andman의 위험의 개념을 소비자의 위험인식에 적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식품의 위해요인에 소비자의 심리적 평가가 더해진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식품위험인식이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개인 소비자들이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다(유현정 · 주소현, 2013)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위험을 주관적으로 지각할 때 소비자는 그 위험을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의 지각은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통하여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유진 · 유현정, 2008). 여기서 안전행동이란 소비자들이 위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며(이지은 · 이기춘, 1992) 소비자가 안전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이므로 위해사고나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다(김성숙 · 이기춘, 1998).

3. 식품안전정책 및 소비자요구

2013년 대통령인수위원회 2차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에서 산재해있던 식품안전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식약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의약품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식약처로 일원화되었다(중앙일보 경제, 2013년 1월 23일자; News1, 2013년 1월 22일자 등).

식약처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책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감시, 생산자 교육 및 홍보,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정책들이 단기적 또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및 홍보는 그 효과 제한적이며 실효성을 얻기 힘들어 최근 식약처에서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집합식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표 2〉 식약처내 소비자정책

분야	과제	대상	담당부서
감시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수거 및 검사	생산/판매자	의료기기관리과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불량식품 기획 감시	생산/판매자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단 운영	생산/판매자	소비자위해예방 정책과
	축산물 위생감시 투명성 확대	생산/판매자	축산물위생안전과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인터넷 불법유통 모니터링	생산/판매자	의약품관리총괄과
	의약품 부작용 신고 활성화	생산/판매자	의약품관리총괄과
감시/교육/홍보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추진	소비/생산/판매자	식중독예방과
	인터넷 불법유통 모니터링	생산/판매자	식품관리총괄과
	소비자 위생 점검 참여제 활성화	생산/판매자	식품소비안전과
	표시기준 개선 연구, 교육 및 홍보	소비/생산/판매자	식품소비안전과
정보전달	국내외 식품 위해 정보 제공 체계 확대	소비/생산/판매자	위해정보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소비/생산/판매자	위해정보과
	수요자 중심 영양정보 제공 기반 구축	소비자	영양안전정책과
교육	방사능 안전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	소비/생산/판매자	수입식품정책과
	식품첨가물 인식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운용	소비자	첨가물기준과
	불량식품근절을위한생산자·소비자교육	소비자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교육/홍보	건강한 주류 소비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비자	주류안전관리 기획단
	기준 규격 관련 교육 및 홍보	소비/생산/판매자	식품기준과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비자	첨가물기준과
	GMO 안전성 인식 변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소비자	신소재식품과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HACCP 교육 및 홍보	소비자	식품소비안전과
	식품이력추적제도 교육 및 홍보	소비자	식품소비안전과
홍보	저염식 확대를 위한 소비자 홍보 및 참여 확대	소비자	영양안전정책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당류 섭취 저감화 운동	소비자	영양안전정책과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전략 마련 및 시행	소비자	소통협력과
	체계적인 위해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소비자	소통협력과
	불량식품 안 '사먹기' 등 안전 먹을 거리 문화 운동 전개	소비자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지원 및 홍보 강화	소비자	식생활 안전과
	식중독 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소비자	식중독예방과
	마약류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소비자	마약정책과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 시스템 운용 홍보	소비/생산/판매자	수입식품정책과
	주류산업협회와 함께 빈병에 이물넣지 않기 캠페인 추진	소비자	주류안전관리 기획단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홍보	소비/생산/판매자	식품관리총괄과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위험지각과 안전추구행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유형을 분류한다.

[연구문제 2] 소비자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2-1] 식품구매 환경평가 차이분석

[2-2] 식품안전교육홍보 경험 및 적정 교육시기 차이분석

[2-3] 식품관리주체의 중요도 및 주요 식품안전정책 차이분석

2.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 식품 소비 행태 조사자료 성인편 중 식품에 대한 관심도, 식품안전도, 식품위해우려도, 식품관리주체의 중요도, 비용지불의사, 표시만족도, 표시신뢰도, 식품관련 제도인지, 식품관련 표시인지도, 안전교육경험, 안전교육시기, 주요소비자정책 등의 척도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명목척도와 문항수가 2개 이하인 척도를 제외하고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참조).

<표 3> 척도구성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식품관심도	3	.803	표시만족도	1	-
안전성평가	1	-	표시신뢰도	1	-
수입산식품안전도	12	.916	식품제도인지도	9	.868
국내산식품안전도	7	.868	식품교육경험	3	-
식품위해우려도	12	.931	식품교육적적시기	1	-
청과물표시확인	17	-	식품관리주체중요도	8	.900
육류표시확인	17	-	주요식품정책분야	3	-

3. 분석자료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14 식품 소비 행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유형별 위험지각과 식품안전행동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조사자료는 식재료주구입자, 성인 소비자, 청소년소비를 대상으로 자료가 조사되었으나 각각의 척도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지각과 인지, 평가, 만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성인소비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수는 6,311개이다.

분석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44.2%, 여성이 55.8%로 여성이 다소 많았으며, 연령은 40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1.0%로 나타났다. 소득은 주부/미취업자와 취업자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주부가 27.0%로 가장 많았고 취업자들 중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2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6.3%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대구/경상 지역이 27.1%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6311	100.0	연령	20대	675	10.7
성별	남성	2789	44.2		30대	1109	17.6
	여성	3522	55.8		40대	1735	27.5
소득	100만원미만	939	14.9		50대	1328	21.0
	100 ~ 199만원	1422	22.5		60대	943	14.9
	200 ~ 299만원	1030	16.3		70대이상	521	8.3
	300 ~ 399만원	671	10.6	지역	서울/인천/경기	2182	34.6
	400 ~ 499만원	269	4.3		대전/충청	933	14.8
	500만원 이상	267	4.2		부산/울산/대구/경상	1711	27.1
	주부/미취업	1705	27.0		광주/전라	928	14.7
	모름/기타	8	.1		강원/제주	557	8.8

IV. 연구결과

1. 소비자유형화

1) 소비자유형분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의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의 완성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응답자가 보통수준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응답자를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의 수준에 따라 이분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산출한 값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무응답이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치로 변환하였다.

먼저 위험지각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위험지각을 안전성 평가와 식품위해우려도로 구성하였으며 이때 위험에 대한 지각수준은 안전성평가와 역행하므로 안전성 평가를 역코딩하여 ‘위험평가’의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식품위해우려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우려된다’가 1점,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가 5점으로 코딩되어 있어 역코딩한 후 12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후 위험성평가와 식품위해우려도의 평균을 위험지각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안전행동은 식품에 대한 관심도와 표시확인행동 척도를 소비자의 안전행동의 구성하였다. 관심도를 구성하는 3개의 문항의 평균을 산출한 하였다, 표시확인행동은 청과물표시확인 행동과 육류표시확인 행동을 각각 0개-0점, 1개-1점, 2개-2점, 3개-3점, 4개-4점, 5개 이상-5점으로 환산 한 후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척도의 중위수를 활용하여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2) 소비자의 위험지각 및 안전행동의 수준

소비자의 위험지각 및 안전행동의 수준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식품소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의 수준은 3.38로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재료가 국내산인지 유기농인지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나 각종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행동은 평균 3.14로서 위험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보였다(<표 5> 참조).

〈표 5〉 소비자의 위험지각 및 안전행동의 수준

척도	N	평균	표준편차	구성변수	평균	표준편차
위험지각	5481	3.38	.54	우려도	3.94	.69
				위험평가	2.79	.74
안전행동	5481	3.14	.90	관심도	3.32	.68
				표시확인	2.97	1.49

3) 안전성향에 따른 소비자집단 유형

소비자유형화 결과를 참고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먼저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이 모두 낮은 집단은 식품환경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안전행동 역시 추구하지 않는 집단으로 ‘무관심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위험지각의 수준은 낮으나 안전행동의 수준은 높은 집단은 식품환경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지만 안전행동을 준수하는 집단으로 ‘대비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위험지각 수준이 높으나 안전행동 수준은 낮은 집단은 식품환경이 위험하다고 지각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행동을 취하지 않는 집단으로 ‘자포자기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이 모두 높은 집단은 식품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위험에 대한 자기보호의 반응으로 안전행동을 취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험반응집단’이라 명명하였다(〈표 6〉참조).

〈표 6〉 위험지각과 안전행동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화

구분			안전행동		전체
			저	고	
위험지각	저 (안전)	빈도(%)	1323(24.1)	1423(26.0)	2746(50.1)
		그룹명	무관심집단	대비집단	-
	고 (위험)	빈도	1165(21.3)	1570(28.6)	2735(49.9)
		그룹명	자포자기집단	위험반응집단	-
전체		빈도(%)	2488(45.4)	2993(54.6)	5481(100.0)

Pearson χ^2 : 17.232***

2. 소비자유형별 식품구매 환경평가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식품구매 환경평가에 대한 소비자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사후분석; Scheffe)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도

식품안전도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임산물을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소비자유형별 식품안전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모르겠다 및 생각해본적 없다”는 응답을 결측치로 변환한 후, 수입산 식품안전도와 국내산 식품안전도 구성 문항의 평균을 산출 한 후에 소비자 유형별로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7〉 참조). 분석 결과, 위험지각이 낮은 무관심집단과 대비집단의 식품안전도 평균이 위험지각이 높은 자포자기 집단과 위험반응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별 식품안전도 평균차이

척도	집단	n	평균	동일집단	F-value
수입산 안전도	무관심집단	1225	2.5192	a	101.214***
	대비집단	1376	2.4546	b	
	자포자기집단	1094	2.2553	c	
	위험반응집단	1493	2.2319	c	
국내산 안전도	무관심집단	1269	3.7575	b	132.971***
	대비집단	1358	3.8132	a	
	자포자기집단	1118	3.5551	c	
	위험반응집단	1476	3.5034	c	

* $p < .05$, ** $p < .01$, *** $p < .001$

각 집단내에서 수입산안전도와 국내산안전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모든 집단의 수입산 안전도 평균이 국내산 안전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집단 내 수입산-국내산 안전도 평균 차이분석

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t-value
무관심집단	수입산안전도	2.52	.516	.015	-73.009***
	국내산안전도	3.76	.429	.013	
대비집단	수입산안전도	2.46	.518	.014	-85.189***
	국내산안전도	3.81	.409	.011	
자포자기집단	수입산안전도	2.25	.541	.017	-67.629***
	국내산안전도	3.56	.576	.018	
위험반응집단	수입산안전도	2.24	.488	.013	-79.754***
	국내산안전도	3.50	.507	.014	

2) 표시만족도 및 표시신뢰도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대비집단이 만족도와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무관심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포자기집단은 표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표시만족도 및 표시신뢰도 평균차이

집단	만족도			신뢰도		
	평균	동일집단	F-value	평균	동일집단	F-value
무관심집단	3.29	b	133.496***	3.25	b	163.637***
대비집단	3.48	a		3.45	a	
자포자기집단	3.06	d		2.98	d	
위험반응집단	3.13	c		3.07	c	

* p<.05, ** p<.01, *** p< .001

3) 식품안전제도의 소비자인지도

식품안전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잘 알고 있다’가 1점, ‘모른다’가 3점으로 코딩되어 있어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모든 집단이 2점 이상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안전행동 수준이 높은 대비집단과 위험반응집단의 인지도가 무관심집단과 자포자기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 인지도가 높은 집단 역시 보통(2점)수준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10〉 식품안전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평균차이(3점척도)

구분	집단	평균	동일 집단	F-value
전통식품 인증제	무관심집단	1.4044	c	80.525***
	대비집단	1.7280	a	
	자포자기집단	1.4283	c	
	위험반응집단	1.6433	b	
가공식품 KS표시	무관심집단	1.8390	c	112.627***
	대비집단	2.2973	a	
	자포자기집단	1.8455	c	
	위험반응집단	2.0936	b	
HACCP	무관심집단	1.4369	d	88.951***
	대비집단	1.8261	a	
	자포자기집단	1.5356	c	
	위험반응집단	1.7280	b	
원산지 표시	무관심집단	2.3288	b	81.089***
	대비집단	2.6191	a	
	자포자기집단	2.3185	b	
	위험반응집단	2.5962	a	
유기농 인증	무관심집단	2.0113	c	128.457***
	대비집단	2.4223	a	
	자포자기집단	1.9700	c	
	위험반응집단	2.3127	b	
지리적 표시	무관심집단	1.5820	c	151.966***
	대비집단	2.0878	a	
	자포자기집단	1.6386	c	
	위험반응집단	1.9720	b	
생산이력 제도	무관심집단	1.6334	b	131.736***
	대비집단	1.8420	a	
	자포자기집단	1.5322	b	
	위험반응집단	2.0452	a	
GAP	무관심집단	1.5034	b	82.977***
	대비집단	2.0492	a	
	자포자기집단	1.6764	b	
	위험반응집단	1.7681	a	
GMO	무관심집단	1.4974	c	110.189***
	대비집단	1.9102	a	
	자포자기집단	1.5502	c	
	위험반응집단	1.7695	b	
제도인지도	무관심집단	1.6930	b	214.825***
	대비집단	2.0522	a	
	자포자기집단	1.7217	b	
	위험반응집단	2.0268	a	

* p<.05, ** p<.01, *** p< .001

4) 안전식품에 대한 비용지불의사 및 비용지불 영향요인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안전행동의 수준이 높은 대비집단과 위험반응집단의 비용지불의사가 안전행동수준이 낮은 무관심집단과 자포자기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비용지불의사 평균차이

집단	n	평균	동일 집단	F-value
무관심집단	1323	3.22	b	58.640***
대비집단	1423	3.50	a	
자포자기집단	1165	3.26	b	
위험반응집단	1570	3.51	a	

* $p < .05$, ** $p < .01$, *** $p < .001$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지불의사는 안전한 식품소비환경 조성에 대한 소비자의 바램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유형별로 비용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았으며 소비자 유형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참조).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무관심집단은 성별과 연령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비집단은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포자기집단과 위험반응집단은 연령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시만족과 신뢰만족 변수에서 표시만족은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비집단에서만 표시신뢰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평가와 식품위해우려도는 무관심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위험평가는 부적인 영향을, 식품위해우려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관심도는 대비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시확인행동은 자포자기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제도 인지도는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비용지불의사 영향요인

구분	무관심집단		대비집단		자포자기집단		위험반응집단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상수)	1.883	7.254***	2.895	6.753***	2.467	7.429***	1.727	4.259***
성별 (여성=0)	.063	2.422*	.010	.384	.001	.026	.036	1.442
연령	-.176	-6.781***	-.044	-1.707	-.079	-2.651**	-.068	-2.729**
표시만족	.058	1.470	.025	.642	.021	.526	.002	.074
표시신뢰	-.011	-.278	.079	2.061*	-.006	-.164	.039	1.151
위험평가	-.068	-2.385*	.004	.133	.036	1.130	.018	.662
식품위해 우려도	.095	3.347**	-.001	-.031	-.021	-.659	-.028	-1.065
식품관심도	.275	9.954***	.028	.997	.141	4.454***	.140	5.308***
표시확인	.056	1.998*	-.065	-2.356*	.041	1.273	.091	3.550***
식품제도 인식도	.126	4.547***	.228	8.649***	.145	4.871***	.131	5.215***
R ²	.186		.077		.051		.051	
adj-R ²	.181		.072		.044		.046	
F-value	33.415***		13.188***		6.927***		9.401***	

* p<.05, ** p<.01, *** p< .001

5) 식품구매환경 평가 차이분석 종합결과

소비자유형별 식품구매환경에 대한 평가의 차이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대비집단의 경우는 수입산안전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포자기 집단은 모든 변수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식품구매환경평가 차이분석 종합

집단	수입산 안전도	국내산 안전도	표시만족	표시신뢰	제도인지도	비용지불 의사
무관심집단	a	b	b	b	b	b
대비집단	b	a	a	a	a	a
자포자기집단	c	c	d	d	b	b
위험반응집단	c	c	c	c	a	a

3. 소비자유형별 식품안전교육·홍보 경험 및 적정 교육시기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교육·홍보 경험 및 적정시기 교육시기에 대한 소비자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 경험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집단별 빈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응답자의 98.2%가 소비자교육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주최 홍보행사나 소비자단체의 행사의 역시 대다수가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식품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가 중앙정부,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4> 식품안전교육 경험 차이분석

구분			집단				전체	Pearson 카이제곱
			무관심 집단	대비 집단	자포자기 집단	위험반응 집단		
소비자 교육	있다	빈도	13	30	15	46	104	17.607**
		백분율	1.0%	2.1%	1.3%	2.9%	1.9%	
	없다	빈도	1310	1393	1150	1524	5377	
		백분율	99.0%	97.9%	98.7%	97.1%	98.1%	
정부주최 홍보행사	있다	빈도	7	19	9	16	51	5.290
		백분율	.5%	1.3%	.8%	1.0%	.9%	
	없다	빈도	1316	1404	1156	1554	5430	
		백분율	99.5%	98.7%	99.2%	99.0%	99.1%	
소비자단체 행사	있다	빈도	9	23	11	25	68	7.450
		백분율	.7%	1.6%	.9%	1.6%	1.2%	
	없다	빈도	1314	1400	1154	1545	5413	
		백분율	99.3%	98.4%	99.1%	98.4%	98.8%	

* p<.05, ** p<.01, *** p<.001

2) 식품안전교육 적정시기

식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바람직한 시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전체 교차분석 결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좀 더 세분해 보면, 위험반응집단은 유아기, 대비집단은 초등학교 시기, 무관심집단은 중고등학교 시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타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15〉 식품관련 교육 적정 시기

구분		집단				전체
		무관심 집단	대비 집단	자포자기 집단	위험반응 집단	
유아기	빈도	188	139	219	253	799
	백분율	14.3%	12.0%	15.4%	16.2%	14.6%
초등학교	빈도	706	686	822	919	3133
	백분율	53.6%	59.0%	57.9%	58.7%	57.3%
중고등학교	빈도	390	311	358	374	1433
	백분율	29.6%	26.8%	25.2%	23.9%	26.2%

Pearson χ^2 : 39.875***

4. 소비자유형별 식품관리주체의 중요도 및 주요 식품안전정책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식품관리주체의 중요도 및 주요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사후분석; Scheffe)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관리주체별 중요도

식품관리주체의 중요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모든 집단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앙정부, 생산자, 유통 및 판매업체, 소비자 자신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유형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위험지각수준이 낮은 무관심집단과 대비집단이 위험지각수준이 높은 자포자기집단과 위험반응집단에 비하여 모든 관리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식품관리주체의 중요도 평균차이

척도	집단	n	평균	동일집단	F-value
중앙정부 (농식품부, 식약처, 공정위)	무관심집단	1323	4.24	ab	6.228***
	대비집단	1423	4.21	b	
	자포자기집단	1165	4.31	a	
	위험반응집단	1570	4.30	a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등)	무관심집단	1323	4.11	a	3.486
	대비집단	1423	4.09	a	
	자포자기집단	1165	4.17	a	
	위험반응집단	1570	4.17	a	
생산자 (기업, 단체)	무관심집단	1323	4.35	ab	8.380***
	대비집단	1423	4.30	b	
	자포자기집단	1165	4.41	a	
	위험반응집단	1570	4.42	a	
유통 및 판매업체	무관심집단	1323	4.30	ab	4.374**
	대비집단	1423	4.24	ab	
	자포자기집단	1165	4.31	a	
	위험반응집단	1570	4.22	b	
소비자 자신	무관심집단	1323	4.25	ab	2.772*
	대비집단	1423	4.23	ab	
	자포자기집단	1165	4.29	a	
	위험반응집단	1570	4.21	b	
학교	무관심집단	1323	4.13	b	3.803*
	대비집단	1423	4.16	ab	
	자포자기집단	1165	4.23	a	
	위험반응집단	1570	4.19	ab	
소비자단체	무관심집단	1323	4.02	a	2.510
	대비집단	1423	4.08	a	
	자포자기집단	1165	4.08	a	
	위험반응집단	1570	4.08	a	
언론	무관심집단	1323	4.05	a	1.808
	대비집단	1423	4.11	a	
	자포자기집단	1165	4.06	a	
	위험반응집단	1570	4.10	a	

* p<.05, ** p<.01, *** p< .001

2) 주요 식품소비자정책

식품관련 주요정책을 3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7〉, 〈표 18〉, 〈표 19〉와 같다. 먼저 주요소비자정책 분야(1)에서는 모든 소비자 유형에서 ‘식품안전보장’을 식품관련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식품관

런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주요소비자정책 분야(2)의 분석 결과는 소비자 유형에 상관없이 '부당 사업자 처벌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 및 홍보'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요소비자정책분야(3)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는 집단 간에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식품안전관리로 질병 예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체계 구축',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주요소비자정책 분야(1) 차이분석

구분		집단				전체
		무관심 집단	대비 집단	자포자기집단	위험반응집단	
식품안전 보장	빈도	852	816	775	1121	3564
	백분율	64.4%	57.3%	66.5%	71.4%	65.0%
식품관련 거래 적정화	빈도	104	158	84	106	452
	백분율	7.9%	11.1%	7.2%	6.8%	8.2%
식품관련 피해구제	빈도	67	114	64	74	319
	백분율	5.1%	8.0%	5.5%	4.7%	5.8%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	빈도	244	241	205	177	867
	백분율	18.4%	16.9%	17.6%	11.3%	15.8%
식품 표시정보의 제공	빈도	55	94	37	91	277
	백분율	4.2%	6.6%	3.2%	5.8%	5.1%
기타	빈도	1	0	0	1	2
	백분율	.1%	.0%	.0%	.1%	.0%
전체	빈도	1323	1423	1165	1570	5481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χ^2 : 110.114***

〈표 18〉 주요소비자정책 분야(2) 차이분석

구분		집단				전체
		무관심 집단	대비 집단	자포자기집 단	위험반응집 단	
부당 사업자 처벌 단속	빈도	823	714	789	985	3311
	백분율	62.2%	61.3%	55.4%	62.7%	60.4%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빈도	114	118	187	148	567
	백분율	8.6%	10.1%	13.1%	9.4%	10.3%
조사연구	빈도	24	15	24	20	83
	백분율	1.8%	1.3%	1.7%	1.3%	1.5%
정보수집 및 제공	빈도	53	46	76	72	247
	백분율	4.0%	3.9%	5.3%	4.6%	4.5%
교육 및 홍보	빈도	244	206	244	242	936
	백분율	18.4%	17.7%	17.1%	15.4%	17.1%
국제소비자문제대응	빈도	21	20	46	23	110
	백분율	1.6%	1.7%	3.2%	1.5%	2.0%
정책개발 및 추진	빈도	44	45	57	80	226
	백분율	3.3%	3.9%	4.0%	5.1%	4.1%
기타	빈도	0	1	0	0	1
	백분율	.0%	.1%	.0%	.0%	.0%
전체	빈도	1323	1165	1423	1570	5481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χ^2 : 58.222***

〈표 19〉 주요소비자정책 분야(3) 차이분석

구분		집단				전체
		무관심 집단	대비 집단	자포자기 집단	위험반응 집단	
식품안전관리로 질병(식중독, 비만, 암등)예방	빈도	882	849	735	979	3445
	백분율	33.37%	29.86%	31.57%	31.21%	31.46%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빈도	723	752	544	657	2676
	백분율	27.36%	26.45%	23.37%	20.94%	24.44%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체계구축	빈도	655	740	648	996	3039
	백분율	24.78%	26.03%	27.84%	31.75%	27.75%
균형있는 식품·영양 공급으로 소비자건강향상	빈도	281	377	293	363	1314
	백분율	10.63%	13.26%	12.59%	11.57%	12.00%
관련정보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빈도	102	125	108	142	477
	백분율	3.86%	4.40%	4.64%	4.53%	4.36%
전체	빈도	2643	2843	2328	3137	10951
	백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Pearson χ^2 : 91.315***

V. 결론 및 제언

소비자 유형별 식품구매환경, 교육경험 및 적정교육시기, 관리주체의 중요도 및 주요 식품 안전정책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소비자 집단 내 수입산과 국내산 식품안전도 평균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수입산 식품의 안전도가 국내산 식품의 안전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몽 농약 파동(1989), 수입 밀 농약오염(1992), 김치 속 기생충알 검출 사건(2005), 광우병 파동(2008) 등 끊임없는 수입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2013)에서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7.2%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였으며, 이중 곡물자급률이 2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14-9-25). 이는 곧 우리나라가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 평가 수준이 낮은 것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비자의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평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입식품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수입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식품안전제도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의 식품안전 제도 인지도가 안전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수준 역시 보통(2.0)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교육 참여 경험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품안전정책에서 소비자교육 및 홍보의 요구가 높게 나타난 점을 종합하여 살펴 보았을 때, 소비자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소비자교육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식품안전교육의 적정시기로 모든 소비자 집단이 초등학교 시기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식품안전교육을 정규교육 또는 특별활동 등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비용지불의사를 소비자의 식품구매환경 개선의 의지로 파악하고 소비자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 유형별로 비용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식품제도인식도는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제도인식이 높을수록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제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식품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에 식품안전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척도를 통하여 소비자 유형별 식품구매환경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각 유형별 소비자 특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먼저 ‘무관심집단’은 위험지각과 안전행동 모두 낮은 집단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수준이 타집단에 비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제도인지도나 식품구매환경의 개선의지는 낮은 집단이다. 개선의지는 안전태도와 연관되므로 이 집단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안전태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비집단’은 위험지각은 낮으나 안전행동은 높은 집단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인지도나 구매환경 개선의지 역시 높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에게는 지속적으로 식품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자포자기집단’은 위험지각은 높으나 안전행동은 낮은 집단으로 식품의 안전도, 표시만족도, 표시신뢰도가 모두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식품안전제도의 인지도는 낮고 구매환경의 개선의지 또한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식품제도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식품자체의 안전에도 회의적이므로 개인이 식품위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행동과 개선의지가 모두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에게는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역량 즉, 안전지식, 태도, 행동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위험반응집단’은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식품이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며, 표시에 대한 만족과 신뢰 모두 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제도의 인지도는 높고 개선의지 또한 강하다. 따라서 이 집단은 철저한 식품생산 및 유통 관리, 수입식품 검역 등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해줌으로써 식품시장에 대한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식품소비자정책으로는 소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식품안전보장, 식품관련 교육과 홍보, 부당사업자 처벌단속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부당사업자 처벌단속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는 식품관리주체의 중요도 분석결과 소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관리주체의 중요도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생산자와 중앙정부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사업자의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유통과 중앙정부의 철저한 생산자 관리·감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는 소비자의 식품관련 교육과 홍보 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통해 식품안전소비자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의 수준으로 소비자를 4개의 집

단으로 유형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안전성향과 위험지각이 모두 높은 ‘위험반응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막연하게 만연되었던 식품불안에 비해 소비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식품소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지각은 높으면서 안전행동은 낮은 ‘자포자기집단’ 및 식품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소비자들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정적 성향의 원인과 해결방법 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척도 구성과 심리적 측면,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이 좀 더 보강되어 보다 정밀하게 세분화된 소비자집단의 특성과 차이를 심층분석해 낼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숙 · 이기춘, 1998,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3), 1-14.
- 송유진 · 유현정, 2008,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 소비자학연구, 19(3), 215-244.
- 유현정 · 주소현, 2013, 소비자의 식품안전체감 및 역량척도 개발연구, 소비자학연구, 23(4), 79-104
- 윤은주 · 서선희, 2012, 서울지역 중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의도에 따른 식품안전인식 및 태도 차이,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8(2), 149-158.
- 이지은 · 이기춘, 1992, 서울시 주부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7(2), 37-48.
- 한겨레, 2014년 9월 25일자, 식량 자급률 47.2%...OECD국 중 최하위
- Berkowitz, D., & Turnmire, K. (1994). Community relations and issues management: An issue orientation approach to segmenting public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6, 105-123.
- Grunig, J. E., & Repper, F. C. (1992). Strategic management, publics, and issues. In J. E. Grunig (Ed.), *Excellence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pp. 117-15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ng, H, H. Park., Y. Lee., and Park, J, 2012, Public segmentation and government-public relationship building: a cluster analysis of pubilcs in the United States and 19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Public Rations Research*,

24(1), 37-68.

Rimal, R.N., & Real, K. (2003). Perceived risk and efficacy beliefs as motivators of change; use of the risk perception attitude(RPA) framework to understand health behavior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3): 370-399.

부록

식품소비행태조사 조사표

2014 식품 소비 행태 조사

-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 구입자용 설문 -



승인(협의)번호
제 41601 호

조사구 ID (조사 명부 우측 상단에 기록된 조사구 ID를 기록해 주세요.)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응답자 코드(SQ3-1)

안녕하세요?

소비자 조사 전문 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리서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로 가정 내/외에서의 식품 소비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O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면
가정 내/외 식품 소비 행태 이해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물론 본 설문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며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통계 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원 : 조사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실무 담당 : 반현정 연구원
전화 : 02-3499-4307

(주)한국리서치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실사 담당 : 김지혜 팀장
전화 : 02-3014-0122

※ 본 조사는 주부님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가구 조사'입니다.
따라서 가구원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만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다른 가구원들도 응답이 가능하신가요?

(1) 예

(2) 아니오 → 면접중단

※ 올해 OO님의 나이(혹은 연세)가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세

(1) 만 75세 미만

(2) 만 75세 이상 → 면접중단

SQ6. OO님은 집에서 드시는 식품, 식자재를 직접 구입하시나요?

(1)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동거인>이 집에서 먹는 식품, 식자재의 대부분을
내가 직접 구입한다

(2)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동거인>이 집에서 먹는 식품, 식자재를
내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동거인>이 구입한다

(3) 나는 집에서 먹는 식품, 식자재를 전혀 구입하지 않는다

→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 구입자를
다시 선정하세요

선정 질문

SQ1. [면접원 기록 : 조사 지역 표기]

- | | | | |
|-----------|-----------|-----------|-----------|
| (1) 서울특별시 | (5) 대전광역시 | (9) 경상북도 | (13) 충청북도 |
| (2) 부산광역시 | (6) 광주광역시 | (10) 경상남도 | (14) 충청남도 |
| (3) 인천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11) 전라북도 | (15) 강원도 |
| (4) 대구광역시 | (8) 경기도 | (12) 전라남도 | (16) 제주도 |
- (17) 세종특별자치시

SQ2. [면접원 기록 : 응답자 성별 표기]

- (1) 남성 (2) 여성

[SQ3~SQ3-5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SQ3. OO님 닉의 가구원/동거인은 누구누구인가요?

SQ3-1. OO님 닉에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구원/동거인은 누구누구인가요?
함께 살고 계신 가족/동거인만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SQ3-2. 말씀하신 가구원/동거인들의 성별을 말씀해 주세요.

- (1) 남자 (2) 여자

SQ3-3. 말씀하신 가구원/동거인들의 출생연도(호적 기준)를 말씀해 주세요.

SQ3-4. 실례지만, OO님과 가구원/동거인들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 | | |
|------------------------|----------------------|
| (1) 미취학 | (4) 대졸(전문대졸/대학원생 포함) |
| (2) 중졸 이하(초/중/고등학생 포함) | (5) 대학원졸 |
| (3) 고졸(대학생 포함) | (6) 모름 |

SQ3-5. OO님과 가구원/동거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 관리자	→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 [서비스, 판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장치 기계 조작, 조립 및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주부	→ [주부]
(11) 군인	→ [기타]
(12) 학생	
(13) 무직	
(14) 기타 (기록 :)	

SQ3-6. OO님 또는 가구원/동거인들 중에 다음의 증상/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아토피 | (4) 암 |
| (2) 고혈압 | (5) 없음 |
| (3) 당뇨 | (6) 모름 |

	SQ3. 가구원	SQ3-1. 동거중인 가구원	SQ3-2. 성별	SQ3-3. 출생연도	SQ3-4. 교육정도	SQ3-5. 직업	SQ3-6. 증상/병증
(1) 응답자 본인							
(2) 배우자							
(3) 자녀 1							
(4) 자녀 2							
(5) 자녀 3							
(6) 자녀 4							
(7) 아버지							
(8) 어머니							
(9) 배우자 어머니							
(10) 배우자 아버지							
(11) 형제/자매 1							
(12) 형제/자매 2							
(13) 형제/자매 3							
(14) 할아버지							
(15) 할머니							
(16) 배우자 할아버지							
(17) 배우자 할머니							
(18) 손자/손녀 1							
(19) 손자/손녀 2							
(20) 기타1(기록 :)							
(21) 기타2(기록 :)							
계	_____명		(99) 모름				

SQ4. [면접원 기록] 1인 가구 여부

(1) 1인 가구이다

(2) 1인 가구가 아니다

SQ5.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구원/동거원 중에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가구주는 누구인가요?(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를 수 있음)

[면접원 : SQ3-1의 코드로 기록]

SQ7. OO님은 댁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드시나요?

(1)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동거인>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2)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동거인>이 먹는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음식 또는 조리 식품을 사 먹거나
가족/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어온 음식을 간단한 조리만 해서 먹는다

(3)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다

SQ8. OO님 댁은 다문화 가정이신가요?

(1) 예

(2) 아니오

A. 전반적인 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 이제부터는 OO님 닉의 "전반적인 식품 구입과 소비"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 구입 행태

A1. OO님 닉에서는 평소 식료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시나요?

한두 가지 부족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장에 가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 | |
|------------|-------------|
| (1) 매일 | (4) 2주일에 1회 |
| (2) 주 2~3회 | (5) 1달에 1회 |
| (3) 주 1회 | (6) 그보다 드물게 |

A2. 식료품 구입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주로 구입하는 곳부터 순서대로 두 곳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등)
 (3) 대형 할인점(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4) 재래시장
 (5) 백화점 내의 식품코너
 (6) 친환경 식품 전문점(생협, 유기농 전문점 등)
 (7) 통신판매(인터넷, 전화주문, 홈쇼핑 등)
 (8) 편의점
 (9) 기타 (기록 :)

A3. 식료품 구입 장소로 (A2의 1순위 응답)을 주로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이용하시는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품질이 좋아서
 (2) 가격이 저렴하니까
 (3)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4) 직접 배달해 주므로
 (5)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6) 상품이 다양하므로
 (7)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8) 기타 (기록 :)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 행태

A4. OO님 닉에서는 평소 인터넷으로 식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시나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 | |
|------------|-------------------------|
| (1) 매일 | (4) 2주일에 1회 |
| (2) 주 2~3회 | (5) 1달에 1회 |
| (3) 주 1회 | (6) 그보다 드물게 |
| | (7) 구입하지 않음 → [A9로 가시오] |

A5. 1년 전에 비해 올해 OO님 닉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식품 구입은 어떻게 변했나요?

(1)	(2)	(3)	(4)	(5)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A6.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주로 어떤 곳에서 구매하시나요? (단수 응답)

- (1) 온라인쇼핑몰(G마켓, 롯데닷컴, 현대H몰 등)
 (2) 대형 할인점(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등) 온라인매장
 (3) 친환경 전문점(생협, 유기농 전문점 등) 온라인매장
 (4) 특산물 온라인매장(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우체국 등 운영)
 (5) 카페, 블로그 등의 공동구매
 (6) 특정식품 온라인매장(베이커리, 수입식품 등)
 (7) 기타 (기록 :)

A7. 인터넷으로 식품의 구매처는 앞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치 않을까요? (다중응답,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품질이 좋아서
 (2) 가격이 저렴하니까
 (3) 소량을 자주 구입할 수 있어서
 (4) 배달해 주므로
 (5)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6) 상품이 다양하므로
 (7) 장보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8) 좋은 상품을 고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9) 기타 (기록 :)

A8.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식품의 가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A8-1.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식품의 품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친환경 식품 구입 및 소비 행태

A9. OO님 댁에서는 평소 친환경 식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시나요?

친환경 식품이란,
 친환경적인 방법(합성농약 등 화학자재를 사용을 최소화)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친환경 가공식품(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1) 매일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일에 1회
 (5) 1달에 1회
 (6) 그보다 드물게
 (7) 구입하지 않음 → [A13으로 가시오]

A10. 1년 전에 비해 올해 OO님 댁의 친환경 식품 구입은 어떻게 변했나요?

친환경 식품 구입 지출액을 고려하여 말씀해 주세요.

(1)	(2)	(3)	(4)	(5)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A11. 친환경 식품 구입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주로 구입하는 곳부터 순서대로 두 곳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등)
 (3) 대형 할인점(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4) 재래시장
 (5) 백화점 내의 식품코너
 (6) 친환경 식품 전문점(생협, 유기농 전문점 등)
 (7) 통신판매(인터넷, 전화주문, 홈쇼핑 등)
 (8) 편의점
 (9) 기타 (기록 :)

A12. 구입하신 친환경 식품의 가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A12-1. 구입하신 친환경 식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기능성 식품 구입 및 소비 행태

A13. OO님께서는 현재 기능성 식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기능성 식품이란, 영양소 공급을 통해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은 홍삼, 알로에, 영양보충제, 글루코사민 등이 있습니다.

(1) 먹는다

(2) 먹지 않는다 → [A16으로 가시오]

A14. OO님 또는 가구원/동거인이 드시고 계신 기능성 식품은 무엇인가요?

가구원/동거인이 드시고 계신 기능성 식품들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홍삼, 인삼 | (5) 생식, 선식, 효소 |
| (2) 건강즙, 엑기스 | (6) 건강환, 분말 |
| (3) 비타민, 오메가3 등 특정 성분 식이보충제 | (7) 기타 (기록 :) |
| (4) 다이어트 식품 | (8) 먹지 않음 |

A14-1. OO님 또는 가구원/동거인이 기능성 식품을 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구원/동거인이 기능성 식품을 드시는 이유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성장, 발달을 위해 | (4) 질병예방을 위하여 |
| (2) 질병치료를 위하여 | (5) 미용 효과를 위하여 |
| (3) 학습능력 개선을 위해 | (6) 기타 (기록 :) |

A15. 1년 전에 비해 올해 OO님 닥의 기능성 식품 구입은 어떻게 변했나요?

기능성 식품 구입 지출액을 고려하여 말씀해 주세요.

(1)	(2)	(3)	(4)	(5)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식품소비 동향과 전망

A16. 1년 전에 비해 올해 올해 OO님 님의 식품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변했나요?

(1)	(2)	(3)	(4)	(5)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A16에서 (4)~(5)가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A16-1 귀 님의 식품소비 지출액이 증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가구원 변동 (4)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 증가
(2) 식품 소비량 증가 (5) 기타 (기록 :)
(3) 식품 물가 상승

A17. 1년 전 식품 물가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올해 OO님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수준을 평가해 주세요.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물가가 5%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면 95로, 10% 정도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110으로,
물가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100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A18.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식품소비 지출액 규모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신가요?

(1)	(2)	(3)	(4)	(5)
매우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A18-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A18-1. 다음의 식품류별로 내년도 지출규모는 올해에 비해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식품류별로 각각 어떠한 것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R	식품류	A18-1
	(1) 쌀	
	(2) 잡곡	
	(3) 육류	
	(4) 계란	
	(5) 우유	
	(6) 발효유(액상/떠먹는 요구르트)	
	(7) 채소류	
	(8) 과일류	
	(9) 수산물	
	(10) 유지류(기름류)	
	(11) 빵 및 과자류	
	(12) 차/음료	
	(13) 주류	
	(14) 조리식품	
	(15) 배달음식이나 테이크아웃	
	(16) 외식	
	(17) 기능성식품	

(1)	(2)	(3)	(4)	(5)
크게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 ▶ 배달음식: 짜장면, 보쌈, 설농탕, 갈비찜, 피자, 치킨 등을 집에서 주문하여 먹는 경우
- ▶ 테이크아웃: 식당에서 포장해서 가져다 먹는 경우
- ▶ 외식: 가족단위로 식당가서 먹는 경우
- ▶ 조리식품: 판매되고 있는 반찬류, 삼각김밥,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순대, 족발, 김밥 등

B.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 이번에는 OO님 닉의 "곡물 구입과 소비"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 B1. OO님 닉에서는 쌀(백미, 현미)을 얼마나 자주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1) 1개월에 1~2회 이상
 (2) 2~3개월에 1회
 (3) 1년에 2~3회

(4) 그보다 드물게

(5) 집에서는 쌀(백미, 현미)을 먹지 않음

(6) 집에서는 햇반류의 가공식품만 먹음

→ [C1으로 가시오]

- B2. OO님 닉에서는 쌀(백미, 현미)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 (1) 전부 직접 구입한다
 (2) 일부는 직접 구입하고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3) 전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4) 기타 (기록 :)

→ [B9로 가시오]

(B3~B8은 B2에서 (1) 또는 (2)가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 B3. 쌀(백미, 현미)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가격
 (2) 맛
 (3) 안전성
 (4) 품질
 (5) 영양(건강)

- (6) 신선도
 (7) 구입의 편리성
 (8) 조리 편의성
 (9) 기타 (기록 :)

- B3-1. 쌀(백미, 현미)을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 중 어떤 정보들을 우선 확인하시나요?
 우선 확인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가격
 (2) 생산지역(예: 경기미)
 (3) 원산지
 (4) 쌀의 품종
 (5) 브랜드
 (6) 쌀의 외관 (선별상태)
 (7) 판촉상품(판매자 권유 또는 이벤트상품) 여부

- (8) 친환경인증(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제품) 여부
 (9) 기능성 첨가 여부
 (10) 도정(가공) 날짜
 (11) 포장상태
 (12) 기타인증품(GAP, HACCP) 여부
 (13) 기타 (기록 :)

- B4. 다음의 잡곡들 중 OO님 닉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잡곡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단수 응답)

- (1) 현미잡쌀
 (2) 흑미
 (3) 차조
 (4) 수수
 (5) 찰쌀
 (6) 울무
 (7) 적두(팥)

- (8) 밀(통밀)
 (9) 서리태(검은콩)
 (10) 찰보리
 (11) 간혹두
 (12) 기장
 (13) 혼합 잡곡
 (14) 기타 (기록 :)
 (15) 잡곡을 먹지 않음

(항목 (3)은 B4에서 (1)~(13)이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B5. OO님 댁에서는 주로 몇 kg짜리 포장의 쌀(백미, 현미)과 잡곡을 드시고 계신가요?

각각의 곡물들에 대해 주로 드시는 포장 단위를 말씀해 주시고,
드시지 않는 쌀(백미, 현미)과 잡곡의 종류에 대해서는 '0 kg'으로 표시해 주세요.[면접원 : kg/g 이외의 단위로 구입한 경우, 단위 환산표를 이용하여 정확한 무게를 기록하십시오.]
: "되 단위"로 응답 시, "kg 단위"로 환산 기록하십시오. (1되 = 1.8kg)]

(1) 백미 : _____ kg

(2) 현미 : _____ kg

(3) _____ (B4 응답 잡곡 기록) : _____ kg

B6. OO님 댁에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쌀의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요? (20kg 기준으로 환산)

- | | |
|-----------------------|------------------------|
| (1) 25,000원 미만 | (7) 50,000~55,000원 미만 |
| (2) 25,000~30,000원 미만 | (8) 55,000~60,000원 미만 |
| (3) 30,000~35,000원 미만 | (9) 60,000~70,000원 미만 |
| (4) 35,000~40,000원 미만 | (10) 70,000~80,000원 미만 |
| (5) 40,000~45,000원 미만 | (11) 80,000원 이상 |
| (6) 45,000~50,000원 미만 | (12) 모름/기억나지 않음 |

[B7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십시오.]

B7. OO님 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쌀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시나요?

(1)	(2)	(3)	(4)
한 번도 구입해 본 적 없다	구입한 적이 있으나, 최근 1년 동안은 구입한 적이 없다	쌀 구입 시에는 주로 다른 종류의 쌀을 구입하고, (B7의 보기) 쌀은 가끔 구입한다	쌀 구입 시 다른 종류의 쌀은 구입하지 않고, (B7의 보기) 쌀만 구입한다 가장 많이 구입하는 쌀 종류이다

R	쌀 종류	B7
	(1) 씻어나온 쌀	
	(2) 수입 쌀	
	(3) 친환경 인증 쌀 (무농약 재배 쌀, 유기농 재배 쌀, 저농약 재배 쌀)	
	(4) GAP 인증 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쌀)	
	(5) 햅반	

B8. 앞으로 OO님 댁에서는 수입쌀을 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아마 먹지 않을 것이다	먹을지, 먹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 먹어볼 것이다	반드시 먹을 것이다

B9. OO님 댁에서는 어떤 종류의 밥을 주로 드시나요?

가장 자주 드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흰밥 (백미밥)

(4) 잡곡밥

(2) 흰밥 (백미밥) + 현미밥

(5) 기타 (기록 : _____)

(3) 현미밥

C. 채소/과일/임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채소 구입 및 소비 행태

※ 면접원 낭독 : 채소류에는 배추, 파, 무, 양파, 호박, 콩나물, 버섯류 등이 포함됩니다.

C1. OO님 댁에서는 채소류를 얼마나 자주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 | |
|------------|-------------------|
| (1) 매일 | (4) 2주일에 1회 |
| (2) 주 2~3회 | (5) 1달에 1회 |
| (3) 주 1회 | (6) 그보다 드물게 |
| | (7) 집에서 채소를 먹지 않음 |
- [C5로 가시오]

C2. OO님 댁에서는 평소에 채소류를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 | | |
|-----------------------------------|-------------|
| (1) 전부 직접 구입한다 | |
| (2) 일부는 직접 구입하고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 |
| (3) 전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 → [C5로 가시오] |
| (4) 기타 (기록 :) | |

(C3~C4-1은 C2에서 (1), (2)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C3. 채소를 구입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구입하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거나 개당 구입 | (3) 박스형태 구입 |
| (2) 비닐봉투 등 소포장형태 구입 | (4) 기타 (기록 :) |

C4. 채소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 | |
|---------------------------------|---------------------------------|
| 1순위 <input type="text"/> | 2순위 <input type="text"/> |
| (1) 가격 | (6) 신선도 |
| (2) 맛 | (7) 구입의 편리성 |
| (3) 안전성 | (8) 조리의 편리성 |
| (4) 품질 | (9) 기타 (기록 :) |
| (5) 영양(건강) | |

C4-1. 채소류를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 중 어떤 정보들을 우선 확인하시나요?

우선 확인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 | | |
|---------------------------------|---------------------------------|---------------------------------|
| 1순위 <input type="text"/> | 2순위 <input type="text"/> | 3순위 <input type="text"/> |
| (1) 가격 | (8) 친환경인증(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제품) 여부 | |
| (2) 생산지역명 | (9) 품종 | |
| (3) 원산지 | (10) 포장상태 | |
| (4) 신선도 | (11) 기타인증품(GAP, HACCP) 여부 | |
| (5) 브랜드 | (12) 기능성 첨가 여부 | |
| (6) 선별상태 | (13) 기타 (기록 :) | |
| (7) 판촉상품(판매자 권유 또는 이벤트상품) 여부 | | |

과일 구입 및 소비 행태

※ 면접원 낭독 : 과일에는 사과, 귤, 참외, 수박, 배, 바나나, 토마토 등이 포함됩니다.

C5. OO님 맥에서는 과일류를 얼마나 자주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1) 매일
(2) 주 2~3회
(3) 주 1회

- (4) 2주일에 1회
(5) 1달에 1회
(6) 그보다 드물게

(7) 집에서는 과일을 먹지 않음

→ [C10으로 가시오]

C6. OO님 맥에서는 평소에 과일류를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 (1) 전부 직접 구입한다
(2) 일부는 직접 구입하고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3) 전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4) 기타 (기록 :)

→ [C9로 가시오]

(C7~C8-1은 C6에서 (1), (2)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C7. 과일을 구입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구입하시나요? (단수 응답)

- (1)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거나 개당 구입 (3) 박스형태 구입
(2) 비닐봉투 등 소포장형태 구입 (4) 기타 (기록 :)

C8. 과일류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가격
(2) 맛
(3) 안전성
(4) 품질
(5) 영양(건강)

- (6) 신선도
(7) 구입의 편리성
(8) 조리/의 편리성
(9) 기타 (기록 :)

C8-1. 과일류를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 중 어떤 정보들을 우선 확인하시나요?

우선 확인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가격
(2) 생산지역
(3) 원산지
(4) 신선도
(5) 브랜드
(6) 선별상태
(7) 판촉상품(판매자 권유 또는 이벤트상품) 여부

- (8) 당도
(9) 친환경인증(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제품) 여부
(10) 품종
(11) 포장상태
(12) 기타인증품(GAP, HACCP) 여부
(13) 기능성 첨가 여부
(14) 기타 (기록 :)

C9. OO님 맥에서는 지난 1주일동안 **과일을 몇 가지**나 드셨나요?

동일한 종류의 과일을 반복해서 드신 경우는 1가지로 기록해 주세요.

_____ 가지

임산물 구입 및 소비 행태

※ 면접원 낭독 : 임산물에는 대추, 밤, 은행, 호두, 잣 등이 포함됩니다.

C10. OO님 댁에서는 임산물을 얼마나 자주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1) 매일 (4) 2주일에 1회
(2) 주 2~3회 (5) 1달에 1회
(3) 주 1회 (6) 그보다 드물게
(7) 집에서 임산물을 먹지 않음 → [C14로 가시오]

C11. OO님 댁에서는 평소에 임산물을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 (1) 전부 직접 구입한다
(2) 일부는 직접 구입하고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3) 전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 [C14로 가시오]
(4) 기타 (기록 :)

(C12~C13-1은 C11에서 (1), (2)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C12. 임산물을 구입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구입하시나요? (단수 응답)

- (1)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거나 개당 구입 (3) 박스형태 구입
(2) 비닐봉투 등 소포장형태 구입 (4) 기타 (기록 :)

C13. 임산물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 1순위 | 2순위 |
|------------|----------------|
| (1) 가격 | (6) 신선도 |
| (2) 맛 | (7) 구입의 편리성 |
| (3) 안전성 | (8) 조리의 편리성 |
| (4) 품질 | (9) 기타 (기록 :) |
| (5) 영양(건강) | |

C13-1. 임산물을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 중 어떤 정보들을 우선 확인하시나요?

우선 확인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1) 가격 | (8) 친환경인증(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제품) 여부 | |
| (2) 생산지역명 | (9) 품종 | |
| (3) 원산지 | (10) 포장상태 | |
| (4) 신선도 | (11) 기타인증품(GAP, HACCP) 여부 | |
| (5) 브랜드 | (12) 기능성 첨가 여부 | |
| (6) 선별상태 | (13) 기타 (기록 :) | |
| (7) 판촉상품(판매자 권유 또는 이벤트상품) 여부 | | |

[C14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C14. OO님 댁에서는 다음 제품을 자주 구입하시나요?

(1)	(2)	(3)	(4)
한 번도 구입해 본 적 없다	구입한 적이 있으나, 최근 1년 동안은 구입한 적이 없다	채소/과일/임산물 구입 시에는 주로 다른 종류를 구입하고, (C14의 보기)는 가끔 구입한다	채소/과일/임산물 구입 시 다른 종류는 구입하지 않고, (C14의 보기)만 구입한다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류이다
R	채소/과일/임산물		C14
	(1) 세척·절단제품 (예: 샐러드용 채소포장, 파인애플)		
	(2) 양채류 (양상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3) 신품종 또는 외래품종과일(블루베리, 체리, 천혜향 등)		
	(4) 친환경인증제품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5) GAP 인증제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품)		

D. 축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D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D1. OO님 댁에서는 다음의 축산물들을 얼마나 자주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식당에서 드시거나 배달/테이크아웃으로 드시는 경우는 "먹지 않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1) 매일	(4) 2주일에 1회
(2) 주 2~3회	(5) 1달에 1회
(3) 주 1회	(6) 그보다 드물게
	(7) 먹지 않음 / 조달하지 않음

R	축산물	D1
	(1) 쇠고기	
	(2) 돼지고기	
	(3) 닭고기	
	(4) 우유	
	(5) 요구르트	
	(6) 치즈	
	(7) 계란	
	(8) 햄, 베이컨 등 육가공제품	

[D2~D2-1은 D1에서 (1)~(6)이 한 번이라도 응답된 경우에 질문]

D2. 축산물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가격
(2) 맛
(3) 안전성
(4) 품질
(5) 영양(건강)

- (6) 신선도
(7) 구입의 편리성
(8) 조리의 편리성
(9) 기타 (기록 :)

D2-1. 축산물을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 중 어떤 정보들을 우선 확인하시나요?

우선 확인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가격
(2) 생산지역명
(3) 원산지
(4) 신선도
(5) 브랜드
(6) 외관(육질, 선별상태 등)
(7) 판촉상품(판매자 권유 또는 이벤트상품) 여부

- (8) 등급
(9) 친환경인증(무항생 제품) 여부
(10) 품종
(11) 포장상태
(12) 기타인증품(HACCP 등) 여부
(13) 기능성 첨가 여부
(14) 기타 (기록 :)

[D3~D3-1은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D3. OO님 댁에서 평소 가장 많이 드시는 육류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집에서 직접 조리해서 드시거나 외식, 배달/테이크아웃으로 드시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말씀해주세요.

- (1) 쇠고기
(2) 돼지고기
(3) 닭고기

- (4) 오리고기
(5) 기타 (기록 :)

D3-1. OO님 댁에서 (D3 응답)을 자주 드시는 주된 이유를 보기에서 골라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1) 건강을 생각해서
(2) 가격이 저렴해서
(3) 맛이 있어서

- (4) 조리하기 쉬워서
(5) 기타 (기록 :)

쇠고기 구입 및 소비 행태

(D4~D9는 D1의 (1)쇠고기에 (1)~(6)으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D4. 쇠고기를 구입할 때 냉장육과 냉동육 중 주로 어느 것을 구입하시나요?

- (1) 냉동육 (2) 냉장육 (3) 기타 (기록 :)

D5. 쇠고기를 구입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나요? (단수 응답)

- (1) 포장하지 않은 고기(정육점에서 담아서 포장해주는 것 포함)
 (2) 포장육(포장해서 진열대 또는 냉동고에 있는 것)
 (3) 양념육
 (4) 기타 (기록 :)

D6. 쇠고기를 구입할 때 주로 어느 정도씩 구입하시나요? 쇠고기 구매 목적별로 구입량을 각각 말씀해 주세요.

- (1) 구입용 () (2) 국거리용 ()

- (1) 100g (4) 900g
 (2) 300g (5) 1,200g
 (3) 600g (6) 기타 (기록 :)

D7. 주로 구입하시는 쇠고기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쇠고기 구매 목적별로 주로 구입하는 부위를 순서대로 두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 (1) 구입용 1순위 2순위
 (2) 국거리용 1순위 2순위

- (1) 안심 (5) 사태
 (2) 등심 (6) 사골
 (3) 갈비 (7) 전지
 (4) 양지 (8) 기타 (기록 :)

D8. 주로 구입하시는 쇠고기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디인가요? 쇠고기 구매 목적별로 원산지를 각각 말씀해 주세요.

- (1) 구입용 () (2) 국거리용 ()

- (1) 국내산 (3) 미국산
 (2) 호주산 (4) 기타 (기록 :)

D9. 주로 구입하시는 국내산 쇠고기의 등급은 어떻게 되시나요? 쇠고기 구매 목적별로 등급을 각각 말씀해 주세요.

- (1) 구입용 () (2) 국거리용 ()

- (1) 1++등급 (5) 3등급
 (2) 1+등급 (6) 잘 모르겠음
 (3) 1등급 (7) 기타 (기록 :)
 (4) 2등급

(D10~D10-1은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D10. 향후에 OO님 댁에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아마 먹지 않을 것이다	먹을지, 먹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 먹어볼 것이다	반드시 먹을 것이다

D10-1. 향후에 OO님 댁에서는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아마 먹지 않을 것이다	먹을지, 먹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 먹어볼 것이다	반드시 먹을 것이다

돼지고기 구입 및 소비 행태

(D11~D15는 D1의 (2)돼지고기에 (1)~(6)으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D11.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냉장육과 냉동육 중 주로 어느 것을 구입하시나요?

(1) 냉동육 (2) 냉장육 (3) 기타 (기록 :)

D12.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나요? (단수 응답)

(1) 포장하지 않은 고기(정육점에서 담아서 포장해주는 것 포함)
(2) 포장육(포장해서 진열대 또는 냉동고에 있는 것)
(3) 양념육
(4) 기타 (기록 :)

D13.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주로 어느 정도 구입하시나요? 구매 목적별로 구입량을 각각 말씀해 주세요.

(1) 구이용 () (2) 찌개/반찬용 ()

(1) 100g	(4) 900g
(2) 300g	(5) 1,200g
(3) 600g	(6) 기타 (기록 :)

D14. 주로 구입하시는 돼지고기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구매 목적별로 주로 구입하는 부위를 순서대로 두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1) 구이용	1순위	2순위
(2) 찌개/반찬용	1순위	2순위

(1) 삼겹살	(5) 갈비
(2) 목살	(6) 앞다리(전지), 뒷다리(후지)
(3) 등심	(7) 기타 (기록 :)
(4) 안심	

D15. 주로 구입하시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디인가요?

(1) 구이용 () (2) 찌개/반찬용 ()

(1) 국내산	(3) 미국산
(2) 유럽산	(4) 기타 (기록 :)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D16. 향후에 OO님 댁에서는 수입 돼지고기를 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아마 먹지 않을 것이다	먹을지, 먹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 먹어볼 것이다	반드시 먹을 것이다

닭고기 구입 및 소비 행태

(D17~D20은 D1의 (3)닭고기에 (1)~(6)으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D17. 닭고기를 구입할 때 냉장육과 냉동육 중 주로 어느 것을 구입하시나요?

- (1) 냉장육 (3) 기타 (기록 :)
(2) 냉장육

D18. 닭고기를 구입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나요? (단수 응답)

- (1) 포장하지 않은 고기(정육점에서 담아서 포장해주는 것 포함)
(2) 포장육(포장해서 진열대 또는 냉동고에 있는 것)
(3) 양념육
(4) 기타 (기록 :)

D19. 주로 구입하시는 닭고기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주로 구입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한 마리를 통째로 (5) 안심
(2) 다리 (6) 봉
(3) 날개 (7) 기타 (기록 :)
(4) 가슴

D20. 주로 구입하시는 닭고기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디인가요? 주로 구입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국내산 (3) 미국산
(2) 유럽산 (4) 기타 (기록 :)

(D21은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D21. 향후에 OO님 맥에서는 수입 닭고기를 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아마 먹지 않을 것이다	먹을지, 먹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 먹어볼 것이다	반드시 먹을 것이다

계란 구입 및 소비 행태

(D22는 D1의 (7)계란에 (1)~(6)으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D22. 계란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떤 단위로 구입하시나요?

- (1) 10개 미만 (4) 20개
(2) 10개 (5) 30개 (한 판)
(3) 15개 (6) 기타 (기록 :)

우유 구입 및 소비 행태

(D23은 D1의 (4)우유에 (1)~(6)으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D23. 우유를 구입하실 때 어떤 것을 주로 구입하시나요?

- (1) 소형(200~300ml 내외) (3) 대형(900~1,000ml 정도)
(2) 중형(500ml 내외) (4) 초대형(1.8 리터 이상)

E. 수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E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E1. OO님 댁에서는 다음의 수산물들을 얼마나 자주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입 빈도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R	수산물	E1
	(1) 생선류	
	(2) 해조류(미역, 김 등)	
	(3) 조개류	
	(4) 연체류(오징어, 낙지 등)	
	(5) 갑각류(꽃게 등)	
	(6) 건어물(멸치 등)	

(1) 매일	(4) 2주일에 1회
(2) 주 2~3회	(5) 1달에 1회
(3) 주 1회	(6) 그보다 드물게
	(7) 먹지않음

(E1의 "(1)생선류~(5)갑각류"에서 (1)~(6)이 한 번이라도 응답된 경우에 질문)

E2. 수산물을 구입하실 경우 주로 어떤 상태로 구입하시나요? (단수 응답)

- (1) 수산물을 그대로 사서 집에서 다듬는다
 (2) 구입처에서 손질한 형태로 구입한다
 (3) 수산물을 손질하여 포장한 형태로 구입한다
 (4) 해물매운탕용, 생선가스용 등 반조리된 형태로 구입한다
 (5) 조리된 형태(생선전, 훈제연어 등)로 구입한다.
 (6) 기타 (기록 :)

(E3~E4는 E1에서 (1)~(6)이 한 번이라도 응답된 경우에 질문)

E3.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가격
 (2) 맛
 (3) 안전성
 (4) 품질
 (5) 영양(건강)
 (6) 신선도
 (7) 구입의 편리성
 (8) 조리의 편리성
 (9) 기타 (기록 :)

E3-1.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 중 어떤 정보들을 우선 확인하시나요?
우선 확인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가격
 (2) 생산지역명(서해안 등)
 (3) 원산지
 (4) 신선도
 (5) 브랜드
 (6) 외관(모양, 크기 등)
 (7) 판촉상품(판매자 권유 또는 이벤트상품) 여부
 (8) 품종
 (9) 포장상태
 (10) 기타인증품(HACCP 등) 여부
 (11) 기능성 첨가 여부
 (12) 기타 (기록 :)

E4. 평소 OO님 댁에서 식사하실 때 수산물과 육류를 드시는 빈도는 어느 쪽이 많은가요?

(1)	(2)	(3)	(4)	(5)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다	수산물을 조금 더 많이 먹는 편이다	비슷하다	육류를 조금 더 많이 먹는 편이다	육류를 더 많이 먹는다

F.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F1. 가공식품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가공식품 : 농/축/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 (예 : 햄, 소시지, 어묵 등)]

1순위

- (1) 가격
- (2) 맛
- (3) 안전성
- (4) 품질
- (5) 영양(건강)

2순위

- (6) 신선도(제조일자, 유통기한 포함)
- (7) 구입의 편리성
- (8) 조리의 편리성
- (9) 기타 (기록 :)
- (10) 구입하지 않는다

김치류 구입 및 소비 행태

F2. 평소 김치를 얼마나 자주 마련(구입 또는 담그시거나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 (1) 1개월에 1~2회 이상
- (2) 2~3개월에 1회
- (3) 1년에 2~3회

(4) 그보다 드물게

(5) 전혀 먹지 않는다 → [F6으로 가시오]

F3. OO님 댁에서는 김치를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 (1) 거의 매번 직접 만든다
- (2) 주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얻는다
- (3) 주로 산다

[F4~F5는 F3에서 "(3)주로 산다"가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F4. OO님 댁에서는 김치를 구입하실 때, 주로 몇 kg짜리 김치를 구입하시나요?

여러 종류의 김치를 구입하여 드실 경우에는 배추 김치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_____ kg

F5. 김치를 구입하여 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1) 집에서 담그는 것이 번거로워서
- (2) 담글 시간이 없어서
- (3) 사먹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 (4) 사먹는 것이 맛이 좋아서
- (5) 집에서 담글 줄 모르기 때문에
- (6)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
- (7) 포장상태여서 운반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 (8) 기타 (기록 :)

장류 구입 및 소비 행태

[F6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F6. 평소 장류를 얼마나 자주 마련(구입 또는 담그시거나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하시나요?

R	장류	F6
	(1) 고추장	
	(2) 된장	
	(3) 국간장	

- (1) 1개월에 1~2회 이상
- (2) 2~3개월에 1회
- (3) 1년에 2~3회

(4) 그보다 드물게

(5) 전혀 먹지 않는다 → [고추장, 된장, 국간장 모두 (5)로 응답 시, F10으로 가시오]

[F7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F7. OO님 댁에서는 다음의 장류들을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R	장류	F7
	(1) 고추장	
	(2) 된장	
	(3) 국간장	

- (1) 거의 매번 직접 만든다
- (2) 주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얻는다
- (3) 주로 산다

(F8~F9는 F7에서 "(3)주로 산다"가 응답된 장류에 대해서만 질문)

F8. OO님 댁에서는 장류를 구입하실 때, 주로 어떤 용량을 구입하시나요?

(1) 고추장 _____ kg

(2) 된장 _____ kg

(3) 국간장 _____ ml

(F9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

F9. 장류를 구입하여 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R	장류	F9
	(1) 고추장	
	(2) 된장	
	(3) 국간장	
(1) 집에서 담그는 것이 번거로워서 (2) 담글 시간이 없어서 (3) 사먹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4) 사먹는 것이 맛이 좋아서 (5) 집에서 담글 줄 모르기 때문에 (6)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 (7) 포장상태여서 운반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8) 기타 (기록 :)		

기타 식품 구입 및 소비 행태

F10. 평소 OO님 댁에서 드시는 음료의 종류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마시는 음료의 종류가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 | | |
|---------------------------------|-------------------------------|
| (1) 100% 과일 주스(콜드100%, 아침에쥬스 등) | (8) 이온음료(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등) |
| (2) 저과즙음료(델몬트 드링크, 카프리션 등) | (9) 커피(인스턴트, 원두) |
| (3) 흰우유(서울우유, 저지방우유, 유기농우유 등) | (10) 녹차 |
| (4) 가공우유(초코, 바나나 등) | (11) 곡물차(보리차, 옥수수차, 17차 등) |
| (5) 요구르트 (불가리스, 요플레 등) | (12) 기능성음료(비타500, 컨디션, 핫식스 등) |
| (6) 두유 | (13) 기타 (기록 :) |
| (7)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 | (14) 물 이외의 음료는 마시지 않음 |

(F11~F14는 SQ7에서 "(1)~(2)"가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F11. OO님 댁에서는 어떤 식용유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하고 계신 식용유들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콩기름(대두유) | (5) 면실유 |
| (2) 옥수수기름 | (6) 채종유(카놀라유) |
| (3) 포도씨유 | (7)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음 |
| (4) 올리브유 | (8) 기타 (기록 :) |

F12. OO님 댁에서는 음식 조리 시 어떤 설탕류를 사용하시나요?

사용하고 계신 설탕류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백설탕 | (6) 올리고당 |
| (2) 갈색설탕 | (7) 인공감미료 |
| (3) 흑설탕 | (8)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음 |
| (4) 꿀(조리용으로 사용시) | (9) 기타 (기록 :) |
| (5) 물엿 | |

F13. OO님 댁에서는 음식 조리 시 어떤 소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하고 계신 소금류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천일염 | (4) 맛소금 |
| (2) 꽃소금 | (5)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음 |
| (3) 구운소금, 죽염 | (6) 기타 (기록 :) |

F14. OO님 댁에서는 음식 조리시 어떤 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물의 종류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수돗물 | (4) 생수 |
| (2) 정수기물 | (5) 기타 (기록 : _____) |
| (3) 끓인 물 | |

F15. OO님 댁에서는 식음용으로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식음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물의 종류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수돗물 | (4) 생수 |
| (2) 정수기물 | (5) 기타 (기록 : _____) |
| (3) 끓인 물 | |

F16. OO님 댁에서는 조리식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시나요?

조리식품에는 조리하여 매장에서 판매하는 반찬류, 김밥, 순대, 족발, 떡볶이 등이 포함됩니다.

- | | |
|------------|-----------------------|
| (1) 매일 | (4) 2주일에 1회 |
| (2) 주 2~3회 | (5) 1달에 1회 |
| (3) 주 1회 | (6) 그보다 드물게 |
| | (7) 먹지 않음 → [G1로 가시오] |

F16-1. OO님 댁에서 조리식품을 구입해 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조리할 줄 몰라서 | (4) 번거롭지 않고 편리해서 |
| (2) 시간이 없어서 | (5)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 보다 저렴해서 |
| (3) 맛이 좋아서 | (6) 기타 (기록 : _____) |

G. 외식 행태

외식 소비 행태

[SQ4의 "(1)1인 가구"응답자인 경우, G1~G8은 혼자 외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질문하십시오.]

※ (1인 가구인 경우) 면접원 낭독: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외식"은 집 이외의 장소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경우입니다.

G1. OO님 닥은 평소에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들과 함께 (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음식점에 가서 식사(외식)를 하시나요?

(1) 외식을 한다

(2) 외식을 전혀 하지 않는다 / 식사는 집에서만 한다 → [G8로 가시오]

G2. OO님 닥에서 한달 동안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들과 함께 (1인 가구인 경우, "혼자")음식점에 가서 식사(외식)를 하신 비용을 모두 합하면 얼마 정도가 되시나요?

_____ 원

G2-1.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들과 (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외식을 하시는 경우, 1회 기준으로 외식 비용은 보통 얼마가 되시나요? 그리고 보통 함께 식사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가구원 이외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면접원: "1인 가구"인 경우, "1명"으로 기록]

_____ 원

_____ 명

G3. OO님 닥에서 가구원들과 (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면접원: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1) 매일

(2) 주 4~5회

(3) 주 2~3회

(4) 주 1회

→[G4로 가시오]

(5) 2주일에 1회

(6) 1달에 1회

(7) 2~3달에 1회

(8) 그보다 드물게

→[G4로 가시오]

→[G3-1로 가시오]

(G3-1은 G3에서 (7)~(8)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G3-1. 외식을 거의 또는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1) 값비싼 가격
- (2) 오랜 대기시간
- (3) 맛이 없음
- (4) 화학 조미료 사용
- (5) 영양상 불균형
- (6) 음식량이 많음

2순위

- (7) 음식량이 적음
- (8) 서비스 나쁨
- (9) 위생문제
- (10) 원료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 (11) 기타 (기록: _____)

G4. OO님 댁에서 가구원들과 (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주로 이용하시는 외식 식당은 어디인가요?

가장 자주 가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1순위

2순위

- (1) 한식당(갈비, 삼겹살, 등심 등 고깃집 제외)
- (2) 고깃집(쇠고기/돼지고기/갈비/삼겹살 전문점)
- (3) 치킨 전문점
- (4) 패스트푸드점(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류)
- (5) 분식점 및 김밥 전문점
- (6) 횡집

- (7) 일식요리 전문점(횡집 제외, 덮밥, 라멘, 돈까스, 일식카레 등)
- (8) 중식당
- (9) 뷔페
- (10) 양식당(이탈리안, 프렌치, 패밀리 레스토랑 등)
- (11) 이색외국요리(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 등) 전문점
- (12) 기타 (기록 :)

G5. 외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음식점의 청결도
- (2) 가격 수준
- (3) 서비스 정도
- (4) 분위기
- (5) 요리 종류
- (6) 음식의 맛
- (7) 음식의 양

- (8) 메뉴의 다양성
- (9) 교통이 편리한곳
- (10) 예약의 용이함
- (11) 부대시설(놀이시설, 쇼핑 등)
- (12) 주차의 편리함
- (13) 거리
- (14) 기타 (기록 :)

[G6은 SQ4에서 (2)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G6. OO님 댁에서 가구원들과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1)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 (2)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 (3)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 (4) 특별한 날(축하, 사고 모임, 여행 등)이어서
- (5) 기타 (기록 :)

[G7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G7. 다음의 외식 유형별로 작년에 비해 올해에 지출이나 이용빈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1)	(2)	(3)	(4)	(5)
크게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변함 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R	외식 유형	G7
	(1) 패스트푸드(햄버거 등)	
	(2) 뷔페식당	
	(3) 패밀리레스토랑	
	(4) 외국음식(인도, 태국, 베트남요리 등)	
	(5) 한식	
	(6) 중화요리	
	(7) 일식	
	(8) 유기농(친환경) 전문식당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G8. OO님 닥은 평소에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1)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한다

(2)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 [H1로 가시오]

G9. OO님 닥에서 한달 동안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시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얼마 정도가 되시나요?

_____ 원

G9-1.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 1회 지불 비용은 보통 얼마가 되시나요?
그리고 보통 함께 식사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_____ 원

_____ 명

G10. OO님 닥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 인가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1) 매일

(2) 주 4~5회

(3) 주 2~3회

(4) 주 1회

→ [G11로 가시오]

(5) 2주일에 1회

(6) 1달에 1회

(7) 2~3달에 1회

(8) 그보다 드물게

→ [G11로 가시오]

→ [G10-1로 가시오]

(G10-1은 G10에서 (7)~(8)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G10-1.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거의 또는 자주 드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1) 값비싼 가격
(2) 오랜 대기시간
(3) 맛이 없음
(4) 화학 조미료 사용
(5) 영양상 불균형
(6) 음식량이 많음

2순위

- (7) 음식량이 적음
(8) 서비스 나쁨
(9) 위생문제
(10) 원료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11)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12) 기타 (기록 :)

G11. OO님 닥에서 주로 드시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메뉴는 무엇인가요?

가장 자주 드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1순위

- (1) 보쌈, 족발
(2) 치킨, 강정, 찜닭
(3) 탕류(해물탕, 부대찌개 등)
(4) 피자
(5) 회, 초밥
(6) 중화요리

2순위

- (7) 이색외국요리(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 등)
(8) 채소요리
(9) 한식(밥류: 찌개, 비빔밥, 오므라이스, 김밥, 죽 등)
(10) 면류(분식: 냉면, 라면, 우동, 칼국수 등)
(11) 햄버거, 샌드위치, 빵류
(12) 기타 (기록 :)

G12.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1) 가격 수준
(2) 배달의 신속성
(3) 업체 신뢰도
(4) 메뉴종류
(5) 음식의 맛

2순위

- (6) 음식의 양
(7) 메뉴의 다양성
(8) 포장상태
(9) 기타 (기록 :)

G13.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은 작년에 비해 올해에 지출이나 이용빈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1)	(2)	(3)	(4)	(5)
크게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변함 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H. 식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H1. 1년 전에 비해 가정에서 올해 밥(쌀, 잡곡, 죽 등 밥류) 먹는 횟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1)	(2)	(3)	(4)	(5)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H1-1.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가정에서 밥(쌀, 잡곡, 죽 등 밥류) 먹는 횟수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신가요?

(1)	(2)	(3)	(4)	(5)
매우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H2는 SQ4에서 (2)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H2. 지난 일주일동안 가족(같이 거주하시는 가족 기준)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신 횟수는 몇 번인가요?

(1) 아침 : 7일 중 _____ 일

(2) 점심 : 7일 중 _____ 일

(3) 저녁 : 7일 중 _____ 일

H3. OO님께서 현재 가족의 식생활에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H4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

H4.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에 제시된 학교급식 영향 및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해 주세요.

R	학교급식 및 식생활	H4
	(1) 학교 급식은 식사 습관에 도움이 된다	
	(2) 학교 급식은 가정에서 밥을 잘 먹게 하는 데 기여한다	
	(3) 학교 급식은 품질이 우수하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H5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H5. 다음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R	라이프 스타일	H5
	(1) 아침식사는 밥보다는 미숫가루나 빵 등으로 간단하게 먹는 편이다	
	(2) 식사대용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종종 이용한다	
	(3) 김치와 장류를 사서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4) 먹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5)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편이다	
	(6) 가격이 비싸도 이름난 회사의 식품을 구매한다	
	(7) 음식을 선택할 때 맛을 중시한다	
	(8)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먹는다	
	(9)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를 고려하는 편이다	
	(10) 인스턴트식품을 가능한 먹지 않는다	
	(11) 유기농식품, 친환경인증제품을 자주 이용한다	
	(12) 동일제품의 여러 회사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하는 편이다	
	(13) 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정보를 늘 체크하는 편이다	
	(14) 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	
	(15)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6) 처음 보는 식품이라도 맛있어 보이면 구매한다	
	(17) 다양한 맛을 위해 식단을 매번 바꾸는 편이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배경 질문

(BA1은 SQ4에서 (2)로 응답된 경우에만 질문)

BA1. OO님 닥은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신가요?

(1) 맞벌이 함

(2) 맞벌이 하지 않음

BA2. OO님 닥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근로소득(월급에 상여금, 인센티브도 월 평균으로 합산), 사업소득, 임대수입, 재산소득(이자 및 배당금 등), 연금(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이전소득(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수혜금 등), 자녀/가족에게 받은 용돈, 경조소득, 빌린 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세요.

(1) 1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8) 700~8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9) 800~9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10) 900~1,0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6) 500~600만원 미만

BA2-1. OO님 닥의 월 평균 식료품비 지출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가구 단위 외식비를 포함(개인적 외식비는 제외)하여 말씀해 주세요.

(1) 20만원 미만

(8) 200~250만원 미만

(2) 20~40만원 미만

(9) 250~300만원 미만

(3) 40~60만원 미만

(10) 300~400만원 미만

(4) 60~80만원 미만

(11) 400~500만원 미만

(5) 80~100만원 미만

(12) 500~600만원 미만

(6) 100~150만원 미만

(13) 600만원 이상

(7) 150~200만원 미만

BA3. OO님의 현재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1) 아파트

(3) 단독주택

(2) 연립/다가구주택

(4) 기타 (기록 :)

BA4. OO님 닥의 주택 점유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1) 자기집

(5) 전세

(2) 무상주택

(6) (보증부)월세

(3) 사택

(7) 기타 (기록 :)

(4) 영구임대

BA5. OO님 닥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BA6. OO님 닥에서는 지난 1년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복지관 무료급식, 도시락 지원, 급식비 지원, 무료급식 쿠폰, 보충영양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인 지원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보험 등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1) 예

(2) 아니오

BA7. OO님 닥에서는 작년에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응답해주셨는가요?

(1) 예

(2) 아니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이름 : _____ 주소 : _____시 _____구 _____동 _____ 전화 : () _____ HP : _____ 면접장소 : _____
면접원	이름 : _____ (면접원 코드 : _____) 면접 일시 : 2014년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부터 ____분동안
검증원	이름 : _____ 검증일시 : 2014년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검증결과 : (1) 합격 (2) 보완 (3) 불합격 불합격 이유 : _____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식품 소비 행태 조사 - 가구원(성인)용 설문 -



승인(협의)번호
제 41601 호

조사구 ID (조사 명부 우측 상단에 기록된 조사구 ID를 기록해 주세요.)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응답자 코드(SQ3-1)

안녕하세요?

소비자 조사 전문 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리서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로 가정 내/외에서의 식품 소비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O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면
가정 내/외 식품 소비 행태 이해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물론 본 설문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며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통계 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한국리서치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실무 담당 : 반현정 연구원
전화 : 02-3499-4307

실사 담당 : 김지혜 팀장
전화 : 02-3014-0122

선정 질문

SQ1. OO님의 성별을 표기하여 주세요.

(1) 남성

(2) 여성

SQ2. 올해 OO님의 나이(혹은 연세)가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세

(1) 만 12세 이하 → [면접 중단]

(2) 만 13~15세 → [청소년용 설문에

(3) 만 16~18세 응답하시오]

(4) 만 19~29세

(5) 만 30~39세

(6) 만 40~49세

(7) 만 50~59세

(8) 만 60~69세

(9) 만 70~74세

(9) 만 75세 이상 → [면접 중단]

A. 식생활 행태

식생활

[A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 A1. 지난 일주일간 OO님의 식사 현황을 기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드신 횟수				거른 횟수	합계
	집 / 집에서 만든 도시락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일반 식당	단체 급식 (직장, 학교)			
(1) 아침						7회
(2) 점심						7회
(3) 저녁						7회

(A1에서 "거른 횟수 합계"가 1 이상으로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 A1-1.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1) 시간이 없어서
(2) 먹고 싶지 않아서
(3) 건강 상의 이유로(다이어트, 식이조절 등)
(4) 식사 준비가 안돼서 (음식을 만들 줄 모르고,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5) 식재료/음식을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6) 기타 (기록 :)

- A2. 밥(쌀, 잡곡, 죽 등 밥류) 먹는 횟수가 작년에 비해 어떠한가요?

(1)	(2)	(3)	(4)	(5)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 A2-1. 밥(쌀, 잡곡, 죽 등 밥류) 먹는 횟수가 내년에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되나요?

(1)	(2)	(3)	(4)	(5)
매우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A3. 아침밥은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밥 | (6) 우유 |
| (2) 빵/샌드위치 | (7) 떡류 |
| (3) 죽/누룽지 | (8) 도시락 |
| (4) 선식/미숫가루 | (9) 안먹는다 |
| (5) 씨리얼 | (10) 기타 (기록 :) |

A4.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었나요?

- | | |
|------------------------------|-------------|
| (1) 규칙적이었다 →[A5로 가시오] | (2) 불규칙적이었다 |
|------------------------------|-------------|

(A4에서 "(2) 불규칙적이었다"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A4-1.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먹고 싶지 않아서/귀찮아서 | (4) 식사 모임이 있어서 |
| (2) 식사준비가 안되어서 | (5) 기타 (기록 :) |
| (3) 시간이 없어서 | |

A5.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 | | |
|---------------|-----------------|
| (1) 채소중심의 식생활 | (5)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 |
| (2) 규칙적인 식생활 | (6) 단것을 줄이는 것 |
| (3) 다양하게 먹는 것 | (7) 염분을 줄이는 것 |
| (4) 즐겁게 먹는 것 | (8) 기타 (기록 :) |

A6. OO님께서 현재의 식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A7. OO님께서 드시는 음식의 식재료가 국산 농산물인지 여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다

A8. OO님께서 드시는 음식의 식재료가 얼마나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인지(지역 농산물) 여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다

A9. OO님께서 드시는 음식의 식재료가 친환경식품(유기농, 무농약 등)인지 여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다

[A10~A10-2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A10~A10-2의 "(6)학교급식"은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A10. OO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수입식품의 가격을 100이라 할 때 국산 농식품, 지역 농식품, 유기농 식품

A10-2.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R	식품류	수입원료 가격	A10. 국산 농식품	A10-1. 지역 농식품	A10-2. 유기농 (수입산) 식품
	(1) 농산물	100			
	(2) 수산물	100			
	(3) 축산물	100			
	(4) 가공식품	100			
	(5) 외식	100			
	(6) 학교급식	100			

* 국산 농식품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국내산 원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식사

지역 농식품 :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 또는 지역산 원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식사

유기농 식품 :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 또는 유기농 원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식사

선호식품군

A11. OO님께서 어떤 종류의 밥을 좋아하시나요?

가장 좋아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흰밥

(4) 잡곡밥

(2) 흰밥 + 현미밥

(5) 기타 (기록 :)

(3) 현미밥

A12. OO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을 좋아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사과

(6) 수박

(11) 오렌지

(16) 파인애플

(2) 배

(7) 토마토

(12) 자몽

(17) 딸기

(3) 귤

(8) 복숭아

(13) 체리

(18) 감(단감, 홍시)

(4) 포도

(9) 바나나

(14) 블루베리

(19) 기타 (기록 :)

(5) 참외

(10) 키위

(15) 망고

A13. 어떤 맛의 과일을 좋아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3개 이내)

(1) 달콤한 것

(6) 신선한 것

(2) 새콤한 것

(7) 제철과일

(3)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좋은 것

(8) 먹기 쉬운 것

(4) 향기가 좋은 것

(9) 건강에 좋은 것

(5) 식감이 좋은 것

(10) 기타 (기록 :)

A14. OO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육류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 | |
|----------|-------------------|
| (1) 쇠고기 | (4) 오리고기 |
| (2) 돼지고기 | (5) 육가공품 (햄, 베이컨) |
| (3) 닭고기 | (6) 기타 (기록 :) |

A15. OO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 | |
|-------------------------------|---------------------------------|
| (1) 100% 과일 주스(델몬트 오렌지, 콜드 등) | (7)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써니텐 류) |
| (2) 저과즙음료(피크닉, 카프리썬, 코코팜 등) | (8) 이온음료(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등) |
| (3) 흰우유 | (9) 커피(인스턴트, 원두, 캔커피) |
| (4) 가공우유(초코, 바나나맛 우유 등) | (10) 녹차(녹차티백, 잎차, 가루녹차, 캔 녹차 등) |
| (5) 발효유(불가리스, 야쿠르트, 요플레 등) | (11) 곡물차(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등) |
| (6) 두유(베지밀, 순두유 등) | (12) 기능성 음료(비타500, 컨디션, 핫식스 등) |
| | (13) 기타 (기록 :) |

A16.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 | | |
|-------------|----------------------------|
| (1) 매일 | (6) 1달에 1회 |
| (2) 주 4~5회 | (7) 2~3달에 1회 |
| (3) 주 2~3회 | (8) 그보다 드물게 |
| (4) 주 1회 | (9) 술을 마시지 않음 → [A17로 가시오] |
| (5) 2주일에 1회 | (10) 기타 (기록 :) |

(A16-1은 A16에서 (1)~(8) 또는 (10)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A16-1. OO님께서 어떤 종류의 술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 | | |
|---------|----------------|
| (1) 소주 | (4) 와인 |
| (2) 맥주 | (5) 양주 |
| (3) 막걸리 | (6) 기타 (기록 :) |

[A17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A17. 다음의 각 식품류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록해 주세요.

R	식품류	A17
	(1) 과일	
	(2) 채소	
	(3) 쌀	
	(4) 잡곡	
	(5) 쇠고기	
	(6) 돼지고기	
	(7) 닭고기	
	(8) 육가공품	
	(9) 계란	
	(10) 우유	
	(11) 수산물	
	(12) 가공식품	
	(13) 술	
	(14) 기능성식품	
	(15) 친환경식품	

(1)	(2)	(3)	(4)	(5)
나쁜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좋은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0)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외식행태 (가족단위가 아닌 응답자 개인의 외식행태)

A18. OO님께서 평소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 가서 식사(외식)를 하시나요?

(1) 외식을 한다

(2) 외식을 전혀 하지 않는다

→ [A25로 가시오]

A19.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집이 아닌 외부(직장 포함)에서의 식사를 모두 고려하여 선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1) 매일

(2) 주 4~5회

(3) 주 2~3회

(4) 주 1회

→ [A20으로 가시오]

(5) 2주일에 1회

(6) 1달에 1회

(7) 2~3달에 1회

(8) 그보다 드물게

→ [A20으로 가시오]

→ [A19-1로 가시오]

(A19에서 (7)~(8)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A19-1.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외식을 거의 또는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값비싼 가격

(2) 오랜 대기시간

(3) 맛이 없음

(4) 화학 조미료 사용

(5) 영양상 불균형

(6) 음식량이 많음

(7) 음식량이 적음

(8) 서비스 나쁨

(9) 위생문제

(10) 원료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11) 기타 (기록 :)

A20.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신 경우, 월평균 외식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시나요?

월평균 _____ 원

A20-1.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1회 외식 비용으로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시나요?
1인당 지불 비용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_____ 원

- A21.**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외식을 하실 때는 주로 어디서 식사를 하시나요?
가장 자주 가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한식당(갈비, 삼겹살, 등심 등 고깃집 제외) | (7) 일식요리 전문점(횃집 제외, 덮밥, 라멘, 돈까스, |
| (2) 고깃집(쇠고기/돼지고기/갈비/삼겹살 전문점) | (8) 중식당 |
| (3) 치킨 전문점 | (9) 뷔페 |
| (4) 패스트푸드점(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류) | (10) 양식당(이탈리안, 프렌치, 패밀리 레스토랑 등) |
| (5) 분식점 및 김밥 전문점 | (11) 이색외국요리(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 등) 전문점 |
| (6) 횃집 | (12) 기타 (기록 :) |

- A21-1.** (A21의 1순위 응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맛있어서 | (5) 양이 많아서 |
| (2) 가까워서 | (6) 음식이 다양해서 |
| (3) 시간이 없어서 | (7) 건강에 좋아서 |
| (4) 값이 싸서 | (8) 기타 (기록 :) |

- A22.**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외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음식점의 청결도 | (7) 음식의 양 |
| (2) 가격 수준 | (8) 메뉴의 다양성 |
| (3) 서비스 정도 | (9) 교통이 편리한곳 |
| (4) 분위기 | (10) 예약의 용이함 |
| (5) 요리 종류 | (11) 부대시설(놀이시설, 주차시설, 쇼핑 등) |
| (6) 음식의 맛 | (12) 기타 (기록 :) |

- A23.**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 | |
|------------------------------|-------------------------------|
| (1)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 (4) 특별한 날(축하, 사교 모임, 여행 등)이어서 |
| (2) 근로, 학업 등으로 가정 내 식사가 어려워서 | (5) 기타 (기록 :) |
| (3)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 |

[A24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A24.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인 경우만 봤을 때, 다음의 외식 유형별로 작년에 비해 올해에 지출이나 이용빈도가 어떠하신가요?

R	외식 유형	A24
	(1) 패스트푸드(햄버거 등)	
	(2) 뷔페식당	
	(3) 패밀리레스토랑	
	(4) 외국음식(인도, 태국, 베트남요리 등)	
	(5) 한식	
	(6) 중화요리	
	(7) 일식	
	(8) 유기농(친환경) 전문식당	

(1)	(2)	(3)	(4)	(5)
크게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함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0) 이용한 적 없음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가족단위가 아닌 응답자 개인이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외식하는 행태)

A25. OO님께서 평소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나요?

(1)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식사를 한다

(2)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 [B1로 가시오]

A26.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1) 매일

(2) 주 4~5회

(3) 주 2~3회

(4) 주 1회

→ [A27로 가시오]

(5) 2주일에 1회

(6) 1달에 1회

(7) 2~3달에 1회

(8) 그보다 드물게

→ [A27로 가시오]

→ [A26-1로 가시오]

(A26에서 (7)~(8)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A26-1.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식사를 거의 또는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값비싼 가격
- (2) 오랜 대기시간
- (3) 맛이 없음
- (4) 화학 조미료 사용
- (5) 영양상 불균형
- (6) 음식량이 많음

- (7) 음식량이 적음
- (8) 서비스 나쁨
- (9) 위생문제
- (10) 원료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 (11)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 (12) 기타 (기록 :)

A27. OO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주 드시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메뉴는 무엇인가요?

가장 자주 드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1순위

2순위

- (1) 보쌈, 족발
- (2) 치킨, 강정, 찜닭
- (3) 탕류(해물탕, 부대찌개 등)
- (4) 피자
- (5) 회, 초밥
- (6) 중화요리

- (7) 이색외국요리(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 등)
- (8) 채소요리
- (9) 한식(밥류: 찌개, 비빔밥, 오프라이스, 김밥, 죽 등)
- (10) 면류(분식: 냉면, 라면, 우동, 칼국수 등)
- (11) 햄버거, 샌드위치, 빵류
- (12) 기타 (기록 :)

A28.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1회 식사를 하실 때 비용으로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시나요?

1인당 지불 비용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원

A29.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가격 수준
- (2) 배달의 신속성
- (3) 업체 신뢰도
- (4) 메뉴종류
- (5) 음식의 맛

- (6) 음식의 양
- (7) 메뉴의 다양성
- (8) 포장상태
- (9) 기타 (기록 :)

A30.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달,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1)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 (2) 근로, 학업 등으로 가정 내 식사가 어려워서
- (3)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 (4) 특별한 날(축하, 사교 모임, 여행 등)이어서
- (5) 기타 (기록 :)

A31.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하는 빈도가 작년에 비해 올해 어떠하십니까?

(1)	(2)	(3)	(4)	(5)
크게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함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B. 식품 안전성

※ 지금부터 "식품 안전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B1.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2. 식품안전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경우를 100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시는 정도를 평가해 주세요.
"최저 0점 ~ 최고 100점" 사이의 점수로 기록해 주세요.

_____ 점

[B3~B3-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B3. 다음의 수입산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정도를 기록해 주세요.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3-1. 그렇다면, 다음의 국내산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정도를
기록해 주세요.

R	식품 종류	B3. 수입산 식품 안전도	B3-1. 국내산 식품 안전도
	(1) 곡류		
	(2) 채소류		
	(3) 과일류		
	(4) 육류(미국산)		
	(5) 육류(호주, 뉴질랜드산)		
	(6) 육류(유럽산)		
	(7) 육류(남미산)		
	(8) 수산물(일본산)		
	(9) 수산물(중국산)		
	(10) 수산물(유럽산)		
	(11) 가공식품		
	(12) 임산물 (대추, 밤, 호두, 잣 등)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4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B4. 다음의 조리 및 식사 장소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정도를 기록해 주세요.

R	조리 및 식사 장소				B4
	(1) 직장이나 학교에서 급식				
	(2)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				
	(3)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4) 즉석 조리코너 판매 형태				
	(5)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5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B5. 다음 식품의 위해요인에 대해서 우려되는 정도를 기록해 주세요.

R	요 인				B5
	(1) 이물질(머리카락, 벌레 등)				
	(2) 채소, 과일의 잔류농약				
	(3) 축산, 활어의 항생제				
	(4) 자연독성(버섯, 복어 등)				
	(5) 식품첨가물				
	(6)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7) 식중독균				
	(8) 가축 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9) GMO식품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식품)				
	(10) 방사선 조사식품				
	(11) 식품용기 및 포장의 위해성				
	(12) 알레르기 유발물질				
	(1)	(2)	(3)	(4)	(5)
	매우 우려된다	우려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우려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5-1. B5의 보기로 제시된 식품위해물질들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B6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

- B6.** OO님께서서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주체들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R	관리 주체	B6
	(1) 중앙정부(농식품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2)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3) 생산자(기업, 단체)	
	(4) 유통 및 판매업체	
	(5) 소비자 자신	
	(6) 학교	
	(7) 소비자단체	
	(8) 언론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 B7.** OO님께서서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 식품 표시사항

※ 다음으로는 "식품 표시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C1. OO님께서 식품 구매 시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을 보시나요?

- (1) 전혀 안 본다 → [C3으로 가시오] (4) 보는 편이다
 (2) 거의 안 보는 편이다 (5) 거의 매번 본다
 (3)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C2. 다음은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OO님께서 **청과물, 육류와 같은 신선식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확인하시는 사항들을 모두 기록해 주세요. (복수 응답)

(1) 청과물 : _____ , _____ , _____ , _____

(2) 육류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 가격 (8) GMO식품 표시 (11) 지자체 등 기타인증 표시
 (2) 생산연도(일자)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12) 이력번호
 (3) 원산지표시 (9) GAP 표시 (13) 당도표시
 (4) 생산지역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표시) (14) 등급
 (5) 생산자이름 (10) HACCP 표시 (15) 품종
 (6) 브랜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표시) (16) 기타 (기록 : _____)
 (7) 중량

C2-1. 다음은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OO님께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확인하시는 사항을 모두 기록해 주세요. (복수 응답)

- (1) 유통기한 (7) 내용량 (13) HACCP 표시
 (2) 원산지표시 (8) 제조업자명(판매업자명)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표시)
 (3) 첨가물 (9) 브랜드 (14) 가격
 (4) 원재료명 (10) 전통식품인증 표시 (15) 영양 표시
 (5) GM식품 표시 (11) KS 표시 (16) 등급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12) 지자체 등 기타인증 표시 (17) 기타 (기록 : _____)
 (6) 보존방법(예: 냉동보관 등)

C3. 전반적인 식품의 표시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C4. OO님께서 식품표시에 대해 신뢰하시나요?

(1)	(2)	(3)	(4)	(5)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C4에서 "(1)~(2)"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C4-1. ○○님께서 식품표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1) 표시절차나 검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
- (2)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상품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3) 표시가 너무 많아서 믿음이 가지 않음
- (4)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5) 기타 (기록 :)

[C5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C5. 다음의 각 보기기에 대해 ○○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기록해 주세요.
1년 전과 비교 시 변함이 없다면 (3)으로 응답해 주세요.

R	표시 이용도 및 신뢰도	C5
	(1) 1년 전에 비해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2) 1년 전에 비해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에 표시된 것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6~C7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C6. 다음의 각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1) 잘 알고 있다
- (2) 들어본 적이 있다
- (3) 모른다

[C6에서 "(1)~(2)"로 응답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록해 주세요.]

C7. 다음 마크가 표시된 상품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R	표시 및 인증	C6	C7
	(1) 전통식품인증제		
	(2) 가공식품 KS 표시		
	(3)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4) 원산지 표시		
	(5) 유기농인증		
	(6) 지리적 표시		
	(7) 생산이력제도		
	(8)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		
	(9)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GMO)		
(1)	(2)	(3)	(4)
구입한 적 없다	전에 구입했으나 현재 구입 안한다	가끔 구입한다 (한 달 이후 재구입)	자주 구입한다 (한 달 이내 재구입)

D. 식품 관련 교육/홍보/정보

※ 다음으로는 "식품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및 정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D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 D1. OO님께서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관련된 교육, 홍보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소비자단체주최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관련된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참가한 경험이 있다

(2) 참가해 본 적이 없다

R	교육 및 홍보	D1
	(1) 식품관련 소비자교육	
	(2) 정부주최 식품관련 홍보 행사	
	(3) 소비자단체의 식품관련 행사	

(D1에서 한 번이라도 (1)이 응답된 경우에 기록해 주세요.)

- D1-1.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관련된 교육, 홍보행사가 OO님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나요?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D2. 음식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1) 유아기

(5) 고교생

(2)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6) 대학생

(3)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7) 필요없음

(4) 중학생

- D3. OO님께서 식료품에 대한 품질이나 식생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우선순위 두 곳을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판매자

(8)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나 행사(교육 등) 참가

(2) 주위 사람

(9) 학교

(3) 포장지 표시나 문구

(10) 의학전문가(의사, 간호사 등)

(4) 방송(TV, 라디오 등) → [D3-1로 가시오]

(11) 교회 등 종교단체

(5) 광고문구(전철, 신문, 잡지 등)

(12) 건강관련 단체

(6) 인터넷 블로그 또는 SNS

(13) 식품전시회/박람회

(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14) 기타 (기록 :)

(7) 정부기관 홈페이지

(D3에서 (4)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 D3-1.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 중 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식료품 관련 정보를 얻으시나요? (단수 응답)

(1) 요리관련 방송

(4) TV 또는 라디오상의

(2) TV 또는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

공공발표 또는 캠페인 광고

(3) 토크쇼

(5) 기타 (기록 :)

E. 식품 관련 피해/구제

※ 지금부터는 "식품 관련 피해와 구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E1. 최근 1년 이내에 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예

(2) 아니오 → [F1으로 가시오]

(E1-1~E1-6은 E1에서 (1)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E1-1. 식품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피해를 경험하셨나요? (복수 응답)

- (1) 이물질혼입
- (2) 품질불량 (중량 미달, 상했거나 신선도가 떨어진 상품을 구입한 경우)
- (3) 과대광고 (식품의 기능성, 효능에 대한 허위 및 과대 광고)
- (4) 허위표시 (유통기한, 함량, 영양성분, 원산지 표시항목의 누락 및 허위기재)
- (5) 건강상의 문제 발생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발생 등)
- (6) 바가지요금
- (7) 기타 (기록 :)

E1-2. 어떤 종류의 식품에 대해 피해를 입으셨나요?

보기 중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 (1) 농산물
- (2) 축산물
- (3) 수산물
- (4) 가공식품(종류 :)
- (5) 조리식품
- (6) 외식(음식점)
- (7) 배달음식
- (8) 급식
- (9) 기타 (기록 :)

E1-3. 피해를 입은 식품은 어디에서 구입하신 것인가요? (복수 응답)

- (1) 슈퍼
- (2) 재래시장
- (3) 백화점
- (4) 대형할인매장
- (5) 통신판매(인터넷, 전화주문, 홈쇼핑 등)
- (6) 친환경전문점
- (7) 음식점
- (8) 급식 식당
- (9) 기타 (기록 :)

E1-4. 식품 관련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복수 응답)

(1) 생산자(업체)에 불만제기	→[E1-6으로 가시오]
(2) 구입처에 불만제기	
(3) 소비자단체 상담센터에 의뢰	
(4) 공공기관에 제보 및 신고	
(5) 인터넷에 사례를 공유하거나 언론에 제보	
(6) 그냥 지나쳤다	→[E1-5로 가시오]
(7) 기타 (기록 : _____)	→[E1-6으로 가시오]

(E1-4에서 "(6)그냥 지나쳤다"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E1-5.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귀찮아서 | (4)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
| (2) 시간이 걸려서 | (5) 어디에 상담해야 좋을지 몰라서 |
| (3) 비용이 들어서 | (6) 기타 (기록 : _____) |

(E1-4에서 (1)~(5)및 (7)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E1-6. 식품 피해(불만)에 대한 처리(조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F.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지금부터는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F1. 다음 중에서 식품 관련 소비자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식품안전 보장 | (4)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 |
| (2) 식품관련 거래 적정화 | (5) 식품 표시정보의 제공 |
| (3) 식품관련 피해구제 | (6) 기타 (기록 :) |

F2. OO님께서서는 정부차원에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음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부당 사업자 처벌 단속 | (5) 교육 및 홍보 |
| (2)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 (6) 국제소비자문제대응 |
| (3) 조사연구 | (7) 정책개발 및 추진 |
| (4) 정보수집 및 제공 | (8) 기타 (기록 :) |

F3. OO님께서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식품관련 소비자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정도를 100점 만점에 대한 점수로 평가해 주세요.

_____ 점

F4. 국민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보기를 보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정책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1) 식품 안전관리로 질병(식중독, 비만, 암 등) 예방
- (2) 식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 (3)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체계 구축
- (4) 균형있는 식품·영양공급으로 소비자건강 향상
- (5)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홍보

배경 질문

※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해 몇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BA1. 현재 OO님의 키와 체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키 _____ cm 체중 _____ kg

BA2. 체중 조절(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BA3. 체중 조절(다이어트)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예 (2) 아니오

BA4.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1) 예 (2) 아니오

BA5. OO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근로소득(월급에 상여금, 인센티브도 월 평균으로 합산), 사업소득, 임대수입, 재산소득(이자 및 배당금 등), 연금(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이전소득(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수혜금 등), 자녀/가족에게 받은 용돈, 경조소득, 빌린 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세요.

- (1) 100만원 미만 (7) 350~400만원 미만
(2) 100~150만원 미만 (8) 400~450만원 미만
(3) 150~200만원 미만 (9) 450~500만원 미만
(4) 200~250만원 미만 (10) 500만원 이상
(5) 250~300만원 미만 (11) 주부 또는 미취업
(6) 300~350만원 미만 (12) 기타 (기록 :)

BA6. OO님께서도 작년에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응답해주셨는가요?

(1) 예 (2) 아니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p>이름 : _____</p> <p>주소 : _____시 _____구 _____동 _____</p> <p>전화 : () _____ HP : _____</p> <p>면접장소 : _____</p>
검증원	<p>이름 : _____</p> <p>검증일시 : 2014년 __월__일 (오전/오후) __시 __분</p> <p>검증결과 : (1) 합격 (2) 보완 (3) 불합격</p> <p>불합격 이유 : _____</p>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식품 소비 행태 조사 - 가구원(청소년)용 설문 -



승인(협의)번호
제 41601 호

조사구 ID (조사 명부 우측 상단에 기록된 조사구 ID를 기록해 주세요.)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응답자 코드(SQ3-1)

안녕하세요?

소비자 조사 전문 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리서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로 가정 내/외에서의 식품 소비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O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면
가정 내/외 식품 소비 행태 이해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물론 본 설문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며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통계 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한 조사 문항을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응답하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로 접속한 후,
면접원이 적어드린 <ID>와 <응답자 코드>를 입력하시고 질문해 답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조사용 URL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한국리서치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실무 담당 : 반현정 연구원
전화 : 02-3499-4307

실사 담당 : 김지혜 팀장
전화 : 02-3014-0122

선정 질문

SQ1. OO님의 성별을 표기하여 주세요.

(1) 남성

(2) 여성

SQ2. 올해 OO님의 나이(혹은 연세)가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세

(1) 만 12세 이하 (초등생 이하) → [면접 중단]

(2) 만 13~15세 (중학교 1~3학년) → 나이와 학교/학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만 16~18세 (고등학교 1~3학년) 학교/학년 기준으로 표기해 주세요.

(4) 만 19세 이상 → [성인용 설문에 응답하시오]

A. 식생활 형태

식생활

[A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 A1. 지난 일주일간 OO님의 식사 현황을 기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드신 횟수				거른 횟수	합계
	집 / 집에서 만든 도시락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일반 식당	학교 급식			
(1) 아침						7회
(2) 점심						7회
(3) 저녁						7회

*학교 이외 식당은 일반 식당으로 포함 / *브런치, 아점(아침 겸 점심)은 점심에 포함

(A1에서 "거른 횟수 합계"가 1 이상으로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 A1-1.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1) 시간이 없어서 (4) 식사 준비가 안돼서
(2) 먹고 싶지 않아서 (음식을 만들 줄 모르고,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3) 건강 상의 이유로(다이어트, 식이조절 등) (5) 식재료/음식을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6) 기타 (기록 :)

[A2~A2-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 A2. 하루에 간식은 몇 번 정도 먹습니까?
- 학교 다닐 때를 기준으로
- 다음의 장소별로 응답해 주세요.

(1)	(2)	(3)	(4)	(5)
전혀 먹지 않는다	1회 먹는다	2회 먹는다	3회 먹는다	수시로 먹는다

(A2에서 (2)~(5)로 응답된 항목들에 대해서만 기록해 주세요.)

- A2-1. 그렇다면, (A2의 응답 장소)에서는 주로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가장 자주 드시는 간식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R	간식 취식 장소	A2. 간식 횟수	A2-1. 주로 먹는 간식 종류
	(1) 학교에서		
	(2) 길거리나 음식점에서		
	(3) 집에서		

(1) 과일	(6) 햄버거/샌드위치	(11) 주스
(2) 김밥	(7) 빵, 도넛	(12) 탄산음료
(3) 떡볶이	(8) 과자	(13) 아이스크림
(4) 라면	(9) 사탕, 초콜릿	(14) 기타 (기록 :)
(5) 치킨류(닭강정, 닭꼬치, 치킨 등)	(10) 우유/두유	

A3. 밥(쌀, 잡곡, 죽 등 밥류) 먹는 횟수가 작년에 비해 어떠한가요?

(1)	(2)	(3)	(4)	(5)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A3-1. 밥(쌀, 잡곡, 죽 등 밥류) 먹는 횟수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1)	(2)	(3)	(4)	(5)
매우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A4. 아침밥은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밥 | (6) 우유 |
| (2) 빵/샌드위치 | (7) 떡류 |
| (3) 죽/누룽지 | (8) 도시락 |
| (4) 선식/미숫가루 | (9) 안먹는다 |
| (5) 씨리얼 | (10) 기타 (기록 :) |

A5.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었나요?

- (1) 규칙적이었다** → [A6으로 가시오] (2) 불규칙적이었다

[A5에서 "(2) 불규칙적이었다"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A5-1.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먹고 싶지 않아서 | (4) 식사 모임이 있어서 |
| (2) 식사준비가 안되어서 | (5) 기타 (기록 :) |
| (3) 시간이 없어서 | |

[A6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A6. 다음에 제시된 학교급식 영향 및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해 주세요.

R	학교급식	A6
	(1) 학교 급식은 식사 습관에 도움이 된다	
	(2) 학교 급식은 가정에서 밥을 잘 먹게 하는 데 기여한다	
	(3) 학교 급식은 품질이 우수하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7.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 | | |
|---------------|-----------------|
| (1) 채소중심의 식생활 | (5)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 |
| (2) 규칙적인 식생활 | (6) 단것을 줄이는 것 |
| (3) 다양하게 먹는 것 | (7) 염분을 줄이는 것 |
| (4) 즐겁게 먹는 것 | (8) 기타 (기록 :) |

A8. OO님께서 현재의 식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A9. OO님께서 드시는 음식의 식재료가 국산 농산물인지 여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다

A10. OO님께서 드시는 음식의 식재료가 얼마나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인지(지역 농산물) 여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다

A11. OO님께서 드시는 음식의 식재료가 친환경식품(유기농, 무농약 등)인지 여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다

선호식품군

A12. OO님께서 어떤 종류의 밥을 좋아하시나요?
가장 좋아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흰밥

(4) 잡곡밥

(2) 흰밥 + 현미밥

(5) 기타 (기록 :)

(3) 현미밥

A13. OO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을 좋아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사과

(6) 수박

(11) 오렌지

(16) 파인애플

(2) 배

(7) 토마토

(12) 자몽

(17) 딸기

(3) 귤

(8) 복숭아

(13) 체리

(18) 감(단감, 홍시)

(4) 포도

(9) 바나나

(14) 블루베리

(19) 기타 (기록 :)

(5) 참외

(10) 키위

(15) 망고

A14. 어떤 맛의 과일을 좋아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3개 이내)

- | | |
|----------------------|-----------------|
| (1) 달콤한 것 | (6) 신선한 것 |
| (2) 새콤한 것 | (7) 제철과일 |
| (3)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좋은 것 | (8) 먹기 쉬운 것 |
| (4) 향기가 좋은 것 | (9) 건강에 좋은 것 |
| (5) 식감이 좋은 것 | (10) 기타 (기록 :) |

A15. ○○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육류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 | |
|----------|-------------------|
| (1) 쇠고기 | (4) 오리고기 |
| (2) 돼지고기 | (5) 육가공품 (햄, 베이컨) |
| (3) 닭고기 | (6) 기타 (기록 :) |

A16. ○○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 | |
|-------------------------------|---------------------------------|
| (1) 100% 과일 주스(델몬트 오렌지, 쿨드 등) | (7)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써니텐 류) |
| (2) 저과즙음료(피크닉, 카프리션, 코코팜 등) | (8) 이온음료(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등) |
| (3) 흰우유 | (9) 커피(인스턴트, 원두, 캔커피) |
| (4) 가공우유(초코, 바나나맛 우유 등) | (10) 녹차(녹차티백, 잎차, 가루녹차, 캔 녹차 등) |
| (5) 발효유(불가리스, 야쿠르트, 요플레 등) | (11) 곡물차(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등) |
| (6) 두유(베지밀, 순두유 등) | (12) 기능성 음료(비타500, 컨디션, 핫식스 등) |
| | (13) 기타 (기록 :) |

[A17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시오.]**A17. 다음의 각 식품류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록해 주세요.**

R	식품류	A17
	(1) 과일	
	(2) 채소	
	(3) 쌀	
	(4) 잡곡	
	(5) 쇠고기	
	(6) 돼지고기	
	(7) 닭고기	
	(8) 육가공품	
	(9) 계란	
	(10) 우유	
	(11) 수산물	
	(12) 가공식품	
	(13) 술	
	(14) 기능성식품	
	(15) 친환경식품	

(1)	(2)	(3)	(4)	(5)
나쁜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좋은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0)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외식행태 (가족단위가 아닌 응답자 개인의 외식행태)

A18. OO님께서 평소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 가서 식사(외식)을 하시나요?

(1) 외식을 한다

(2) 외식을 전혀 하지 않는다 → [A26으로 가시오]

A19.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집이 아닌 외부(직장 포함)에서의 식사를 모두 고려하여 선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1) 매일

(2) 주 4~5회

(3) 주 2~3회

(4) 주 1회

→ [A20으로 가시오]

(5) 2주일에 1회

(6) 1달에 1회

(7) 2~3달에 1회

(8) 그보다 드물게

→ [A20으로 가시오]

→ [A19-1로 가시오]

(A19에서 (7)~(8)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A19-1.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외식을 거의 또는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값비싼 가격

(2) 오랜 대기시간

(3) 맛이 없음

(4) 화학 조미료 사용

(5) 영양상 불균형

(6) 음식량이 많음

(7) 음식량이 적음

(8) 서비스 나쁨

(9) 위생문제

(10) 원료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11) 기타 (기록 :)

A20.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신 경우, 월평균 외식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시나요?

월평균 _____ 원

A20-1.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1회 외식 비용으로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시나요?
1인당 지불 비용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_____ 원

A21.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외식을 하실 때는 주로 어디서 식사를 하시나요?

(1) 식당(음식점) → [A22로 가시오]

(2) 편의점 → [A23으로 가시오]

(3) 포장마차 등 길거리

(4) 학교 매점

(5) 기타 (기록 :)

→ [A23으로 가시오]

- A22.**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식당에서 외식을 하실 때는 주로 어디서 식사를 하시나요?
가장 자주 가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한식당(갈비, 삼겹살, 등심 등 고깃집 제외) | (8) 중식당 |
| (2) 고깃집(쇠고기/돼지고기/갈비/삼겹살 전문점) | (9) 뷔페 |
| (3) 치킨 전문점 | (10) 양식당(이탈리안, 프렌치, 패밀리 레스토랑 등) |
| (4) 패스트푸드점(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류) | (11) 이색외국요리(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 등) 전문점 |
| (5) 분식점 및 김밥 전문점 | (12) 기타 (기록 :) |
| (6) 횃집 | |
| (7) 일식요리 전문점(횃집 제외, 덮밥, 라멘, 돈까스, 일식카레 등) | |

- A22-1.** (A22 응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맛있어서 | (5) 양이 많아서 |
| (2) 가까워서 | (6) 음식이 다양해서 |
| (3) 시간이 없어서 | (7) 건강에 좋아서 |
| (4) 값이 싸서 | (8) 기타 (기록 :) |

- A23.**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음식점에서 드시는 외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음식점의 청결도 | (7) 음식의 양 |
| (2) 가격 수준 | (8) 메뉴의 다양성 |
| (3) 서비스 정도 | (9) 교통이 편리한곳 |
| (4) 분위기 | (10) 예약의 용이함 |
| (5) 요리 종류 | (11) 부대시설(놀이시설, 주차시설, 쇼핑 등) |
| (6) 음식의 맛 | (12) 기타 (기록 :) |

- A24.**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 | | |
|------------------------------|-------------------------------|
| (1)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 (4) 특별한 날(축하, 사교 모임, 여행 등)이어서 |
| (2) 근로, 학업 등으로 가정 내 식사가 어려워서 | (5) 기타 (기록 :) |
| (3)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 |

[A25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 A25.**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인 경우만 봤을 때, 다음의 외식 유형별로 작년에 비해 올해에 지출이나 이용빈도가 어떠하십니까?

R	외식 유형	A25
	(1) 패스트푸드(햄버거 등)	
	(2) 뷔페식당	
	(3) 패밀리레스토랑	
	(4) 외국음식(인도, 태국, 베트남요리 등)	
	(5) 한식	
	(6) 중화요리	
	(7) 일식	
	(8) 유기농(친환경) 전문식당	

(1)	(2)	(3)	(4)	(5)
크게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함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가족단위가 아닌 응답자 개인이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외식하는 행태)

A26. OO님께서 평소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나요?

(1)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식사를 한다

(2)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 [B1로 가시오]

A27.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또는 혼자) 집이 아닌 장소에서 배달/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1) 매일

(2) 주 4~5회

(3) 주 2~3회

(4) 주 1회

→ [A28로 가시오]

(5) 2주일에 1회

(6) 1달에 1회

(7) 2~3달에 1회

(8) 그보다 드물게

→ [A28로 가시오]

→ [A27-1로 가시오]

(A27에서 (7)~(8)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A27-1.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거의 또는 자주 드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값비싼 가격
- (2) 오랜 대기시간
- (3) 맛이 없음
- (4) 화학 조미료 사용
- (5) 영양상 불균형
- (6) 음식량이 많음

- (7) 음식량이 적음
- (8) 서비스 나쁨
- (9) 위생문제
- (10) 원료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 (11)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 (12) 기타 (기록 :)

A28. OO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주 드시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메뉴는 무엇인가요?
가장 자주 드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 응답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식 비용이 기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시오.]

1순위

2순위

- (1) 보쌈, 족발
- (2) 치킨, 강정, 찜닭
- (3) 탕류(해물탕, 부대찌개 등)
- (4) 피자
- (5) 회, 초밥
- (6) 중화요리

- (7) 이색외국요리(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 등)
- (8) 채소요리
- (9) 한식(밥류: 찌개, 비빔밥, 오므라이스, 김밥, 죽 등)
- (10) 면류(분식: 냉면, 라면, 우동, 칼국수 등)
- (11) 햄버거, 샌드위치, 빵류
- (12) 기타 (기록 :)

A29. OO님께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1회 식사를 하실 때 비용으로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시나요? 1인당 지불 비용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때에 따라 다르실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을 기록해 주세요.)

_____ 원

A30.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가격 수준

(2) 배달의 신속성

(3) 업체 신뢰도

(4) 메뉴종류

(5) 음식의 맛

(6) 음식의 양

(7) 메뉴의 다양성

(8) 포장상태

(9) 기타 (기록 :)

A31. OO님께서 배달,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1)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4) 특별한 날(축하, 사교 모임, 여행 등)이어서

(2) 근로, 학업 등으로 가정 내 식사가 어려워서

(5) 기타 (기록 :)

(3)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A32. OO님께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또는 혼자)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하는 빈도가 작년에 비해 올해 어떠하십니까?

(1)	(2)	(3)	(4)	(5)
크게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함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B. 식품 안전성

※ 지금부터 "식품 안전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B1.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2. 식품안전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경우를 100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시는 정도를 평가해 주세요.

"최저 0점 ~ 최고 100점" 사이의 점수로 기록해 주세요.

_____ 점

[B3~B3-1은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B3. 다음의 수입산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정도를 기록해 주세요.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3-1. 그렇다면, 다음의 국내산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정도를 기록해 주세요.

R	식품 종류	B3. 수입산 식품 안전도	B3-1. 국내산 식품 안전도
	(1) 곡류		
	(2) 채소류		
	(3) 과일류		
	(4) 육류(미국산)		
	(5) 육류(호주, 뉴질랜드산)		
	(6) 육류(유럽산)		
	(7) 육류(남미산)		
	(8) 수산물(일본산)		
	(9) 수산물(중국산)		
	(10) 수산물(유럽산)		
	(11) 가공식품		
	(12) 임산물 (대추, 밤, 호두, 잣 등)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4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십시오.]

B4. 다음의 조리 및 식사 장소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정도를 기록해 주세요.

R	조리 및 식사 장소				B4
	(1) 직장이나 학교에서 급식				
	(2)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				
	(3)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4) 즉석 조리코너 판매 형태				
	(5)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1)	(2)	(3)	(4)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0) 모르겠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B5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하십시오.]

B5. OO님께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주체들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R	관리 주체				B5
	(1) 중앙정부(농식품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2)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3) 생산자(기업, 단체)				
	(4) 유통 및 판매업체				
	(5) 소비자 자신				
	(6) 학교				
	(7) 소비자단체				
	(8) 언론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C. 식품 표시사항

※ 다음으로는 "식품 표시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C1. OO님께서 식품 구매 시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을 보시나요?

- (1) 전혀 안 본다 → [C3으로 가시오] (4) 보는 편이다
 (2) 거의 안 보는 편이다 (5) 거의 매번 본다
 (3)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C2. 다음은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OO님께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확인하시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 (1) 유통기한 (7) 내용량 (13) HACCP 표시
 (2) 원산지표시 (8) 제조업자명(판매업자명)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표시)
 (3) 첨가물 (9) 브랜드 (14) 가격
 (4) 원재료명 (10) 전통식품인증 표시 (15) 영양 표시
 (5) GM식품 표시 (11) KS 표시 (16) 등급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12) 지자체 등 기타인증 표시 (17) 기타 (기록 :)
 (6) 보존방법(예: 냉동보관 등)

C3. 전반적인 식품의 표시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C4. OO님께서 식품표시에 대해 신뢰하시나요?

(1)	(2)	(3)	(4)	(5)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C4에서 "(1)~(2)"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C4-1. OO님께서 식품표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1) 표시절차나 검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
 (2)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상품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3) 표시가 너무 많아서 믿음이 가지 않음
 (4)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5) 기타 (기록 :)

[C5는 아래의 표에 항목별로 기록해 주세요.]

C5. 다음의 각 보기에 대해 OO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기록해 주세요.

1년 전과 비교 시 변함이 없다면 (3)으로 응답해 주세요.

R	표시 이용도 및 신뢰도	C5
	(1) 1년 전에 비해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2) 1년 전에 비해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에 표시된 것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D. 식품 관련 교육/홍보/정보

※ 다음으로는 "식품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및 정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D1. 음식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 바람직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 | |
|---------------------|----------|
| (1) 유아기 | (5) 고교생 |
| (2)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6) 대학생 |
| (3)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7) 필요없음 |
| (4) 중학생 | |

D2. OO님께서 식품에 대한 품질이나 식생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우선순위 두 곳을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판매자 | (8)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나 행사(교육 등) 참가 |
| (2) 주위 사람 | (9) 학교 |
| (3) 포장지 표시나 문구 | (10) 의학전문가(의사, 간호사 등) |
| (4) 방송(TV, 라디오 등) → [D2-1로 가시오] | (11) 교회 등 종교단체 |
| (5) 광고문구(전철, 신문, 잡지 등) | (12) 건강관련 단체 |
| (6) 인터넷 블로그 또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 (13) 식품전시회/박람회 |
| (7) 정부기관 홈페이지 | (14) 기타 (기록 :) |

(D2에서 (4)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D2-1.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 중 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요리관련 방송 | (4) TV 또는 라디오상의 공공발표 또는 캠페인 광고 |
| (2) TV 또는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 | (5) 기타 (기록 :) |
| (3) 토크쇼 | |

E. 식품 관련 피해/구제

※ 지금부터는 "식품 관련 피해와 구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E1. 최근 1년 이내에 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 | |
|-------|----------------------|
| (1) 예 | (2) 아니오 → [F1으로 가시오] |
|-------|----------------------|

(E1-1~E1-6은 E1에서 (1)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E1-1. 식품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피해를 경험하셨나요? (복수 응답)

- | | |
|--|--|
| (1) 이물질혼입 | |
| (2) 품질불량 (중량 미달, 상했거나 신선도가 떨어진 상품을 구입한 경우) | |
| (3) 과대광고 (식품의 기능성, 효능에 대한 허위 및 과대 광고) | |
| (4) 허위표시 (유통기한, 함량, 영양성분, 원산지 표시항목의 누락 및 허위기재) | |
| (5) 건강상의 문제 발생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발생 등) | |
| (6) 바가지요금 | |
| (7) 기타 (기록 :) | |

E1-2. 어떤 종류의 식품에 대해 피해를 입으셨나요?

보기 중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록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농산물 | (6) 외식(음식점) |
| (2) 축산물 | (7) 배달음식 |
| (3) 수산물 | (8) 급식 |
| (4) 가공식품(종류 :) | (9) 기타 (기록 :) |
| (5) 조리식품 | |

E1-3. 피해를 입은 식품은 어디에서 구입하신 것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슈퍼 | (6) 친환경전문점 |
| (2) 재래시장 | (7) 음식점 |
| (3) 백화점 | (8) 급식 식당 |
| (4) 대형할인매장 | (9) 기타 (기록 :) |
| (5) 통신판매(인터넷, 전화주문 등) | |

E1-4. 식품 관련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복수 응답)

- | | |
|-------------------------------------|----------------|
| (1) 생산자(업체)에 불만제기 | → [E1-6으로 가시오] |
| (2) 구입처에 불만제기 | |
| (3) 소비자단체 상담센터에 의뢰 | |
| (4) 공공기관에 제보 및 신고 | |
| (5) 인터넷에 사례를 공유하거나 언론에 제보 | |
| (6) 그냥 지나쳤다 | → [E1-5로 가시오] |
| (7) 기타 (기록 :) | → [E1-6으로 가시오] |

(E1-4에서 "(6)그냥 지나쳤다"가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E1-5.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 | | |
|-------------|-------------------------------------|
| (1) 귀찮아서 | (4)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
| (2) 시간이 걸려서 | (5) 어디에 상담해야 좋을지 몰라서 |
| (3) 비용이 들어서 | (6) 기타 (기록 :) |

(E1-4에서 (1)~(5) 및 (7)이 응답된 경우에만 기록해 주세요.)

E1-6. 식품 피해(불만)에 대한 처리(조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1)	(2)	(3)	(4)	(5)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F.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지금부터는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F1. 다음 중에서 식품 관련 소비자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식품안전 보장 | (4) 식품관련 교육 및 홍보 |
| (2) 식품관련 거래 적정화 | (5) 식품 표시정보의 제공 |
| (3) 식품관련 피해구제 | (6) 기타 (기록 :) |

F2. OO님께서서는 정부차원에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음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응답)

- | | |
|-------------------|----------------|
| (1) 부당 사업자 처벌 단속 | (5) 교육 및 홍보 |
| (2)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 (6) 국제소비자문제대응 |
| (3) 조사연구 | (7) 정책개발 및 추진 |
| (4) 정보수집 및 제공 | (8) 기타 (기록 :) |

F3. OO님께서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식품관련 소비자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정도를 100점 만점에 대한 점수로 평가해 주세요.

_____ 점

F4. 국민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가 어떤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보기를 보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정책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식품 안전관리로 질병(식중독, 비만, 암 등) 예방 | (4) 균형있는 식품·영양공급으로 소비자건강 향상 |
| (2) 식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 (5)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홍보 |
| (3)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체계 구축 | |

배경 질문

※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해 몇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BA1. 현재 OO님의 키와 체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키 _____ cm 체중 _____ kg

BA2. 체중 조절(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BA3. 체중 조절(다이어트)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예 (2) 아니오

BA4.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1) 예 (2) 아니오

BA5. 용돈 중에서 식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하루 평균 얼마정도인가요?

간식비와 밥을 사먹는 데 드는 비용을 합산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교 급식비는 제외합니다.

- | | |
|------------|--------------|
| (1) 1천원 미만 | (6) 9천원~만원대 |
| (2) 1~2천원대 | (7) 만원~만5천원 |
| (3) 3~4천원대 | (8) 만5천원~2만원 |
| (4) 5~6천원대 | (9) 2만원이상 |
| (5) 7~8천원대 | |

BA6. OO님께서도 작년에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응답해주셨는가요?

(1) 예 (2) 아니오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이름 : _____ 주소 : _____시 _____구 _____동 _____ 전화 : () _____ HP : _____ 면접장소 : _____
검증원	이름 : _____ 검증일시 : 2014년 ____월__일 (오전/오후)____시__분 검증결과 : (1) 합격 (2) 보완 (3) 불합격 불합격 이유 : _____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